한국어학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Center for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ersity

제81차 한국어학회·한국어문교육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새로운 한국어 문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체계기능언어학의 유용성 탐색
한국어학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제81차
한국어학회·한국어문교육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새로운 한국어 문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체계기능언어학의 유용성 탐색

2021년 8월 18일(수)
고려대학교 대강당 한국일보홀

주최 및 주관: 한국어학회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Center for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Education, Korea University

第81次 한국어학회 ·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일시 : 2021년 8월 18일(수)

주최 : 한국어학회,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주관 : 한국어학회, 한국어문교육연구소

▣ 한국어학회 · 한국어문교육연구소 공동 전국학술대회 ▣

- 주 제: 새로운 한국어 문법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체계기능언어학의 유용성 탐색
- 일 시: 2021년 8월 18일(수)
- 일 정

09:20~09:30 (10분)	개회 개회사: 한정한(한국어학회장) · 김유범(한국어문교육연구소장)	사회: 이영제 (고려대)
	개인 발표	사회: 김현주 (공주교대)
09:30~10:00 (30분)	(1) 한국어 최소대립 문장쌍에 대한 딥러닝 실험 ■ 발표: 박권식·김성태·송상헌(고려대) ■ 토론: 이용훈(충남대)	·············· 07
10:00~10:30 (30분)	(2) '한글 맞춤법'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 고찰과 해설 개정 방향 제안 -언어 비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 발표: 백준영(연세대) ■ 토론: 공나형(광주교대)	
	10:30~10:40(10분) 휴 식	
10:40~11:10 (30분)	(3) 근대 번역어 '衛生'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 발표: 티엔위(전남대) ■ 토론: 도재학(경기대)	·············· 39
11:10~11:40 (30분)	(4) 인공지능 번역기에서 나타난 의미 오류 고찰 ■ 발표: 정유남(중앙대), 강아름(한경대) ■ 토론: 김혜영(공주교대)	·············· 61
	11:40~13:00(80분) 점심 식사	
13:00~13:10 (10분)	학범 박승빈 학술상 시상식	사회: 유혜원 (단국대)
13:10~13:20 (10분)	축 사	
13:20~13:40 (20분)	기획 특강 - 저술상 수상자 특강	
	기획 발표	사회: 이동혁 (부산교대)
13:40~14:20 (40분)	기조강연: 할리데이의 생애를 통해 본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징 ■ 발표: 이관규(고려대)	·············· 89
14:20~15:00 (40분)	(1)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의 활용 양상과 쟁점 ■ 발표: 신희성(고려대)	············ 117
	15:00~15:10(10분) 휴 식	
15:10~15:50 (40분)	(2) 체계기능언어학과 문법 교육 ■ 발표: 조진수(전남대)	············ 143
15:50~16:30 (40분)	(3) 체계기능언어학과 문법적 은유 -문법적 은유의 지식 구성적 기능을 중심으로- ■ 발표: 소지영(경희대)	············ 159
16:30~17:10 (40분)	(4) 초등학생.중학생 텍스트에서 경험적 대기능의 발달 연구 -장르별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 발표: 정지현·노하늘·정혜현(고려대)	············ 183
	17:10~17:20(10분) 휴 식	
17:20~18:20 (60분)	종합토론 ■ 유혜원(단국대), 제민경(춘천교대), 김윤신(인천대), 박종관(공주교대), 이관희(서울교대)	좌장: 정주리 (동서울대)
18:20~18:50 (30분)	연구윤리교육 및 폐회 폐회사: 한정한(한국어학회장)	사회: 이영제 (고려대)

第81次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개인 발표>

◑ 한국어 최소대립 문장쌍에 대한 딥러닝 실험

박권식·김성태·송상헌(고려대)

◑ ‘한글 맞춤법’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 고찰과 해설 개정 방향 제안 -언어 비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백준영(연세대)

◑ 근대 번역어 ‘衛生’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티엔위(전남대)

◑ 인공지능 번역기에서 나타난 의미 오류 고찰

정유남(중앙대), 강아름(한경대)

한국어 최소대립 문장쌍에 대한 딥러닝 실험

박권식 & 김성태 & 송상헌 (고려대학교)

2021.08.18 제 81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목 차

■ 서론

■ 연구 방법

■ 연구 결과

■ 논의 및 결론

서론

서론

■ 연구 목적 (1)

- 한국어 최소대립 문장쌍에 대하여 딥러닝 모델이 한 쌍의 문장 가운데 더 통사적으로 정규적인 문장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검증함
  - 통사 연구와 딥러닝 실험에서 최소대립 문장쌍을 활용하는 것이 이점이 있음(Marvin & Linzen, 2018)
  - 최소대립 문장쌍을 활용한 연구가 영어 자료에 비해 한국어 자료에 대하여는 다소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음(Park 외, 2021; Warstadt 외, 2020; Marvin & Linzen, 2018 등)

서론

• 최소대립 문장쌍 판단 결과(데이터: 모두의 말뭉치/ 모델: KR-BERT, task: 이분지 분류)

가. 철수가 걷지를 않는다. (정문일 확률 99.31%)

나. *철수가 걷지가 않는다.(정문일 확률 4.41%)

(엄홍준, 2008)

서론

■ 연구 목적 (2)

• 정부 차원에서 구축된 딥러닝 모델 학습 및 개발용 한국어 데이터의 연구 활용 방법론과 그 실효성을 살펴봄

  • 국립국어원: '문법성 판단 말뭉치'

연구 방법

연구 방법

■ 데이터 (1)

- 문법성 판단 말뭉치(국립국어원) (참고: Warstadt 외, 2018)
  - 17,908문장
    - 국어학 및 언어학 유관 학술 간행물, 총 36종
    - Training(in domain): 15,876문장
    - Validation(in domain/out-of-domain): 1060/972문장
    - Acceptable: 8,983문장 / Unacceptable: 8,925문장
  - 일반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수용성 판단 결과 제공(평균/표준편차)
    - 유효 언어 실험 참여자수: 26,253명

연구 방법

■ 모델

- mBERT (Multilingual BERT; Devlin 외, 2019)
  - 104개 언어의 Wikipedia 말뭉치로 사전 훈련
  - vocab size: 119,547 / parameter size: 167,356,416
- KR-BERT (KoRean based BERT pre-trained; Lee 외, 2020)
  - vocab size: 16,424 / parameter size: 99,265,066
- KoBERT (Korean BERT pre-trained cased; SKT)
  - vocab size: 8,002 / parameter size: 92,186,880

연구 방법

■ 모델

- 훈련
  - Multi-label classification (7개 분류)
    - 모국어 화자 7점 척도 판단결과(평균)로 훈련
  - Binary classification
    - 문헌에 제시된 전문가의 이분지 판단 결과로 훈련
- 검증
  - Multi-label classification 척도: Pearson/Spearman
  - Binary classification 척도: MCC(Matthews correlation coefficient)

연구 방법

■ 언어실험

- 실험 목적
  - 문법성 판단 말뭉치의 정문-비문 구분에 대한 적절성(paired t-test)
  - 문법성 판단 말뭉치에서 제시된 수용성 판단 결과와의 수렴률 확인 (regression)
- 한국어 모국어 화자 79명
  - outlier 36명의 데이터 제외
- 실험 문장: 200개 문장
  - validation: in domain 50쌍
  - validation: out-of-domain 50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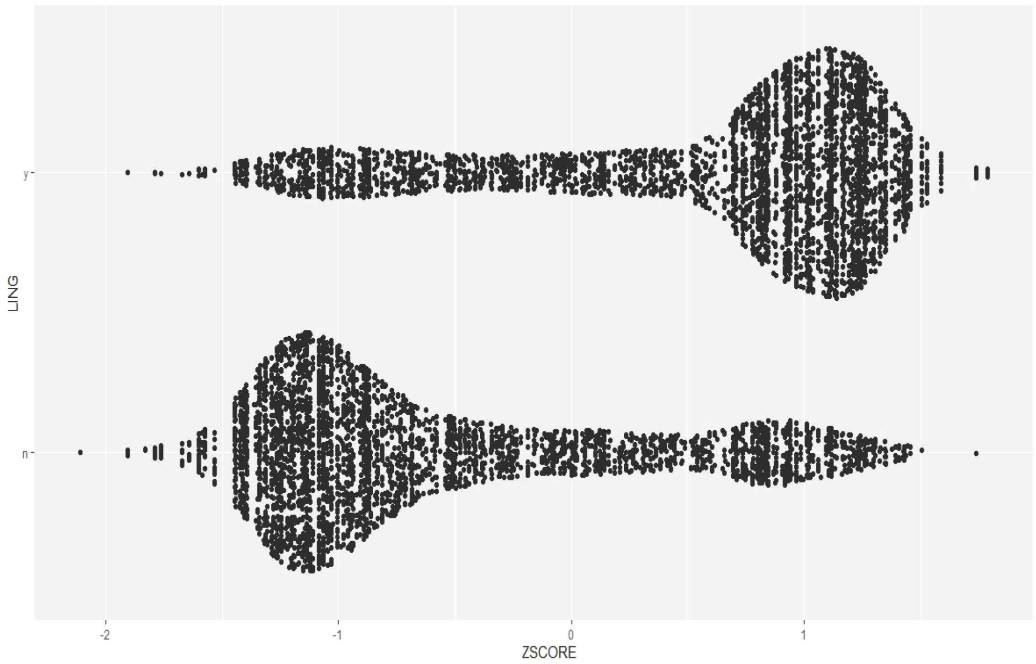
연구 결과

연구 결과

■ 언어 실험

1. Paired t-test
   - 89/100쌍 통과

IDX	p-value	본 연구의 언어실험 결과(z-score)	문법성 판단 말뭉치 언어실험 결과	
T01585	0.07297	0.359149	5.144	철수가 올 듯싶거든, 나가 보아라.
		0.1664766	5.248	철수가 올 모양이거든, 나가 보아라.
T02718	0.08061	0.7450182	6.223	그의 성실함이 나는 겁난다.
		0.6258222	5.486	그의 성실함이 나는 섬뜩하다.
T02825	0.8253	0.1526647	4.305	아무도 이 책만 읽지는 않았다.
		0.3079511	5.327	아무도 이 책만 읽지 않았다.
T03232	0.2103	-1.107113	1.736	밥을 먹었기가 쉽다.
		-1.064844	1.758	밥이 먹었기가 쉽다.
T04584	1	-0.81850301	2.425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줘쌓아도 철우는 하나도 고마운 줄 모른다.
		0.04180642	4.905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줘대도 철우는 하나도 고마운 줄 모른다.
T05945	0.6674	-0.4897365	4.429	그가 믿기를, 순희가 옳았다고 믿었다.
		-0.4195989	4.589	그가 믿기에는, 순희가 옳았다고 했다.
T06912	0.6096	-0.9481645	1.901	철수는 아무도 어제 영희가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지 않도록 설득했다.
		-0.903857	2.886	철수는 아무도 어제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하지 않도록 설득했다.
T07579	0.1366	-0.2921393	4.122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기로 이에 표창을 함.
		-0.5116938	4.019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기 이에 표창을 함.
T07797	1	-0.75363987	3.029	투자자들을 살살 돌라서 거금을 투자하게 하다.
		0.07775133	4.394	투자자들을 살살 둘러서 거금을 투자하게 하다.
T08330	0.5583	0.3346391	4.21	철수가 어제 잠잔 것은 이 방이다.
		-0.3072101	4.804	철수가 어제 잠잔 것은 이 방에서이다.
T09089	0.3994	0.8874487	5.886	철수가 와서 안 갔다.
		0.8687913	6.209	철수가 왔다고 해서 안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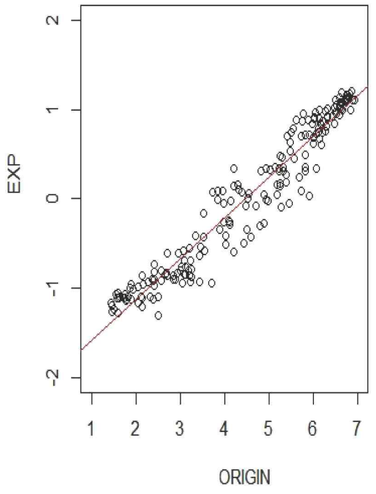
*LING: 문법성 판단 말뭉치에 제시된 국어학 및 언어학 문헌 상의 판단 결과(y: 정문/n: 비문)
**ZSCORE: 본 연구의 언어실험에서의 수용성 판단 결과

연구 결과

■ 언어 실험

1. Paired t-test
   - 89/100쌍 통과

2. Regression
   - Estimate: 0.455721
   - Multiple R-squared: 0.9376
   - $p < 2e\text{-}16$ '***'
   - Correlation: 0.9683199



*EXP: 본 연구의 언어실험에서의 수용성 판단 결과 (z-socre)
**ORIGIN: 문법성 판단 말뭉치에 제시된 언어실험에서의 수용성 판단 결과(7점 척도)

연구 결과

■ 딥러닝 실험

- M-BERT / KR-BERT / KoBERT
  - epoch = 20
  - learning_rate = 1e-05
  - batch_size = 64
  - seq_len = 64
  - dropout_rate=0.1
- 이분지 / 다분지 분류 학습

연구 결과

■ 딥러닝 실험

- 학습 데이터: 정제 vs. 비정제
  - 아래의 계산식에서 두 문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문장만 추출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
  - 정문의 (평균 – 0.98*표준편차) > 비문의 (평균 + 0.98*표준편차): 총 7,532문장
    - 두 문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정문의 (평균 – 0.98*표준편차) < 비문의 (평균 + 0.98*표준편차)
    - 두 문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검증 데이터: 전체 데이터 vs. 최소대립쌍(200문장)

전체 검증 데이터 결과		mBERT		KR-BERT		KoBERT	
		In domain	Out-of-domain	In domain	Out-of-domain	In domain	Out-of-domain
비정제	Binary (MCC)	0.224	0.208	0.414	0.423	0.345	0.344
	Multi-label (Pearson/Spearman)	0.419/0.403	0.334/0.335	0.710/0.714	0.581/0.581	0.629/0.628	0.503/0.503
정제	Binary (MCC)	0.187	0.170	0.374	0.399	0.343	0.359
	Multi-label (Pearson/Spearman)	0.382/0.369	0.369/0.369	0.676/0.679	0.509/0.509	0.563/0.572	0.460/0.460

GLUE benchmark (BINARY) baseline: 0.35 SOTA: 0.75 (Wang 외, 2018)		mBERT		KR-BERT		KoBERT	
		In domain	Out-of-domain	In domain	Out-of-domain	In domain	Out-of-domain
비정제	Binary (MCC)	0.224	0.208	0.414	0.423	0.345	0.344
	Multi-label (Pearson/Spearman)	0.419/0.403	0.334/0.335	0.710/0.714	0.581/0.581	0.629/0.628	0.503/0.503
정제	Binary (MCC)	0.187	0.170	0.374	0.399	0.343	0.359
	Multi-label (Pearson/Spearman)	0.382/0.369	0.369/0.369	0.676/0.679	0.509/0.509	0.563/0.572	0.460/0.460

최소대립쌍 검증 데이터 결과 (200쌍)		mBERT		KR-BERT		KoBERT	
		In domain	Out-of-domain	In domain	Out-of-domain	In domain	Out-of-domain
비정제	Binary (MCC)	0.314	0.311	0.533	0.721	0.370	0.539
	Multi-label (Pearson/Spearman)	0.344/0.345	0.453/0.453	0.632/0.614	0.597/0.597	0.532/0.520	0.512/0.512
정제	Binary (MCC)	0.236	0.371	0.512	0.780	0.405	0.496
	Multi-label (Pearson/Spearman)	0.308/0.289	0.388/0.388	0.603/0.610	0.579/0.579	0.441/0.419	0.496/0.496

GLUE benchmark (BINARY)
baseline: 0.35
SOTA: 0.75

(Wang 외, 2018)

결과		mBERT		KR-BERT		KoBERT	
		In domain	Out-of-domain	In domain	Out-of-domain	In domain	Out-of-domain
비정제	Binary (MCC)	0.314	0.311	0.533	0.721	0.370	0.539
	Multi-label (Pearson/Spearman)	0.344/0.345	0.453/0.453	0.632/0.614	0.597/0.597	0.532/0.520	0.512/0.512
정제	Binary (MCC)	0.236	0.371	0.512	0.780	0.405	0.496
	Multi-label (Pearson/Spearman)	0.308/0.289	0.388/0.388	0.603/0.610	0.579/0.579	0.441/0.419	0.496/0.496

논의 및 결론

논의 및 결론

■ 최소대립문장쌍을 이용한 딥러닝 기반 한국어 통사 연구의 가능성

- 최소대립쌍 검증 데이터의 경우 높은 수준의 MCC에 도달(KR-BERT)
- 수용성 판단 결과 데이터(평균)을 활용한 다분지 분류 모델 구현 가능

■ 문법성 판단 말뭉치의 연구 활용 가능성

- 국어학 및 언어학 문헌에서 제시된 판단(정문/비문)과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수용성판단 결과가 상당부분 일치하여 학습 데이터로 활용 가능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음
- Fine-tuning을 위한 학습 데이터로 활용 가능
  - 이분지 분류 모델(전문가 판단), 다분지 분류 모델(일반 언어사용자 판단)
- 본 연구의 정제된 훈련 데이터 사용은 결과 향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움

논의 및 결론

■ 추후연구

- 생성문법연구 24개년 간 출현된 최소대립문장쌍을 검증 데이터로 활용
- 다분지 및 이분지 분류 모델의 softmax 출력값을 이용한 판단 양상 분석

논의 및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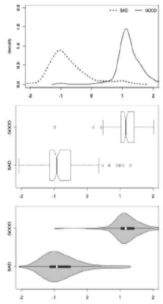
■ 추후연구 - 데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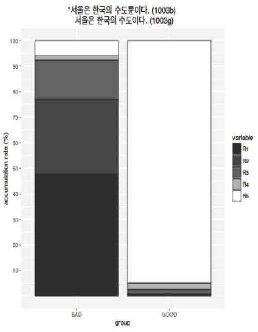
- 생성문법연구 학술지 24개년 간 자료(1914-2017) (Song&Oh, 2017)
  - 최소대립 문장쌍(287쌍)
  - 일반 한국어 모국어 화자의 수용성 판단 결과
    - 5점 리커트척도법(5-point Likert scale)
    - 양자택일법(two-alternative forced-choice)
    - 가부판단법(binary Yes/No task)

- Song&Oh(2017)에서 제시된 각 문장쌍에 대한 수용성 판단 실험 결과 자료

#1003 (24.1.281-306.txt)
두 가지 유형의 소위 한국어 동격 구문*

Likert Scale (5-point) (r_{pb}: 0.8804749, r_{pb}^2: 0.775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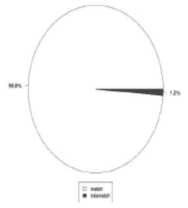
T-Test: pass (2.87019e-56, <0.001)
Fisher's exact Test: pass (1.75010501099789e-51, <0.001)
κ Test: pass (0.888888888888889, almost perfect)

pattern: 1

	$good_S$	bad_S
$good_L$	116	1
bad_L	12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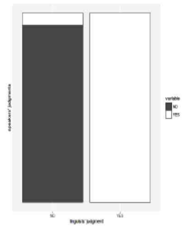
	$good_S$	bad_S
$good_L$	✓	
bad_L		✓

Forced Choice (r_{φ}: 0.98, r_{φ}^2: 0.9604)
Fisher's exact Test: pass (1.19126389198e-45)
κ Test: pass (0.975903614458)



	$good_S$	bad_S
$good_L$	82	1
bad_L	1	82

Binary Yes/No (r_{φ}: 0.94, r_{φ}^2: 0.8836)
Fisher's exact Test: pass (2.7293905445e-45)
κ Test: pass (0.934065934066)



	$good_S$	bad_S
$good_L$	91	0
bad_L	6	85

논의 및 결론

■ 추후연구 - 모델

- mBERT (Multilingual BERT; Devlin 외, 2019)
- KR-BERT (KoRean based BERT pre-trained; Lee 외, 2020)
- KoBERT (Korean BERT pre-trained cased; SKT)

- 훈련
  - Multi-label classification (7개 분류)
    - 5점 척도 판단결과와 비교
  - Binary classification
    - 양자택일법/가부판단법 판단결과와 비교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엄홍준. (2008). 장형 부정 구문의 격 교체에 대한 재고찰. *언어, 33*(1), 55-77.
- Devlin, J., Chang, M. W., Lee, K. and Toutanova, K. (2019). Bert: Pre-training of deep bidirectional transformers for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10.04805.*
- Lee, S., Jang, H., Baik, Y., Park, S., & Shin, H. (2020). Kr-bert: A small-scale korean-specific language model. *arXiv preprint arXiv:2008.03979.*
- Marvin, R. and Linzen, T. (2018). Targeted syntactic evaluation of language models. *arXiv preprint arXiv:1808.09031.*
- Park, K., Park, M., and Song, S. (2021). Deep learning can contrast the minimal pairs of syntactic data. *Linguistic Research, 38*(2), 395-424.
- Song, S. and Oh, E. (2017). What do you mean by contrast in syntax?. *Linguistic Research* 34(3), 387-426.
- Wang, A., Singh, A., Michael, J., Hill, F., Levy, O., and Bowman, S. R. (2018). GLUE: A multi-task benchmark and analysis platform for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arXiv preprint arXiv:1804.07461.*
- Warstadt, A., Parrish, A., Liu, H., Mohananey, A., Peng, W., Wang, S. F., and Bowman, S. R. (2020). BLiMP: The benchmark of linguistic minimal pairs for English. *Transaction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8,* 377-392.
- Warstadt, A., Singh, A. and Bowman, S. R. (2019). Neural network acceptability judgments. *Transaction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7, 625-641.

감사합니다

<한국어 최소대립 문장쌍에 대한 딥러닝 실험>에 대한 토론문

이용훈(충남대)

1. 본 논문은 최근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어의 통사현상에 대하여 최소대립쌍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논문이다. 본 논문은 딥러닝 기법을 어떻게 언어연구에 (특히, 통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논문으로 생각됩니다.

2. 본 논문에서는 세가지 다른 형태의 BERT(mBERT, KR-BERT, 그리고 KoBERT)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각각의 BERT모델은 한국어 통사현상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3. 발표자분들도 아시겠지만, BERT는 Encoder-Decoder 구조에서 Encoder쪽 Architecture를 택하고 있습니다. 만약, Decoder쪽 Architecture를 택하고 있는 GPT나, Encoder-Decoder 구조를 모두 취하고 있는 XLNet 등의 BERT 이후의 모델로 학습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글 맞춤법’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 고찰과 해설 개정 방향 제안
- 언어 비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 -

백준영(연세대)

요약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 더불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언어 규범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의 존재 의미와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한글 맞춤법’이 정부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언어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은 규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언어 전공자가 아닌 언어 사용자들이 이해하기 난해한 내용을 다루는 낯선 언어 규범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중 언중들에게 ‘한글 맞춤법’이 낯선 언어 규범으로 자리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존 ‘한글 맞춤법’에 관해 선행된 연구 중 ‘한글 맞춤법’ 조항에 지나치게 문법 개념 용어들이 기술되었다는 주장을 발전시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 맞춤법’에 대해 낯설게 느끼며, 조항에 기술된 문법 용어 개념 이해에 관해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언어 규범으로 ‘한글 맞춤법’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개정의 방향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조항에 제시된 문법 용어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을 해설에 추가한다. 둘째, 언어 전공자가 아닌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략한 문법 개념집을 제작한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을 통해 ‘한글 맞춤법’이 더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언어 규범이 아닌, 많은 언어 사용자들이 쉽게 접하고 누릴 수 있는 언어 규범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1. 서론

언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집단에서는 국가 안에서 균질한 언어의 사용은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적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또한, 국가 구성원들의 사회화를 위한 교육에서도 정제된 언어는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듬어진 언어, 틀을 갖춘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말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제정된 대표적인 언어 규범은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 ‘한글 맞춤법’이 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표기하기 위한 언어 규범으로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시작으로 1988년에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이 언어 규범은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과 같이 공교육 문법 영역에서도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통일된 우리말 표기라는 중요한 방향성을 담고 있는 '한글 맞춤법'은 제정되고 고시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지적받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 '한글 맞춤법'의 총칙 즉 '한글 맞춤법' 원리에 대한 것으로, 제1항에 기술된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조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언어 전공자가 아닌 언어 사용자들에게 한글 맞춤법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의 대상으로 다뤄지는 '한글 맞춤법'이 아닌 언중의 실제 삶에서 인식하고 지켜야 하는 언어 규범인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리라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문제 중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 맞춤법'을 낯설게 인식하고 혹은 규범의 존재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된 연구 중 '한글 맞춤법' 조항에 지나치게 문법 개념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지적을 발전시켜 해당 내용을 언어 사용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이 연구의 중심 논의는 언어 전공자가 아닌 언어 사용자들이 바라보는'한글 맞춤법'에 대한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언어 사용자들이'한글 맞춤법' 조항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향성에 따라 '한글 맞춤법'에 대해 선행된 연구 중 연구자가 바라보는 '한글 맞춤법'의 지나친 문법 개념 용어 사용에 대한 것과 '한글 맞춤법' 조항에 대한 언어 사용자들의 태도 연구를 살펴보았다.

정희창(2015)은 '한글 맞춤법' 제15항에 기술된 '어간과 어미', '종결형 어미', '연결형 어미'와 같은 문법 개념 용어가 표기 환경을 밝히기 위한 측면으로 기술되었지만 '한글 맞춤법' 총칙에서 밝히는 어법에 대해 순수하게 기술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한글 맞춤법'의 모든 조항을 살펴보면 정희창(2015)에서 지적한 제15항 외에도 문법 개념 용어가 다수 기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언어 전공자가 아닌 언어 사용자가 조항을 접했을 때 내용의 의미 수용이 어려웠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미미하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2018년 '한글 맞춤법 해설'이 발간되었다. 이지수(2018)는'한글 맞춤법 해설'에 대해 언어 현실 반영을 위한 측면에서 해설의 가치를 평가하며, 그 내용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지점이 있지만, 교육적으로 다뤄질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정희창(2018) 또한 '한글 맞춤법 해설'에 대해 분석하고 고찰하며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두 연구 모두'한글 맞춤법'에 대해 문법적인 고찰 측면에서 언어 연구자 관점을 제시할 뿐 언어 사용자들의 수용에서의 이해도에 대한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조사의 중요성을 말하며 이관규·주세형·정지현(2015)

은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와 수용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고 밝힌다. 이 연구를 통해‘한글 맞춤법’ 조항별 일반인의 수용 척도를 확인했지만, 이때 각 조항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에 대한 이해를 확인하는 내용이 없었기에 조항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용어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발생하는 것인지 조항 자체에 대해 수용하지 못하는 것인지 밝히지 못했다.

선행된 연구를 통해 ‘한글 맞춤법’에 지나친 문법 개념 용어 기술에 대한 문제를 살필 수 있었지만, 용어 사용 정도와 함께 여전히 이 문제를 확인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한글 맞춤법’이 지닌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발간된 ‘한글 맞춤법 해설’의 역시 이러한 문법 개념의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것과 여전히 언어 전공자가 아닌 언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 맞춤법’ 조항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에 대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제시된 용어에 대해 정확히 그 의미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설문 조사 방법

이 연구의 조사 대상은 10대에서 50대로 무작위 선정,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6월 21일에서 6월 22일로 1일간,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 정책으로 인해 대면 조사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구글 설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3.1. 설문 조사 설계

조항	내용	문법 개념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법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음절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두음 법칙, 의존 명사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합성어
제11항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접두사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체언, 조사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용언, 어간, 어미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접미사, 품사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부사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사이시옷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보조 용언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예사소리

<표 1> 조항별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

'한글 맞춤법' 조항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에 대한 언어 사용자들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조항별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를 확인하였다. 중복되는 개념을 제외하고 확인된 것은 총 17개의 문법 개념이었다. 해당하는 내용과 개념을 정리하여 설문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의 질문은 제시된 조항 내용과 함께 문법 개념 용어를 읽었을 때 정확히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다.

3.2. 설문 조사 결과와 분석

세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표본	8(10.3%)	13(16.7%)	49(62.8%)	7(9%)	1(1.3%)
전체 표본	78				

<표 2> 응답자 나이

설문 조사에 응답한 나이별 비율은 10대 8명(10.3%), 20대 13명(16%), 30대 49명(62.8%), 40대 7명(9%), 50대 1명(1.3%)이었다. 대면 설문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기에 필자의 지인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설문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전 세대의 비슷한 비율의 응답이 아닌, 필자의 나이와 비슷한 30대의 응답자 수가 과반수가 된다는 것이 조사 결과에 대한 한계로 존재하였다.

최종 학력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이상 졸업
표본	8(10.3%)	4(5.1%)	56(71.8%)	10(12.8%)
전체 표본	78			

<표 3> 응답자 최종 학력

설문 문항에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학력이 이번 설문 조사에서 변

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글 맞춤법'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학교 교육 내용으로 다뤄지는 교육적 대상이다. 그러나 이기연(2019)에 따르면 학교 교육 내에서 문법 교육은 중요한 대상으로 다뤄지지만, 삶에서 필요한 모든 문법적 내용을 다룰 수 없고 나아가 교육 내용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여 언어 규범의 규정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최종 학력을 확인하여 문법 개념 용어를 알고 있는 것과 학력 간 연관성이 낮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였다.

응답	예	아니요
표본	23(29.1%)	56(70.9%)
전체 표본	79	

<표 4> 언어 규범에 관한 관심 여부

'한글 맞춤법'의 조항과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에 관한 확인을 하기 전 우선 평소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언어 규범에 관해 관심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문항에 대해 '에'라고 응답한 사람은 23명(29.1%),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은 56명(70.9%)으로 반수가 훨씬 넘는 응답자가 언어 규범에 관해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언어 규범에 관해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그 이유에 관해 물었을 때 '업무와 관련이 있어 실무에 적용하기 위함', '보고서 작성을 위해'라고 업무상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에서 답한 응답자 가장 많았다.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이러한 규범이 존재하는지 몰랐다','실제 생활에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답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이 업무와 관련된 영역이 아닌 실제 삶에서는 언어 규범 자체에 관한 관심을 가지기 힘들며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규범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언어 규범의 존재 의의와 가치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이 존재하리라 생각된다. 그렇기에 언어 연구자만이 아닌 언어 사용자 전반이 호응할 수 있는 규범으로 '한글 맞춤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그 방향 이전에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 맞춤법'을 접했을 때 제대로 그 조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항	내용	용어	예	아니요
1	제1항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어법	38%	62%
2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음절	57.7%	42.3%
3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두음 법칙	69.2%	28.2%

4		버림.)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의존 명사	26.9%	69.2%
5	제10항 [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합성어	39%	61%
6	제11항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접두사	45.5%	54.5%
7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체언	25%	72.4%
8			조사	55.3%	43.4%
9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용언	26%	71.4%
10			어간	49.4%	48.1%
11			어미	59.7%	37.7%
12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접미사	49.4%	49.4%
13			품사	51.9%	45.5%
14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부사	45.5%	54.5%
15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	사이시옷	49.4%	50.6%
16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보조 용언	16.9%	83.1%
17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	예사소리	16.7%	83.3%

<표 5> '한글 맞춤법' 조항 내용과 문법 개념 용어 확인

'한글 맞춤법' 조항 내용과 문법 개념 용어의 확인 문항은 총 17개로 구성이 되었다. 조항별 내용을 제시하고 그 안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를 정확하게 의미 파악이 가능한가에 대한 응답은 '예'와 '아니요'로 구성했다. 응답의 경우 단답형으로 구성한 배경에는 언어 전공자가 아닌 언어 사용자들에게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간단한 인터뷰를 했을 때 '한글 맞춤법' 조항 자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난해하다고 느껴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조항 내용과 관련하여 문법 개념 용어의 의미 파악을 목적으로 둔 조사이므로 조항 내용을 삭제하지 못하고 함께 제시하였지만, 그에 대한 응답을 간략하게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 17개의 문법 개념 용어 중'음절', '두음 법칙', '조사', '어간', '접미사'를 제외한, 제시된 문법 개념 용어에 대해 과반수가 모른다는 답을 했다. '체언'과 '용언'의 경우 70% 이상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고, '보조 용언'과' 예사소리'의 경우는 모른다는 응답이 83% 이상이 되었다.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문법 개념 용어 중 '두음 법칙'을 제외하면 '음절', '조사', '어간', '접미사'는 의미를 알고 있다는 응답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간소한 차이였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 기술된 문법 개념에 대한 언어 사용자들의 이해가 미흡하다는 것을 조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인한 결과는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 맞춤법'에 관심을

가지고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을 하고자 하여도 조항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결국 ‘한글 맞춤법’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 언어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4. 한글 맞춤법 개정 방향 제안

설문 조사를 통해 언어 전공자가 아닌 대다수의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조항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배경에는‘한글 맞춤법’ 조항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의 의미를 알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문제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두 가지로 말하고자 한다. ‘한글 맞춤법 해설’ 개정과 간략화된 문법 개념집 제시에 대한 것이다.

먼저 정희창(2015)에서는 ‘한글 맞춤법’ 조항 자체에 대한 수정은 복잡한 원리 체계를 수정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한글 맞춤법 해설’을 개정하여 ‘한글 맞춤법’이 지닌 문제점 규정의 모호함을 비롯하여 여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2018년 발간된 ‘한글 맞춤법 해설’을 통해 국립국어원은 계속해서 지적받던 규정 원리에 대해 밝히고, 나아가 규정을 접하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필요하다 여겨지는 개념어와 명칭 유래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더 알아보기’로 표기하여 기술했다. 그렇게 기술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더 알아보기

• ‘어법(語法)’의 의미

한글 맞춤법에서 사용되는 ‘어법’과 일반적인 의미의 ‘어법’은 개념이 다르다. 한글 맞춤법에서 말하는 ‘어법’은 표준어를 어떻게 적을지를 정해 놓은 것으로, 표기와 관련된 원리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의 ‘어법’은 ‘말의 일정한 법칙’이라는 뜻으로 적용 범위가 무척 넓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동생이 밥을 먹는다.”라는 문장에서는 여러 가지 규칙을 찾아볼 수 있다. 서술어 ‘먹는다’는 주어와 목적어가 필요하며, 주어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동생’에는 조사 ‘가’가 아니라 ‘이’가 붙어야 하고, 목적어의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 ‘밥’에는 조사 ‘를’이 아니라 ‘을’이 붙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규칙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소리를 내고,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수없이 많은 규칙이 필요하다. 이처럼 언어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규칙을 폭넓게 ‘어법(語法)’이라고 한다.

<그림 1> ‘한글 맞춤법 해설’에 기술된 ‘어법’의 의미

더 알아보기

▪ **한글 자모 명칭의 유래**

한글 자모의 수, 순서, 이름은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 (1527)"에서 비롯한다. 최세진은 "훈몽자회" 범례(凡例)에서 한글 자모가 초성에 쓰인 것과 종성에 쓰인 것을 짝을 지어 표시했는데, 그것이 자모의 이름으로 이어졌다.

初聲終聲通用八字
ㄱ其役 ㄴ尼隱 ㄷ池末 ㄹ梨乙 ㅁ眉音 ㅂ非邑 ㅅ時衣 ㆁ異凝
末衣兩字只取本字之釋俚語爲聲
其尼池梨眉非時異八音用於初聲
役隱末乙音邑衣凝八音用於終聲

초성과 종성에 두루 쓰이는 여덟 자
ㄱ기역 ㄴ니은 ㄷ디귿 ㄹ리을 ㅁ미음 ㅂ비읍 ㅅ시옷 ㆁ이응
末衣 두 자는 다만 그 글자의 우리말 뜻을 취해 소리로 사용한다.
기니디리미비시이 여덟 음은 초성에 사용되고,
역은귿을음읍옷응 여덟 음은 종성에 사용된다.

"훈몽자회" 범례

자모의 이름 가운데 'ㄱ, ㄷ, ㅅ'의 명칭이 다른 자모의 이름과 다른 것은 한자에는 '윽, 읃, 읏'과 같은 발음을 가진 글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윽'은 가까운 발음인 '役(역)'으로 표시하여 'ㄱ'은 '기역'이 되었다. 그리고 '읃'과 '읏'은 각각 '末(귿 말)'과 '衣(옷 의)'로 표기하고, 두 글자는 글자의 의미만을 취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ㄷ'의 명칭은 '디귿'이, 'ㅅ'의 명칭은 '시옷'이 된 것이다.

'ㅈ, ㅊ, ㅋ, ㅌ, ㅍ, ㅎ'은 당시 종성으로 쓰이지 않던 것들이어서 초성에 모음 'ㅣ'를 붙인 '지, 치, 키, 티, 피, 히'로만 음가를 나타내 주었는데, 1933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에서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읖, 히읗'과 같은 이름이 확정되었다.

<그림 2> '한글 맞춤법 해설'에 기술된 한글 자모 명칭의 유래

더 알아보기

▪ **형태소(形態素)란?**

'형태소'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한다. 국어에서 'ㅂ'이나 'ㅣ' 등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태소가 될 수 없지만 '비'가 되면 뜻을 이루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가 된다. '책가방'은 '책'과 '가방'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쪼개지기 때문에 형태소는 '책가방'이 아니라 '책'과 '가방'이다. 더 작은 단위로 쪼개진다고 해도 쪼갰을 때 의미가 없어지거나 쪼개기 전의 의미와 관련되는 의미가 없어지면 안 된다. '나비'는 '나'와 '비'로 쪼개어지지만 이때 '나'와 '비'는 '나비'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나비'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의미 단위, 즉 형태소가 된다.

<그림 3> '한글 맞춤법 해설'에 기술된 형태소의 개념

'어법'의 의미와 한글 자모 명칭의 유래, 형태소의 개념 외에도 두음 법칙의 적용에 대한 내용, 연결형 -이요, '-거라/너라 불규칙'의 소멸, '말다'의 활용형, 피·사동 접미사 결합형 등 국립국어원에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한글 맞춤법 해설'에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들이 문법 개념 자체를 알지 못해 조항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면 문법 개념을 형태소의 개념 제시와 같이 해설 개정을 통해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언어 전공자가 아닌 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간략화된 문법 개념집을 정부 차원에서 배포하는 것이다. 앞서 제시한 이기연(201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 문법에서 다룰 수 있는 문법 개념의 한계가 존재하며, 나아가 문법 개념을 학습하였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언어 사용자들이 느끼는 낯섦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 '한글 맞춤법' 외에도 국가 차원에서 제정되고 시행되는 언어 규범은 다양하다. 이러한 언어 규범이 실효성을 가지고 많은 언어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누릴 수 있는 배경에는 기초 문법에 대한 지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한글 맞춤법 해설' 개정을 통한 문법 개념 용어 기술은 오히려 해설의 분량을 지나치게 늘린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이러한 측면서 간략화된 문법 개념 집을 따로 배포한다면 언어 규범만 시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의 지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5. 결론 및 제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 맞춤법'은 언어 사용자들에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언어 규범으로 존재해 왔다. 그러한 배경에는 언어를 전공하지 않은 언어 사용자가 접했을 때 문법 개념을 숙지하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조항이 기술되었고 그에 대한 해설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먼저 '한글 맞춤법 해설'을 개정하는 것이다. 2018년에 발간된 '해설'은 여전히 언어 사용자들이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느끼는 부분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는 학교 문법을 학습했다는 것을 배제하고 언어 전공자가 아닌 언어 사용자들을 위한 간략화된 문법 개념집을 함께 제시하여 문법 개념과 더불어 '한글 맞춤법'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연구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우선 확인한 언어 사용자들의 인식 조사가 전 국민을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표본 수집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문법 개념 용어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조사 질문에 실제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틈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추가적인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표준어 표기를 위한 언어 규범을 '한글 맞춤법'을 바라볼 때 지나치게 제시된 문법 개념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조항 자체를 수정하기는 쉽지 않기에 조항 수정을 위한 앞으로의 연구가 계속해서 필요한 실정이다.

참고 문헌

이관규·주세형·정지현(2015), <<한글 맞춤법> 쟁점 조항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 조사 연구>, 문법 교육 23, 183-207, 한국문법교육학회.

이기연(2019), <어문규범의 교육 방향 탐색 - 한글맞춤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4(4), 171-203, 국어교육학회.

이지수(2019), <'한글 맞춤법 해설(2018)'의 개정 내용 분석 및 교육적 활용 방안>, 泮橋語文

研究 51, 147-168, 반교어문학회.
정희창(2015), <한글 맞춤법의 비판적 검토와 개정 방향>, 우리말 글 65, 29-46, 우리말글학회.
정희창(2018), <'한글 맞춤법 해설'의 분석과 발전 방향>, 泮橋語文研究 48, 13-31, 반교어문학회.

<부록> '한글 맞춤법'에 기술된 문법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응용언어학 수업의 기말 보고서로 활용될 인식 조사입니다.
언어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한글 맞춤법에 쓰인 문법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문 조사입니다.
개인 정보는 보호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 조사에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요

1.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석사 이상 졸업

3. 평소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언어 규범(규칙)에 관해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요

3.1. (3.에서 ‘예’로 답하신 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3.2. (3.에서 ‘아니오’로 답하신 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4. '한글 맞춤법'이란 어떤 언어 규범(규칙)으로 알고 계십니까?
답변:

5. 한글 맞춤법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항에서 ‘어법’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6. 한글 맞춤법 '제5항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라는 조항에서 '음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7. 한글 맞춤법 '제10항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다만, 다음과 같은 의존 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 '라는 조항에서 '두음 법칙'과 '의존 명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중복 응답)
‘두음 법칙’ 예
‘두음 법칙’ 아니요
‘의존 명사’ 예
‘의존 명사’ 아니요

8. 한글 맞춤법 '제10항[붙임 2]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라는 조항에서 '합성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9.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4]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또는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라는 조항에서 '접두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10. 한글 맞춤법 '제14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조항에서 '체언', '조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중복 응답)
‘체언’ 예
‘체언’ 아니요
‘조사’에
‘조사’ 아니요

11. 한글 맞춤법 '제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라는 조항에서 '용언', '어간', '어미'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중복 응답)
‘용언’ 예
‘용언’ 아니요
‘어간’ 예
‘어간’ 아니요
‘어미’ 예
‘어미’ 아니요

12. 한글 맞춤법 '제19항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에서 '접미사', '품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중복 응답)
'접미사' 예
'접미사' 아니요
'품사' 예
'품사' 아니요

13. 한글 맞춤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라는 조항에서 '부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14. 한글 맞춤법 '제30항 사이시옷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받치어 적는다.'라는 조항에서 '사이시옷'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15.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라는 조항에서 '보조 용언'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16. 한글 맞춤법 '제53항 다음과 같은 어미는 예사소리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라는 조항에서 '예사소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한글 맞춤법'에 기술된 문법 개념 용어 고찰과 해설 개정 방향 제안 - 언어 비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설문 조사를 활용하여->에 대한 토론문

공나형(광주교대)

이 발표는 '한글 맞춤법'을 중심으로, 언어 규범에 대한 대중적 필요성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언중들의 언어적 태도를 살피고 이에 근거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한 연구입니다. 한국은 언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가 주도적 성격을 지닌 나라 중 하나로, 이는 언어 규범을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언중들에게는 어쩔수 없는 심리적 부담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글 맞춤법'은 기초적 문식력을 기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언어 규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언중들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은 좁게는 '한글 맞춤법'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 넓게는 문법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해당 글에서는 독자의 관점에서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했던 점을 기술하는 것으로 토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어문 규범에 대한 필요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발표자께서는 해설의 개선과 해설 수준에 준하는 용어집 발간을 정책적으로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노력이 애초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의사소통적 언어 교육이 필요성이 대두되며 국어 교육이든 한국어 교육이든 문법 교육에 있어서 한글 맞춤법 교육이 현장에 있어 그 필요성이 약화가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언중들의 관심도를 증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제는 문법 교육에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문법 교육적 관점에서 맞춤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좀더 실제성 있는 교수법을 마련하는 노력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저의 경험으로는 한글 맞춤법 제51항과 같은 경우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해당 조항의 의의를 납득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교육적 관점과 정책적 노력을 결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둘째, 4장의 큰 제목은 발표자의 방향성과 대립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발표가 맞춤법 조항을 개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어문 규범으로서의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언중들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4장의 제목이 해당 목적을 좀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쪽으로 수정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언중의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문법 개념집의 발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어원에서 발간한 '한글 맞춤법 해설'도 생소할 수 있는 용어들을 최소화하고, 각 조항들을 어느 정도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일반 언중들을 타깃으로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잉여적인 정책적 노력으

로도 비춰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듯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현행 해설집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시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의 발표자께서 주장하신 문법 개념집이 현행 한글 맞춤법 해설과 다른 측면에서의 의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토의를 마칩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발표에 대한 오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대 번역어 '衛生'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田宇(전남대)

차례

1. 서론
2. 중국 고전의 '衛生'
3. 메이지기 일본의 '衛生'
4. 개화기 한국의 '衛生'
5. 결론

要約 및 抄錄

이 글은 한·중·일 삼국의 고전 문헌과 근대기에 발행된 신문, 대역사전 등 자료에 사용된 '위생'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위생'은 의미가 분화되어 번역어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중국 고전에서 제시된 '보신하다' 혹은 '생명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후 19세기 서학동점 시기 일본에서 서양어 'hygiene'의 대역어로 '위생'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 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근대 번역어로서의 '위생'은 다시 중국과 한국으로 수용·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위생'이라는 용어가 신문에서 최초에 1884년 5월 5일자로 발간된 『한성순보』에 실린 '만국위생회(萬國衛生會)'라는 기사에 발견된다. 이 기사의 영향으로 인해 이후부터 '위생'이라는 말은 행정, 경제, 교육 부문에서 각종 문예활동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곳곳에 활발하게 쓰이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새롭게 파생된 '위생국', '위생병', '위생기관'', '위생경찰' 등 헤아릴 수 없는 신어가 생겨났다.

이 말은 신문에 일찍 등장하였지만 여태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고 새롭게 생겨난 개념으로 인해 일반 민중에게 받아들이게 되었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근대기 이전까지 '위생'은 주로 '위생하다'라는 동사형으로 '보신하거나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처음에 서양어 'hygiene'를 대역하는 번역어로서 '위생'과 함께 '양생', '섭양', '건전' 등 다른 용어도 나타나며 혼동되어 쓰였다는 것을 근대기에 발행된 대역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28년에 편찬한 『最新鮮英辭典』과 1931년에 발행된 게일의 『韓英大字典』에서 '衛生'이 표제어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衛生'이라는 개념어가 1930년 전후에 한국에서 보편화되어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어: 韓中日, 飜譯語, 衛生, 成立, 受容

1. 서론

18세기 중엽 소위 서학동점(西學東漸)이라는 이 시기에 서양의 근대화 기류가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수많은 신문명·신개념 용어들이 물결같이 서양에서 동아시아 각국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동양의 학문 체계와 학술용어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한자 문화권인 한·중·일은 서양의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 국가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각국 나름대로 번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특히 일본이 한자 번역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들 번역어가 그대로 중국과 한국으로 유입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중·일 삼국에서 동형어(同形語)가 대량으로 분포하는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부국강병(富國强兵), 식산흥업(殖産興業)이라는 목표로 서양에서의 많은 정치와 경제 관련 개념어가 수용되었다. 이와 함께 철학사상이나 인문과학 관련 개념 용어도 적지 않게 쏟아져 들어왔다. 그중에서 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위생이라는 불가결한 개념어가 주목을 받았다. 이런 배경하에 일찍이 서양에서 등장한 이 개념어를 동아시아 한자권 국가에 소개하기 위하여 이를 알맞은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뇌하였다. 중국 고전에서 최초로 '衛生'이라는 한자 어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후 일본에서 이를 서양어의 '위생'에 대역하면서 전통적인 의미가 탈색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다.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 '衛生'은 다시 중국과 한국으로 유입되었고 오늘날까지 일상생활에서 건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용어로 한자권 나라에서 함께 사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의 사용 빈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전 세계 각광을 받은 키워드가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근대기 이전에 전통적 '衛生'의 원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 답하기 쉽지 않을 듯하다. 게다가 이에 대해 현행 사전에서도 실려 있지 않아서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다. 이를 위해 어휘사의 고찰 방법으로 통시적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본 발표문은 한자권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衛生'이라는 낱말을 고찰대상으로 삼아 한·중·일 삼국의 자료를 통하여 이 번역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휘의 의미변화, 사용양상 및 한국의 수용·정착 과정을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둔다.

근대기 한자 번역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비교적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특히 2000년에 들어서면서 한·중·일을 비롯한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 각국의 연구자들이 이에 주목하면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념사 또는 어휘사의 측면에서 '社會', '自由', '主義', '權利', '哲學', '科學', '經濟', '民主', '自然' 등 여러 개념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는데 '衛生'이라는 용어가 아직 그다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위생'을 대상으로 다루어진 연구는 주로 신규환(2007), 오창섭(2011), 김태진(2020), 전민호·신현정(2020)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신규환(2007)에서는 개념사의 관점에서 청말(淸末) 민국기(民國期) 중국의학과 서양의학에서의 위생에 관한 인식, 특징 및 역할 등을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오창섭(2011)에서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이후 위생과 관련한 제품의 생산, 소비 및 디자인에 끼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김태진(2020)에서

는『서유견문』에 있는「양생하는 규칙」을 대상으로 삼아 이의 논리구조와 함께 거기에 나타난 양생이라는 낱말의 용법과 수용을 살펴보았다. 전민호·신현정(2020)에서는 교육학 측면에서 개화기 소·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행된 교육법령 및 위생과 관련한 교과서를 통하여 위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기술되고 다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동아시아 한자권 국가인 한·중·일의 어휘 교류사의 측면에서 '衛生'을 대표적인 고찰대상으로 삼아 한·중·일 삼국에 있는 고전 문헌, 근대 신문, 대역사전류 등의 실증자료를 통하여 서양어의 '위생'에 대역하기 전후의 의미변화, 근대적 '위생'의 성립 및 한국에서의 수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업을 통하여 한자권에서 쓰이는 번역어 '衛生'의 의미변화, 성립과정 및 한국에서의 수용 경로와 정착 과정 등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 활용의 측면에서 근대 말뭉치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향후 한·중·일 삼국의 어원사전을 편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한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한자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衛生'과 같은 동형한자어를 교수한다면 더 용이하게 어휘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2. 번역어 '衛生'의 성립과 수용

'위생'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한자 문화권에서 쓰이던 단어이며 오늘날도 같은 어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고전 문헌, 개화기에 발행된 신문잡지 및 대역사전류 등 자료를 통하여 이 번역어를 조사·비교해봄으로써 '위생'의 의미변화, 한국에서의 사용양상과 수용·정착 과정을 중점으로 두고 밝히고자 한다. 먼저 중국 고전에서 '위생'의 사용 용례를 살펴보겠다.

2.1 중국 고전의 '衛生'

『說文解字』에 의하면 '衛'은 "보위하거나 지킨다", '生'은 "삶이나 생명"이라는 뜻이고 '衛'과 '生'이 결합되면 "생명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 용례가 최초에 중국 고전 문헌인『莊子(장자)·庚桑楚(경상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莊子·庚桑楚』에서 노자가 생명을 지키는 방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衛生之經，能抱一乎，能勿失乎，能無卜筮而知吉凶乎，能止乎，能已乎，能舍諸人而求諸已乎，能翛然乎，能侗然乎"[1], 즉 노자의 주장을 말하자면 "생명을 보위하는 법도는, 하나를 끌어안을 수 있는가. 또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점을 치지 않고도 길흉을 알 수 있는가. 멈출 줄 아는가. 그만둘 줄 아는가. 다른 사람을 버리고 자기에게 구할 줄 아는가. 홀가분하게 떠날 줄 아는가. 멍하니 찾

1) 徐三見·馬曙明(2001),『臨海宗教誌』, 北京: 宗教文化出版社, p.233.

아올 줄 아는가"이다. 이처럼 여기서 나오는 '衛生'은 현대적 의미와 달리 동사형인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오늘 명사형으로서의 위생과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명나라(1368-1644) 말기에 이르러 중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이 기독교 교리와 함께 서구의 세계 지리와 자연과학 등 당시 새로운 서양의 학문을 중국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7세기 영·중 대역사전을 많이 편찬하였다. 이들 『英華字典』에서는 서양어 'hygiene'2) 혹은 'sanitation'3)의 대역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1〉 근대기 각판 영화(英華) 사전에 나타난 '衛生'의 대역어

年代	字典名	對譯語
1866	羅存德英華字典	Sanitary: 保安的, sanitary rules 保安例, 防恙規例
1884	井上哲次郎訂增英華字典	Sanitary: 保安的, sanitary rules 保安例, 防恙規例
1899	鄺其照英華字典集成	Sanitary: 保安的, 保護身體的
1908	顔惠慶英華大辭典	Sanitary: pertaining to or designed to secure health, 衛生的, 養生的, 保生的, 攝生的; as sanitary rules, 衛生例, 防病規例 Sanitation: Sanitary science, or its application, 衛生, 養生, 攝生, 衛生學. Hygiene: The science which treats of the preservation of health, 保身學, 衛生學, 康健學, 健全學.
1911	衛禮賢德英華文科學字典	Hygiene: 衛生學
1913	商务書館英華新字典	Sanitary: 保安的, 衛生的 Hygiene: 保身學, 衛生學, 康健學, 養生論
1916	赫美玲官話	Sanitary: 養身的, 保身體的, ―conditions 衛生情形, ―law 衛生法律, ―regulations 衛生章程 ―science 衛生學 Sanitation: 衛生法, 衛生 Hygiene: 保身學, 衛生學, 健全學. Domestic―: 家庭衛生學 Personal―: 個人衛生學 Public―: 公衆衛生學 School―: 學校衛生學

이상의 근대기 대역사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적어도 1900년대까지는 'hygiene'와 'sanitation'의 번역어로 '衛生'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1908년에 편찬된

2)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hygiene'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Hygiene: That department of knowledge or practice which relates to the maintenance of health; a system of principles or rules for preserving or promoting health; sanitary science.
3)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sanitation'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Sanitation: The devising and application of means for the improvement of sanitary conditions.

『영화대사전』에는 'hygiene'와 'sanitation'이라는 항에 대역어로서 '衛生'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였고 이와 함께 '養生', '攝生' 등 여러 번역어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기까지 '衛生', '養生', '攝生' 이들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통해, 중국 고전에서 발견되는 '衛生'은 현대 중국어의 'hygiene' 혹은 'sanitation'이라는 의미가 아닌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衛生'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에 주로 '養生', '攝生', '保生' 등 여러 번역어와 함께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衛生'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번역어가 아니라 일본에서 서구의 신문명·신개념을 번역하기 위하여 중국 고전 속에 나타난 한자 어형을 빌려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만든 것을 다시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어 외래어 사전에서 '衛生'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현대 한어 외래어 사전에서 '衛生'에 대해 다음과 같이 뜻풀이하고 있다.

> 衛生 wèishēng
> 衛生是指增進人體健康，豫防疾病，改善和創造合乎生理要求的生産環境，生活條件所採取的個人和社會的措施. 源日 衛生eisei 古代漢語 『莊子·庚桑楚』，願聞衛生之經而已矣. 意譯英語 hygiene, sanitation.[4)]
> 위생 wèishēng
> 위생은 인체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생리 요구에 알맞은 생산 환경, 생활 조건을 개선·창조하기 위해 갖춘 개인과 사회의 대책이다. 어원 일본어 위생 eisei 고대 한어 『장자(莊子)·경상초(庚桑楚)』, 원문위생지경이이의(願聞衛生之經而已矣). 의역 영어 hygiene, sanitation.

2.2 메이지기 일본의 '衛生'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메이지유신 이전부터 '衛生'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일본에서 'hygiene' 혹은 'sanitation'의 번역어로서의 '衛生'이 일본어 대역사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9년의 『新譯和英辭典』이다. 그 이전에 1873년의 『附音插圖英和字彙』와 1882년의 『英和字彙』 등에서 서양어 위생의 대역어로서 [건강, 건전]이라는 말이 나왔고 1888년의 『韓英對照いろは辭典』에서 "신체를 양생하는 것"으로 뜻풀이하고 있으며 그리고 '섭생(攝生)', '양생(養生)', '섭애(攝愛)', '섭양(攝養)'이라는 낱말과 함께 나와 있었다. 1893년과 1896년의 『日本大辭書』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 또는 그 법. 양생, 섭생"로 실려 있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에서도 '衛生'이 서양어의 번역어로 출현하기 전까지는 중국 고전에 나타난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메이지기에 발행된 각판 영화(英和) 사전에 나타난 '衛生'의 대역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메이지기 각판 영화(英和) 사전에 나타난 '衛生'의 대역어[5)]

4) 劉正埮·高名凱·麥永乾·史有爲(1985),『漢語外來詞詞典』, 上海辭書出版社, 1985, p.126.

年代	字典名	對譯語
1867	和英語林集成	養生: Fostering or preserving health, the care of one's health, as by attending to diet, apparel etc.
1869	英和對譯袖珍辭書	hygiene: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술
1873	附音插圖英和字彙	hygiene: 건강, 건강학 sanitary: 보안(保安)의, 건강을 지키는
1882	英和字彙	hygiene: 건강, 건전학
1888	韓英對照いろは辭典	위생: 신체를 양생하는 것을 이름. 섭생(攝生), 양생(養生), 섭애(攝愛), 섭양(攝養), Hygiene, preservation of health
1888	和譯字彙	hygiene: 건전학, 건강학
1891	言海	위생: 의식주에 마음을 써 인신을 양생하는 것
1893	日本大辭書	위생: 생명의 건강을 지키다
1894	英和新辭林	hygiene: 건전학, 양생론
1896	和英大辭典	위생: observing the condition most favourable to health. 양생: fostering or preserving health.
1896	日本大辭典	위생: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 또는 그 법. 양생, 섭생.
1909	新譯和英辭典	위생: Hygiene, sanitation
1909	法律熟語辭典	위생: 신체의 건강을 온전하기 위해 위해의 예방과 기술의 질병에 대한 의료방법을 말함
1911	辭林	위생: 음식, 의복, 주거 기타 신체상에 관한 모든 종류의 사물에 주의해 신체의 건강을 도모하며, 이미 발생한 질병은 치료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 양생.

이에 따라 '衛生'은 처음부터 일본에서 만들어진 한자어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음에 이 단어가 대역사전에 출현하기 전에 'hygiene/sanitation'의 번역어로서 '양생'이라는 말이 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통해 당시에 일본 메이로쿠샤(明六社) 지식인들이 먼저 중국에서 편찬하였던 대역사전을 많이 참고하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 계몽지식인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1)의 저서인 『서양사정(西洋事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양사정』에서 나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⑴ 又政府ノ関係スベキ一事アリ。即チ都下一般ニ養生ノ法ヲ立ルコトナリ。人戸稠密ニシテ不潔ナル都府ニハ、動モスレバ疫熱、「コレラ」等ノ如キ伝染ノ病、流行シテ大ニ人ヲ害スルコトアリ都下ニ法則ヲ設ケテ街道居家等ヲ清潔ニスレハ此災害を除キハサルモ○[6]大ニ流行ノ勢ヲ殺ク可シ故ニ嚴法ヲ以テ人ヲ制シ其疎忽簡慢ヲ禁止スルハ或ハ殘酷ニ似タレモ實ハ其人モ共ニ病災ヲ免カレシメント (中略) 此法ヲ推シテ考フレハ塵芥ヲ一處ニ捨テ、堆クヌル者モ罪ニ處シテ可ナリ其故ハ塵芥ノ不潔ヨリ傳染病ヲ○シテ人ヲ害スルモ車ヲ群集ノ中ニ驅テ人ヲ害スルモ其罪輕重ノ別○○レハチリ。

(『西洋事情』, 外編二, 1868, pp.43-44)

⑵ 又賑給局ナルモノアリ此局ノ職務ハ救窮ノ法ヲ監督シ牢獄製造局ヲ支配シ貧民教育ノ學校ヲ指揮ス又醫局アリテ人民一般ノ養生ニ注意シ管轄内諸州ノ醫師ニ命シテ醫藥ノ良否ヲ糺ス○諸州ニモ各其土地在住ノ官吏アリ。 (『西洋事情』, 外編二, 1868, pp.33-34)

5) 김태진(2020), 「『서유견문』에서의 '양생/위생' 개념」, 『日本學硏究』, 제60집 제1호, p.43.
6) 영인 관계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은 부분은 '○'라는 표시로 대체한다. 이하와 동일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위생’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사람은 위생국 국장이자 의학자인 나가요 센사이(長與專斋, 1838-1902)이다. 나가요 센사이는 메이지 4년(1871년)에 구미 의학교육을 조사하는 명을 받아 이와쿠라(岩倉) 사절단을 수행하였다. 시찰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위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접하게 되어 위생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를 자신의 평생 해야 할 일로 삼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집필한 저서인 『송향사지(松香私志)』의 자전 부분에 당시 위생이라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3) 英米を視察中、サニタリー(sanitary)、 ヘルス(health)の語をたびたび聞き、 ベルリンに来てからはゲズントハィッププレーゲ(Gesundheitspflege, 保健、衛生)の語が幾度となく会話の間に出た。はじめのうちはただその字義のままに解してあまり留意しなかったが、その中にだんだん調査を進めていると、単に〈健康保護〉という単純な意味ではないことに気づいた。すなわち、 諸外国には、 国民一般の健康保護を担当する特殊の行政組織があることを発見した。これはその本源を医学に拠り、理化工学、気象、統計などの諸科を包含して、これを行政的に運用し、人生の危害を除き国家の福祉を完うする仕組で、流行病·伝染病の予防はもちろん、貧民の救済、土地の清潔、上下水の引用·排除、市街家屋の建築方式から薬品·染料·飲食物の用捨·取締りに至るまで、およそ人間生活の利害にかかわるものは細大となく網羅て一国の行政部とし、サニテーツウェーゼン(Sanitats-Wesen, 衛生制度)、オッフェントリヘ·ヒギェーネ(Offentliche Hygiene, 公衆衛生法)などと称て国家行政の重要な機関となっているのを知った。[7]

위의 『송향사지』에 나타나 있듯이 시찰하는 과정에 자주 들었던 ‘sanitary’, ‘health’, ‘Gesundheitspflege’ 등의 ‘위생’ 관련 서양 제어(諸語)는 단순히 건강 보호라는 의미가 아닌 각 나라에서 국민 일반의 건강 보호를 담당하는 특별한 행정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즉, 이것은 그의 본원을 의학에 두고 이화공학(理化工學), 기상(氣象), 통계 등 여러 학과를 포함하여 이것을 행정적으로 운용하고 유행병·전염병을 예방함은 물론 빈민의 구제, 토지의 청결, 상하수의 인용·배제, 시가 가옥의 건축방식부터 약품·염료·의식물 등의 취사에 이르기까지 대개 인간 생활의 이해에 관련된 크든 작든 다 망라하여 국가의 행정부로 칭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개념은 당시 일본에서 부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역할 수 있는 알맞은 용어를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다. 이를 번역하기 위해 나가요 센사이가 고민한 끝에 결국은 ‘衛生’이라는 말을 선택하였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그의 자전(自傳)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4) さきに医制を起草したさぃ、原語を直訳て〈健康〉もしくは〈保健〉などの文字を用いんとしたが、露骨で面白からず、別に妥当な語がないものかと思いめぐらしたとき、ふと『荘子』の「庚桑楚篇」に「衛生」という言葉があったのを憶いついて、本書(『荘子』のこと)の意味とはやや異なるけれども字面高雅にして呼声もわるくないので、ついにこれを健康保護の事務に適用することにし、このたび改めて本局の名称に充てられるよう申し出た結果、衛生局の称がここに始めて定まった。これいらい、わが局務範囲内のあらゆる事物にもあてたところ、今では一般の通語となり、自然にその意味も人々に感通するようになったのは、自分の思いもよらない幸いである。[8]

---

7) 小川鼎三, 酒井シヅ校注,『松本順自伝、長与専斎自伝』,「松香私志」, 平凡社, 1980年, pp.133-134.

위의 설명에 나타나 있듯이 이것은 서양어 원어의 철자 그대로 ‘건강’ 혹은 ‘보건’이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노골적이고 재미가 없었다. 이들보다 더 타당한 용어가 없을까 할 때 문득 중국 고전인 『장자』 중의 「경상초편」에 있는 ‘衛生’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이 글자가 고아하고 발음도 나쁘지 않아서 결국은 이것을 건강 보호의 사무에 적용하여 위생국이라는 명칭이 정해졌다. 그 이후에 ‘衛生’이라는 말은 메이지기에 발행된 신문·잡지 등 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 민중에 이르기까지 보편화되어 메이지기의 애용된 단어를 꼽을 수 있다.

1883년부터 정부 기관지로 칭할 수 있는 『관보』에서 ‘위생’이라는 말로 파생된 신어가 많이 출현하였다. 예컨대 “위생국(衛生局)”, “위생과(衛生科)”, “위생회(衛生會)”, “위생부(衛生部)”, “위생위원(衛生委員)”, “위생조합(衛生組合)”, “위생사무(衛生事務)”, “위생규약(衛生規約)” 등이다. 이들 위생과 관련한 기관조직이나 법칙, 관제 등의 설립을 통해 당시 일본에서 국민 건강을 국가의 사업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국민의 몸은 개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가의 몸이라는 의지도 함께 반영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위생’이라는 개념은 이미 개인위생에서 공중위생으로 한층 승격되었다. 1883년부터 1886년까지 『관보』에서 ‘衛生’과 관련한 기사의 건수를 합쳐지면 총 31건에 불과하였지만 1887년에는 단 한 해만 152건에 달하였다[9]. 이로 보아도 당시 위생사업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당시 신문에 실려 있었던 광고에서도 ‘衛生’으로 명명한 상품은 눈에 띄게 빈번히 등장하였다. 예컨대 “衛生歯磨”, “衛生ブラン”, “しら菊·衛生化粧用”, “さくら石鹸·衛生特効”, “磯部煎餅·衛生滋養”, “昆布·衛生滋養”, “衛生香竄葡萄酒”, “衛生胃薬調胃牛胆丸” 등이다. ‘위생’이라는 말이 시일이 흐를수록 개념화되어 근대문명을 표상하는 중요한 핵심 용어로서 전 국민에게 교육하기 위하여 1887년부터 국어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었다. 교과서에 나타난 ‘위생’에 대한 일부분 설명을 추려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⑸ 第十八課 衛生ノ話

是故政府しても、衛生局といふを設けて、國民の健康を保〇めんことを謀り給へり、其中ふ〇傳染病豫防規則といふを最も大切なるものなり、傳染病そうつる病といふ事して虎列拉病腸窒扶斯病實布垤利亞病發疹窒扶斯病及び痘瘡等ふり斯る傳染病ある（中略）藥品取扱の規則をも定めら〇衛生の事〇人々の生命ふか、るものふれむ常等閑ふ思ふべから〇 (『高等讀本』, 1887年)

⑹ 第十一課 衛生

是ノ故ニ政府國民ニテモ衛生官廳ヲ設ケ、種々ノ法令ヲ發布シテ、國民ノ健康ヲ保タシメンコトヲ圖ル。其ノ中ニモ、傳染病豫防規則ト云フハ、最モ注意スヘキモノテリ。 (『日文教程』, 1903年)

⑺ 第十八課 衛生

人がこの世に生れて、人たるの務を果さうと思ふならば日常衛生に氣をつけて、身体の健康をはからねばならぬ。(中略) 生れつき弱い人でも其の心つ持ちやうにる。ては、健康の人ももなれるし、强い人でも衛生を守らなければ身体を弱くするものである。されば平ぜい注意して身体の衛生を重んじ、病氣にかか

---

8) 小川鼎三, 酒井シヅ校注,『松本順自伝、長与専斎自伝』,「松香私志」, 平凡社, 1980年, p.139.
9)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 검색한 결과는 ‘위생’과 관련된 기사의 건수는 다음과 같다. 1883(9건), 1884(8건), 1885(9건), 1886(5건), 1887(152건), 1888(106건), 1889(109건)이다.

らないやうに用心して人の務を十分に果し得るやう心掛けねばならぬ。特に女子は成人の後は國民の母たる務をつくさねばならぬのであるから身体の健康に注意するとしないとはた○に一身の利害ばかりではなく、しいて國家の利害にかかるほどの大事であるから、よく愼まねばならぬ。

(『国語学びの栞』, 1909年)

위에 나타나 있듯이 각 교과서에서 ‘위생’은 한 단독 제목으로 삼아 나와 있었다. 그중에 ‘위생’에 대해 담고 있는 내용은 대체로 의식주의 청결과 전염병 예방이라는 것은 오늘과 다름이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高等讀本』(1887)에서 주로 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깨끗한 공기와 물, 청결한 몸, 음식량, 소화, 및 운동 등 측면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909년에 발행된『国語学びの栞』에서도 먼저 건강의 중요성을 언급한 다음에 크게 음식, 운동, 신체의 청결, 의복 및 주택, 휴식 및 수면 다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 후에 나온 교과서에서도 이들을 계승하여 크게 다름이 없어 보인다. 이때 국어 교과서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배우는 각 학습서에서도 ‘위생’을 한 단독 테마로 설계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예컨대『通弁独学自在』(1887),『日韓通話捷徑』(1903),『實用英語對話』(1903),『出征必携日露清韓會話』(1904)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메이지기 대역사전과 계몽지식인의 저서에서 보여준 구체적인 용례를 통해 ‘衛生’이라는 낱말이 번역어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중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생’, ‘섭생’ 등과 같이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나가요 센사이를 통해서 결국은 ‘衛生’이라는 단어를 채택하였다. 幕府·明治 초기에 서양어 ‘hygiene/sanitation’라는 개념어를 번역하기 위하여 ‘衛生’을 사용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 것이다. 1887년 이후에 일본에서는 서양어 ‘hygiene/sanitation’의 번역어로서 자리를 공고히 잡게 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2.3 개화기 한국의 ‘衛生’

현대『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는 ‘위생’을 “건강에 유익하도록 조건을 갖추거나 대책을 세우는 일”로 뜻풀이하고 있으나 이의 근원으로 소급하면 중국이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개화기 이전까지는 ‘衛生’을 전통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고대 문서나 의학 저서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에 관련한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仁深字小, 偏加保佑之私, 藥備衛生, 可治纏綿之證。玆薰骨之殊渥, 雖粉身而難酬。(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사와 보우하는 은혜가 치우치게 더하였으며, 위생(衛生)하는 약을 갖추 보내시와 몸에 얽힌 병을 가히 치료하겠사오니, 이 뼈에 젖은 특별한 은혜는 비록 몸이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世宗實錄』, 1425년)

(9) 蟹行牛喘。動輒嗟陳力之難。熊經鳥伸。素未曉衛生之術。 所以告數旬之暇。 求十全之方。期於有瘳。誓以盡瘁。而病源旣深於臟腑。雖良藥無効於毫釐。(게(蟹)처럼 다니고 소처럼 헐떡이니 걸핏하면 관직에 있기가 어려움을 슬퍼하고, 웅경 조신(熊經鳥伸)하여야 하는데 본래 위생의 방법을 알지 못하옵니

다. 그러므로 수십 일의 휴가를 고하고, 십전(十全)의 약방문을 구하여, 차효가 있을 것을 믿고 힘을 다하여 일하기로 맹세했사오나, 병의 근원이 이미 장부에 깊이 들어 비록 좋은 약으로도 털끝만한 효험이 없사오니) (『東文選』, 1478년)

⑽ 和氏之璧。天下之至寶也。而不能易吾之一指者。愛已之指踰於璧也。人之言曰。千金之軀。千金重物也。盖擧重物而況之耳。非謂軀直千金而已也。其愛且重若是。則衛生之道。(中略) 衛生之道。雖內盡其術。而外患之來。當審愼而預防之。然後可謂兩全矣。單豹治裏而虎食其外。嵇康養生而卒殞世禍。是以君子愼所居而謹所交。兩人者致工乎內而踈於外若此。此果得養生之道乎。(화씨(和氏)의 벽은 천하의 으뜸가는 보배이다. 그렇지만 나의 손가락 하나와 바꿀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손가락을 아끼는 뜻이 구슬을 아끼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천금 같은 몸'이라고 말을 하는데, 천금은 귀중한 물건이므로 귀중한 물건을 들어 비유를 한 것일 뿐이지 몸이 천금 값만 나간다는 것은 아니다. 그 아끼고 중시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위생(衛生)의 방도를 어찌 강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위생하는 방도는 비록 안으로 그 술법을 다할지라도 외환(外患)이 오는것을 의당 조심하여 미리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쪽 모두 온전할 수 있는 것이다. 단표(單豹)는 속을 다스렸지만 범이 그 몸을 잡아먹었고, 혜강(嵇康)은 양생(養生)을 했지만 마침내 세화(世禍)에 죽었다.

(『順菴集·衛生錄』, 1741년)

⑾ 問爲治之方, 對以敬天愛民, 問修身之道則對以淸心寡欲, 問衛生之藥則曰有衛生之經無長生之藥.(정치하는 방법을 물음에 대해서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여야죠."한다. 몸 닦는 도리를 물었더니, 그는,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옵소서."하고, 죽지 않는 약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그는 "위생하는 글은 있지마는 장생할 약은 없소이다."하였다) (『熱河日記』, 1780년)

위의 『世宗實錄』은 세종 7년(1425년) 11월 13일에 나온 기사인데 여기서 나타난 '衛生'은 지금까지 찾을 수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이른 용례이다. 상하 문맥을 보면 이때는 '衛生'은 명사형보다 주로 동사형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즉 "보신하다" 혹은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런 용법은 『東文選』(1478), 『順菴集·衛生錄』(1741), 『熱河日記』(1780)에서도 보일 수 있다. 특히 1741년에 편찬한 『順菴集·衛生錄』에서 '衛生之道'와 '養生之道'라는 표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통해도 '衛生'은 '養生'과 당시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았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은 국한문혼용체로 된 유길준(俞吉濬, 1856-1914)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길준은 한국 최초의 일본 국비유학생이자 근대 지식인으로서 1881년에 그가 보빙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을 시찰하는 과정에 직접 경험했던 일들을 담은 책은 바로 『서유견문』이다. 이 책은 근대화 방략서로 칭할 수 있는 만큼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서유견문』은 총 20편이 구성되어 그중에 제11편은 "양생하는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어져 있다. 이 장에 담고 있는 내용은 주로 서양인들의 삶과 건강을 돌보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그중에 일부분의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⑿ 養生ᄒᆞᄂᆞᆫ規則

一人의身에ᄂᆞᆫ一人의養生이有ᄒᆞ고一家에ᄂᆞᆫ一家의養生이有ᄒᆞ고一國에ᄂᆞᆫ一國의養生이有ᄒᆞᆫ지라今에泰西人의養生ᄒᆞᄂᆞᆫ規則을論ᄒᆞ건ᄃᆡ (中略) 右의記載ᄒᆞᆫ諸條ᄂᆞᆫ養生ᄒᆞᄂᆞᆫ規則의大槩라此外에細瑣ᄒᆞᆫ者가亦夥ᄒᆞ나然ᄒᆞ나千枝와滿條의散異ᄒᆞᆫ件事가實狀은此數目의大綱에不脫ᄒᆞ니一人의養生은其人의行實과知識에在ᄒᆞ거

니와一國의養生은其規模와權勢가其國의政府에存훈故로政府가其職任을行ᄒᆞ기爲ᄒᆞ야衛生官司를立ᄒᆞ고其浮費ᄂᆞᆫ人民의通同훈稅로以ᄒᆞ야郡邑의棊布훈地方마다此司의無훈處가無ᄒᆞ니道路를精潔히ᄒᆞᄂᆞᆫ事ᄂᆞᆫ政府가是를行ᄒᆞ며又或傳染病이流行ᄒᆞ면穢氣消除ᄒᆞᄂᆞᆫ藥으로其傳布홈을豫防ᄒᆞ고病人이避接ᄒᆞᄂᆞᆫ時ᄂᆞᆫ政府가亦病人의所乘ᄒᆞᄂᆞᆫ車를具ᄒᆞ야護送호ᄃᆡ穢毒消除ᄒᆞᄂᆞᆫ藥으로其車에塗ᄒᆞ야經過ᄒᆞᄂᆞᆫ道路에其氣가不散ᄒᆞ고又或病人의家室이路邊에在ᄒᆞ야 (『西遊見聞』, 1895年)

위의 내용에 나타나 있듯이 개인적 건강을 관리하는 법칙 이외에 서양 나라가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위생관청을 세우고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약을 곳곳에 뿌리며 도로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서구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치밀한 규칙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나 이런 현대적 위생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가 한결같이 '養生'이라는 낱말만 사용되고 있었다. 위에 보이듯이 『서유견문』에서 '衛生'이라는 말이 '위생관청(衛生官司)'처럼 단 한 번만 나타나고 있었으나 당시 유길준이 집필했을 때 후쿠자와 유키치의 『서양사정』을 많이 참고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표현도 역시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근대 이전에 '衛生'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衛生'과 음과 글자가 동일하지만 의미는 괄목할 만한 차이를 보인다. 즉 서양적 번역어의 의미와 달리 「보신하거나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養生'과 구별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언제부터 근대적 의미로 쓰였는지 어떠한 과정을 겪었는지 밝히기 위해 본절에 근대기에 발행된 신문을 통하여 이의 실마리를 찾아보겠다. 먼저 당시 신문에 실려 있었던 '위생'과 관련된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3〉 근대기 '衛生' 관련 신문 기사 목록 일례

게재일	신문명	기사 제목	요지
1884.05.05	漢城旬報	萬國衛生會	衛生會設立 및 세계의 동포와 우리 백성들의 急先務
1887.05.02	漢城週報	衛生義務	해군, 육군 양군의 모든 인원이 매달 두 차례 모임
1899.09.30	皇城新聞	衛生會社	中署鍾路盆洞에 私立衛生社를 設하고 該社組織會議
1899.10.03	獨立新聞	위싱졍결	각기 집 터에 개천들을 파내며 또 길 겯에다 매매하는 물건 버려 놓는 것과 장작 패는 폐습 금지
1900.01.12	皇城新聞	衛生局無休假	黑死病疫의 蔓延으로 歲末과 歲首休暇를 廢해야 함
1902.07.29	皇城新聞	衛生設院	恠疾豫防하기 爲하야 臨時衛生院을 勅令으로 設置
1906.11.13	皇城新聞	衛生問題要感	空氣와 飮料水
1906.11.15	皇城新聞	衛生要感	第二街路와 便所
1906.11.22	皇城新聞	衛生要感	飮食物製造販賣에 取締/沐浴湯과 理髮所
1906.11.24	皇城新聞	衛生要感	種痘
1906.11.26	皇城新聞	衛生要感	賣春婦
1906.12.20	皇城新聞	漢城衛生會社	社會의 進步와 國家發達의 衛生을 一日이라도 遲緩치못홈은
1907.01.22	萬歲報	衛生學	換氣의 必要
1907.01.24	萬歲報	衛生學	室內의 不潔
1907.01.29	萬歲報	衛生學	胸廓의 壓迫
1907.02.03	萬歲報	衛生學	牛乳의 飮方
1907.02.06	萬歲報	衛生學	果實
1907.03.03	萬歲報	衛生學	洗濯
1907.03.05	萬歲報	衛生學	凍瘡

1907.03.07	萬歲報	衛生學	運動의 種類
1907.03.09	萬歲報	衛生學	睡眠
1907.03.23	萬歲報	衛生學	屋根
1908.05.07	大韓每日申報	衛生有益	광고
1908.06.03	大韓每日申報	獄中衛生	席子等物를 收棄ᄒᆞ고 消毒
1909.10.05	大韓每日申報	衛生演說	中部警察署에서 衛生上必要ᄒᆞᆫ 事件을 演說
1909.04.16	皇城新聞	衛生擴張	衛生事務를 擴張ᄒᆞ기 爲ᄒᆞ야 內部衛生局官吏 二名을 增寘ᄒᆞ얏다더라
1910.07.06	皇城新聞	衛生實施	漢城內各公衆廁間을 昨日브터 或消毒도ᄒᆞ며 或修理도ᄒᆞᆫ다더라
1910.12.04	每日申報	迷信과衛生警察	一般人民의 迷信에 관해 衛生警察에서는 注意必要
1911.07.25	每日申報	婦人과 衛生	婦人과 衛生의 밀접한 관계
1912.05.22	每日申報	衛生과도로淸潔	대구부의 위생청결
1912.06.01	每日申報	演劇場과 衛生	연극장 위생을 주의할 일
1912.10.04	每日申報	秋節小兒衛生	가을철에 아이 위생 주의
1912.10.20	每日申報	家庭衛生	의복, 이불 등의 청결법
1913.11.06	每日申報	衛生과酒類營業	酒類營業者는 正當한 酒材 使用해야 함
1915.07.15	每日申報	市街衛生改良	消毒班加設, 收容所設置或舊家屋修繕等
1917.09.11	朝鮮時報	衛生無害山羊乳	광고
1918.02.22	每日申報	衛生講話	公衆의衛生
1918.03.10	每日申報	衛生講話	性慾과 衛生
1920.07.30	東亞日報	衛生劇脚本	衛生劇脚本은 「人生의 仇」, 위생사상을 보급하고자 료금도 할인
1925.08.27	時代日報	傳染流行病과 衛生警察	衛生警察의 직분과 책임
1926.01.30	時代日報	靑年修養會禁酒, 衛生宣傳데이	매월 十五日로 위생 宣傳日로 定하고 部落의 大淸潔을 勵行함
1927.07.24	每日申報	淸州에 衛生展 衛生思想宣傳	위생 展覽會 開催, 위생 상담소를 設하고 무료 진찰
1928.07.13	朝鮮時報	衛生飮料	광고
1929.07.11	朝鮮時報	衛生寢具	광고

1860년부터 전국적 콜레라를 비롯한 장티푸스, 두창, 이질, 성홍열 등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해 '衛生'이라는 말은 신문에 일찍 출현한 셈이었다. 〈표3〉에 나타나 있듯이 '衛生'이라는 말은 신문에서의 첫 등장은 1884년 5월 5일자로 발간된 『한성순보』에 실려 있었던 "만국위생회(萬國衛生會)"라는 기사에 발견된다. 이 기사의 제목에서 보이듯이 위생사업을 촉진하고 각국 국민에게 하여금 위생 의식을 북돋우게 하기 위하며 매년 이탈리아에서 전 세계의 위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1900년을 전후하여 위생회사, 위생국, 위생원 등의 위생과 관련한 크고 작은 행정기관이나 단체조직은 연달아 전국 곳곳에서 설립되었다.

1900년 1월 12일자로 발행된 『황성신문』에서 "위생국무휴가(衛生局無休假)"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다. 당시에는 흑사병의 유행으로 연말과 연초의 휴가까지도 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 당시의 악렬한 상황을 엿보일 수 있다. 1906년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황성신문』에서 "위생요감(衛生要感)"이란 제목으로 된 기사들이 연속적으로 등재되어 있어 공기와 음료수, 가로와 변소, 목욕탕과 이발소 등 여러 방면에서 위생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같

은 해 12월 20일에 『황성신문』에서 "사회의 진보와 국가발달의 위생을 하루라도 지완하지 못한다"라는 글이 바로 올라 있었다. 이를 통해 이때 한국에서 위생 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의 진보와 나라의 발달을 좌우하는 급선무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다음 해 『만세보』에서 '위생학(衛生學)'이라는 제목이 달린 기사가 연재되어 환기의 필요, 실내의 청결, 동창(凍瘡)의 예방 등 일상생활에서 위생과 관련된 지식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1910년 이후에 전국 곳곳마다 위생회가 정기적으로 열렸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위생 강연이나 상담도 여기저기 이루어졌으며 위생경찰이라는 행정제도가 도입되었다는 동시에 위생관리 모집인원도 많이 늘어났다. 이처럼 국가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위생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더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이때 '위생'이라는 말이 손꼽을 수 있는 유행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위생'으로 달린 용어가 활발하게 등장하여 광범위하게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것으로 만들어진 파생어나 합성어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때부터 대폭 증가한 추세가 보인다. 그중에 신문에서 자주 나타난 '위생'으로 이루어진 어휘를 추려내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表4〉 근대기 신문에 나타난 '衛生' 관련 용어(일부)

分類	相關用語
經濟	衛生費, 衛生豫算
商品	衛生電燈, 衛生口錠, 衛生分娩具, 衛生齒磨粉
行政	衛生科, 衛生部, 衛生局, 衛生院, 衛生機關, 衛生管理, 衛生行政, 衛生監督, 衛生檢查, 衛生視察, 衛生對策, 衛生事務, 衛生醫療, 衛生相談所, 衛生試驗所, 衛生消毒社
教育	衛生學, 衛生教育, 衛生問答, 衛生講習, 衛生講演, 衛生座談會, 衛生博覽會, 衛生博物館, 衛生研究會, 衛生學學會, 衛生展覽會, 衛生教養會
範圍	小兒衛生, 婦人衛生, 市民衛生, 家庭衛生, 都市衛生, 公共衛生, 國際衛生, 美粧衛生, 口腔衛生, 齒牙衛生, 精神衛生, 保健衛生, 食品衛生
組織	衛生會, 衛生陣, 衛生組合, 衛生團體, 衛生當局, 衛生協議會, 衛生聯合總會, 衛生調查委員會
職務	衛生兵, 衛生警察, 衛生係員, 衛生幹事, 衛生技師, 衛生主任, 衛生課長, 衛生顧問, 衛生責任者, 衛生從業員, 衛生技術員, 學校衛生官, 衛生關係者, 衛生指導員, 衛生功勞者
活動	衛生劇, 衛生講話, 衛生宣傳, 衛生映畫, 衛生會議, 衛生標本, 衛生標語, 衛生見學, 衛生活動寫眞, 衛生포스타
其他	衛生法, 衛生强化, 防疫衛生, 衛生營業, 衛生作業, 衛生事業, 環境衛生改善

위의 〈표4〉에 나타나 있듯이 '위생'이라는 말은 행정, 경제, 교육 부문에서 각종 문예활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활발하게 쓰였으며 이로 새롭게 파생된 어휘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중에 행정을 나타낸 용어를 말하자면 '위생국(衛生局)', '위생과(衛生科)', '위생기관(衛生機關)', '위생행정(衛生行政)', '위생관리(衛生管理)', '위생감독(衛生監督)', '위생검찰(衛生檢察)' 등이 있다. 교육 관련 용어는 '위생학(衛生學)', '위생교육(衛生教育)', '위생연구회(衛生研究會)', '위생교양회(衛生教養會)', '위생박람회(衛生博覽會)' 등이 있다. 직업과 직무 관련 용어는 '위생병(衛生兵)', '위생경찰(衛生警察)', '위생간사(衛生幹事)', '위생과장(衛生科長)', '위생

고문(衛生顧問)', '위생책임자(衛生責任者)', '위생종업원(衛生從業員)', '위생지도원(衛生指導員)', '위생기술자(衛生技術者)' 등이 있다. 위생 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용어는 '위생극(衛生劇)', '위생 영화', '위생견학', '위생 활동사진', '위생 포스타' 등이 있다. 그밖에 각종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에도 '위생'으로 달린 상표가 많이 등장하였다. 예컨대 '위생 전등', '위생 치약' 등이다. 이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위생'은 의식주를 비롯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위생'으로 파생된 새로운 용어들을 통해 당시에 국가가 위생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고 위생정치의 문명개혁의 새로운 절정기를 열었다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생'이라는 말이 여대까지 존재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라서 전 국민에 다 받아들이게 되었기까지 시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때는 국가 측면에서 위생사업은 활발히 발전하고 있었으나 민중들은 위생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관련한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1918년 2월 7일에 발간된 『매일신보』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었다.

⒀ 衛生講話 衛生은何也오

衛生의意義ᄂᆞᆫ健康을保持ᄒᆞ고增進ᄒᆞᄂᆞᆫ데지나지안이ᄒᆞᄂᆞᆫ것이라그러ᄒᆞᆫᄃᆡ朝鮮에셔ᄂᆞᆫ衛生이라ᄒᆞ면新式에ᄒᆞᆫ形式的말노만알고ᄯᅩᄒᆞᆫ衛生이라ᄒᆞ면醫師만ᄒᆞᆫᄂᆞᆫ일로誤解ᄒᆞ며甚ᄒᆞᆫ사ᄅᆞᆷ은衛生의말을ᄒᆞ면其本旨와意義ᄂᆞᆫ理解치도안이ᄒᆞ고녯사ᄅᆞᆷ들은衛生을行치안이ᄒᆞ고도오ᄅᆡ만살앗고요사이에衛生을아ᄂᆞᆫ사ᄅᆞᆷ들은더속히잘만죽ᄂᆞᆫ다ᄒᆞᄂᆞᆫ말은依例히ᄒᆞᄂᆞᆫ도다이말은아조虛言은안이라個躰로보면그려ᄒᆞᆫ例가○은것은안이라이것을是認ᄒᆞ지만은우물속에셔하날을議論ᄒᆞᆷ과갓ᄒᆞ야足히議論ᄒᆞᆯ수업나社會國家에對ᄒᆞᆫ觀念과民族에對ᄒᆞᆫ愛情이젹고或은업다고判斷ᄒᆞᄂᆞᆫ羞恥를밧ᄂᆞᆫ일은免치치못ᄒᆞᆯ것이로다이러ᄒᆞᆫ人類에關ᄒᆞᆫ일을議論ᄒᆞ랴면普遍的으로全躰의平均을가지고말ᄒᆞ지아니ᄒᆞ면其正鵠를말ᄒᆞ기어려운것이라우리의民族의壽命과文化ᄅᆞᆯ자랑ᄒᆞᄂᆞᆫ다른民族의壽命을比較ᄒᆞᆯᄯᆡ에ᄂᆞᆫ그○은것을놀나지안이ᄒᆞᆯ수업도다그박게多少衛生을理解ᄒᆞᆫ다ᄂᆞᆫ이들의말을드르면衛生이라ᄒᆞᄂᆞᆫ것은單純히下水와便所의掃除좀더나아가셔疾病의豫防ᄲᅮᆫ으로小範圍에限ᄒᆞᆷ은誤解라ᄒᆞ노라衛生의本義ᄂᆞᆫ健康의保持에在ᄒᆞ고增進에잇도다ᄯᅩᄒᆞᆫ衛生의最後의目的은保健에在ᄒᆞ고增進에在ᄒᆞ다ᄒᆞ노라下水便所를掃除ᄒᆞ고病原의接觸을避ᄒᆞᆷ은所謂消極的衛生이오身心를鍛鍊ᄒᆞ고肉躰를强壯ᄒᆞ게ᄒᆞ야罹病를豫防ᄒᆞᆯ은積極的衛生이라願컨ᄃᆡ消極的과積極的衛生을改善實施ᄒᆞ야우리의安寧幸福을누림은本旨의滿足ᄒᆞᄂᆞᆫ바이로다우리의不健康으로因ᄒᆞ야밧ᄂᆞᆫ害ᄂᆞᆫ自己의心身上苦痛은勿論이오生涯經濟와前進力을犧牲ᄒᆞ고自己의家庭社會와民族上으로볼ᄯᆡ에ᄂᆞᆫ經濟上、文化上、戰爭上과族運上에주ᄂᆞᆫ害ᄂᆞᆫ젹지아니ᄒᆞ고(後略)

(『每日申報』, 1918.02.07)

위의 글은 1918년 2월 7일에 『매일신보』에 게재된 기사인데 이의 달린 제목은 "위생이란 무엇인가"이었다. 이 기사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위생'의 어원과 기본정의에 대한 소개, 건장 증진, 질병 예방과의 관계, 더 나아가 '위생'은 가정사회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에 이르기까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중에 '위생'의 개념과 의의에 대한 설명했을 때 '새로운 말', '위생은 의사에게만 하는 일로 오해되고 있다', '심지어 이 말의 본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때까지 '위생'이라는 말이 일반

민중들에게 아직 매우 낯설고 이의 중요성이 깊이 인식되지 않은 것을 반영할 수 있었다. 이 점은 근대기 선교사들이 편찬한 대역사전을 통해서도 관찰할 수가 있다. 당시에 대역사전에서 나온 서구어인 '위생'의 대역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근대기 각판 대역사전에 나타난 '衛生'의 대역어

年代	字典名	對譯語
1897	게일, 한영자전	위생하다: to make sanitary measure
1911	게일, 한영자전	위생: the preservation of health, sanitation, hygiene 위생하다: to observe sanitary laws
1914	존스, 영한자전	Hygiene: 위생법 Sanitary: 위생적, 양생 Sanitary Board: 위생국
1920	조선총독부, 조선어사전	위생: 의식주 기타 신체에 관한 백반의 사물에 주의해 신체의 건강을 도모해, 질병 등의 때에 능히 양생하는 것. 위생국.
1925	언더우드, 영선자전	hygiene: 위생학, 건전학, 섭생법 sanitary: 위생적, 섭생적, 양생적
1928	김동성, 최신선영사전	위생(衛生): Hygiene; sanitation. 例 위생국(局) The sanitary
1931	게일, 한영대자전	위생(衛生): The preservation of health; sanitation; hygiene

위의 대역사전에 보듯이 1897년과 1911년에 발행된 게일의 『한영자전』에 '위생'은 주로 '위생하다'라는 동사형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1911년의 『한영자전』에 '위생하다'와 함께 명사형인 '위생'도 실려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을 보면 여전히 "the preservation of health(건강 지킴)"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위주로 뜻풀이하고 있었다. 1914년에 발행된 존스의 『영한자전』에서 서양어 'Sanitary'의 대역어는 '위생'과 '양생'이 동시에 실려 있었다. 1925년에 언더우드의 『영선자전』에서 '위생'을 서양어 'hygiene'와 'sanitary'의 대역어로서 첫 번째 순으로 두고 있어 이때는 '위생'은 현대적 의미가 명확해진 것을 보일 수 있으나 '위생' 이외에 '건전', '섭생', '양생'이라는 번역어도 함께 나타나 있어서 안정되지 않아 보인다. 적어도 1928년에 이르기까지 김동성의 『최신선영사전』에서 '위생'은 서양어인 'hygiene/sanitation'의 번역어로 굳어져서 이때는 '위생'은 현대적 의미를 가진 개념어로 한국에서 자리하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앞서 살펴본 한·중·일에 있는 '위생'의 출현, 의미변화 및 서양어와의 대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향후 한·중·일 삼국의 어원사전을 편찬하는 데 참고자료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

〈표6〉 한중일 번역어 '衛生'의 어휘사(어원사전 편찬용)

㊙韓	衛生	위생
㊥	衛生	wèishēng
㊐	衛生	えいせい

出典
최초에 중국 고전 문헌인 『莊子·庚桑楚』에 있는 "衛生之經, 能抱一乎, 能勿失乎, 能無卜筮而知吉凶乎, 能止乎, 能已乎, 能舍諸人而求諸已乎, 能翛然乎, 能侗然乎"라는 구절에서 보이며 이때는 「보신하다,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쓰였다.

對譯辭典KR 韓英字典(1897) 위생하다: to make sanitary measure 韓英字典(1911) 위생하다: to observe sanitary laws, 위생: the preservation of health, sanitation, hygiene 英韓字典(1914) Hygiene: 위생법; Sanitary: 위생적, 양생 英鮮字典(1925) hygiene: 위생학, 건전학, 섭생법; sanitary: 위생적, 섭생적, 양생적 最新鮮英辭典(1928) 위생(衛生): Hygiene; sanitation 韓英大字典(1931) 위생(衛生): The preservation of health; sanitation; hygiene
對譯辭典CN 顔惠慶英華大辭典(1908) Hygiene: 保身學, 衛生學, 康健學, 健全學. 衛禮賢德英華文科學字典(1911) Hygiene: 衛生學 商务書館英華新字典(1913) Hygiene: 保身學, 衛生學, 康健學, 養生論 赫美玲官話(1916) Hygiene: 保身學, 衛生學, 健全學
對譯辭典JP 附音插圖英和字彙(1873) hygiene: 건강, 건강학 英和字彙(1882) hygiene: 건강, 건전학 和譯字彙(1888) hygiene: 건전학, 건강학 新譯和英辭典(1909) 위생: Hygiene, sanitation
注解 근대기 이전에 '衛生'은 한·중·일 삼국에서는 주로 중국 고전에서 제시된 전통적 '보신하다' 혹은 '생명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이때는 주로 '衛生하다'라는 동사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양생'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후 19세기 서학동점 시기 일본에서 서양어 'hygiene'의 대역어로 '위생'을 사용하면서 'hygiene'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았다. 그 후에 먼저 일본에서 성립된 근대적 '위생'은 다시 중국과 한국으로 수용하여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3. 결론

이 연구에서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역사·문화·의학 등의 측면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단어인 '위생'을 대상으로 어휘 교류사적 측면의 통시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한·중·일 삼국의 고전 문헌과 근·현대 시기의 신문 텍스트, 대역사전 등의 자료에 실린 '위생'의 사용 용례를 통해 삼국에서 쓰이던 '위생'의 성립과 의미변화 및 수용·정착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위생'은 의미가 분화되어 번역어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전통적으로 중국 고전에서 제시된 「보신하거나 생명을 지킨다」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19세기 서학동점 시기 메이지 초기 일본에서 서양어 'hygiene'의 대역어로 '衛生'을 사용하면서 'hygiene'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 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hygiene'의 번역어로서의 '위생'은 다시 중국과 한국으로 수용하여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자 번역어의 의미와 동아시아에서의 탄생 과정을 '衛生'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이들이 근대 번역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의미변화, 성립과정 및 서로의 주고받은 관계를 살펴보았다. 동아시아 어휘 교류사와 번역사의 중요한 일환으로 19세기 서학동점 시기에 동서양과 동아시아 한자권 국가들 간에 언어접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서양의 사상이나 학문, 지식, 제도 등을 담은 생소한 개념어를 어떻게 한자로 번역했는지, 그리고 선정된 한자 번역어에 어떤 의미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를 한·중·일 삼국에서 어떻게 서로 참고하여 받아들였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작업을 통하여 동서양의 언어접촉 과정, 근대 번역어의 성립과 역할 및 의미변화 등과 관련한 어휘사적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 의미로서 본고에서 수집한 신문자료들은 향후 근대 말뭉치를 구축하고 어원사전을 편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외국어 교육 측면에서 한자권 나라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衛生'처럼 각국에서 공히 사용하고 있는 동형어(同形語)를 잘 익혀나간다면 단기간 내에 어휘량을 더욱더 빠르게 늘릴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 온전한 '衛生'의 의미변화를 다루기 위해 더 다양한 텍스트들을 제시·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훗날의 과제로 남기면서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태진(2020),「『서유견문』에서의 '양생/위생' 개념」,『日本學硏究』, 제60집 제1호, pp.35-69.

황태상(1996),「開化期體育 관련 用語의 意味에 관한 考察」,『경남체육연구』, 제1집 제1호, pp.83-98.

辛圭煥(2007),「衛生의 槪念史: 淸末民國期 中西醫의 衛生論」,『東方學志』, 제138호, pp.179-223.

송민(1992),「開化期의 語彙改新에 대하여」,『語文學論叢』, 제11집, pp.41-61.

송민(2000),「開化期 국어에 나타나는 新文明 語彙」,『語文學論叢』, 제19집, pp.25-57.

송민(2018),「開化期 신문명과 新生漢字語의 확산」,『어문연구』, 제46집, pp.7-26.

이한섭(2012),「근대어 성립에서 번역어의 역할」,『새국어생활』, 제22권 제1호, pp.23-34.

오창섭(2011),「위생개념의 출현과 디자인」,『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7권 제4호, pp.258-267.

전민호·신현정(2020),「개화기 학교교육에서 근대적 위생개념의 형성」,『한국교육학연구』, 제26권 제2호, pp.231-257.

최경옥(2000),「開化期 飜譯 漢字語의 受容과 流入」,『日本語學硏究』, 제2집, pp.293-309.

최경옥(2017),「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비교일본학』, 제39집, pp.415-432.

최경옥(2020),「메이지의 사상, 번역어의 탄생과 한국 수용」,『비교일본학』, 제48집, pp.401-422.

兪吉濬(1895),『西遊見聞』, 東京: 交詢社, pp.10-300.

柳父章(1982),『飜譯語の成立事情』, 岩波書店.

小川鼎三(1980), 酒井シヅ校注,『松本順自伝、長与専斎自伝』,「松香私志」, 東京: 平凡社, pp.133-134.

中原貞七(1887),『高等讀本』, 文學社, pp.37-40.

成城學校(1903),『日文教程』, 成城學校出版社, pp.19-21.

山田豊(1904),『雄弁演説自在』, 大學館, p.152.

小原亀松(1909),『国語学びの栞』, 郡是製糸, pp.49-56.

山本富太郎(1904),『出征必携日露淸韓會話』, 則鳴社, p.72.

斯波貞吉(1903),『實用英語對話』, 言文社, p.69.

田村謙吾(1903),『日韓通話捷徑』, 田村謙吉, p.46.

森山春雍(1887), 村山義行 訳,『通弁独学自在』, 岡村庄助, p.59.

沈國威(1994),『近代日中語彙交流史- 新漢語の生成と受容』, 笠間書院.

余新忠(2005),「清末における「衛生」概念の展開」,『東洋史研究』, 제64집, pp.560-596.

張子伊(2013),「近代中國之衛生嬗變研究」, 北京外國語大學 석사논문, pp.10-42.

<근대 번역어 '衛生'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에 대한 토론문

도재학(경기대)

한국어 어휘론 연구에 있어서, 일본에서 만들어진 근대 한자어는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모두에서 대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공통성, 일본의 근대 지식인들이 중국 고전에 있던 표현을 차용하거나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의도성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어의 한자어'를 연구하면서도 동시에 인접국과의 언어문화적 교류와 당대 지식인의 학문적 배경 등을 함께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한국어에서 일상용어 혹은 전문용어로서 널리 쓰이고 있는 편재성을 감안하면 그 자체로도 어학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중요합니다만, 언어 외적 특성 때문에 인접 학문 분야의 성과에 대한 조사와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하고도 흥미롭지만 한편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이들 근대 한자어들 대해서 티엔위 선생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발표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맡게 된 '衛生'도 계속되는 연구 작업의 한 부분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근대 한자어 연구의 방법 및 논의 수준에 어떤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발표문에서 다루어진 내용 자체에 어떤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의문이 들었던 점을 중심으로 질문/제언을 몇 가지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논문의 체재에 대하여

이 글이 한자어 '衛生'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衛生'의 의미에 있어서 명백한 변화가 확인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즉, ①고전적인 용법의 '衛生', ②일본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은 '衛生', ③한국 및 중국으로의 수용 등과 같은 방식입니다.

현재는 중국, 일본, 한국의 순서로 단순히 나열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 실제 내용도 국가별 대조의 성격이 짙고, '衛生'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합니다.

2. 한국 및 중국으로의 수용 시점과 주체에 대하여

저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근대 한자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해당 한자어 성립에 관여된 주체와 그의 지식적 배경 및 한자어가 사용된 매체의 특성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 및 중국으로의 전파/유입 과정에 관여된 주체와 그의 지식적 배경 및 한자어가 사용된 매체의 특성입니다. 이에 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추적과 검토가 이루어진 논의여야, 기존의 근대 한자어에 대한 '개관적, 대략적, 포괄적' 연구들보다는 조

금 더 나아간 구체적인 연구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표문에서도, 일본에서 중국으로,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어떤 매체를 통해 전파/유입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역사전에서의 번역 양상을 통해서 1908년도 이후에 '衛生'이 널리 쓰이고 있었을 것임을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파/유입된 것에 대해서는 신문 매체 검토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한자어 사용의 주체와 지식적 배경에 대한 논의는 부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지요?

3. 일본의 '衛生' 부분에서

"일본에서 'hygiene' 혹은 'sanitation'의 번역어로서의 '衛生'이 일본어 대역사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09년의 『新譯和英辭典』이다. (중략)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에서도 '衛生'이 서양어의 번역어로 출현하기 전까지는 중국 고전에 나타난 「생명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예문도 제시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문 6~8쪽에는 일본어 원문이 그대로 수록된 예문이 있는데, 한국어 번역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문 (8)~(11)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등에서 사용된 한문 예문에 대한 번역이 함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함께 표시되면 좋을 듯합니다.

4. (8)~(11), <표 3> 및 <표 4>의 출전 관련

아마도 (8)~(11)의 예는 한국고전종합DB에서, <표 3>의 목록은 빅카인즈 고신문아카이브에서 검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자료에 대해서는 출전을 함께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표 3>에는 제목에 '衛生'이 포함된 사례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 한성순보 1884년 1월 8일(土木·警察·衛生등의 일로 나누고), 4월 6일(同民設衛生會 2천루블) 기사의 본문에서 5월 5일 이전에 '衛生'이 사용된 예가 나왔습니다. 자료 목록을 정리할 때 정한 원칙 같은 것도 함께 제시되면 좋을 듯합니다.

<표 4>에는 '衛生'이 포함된 다양한 복합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들은 발표자께서 직접 원문을 읽어나가면서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검색을 통해 수집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제, 상품, 행정, 교육 등의 분류도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5. '근대기' 내에서의 시기 구분

짧게 잡아도 40년, 길게 잡으면 60년 정도에 달하는 시기를 '근대기'라고 칭하면서 자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역사전에서의 대역어를 찾는 일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통째로 하나의 덩어리고 간주하는 것은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는 어떤 흐름을 놓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에서 한국 및 중국으로 '衛生'이 전파/수용된 것을 생각한다면, 나름 시기 구분이 가능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도입기', '정착기', '확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시기를 10년 20년 정도로 구별해 놓고, 그 안에서 확인되는 어떤 변화나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입기에는 '衛生'이 '養生', '攝生' 따위의 단어들과 잘 구별되지 않다가, 정착기에는 '衛生'으로 용어가 고정되고, 확산기에는 다양한 신문잡지 등 매체에서 높은 빈도로 쓰인다는 식의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표 6>에 '衛生'의 어휘사라고 정리된 내용이 실상 어휘사를 보여주기보다는 단순한 사전 뜻풀이를 대조해 보이고 있고, 주해에서도 그다지 구체적이지 못한 평범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주해에는 '衛生' 개별적인 특별한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 듯합니다.

인공지능 번역기에 나타난 의미 오류 고찰

정유남(중앙대), 강아름(한경대)

- 목차 -

1. 들어가는 말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2.1. 영한 번역 텍스트로서의 졸업연설문
2.2.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한 연구 동향
3.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분석
3.1. 오류 유형
3.2. 의미 오류 분석 결과
4.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언어사회는 인공지능 기반의 정보기술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발전하고 있어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로 편리함과 동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연언어로 생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 번역기가 인간의 자연언어 특성을 잘 반영하여 번역문 텍스트를 잘 생성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가 영어 원문을 한국어 번역문으로 얼마만큼 잘 생성하는지 언어 차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인공지능 번역기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하여 미국 졸업연설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번역문의 오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졸업연설문은 '작용적(operative) 텍스트'에 속하므로(Riess, 1981)[1]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언어적 표현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하나인 의사소통의 기본 전제는 의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인공지능 번역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원천언어 이해를 통한 목표언어 생성에서 의미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번역이란 특정 메시지를 맥락에 적절하게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용

1) 번역에서 원문 텍스트의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Reiss(1981)에서는 정보적(informative) 텍스트로 신문기사, 보고서, 논문, 해설서, 사용설명서를 표현적(expressive) 텍스트로 문학작품, 자서전을, 작용적(operative) 텍스트로 광고, 설교문, 풍자 등을 구분했다. 언어 차원에서 이들은 각각 논리적(logical), 미적(aethetic), 대화적(dialogic)으로 구분되며 목표언어의 역할은 관련된 내용 전달, 미적 형식 전달, 원하는 반응 유도로 구분된다(홍은영·탁진영 2020). 졸업연설문은 대화적 지시 중심 텍스트이므로 원하는 반응 유도를 나타내는 요소가 포함되는 작용적 텍스트이다.

언어문화에 적합하게 표상되어야 한다(Nida 2002). 인공지능 번역기가 산출한 결과의 의미 오류에 대한 언어적 분석은 인공지능 번역기 활용의 효용성을 검증하기에 필요한 작업이다. 졸업연설문 텍스트가 한국어 담화공동체 특성에 적절한 번역문으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언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공지능 번역기가 한국어 텍스트로 산출한 결과에서 나타난 의미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어는 말소리인 형식과 뜻인 의미가 결합하여 실현된다. 모든 언어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단어와 문장을 배열한다. 번역을 위한 기계는 이러한 규칙을 학습하여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르고 정확한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어를 통한 의미 전달을 정해진 규칙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는 사회문화적인 현상 속에서 수많은 변화와 변이(variance)가 발생한다. 인공지능 번역기가 인간 언어의 통시적인 발전이나 실질적인 언어 사용, 발화의 의미나 맥락의 의미, 상호작용의 의미까지 판단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이상민 2020:192).

이 발표는 번역기의 성능이나 품질 개선에 대한 실용 목적의 논의가 아닌 언어적 차원에서 인공지능 번역기의 산출물이 한국어 텍스트로 얼마나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의미 오류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연구 결과는 한국어학 측면에서 번역문의 의미 특성을 고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역학, 텍스트 언어학, 언어교육 분야와도 융합할 수 있는 예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인공지능 번역기의 효용성과 한계를 실제 자료를 통해 탐색해 봄으로써 언어공학 분야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2.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 범위와 연구 방법을 소개한다. 2.1절에서는 한영 번역 텍스트 장르로 졸업연설문의 특성과 자료의 규모를 살펴보고 2.2절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 활용 연구 동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2.1. 영한 번역 텍스트로서의 졸업연설문

이 절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분석의 대상 자료로 졸업연설문을 선정했느냐에 대해 간단히 그 텍스트의 특징을 설명하고 자료의 구축 과정과 규모를 소개하고자 한다.

졸업연설문은 작용적 텍스트로, 공감적 요소가 드러나 있다. 인공지능 번역기의 목적은 결국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문, 요약문과 같은 정보적 텍스트 장르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번역기가 정보 전달을 무리 없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감적 요소가 있는 연설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번역 텍스트 장르 중 연설문은 기사문과 비교하면 의미 전달의 모호성을 가지기에 충분하

다. 연설문은 '의견 피력'을 목적으로 연사의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여 번역하는지가 중요하므로 기사문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2)] 기계번역의 오류 원인으로는 텍스트가 포함하는 모호성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원문의 필자는 가상의 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지식수준에 맞추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최적화한 문서를 생성한다. 원문이 번역문과 서로 상이할 때,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독자들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번역 텍스트에는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모호성이 존재한다. 특히 연설문은 구어로 전달되는데 의사소통에서 언어 외적 의미와 공유 지식을 고려하면서 연사의 의미를 파악하며 이를 고려할 때 모호성이 없이 청자에게 전달된다. 기계번역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활용이 배제된 상태이거나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더욱이 모호성이 발생하게 된다(이미경 2019:689).

따라서 졸업연설문이라는 텍스트 장르는 인공지능 번역기의 결과물에 나타날 여러 가지 의미 해석의 모호성이 존재하게 된다. 영어로 발화된 졸업연설문이 한국어 번역 텍스트로 실현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모호성은 무엇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언어적 장치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 간의 의미 해석의 모호성과 부정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오류 고찰은 주제 영역(domain)에 적합한 어휘와 표현을 선택하고 텍스트의 목적에 맞는 번역문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이라 하겠다. 더욱이 한국어 번역문의 의미는 언어 내적 구조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의 의미를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까지를 포함하여 이해되므로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기계번역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졸업연설문 5편이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편씩을 골랐으며 텍스트(스크립트)가 공개된 자료를 연구자가 선정하였다. 연사의 성별을 한정하지 않았고 직업도 크게 특정 분야에 속하지 않도록 한 것은 '졸업연설문'이라는 텍스트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기 위함이다. 연구 대상인 '졸업연설문'의 자료의 특성과 규모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년도	연사 이름	직업(성별)	주제	글자 개수	단어 개수	문장 개수	문단 개수
2017	Mark Zuckerberg	기업인(남)	It's not enough to have a purpose	16,961	3,080	198	147
2018	Chadwick Boseman	영화배우(남)	The light of new realizations shines on you today	17,237	3,160	199	59
2019	Oprah	방송인(여)	Use Your Life	14,834	2,863	163	143

2) 홍은영·탁진영(2020)에서는 스티브 잡스 연설문을 대상으로 연설문에 적절한 등가, 변조, 구조의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연설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서 번역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3) 특별히 주제가 언급되지 않은 speech에 대해서는 기사문에서 달린 헤드라인을 주제로 제시했다.
https://www.eonline.com/news/1159190/michelle-obama-s-class-of-2020-commencement-speech-urges-honesty-integrity-and-action (검색일: 6.15.)

	Winfrey		in Service				
2020	Michelle Obama	변호사(여) 전 영부인	Urges Honesty, Integrity and Action3)	12,341	1,259	124	42
2021	Robert Iger	기업인(남)	Nearly every successful person that I know has struggled of failed4)	13,136	2,336	148	107

<표 21> 2017~2021년도 졸업연설문 자료의 특성과 규모

<표 2>에서 보듯이 2017, 2018, 2019, 2020, 2021년에 걸쳐 미국에서 연설된 졸업연설문이다. 실제 대학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나 2020년에는 COVID19 범유행의 영향으로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는 연사가 직접 밝힌 예도 있었지만 몇몇은 뉴스, 신문 기사에서 졸업식을 소개하는 헤드라인에서 연구자가 적절하게 제시한 것도 있다. 연구 자료의 규모는 졸업연설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텍스트에서 단락이나 문장 개수가 오류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의 의미 오류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이 있고 졸업연설문 텍스트의 응집성, 결속성 등을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영어 졸업연설문 원문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문장 단위로 분할하여 정리하였다. 문단 단위로 인공지능 번역기를 돌렸을 때와 문장 단위로 돌렸을 때 산출된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으므로 문장 단위로 분할하여 자료를 구축하였다. 문장 단위로 분할하여 구축한 자료는 번역 텍스트의 오류를 분석하기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2.2.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한 연구 동향

이 절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 활용한 연구 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인공지능 번역기에 관한 관심이 대두되는 가운데 그간 어떠한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흐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번역기는 기계번역 기술에서부터 출발한다. 기계번역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에 의해 군사적인 목적으로 기계번역 기술이 개발되었고 1980년도 유럽과 일본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까지는 규칙기반(Rule-Based Machine Translation, RBMT)이 주로 적용되었고 1990년대부터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기계번역

4) 기사문의 헤드라인을 주제로 제시했다.
https://www.cnbc.com/2021/05/22/watch-live-disney-chairman-bob-iger-commencement-speech-at-ut-austin.html (검색일: 6.15.)

(Corpus-Base Machine Translation, CMT)이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술을 상호 보완하여 심화학습 능력이 탑재된 인공지능 신경망 번역 기술(Neural Network Machine Translation, NMT)이 개발되어 최신 기계번역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장애리 2017:172).

기계번역은 언어 쌍과 텍스트의 장르에 따라서도 정확성이 달라진다(Shadiev et al., 2019). 예를 들어, 구글 엔진의 경우 코퍼스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는 언어일수록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ark(2017)은 영어에서 한국어로의 구글 번역 결과물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언어 쌍의 차이에 기인한 어휘, 통사론적, 관용어적 오류가 다수 발견되었다. 텍스트 장르에서는 문자언어에 비해서 음성언어 번역의 정확성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문자언어 내에서도 뉴스와 논문 형식의 정형화된 텍스트가 구어체가 많이 포함된 텍스트나 소설에 비해 기계번역 정확성이 높았다(Van der Wees, Bisazza, Weerkamp, & Monz, 2018). Gröhn(2019)에 따르면 비내러티브(non-narrative)가 내러티브에 비해, 그리고 상황 비의존적(situation-independent) 텍스트가 상황 의존적 텍스트에 비해 기계번역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이상민 2020:133). 본 연구에서는 영한 번역 텍스트 중에서 상황에 의존적 텍스트인 졸업연설문의 오류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한 연구는 인공지능 번역기에 관한 관심과 우려를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오류 분석 연구를 위주로 선행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연구의 초점이 언어인지, 번역인지, 교육인지, 인공지능 기술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연구 영역 차원	주요 연구 주제	선행 연구
언어학적 차원	기계번역 결과물 오류 분석, 인간번역과 기계번역 텍스트 모호성, 기계번역의 한계와 인간 번역의 전략	서보현·김순영(2018), 이선화·권익호(2020) 송상헌(2020), 최정혜(2003)
번역학적 차원	기계번역의 통번역학 연구, 프리에디팅, 포스트에디팅, 이중언어 번역 오류 비교, 기계번역 오류 평가	박건영(2021), 신지선·김은미(2017), 안미영(2020), 이미경(2019), 이상민(2020), 이상빈(2020), 장애리(2017)
교육학적 차원	외국어 교수학습 도구 활용, 한국어 교수학습 활용	이찬규(2018), 최지연(2020), 한설옥(2020)
공학적 차원	기계번역 모델 개발, 기계번역 품질 개선, 기계번역 모델 성능 평가	박찬준 외(2021), 이건일·이종혁(2015)

<표 22>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한 연구 동향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하여 진행한 연구들은 단연 번역학적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를 언어적 측면에서 파악한 연구는 비교적 적었고[5] 실용적 측면에서 주로

5) 송상헌(2020)에서는 기계번역의 우려에 대한 문제와 인간번역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서보현·김순영(2018)에서는 영한 언어쌍의 기계번역의 고빈도 오류를 정확성, 가독성, 통사구조, 오탈자로 유형별 오류의 횟수를 제시하였다.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용적 연구들은 기계번역을 활용하여 통번역에 어떻게 활용할지,[6] 외국어교육에 어떻게 적용할지,[7] 기계번역 모델 성능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할지의 연구[8]가 상당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언어학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오류 분석 연구는 기계번역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결과가 기계번역의 품질 양상에 기여하거나 영한 번역 포스트에디팅에 지침을 제공하려고 연구되었다. 텍스트 장르를 고려하여 오류 유형의 분류 체계를 제안하거나 구체적인 언어학적 오류 분석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번역 결과물에 대한 면밀한 언어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원활한 자연언어의 이해와 생성을 위해서는 언어 지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오류 분석을 시도해 보는 데에 나름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자연언어 생성(Natural language generation)이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기계가 직접 자연어를 생성하는 과제, 기계번역, 대화 시스템, 요약 기계가 문장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딥러닝을 활용한 신경망 기계번역(NMT, Neur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재 '구글 번역기, 네이버 파파고, 카카오 i' 등 상용화되고 뛰어난 성능의 번역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할 인공지능 번역기는 네이버 파파고(Papago Translation)를 대상으로 한다. 네이버 파파고를 선정한 이유는 첫째, 한국어 언어 처리 경험과 인공신경망 기반의 기계번역 엔진을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했다.[9] 둘째, 검색 엔진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용도가 높아 일상생활에서 대중성을 확보했다고 보았다. 네이버 파파고는[10] 인공신경망 기계번역(Neural Machine Translation, NMT) 기술에 기반하여 월간 활성이용자(MAU)가 1,0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고 브이라이브(V LIVE)앱, 라인 등 메신저로도 활용 가능할 정도로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다.[11]

인공지능 번역기가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 문장을 생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 수준까지는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일한 표현이라도 문맥과 상황에 따라 다른 뜻을 가지므로 한국어 담화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반영하여 번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분석을 통해 한국어 문맥 안에서 적절한 의미 전달과 해석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이 언어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6) 이선화·권익호(2018) 기계번역의 한계와 번역사의 전략으로 유엔 총회 한일 정상 연설문을 분석하였다. 문법적 오류, 미번역, 어휘선택의 오류 등을 살폈으며 번역 전략에 대한 고찰을 평가하였다.
7) 이찬규(2018:162)에서는 인공지능 통번역기의 한국어학습 대체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인공지능 플랫폼이 한국어 학습에 매우 용이하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한설아(2020)에서도 중한 번역 텍스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계번역기의 한국어 교수학습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8) 이건일·이종혁(2015)에서는 신경망 기반 기계번역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모델 앙상블(Emsemble)기법을 적용하였는데 여러 언어 쌍에 대해 동시에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9) 온라인 기계번역기가 맥락 안에서 언어 사용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번역물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다양한 장르의 번역기의 개발에서 문장의 의미 변환에는 파파고가 성능이 우수하다는 결과가 있다(이성화, 김세현 2018, 황요한·이제영·신동진 2020).
10) https://www.ncloud.com/product/aiService/papagoNmt (검색일 2021.6.26.)
11)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WXMPVA (서울경제, 검색일 2021.6.26.)

3.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분석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분석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따라 유형을 달리해 볼 수 있다. 크게 언어적 측면과 응용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발표는 언어적 측면에서 인공지능 번역기의 한국어 생성 결과의 의미 오류를 살피고자 한다.12) 인공지능 번역기의 산출 결과를 한국어 사용자가 이해한다면 어떠한 내용에서 의미적인 오류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용용적 측면에서는 실용 목적으로써 인공지능 번역기의 기능 개선 및 품질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가 언어적 측면에서 한국어 번역문에서 어떠한 오류가 나타나는지를 유형을 구분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언어적 측면에서의 오류 분석은 한국어 언어문화 지식을 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 이를 토대로 번역기 기능 개선 및 번역기의 품질 평가 기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1. 오류 유형

오류 유형은 기계번역의 품질평가 및 기계 번역기 성능 개선 위해 분류되었다. Villar et.(2006:699)에서는 기계번역기 평가를 위해 오류 유형을 어휘 누락(Missing words), 어휘 배열(Word Order), 부정확한 어휘(Incorrect Words), 불분명한 어휘(Unknown Words), 구두점 오류(Punctuation Error)로 구분하였다. 서보현·김순영(2018:105)에서는 기계번역 품질 평가를 위해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을 정확성(Accuracy), 가독성(Fluency), 통사구조(Syntax), 오탈자(Typo)로 분류하였다. 정확성에는 부정확한 의미와 누락, 가독성은 맥락 오류와 단어, 절 배열 오류, 통사구조는 미완성 문장, 기타문법오류, 오탈자로 세분하였다. 한승희(2021:150)에서는 프리에디팅(pre-editing)과 포스트에디팅(post-editing) 지침을 수립하는 데에 객관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류 요인을 형태, 의미 층위로 구분하고 정확성, 명확성, 유창성, 결속성, 일관성, 중의성, 간결성, 기능성 요인으로 측정 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측면에서 오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영어로 발화된 '졸업연설문'이 한국어 도메인 지식이 반영되어 번역문으로 재현되었을 때 어떠한 의미 오류가 나타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오류 분석을 통해 한국어 표현이 영어와 어떻게 다른지, 이와 관련된 한국어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인지 아울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의 오류 유형 항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오류 유형을 구분하였다. 먼저 오류 유형을 형태 층위 오류와 의미 층위 오류로 구분한다.13) 형태 층위는 그 요인은 문법적인 정확성과 관련이 있으며 언어 전이 결과가 목표언어의 규범에 정확한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의미 층위는 표층적 층위와 심층적 층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층은 원문의 표층적 의

12) Vilar(2006: 699)에서는 기계번역 오류 유형을 missing words, word order, incorrect words, unknown words, punctuation으로 구분하였다.

13) 한승희(2021:149-150)에서 제공한 층위와 요인을 참고하여 재분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번역품질 평가를 위해서 기존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수진이 수년간 걸쳐 실시한 인증연구의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감수 및 평가 기준으로 공통으로 다루는 개념 요인을 통합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번역품질 평가의 측면이라기보다 인공지능 번역기가 나타내는 언어 표현의 오류에 좀 더 초점을 두어 오류 유형을 제시하였다.

미, 즉 정보나 메시지가 명확히 이해되도록 목표언어로 전달되었는지를 검증한다.

다음으로 심층적 층위는 유창성, 결속성, 일관성, 중의성, 간결성, 기능성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유창성은 목표언어의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결속성은 텍스트에서 의미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문맥이 논리적인지, 일관성은 용어와 표현의 사용이 일관적인지, 중의성은 어휘나 통사 구조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간결성은 문체가 장황하거나 불필요한 반복이 있는지, 기능성은 번역된 목표에 부합하고 목표 독자를 고려하고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정리하면 표층적 오류는 번역문이 원문의 표현에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했는지에 해당하고 심층적 오류는 한국어로 구현하는 의사소통에 적절한 의미 전달 및 사회문화적 배경 지식과 관련이 있다.

Nida(1982:164)에서 제시한 언어특징과 수용자의 메시지 수용능력은 충실한 표현과 관련하여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번역사가 언어의 특징을 준수하여 번역해야 한다는 표현에서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언어특징은 한 언어로부터 다른 언어로 특징짓는 언어의 모든 차원에서의 특성을 의미한다. 한 언어가 포함하는 음소, 그 음소들의 조음방식에서부터 어휘의 범주화, 단어 사용에 대한 공기제약,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고 정보의 배열 방식이나 텍스트 구축 방식까지를 고려하여 도착어에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는 포괄적 개념이다. 수용자의 메시지 수용능력은 저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지식의 정도와 번역의 수용자가 전달되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미경 2021:690).

인공지능 번역기에서 나타난 오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층위	유형	오류 내용
형태	표기	맞춤법, 외래어 표기, 문장부호, 오탈자
	구조	어순, 문법
의미	텍스트	의사소통, 담화 표지
	문장[14]	호응 관계, 수식 관계, 문장 성분 오류, 모호성
	어휘	불분명한 어휘, 어휘 의미 선택(다의어, 동음이의어), 고유명, 어휘 누락, 관용 표현, 연어 관계

<표 23>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유형 분류

<표 4>에서 보듯이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유형은 형태 층위와 의미 층위로 먼저 구분할 수 있다. 형태 층위는 표기와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표기는 어문규범과 관련된 맞춤법, 외래어 표기, 문장부호 오류, 오탈자 등이 있다. 이러한 오류는 정확성과 관련이 있으며 원문 텍스트와 번역 텍스트가 간의 정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구조는 영어의 구조와 한국어 구조가 지니는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오류를 말한다. SVO-SOV 어순 차이로 발생하게 되는 오류가 있고 시제, 일치, 단수, 복수, 어미, 조사, 피사동과 같은 문법 항목과 관련된

14) 문장 단위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통사구조와도 관련이 있어 형태 층위의 구조 유형으로도 볼 수 있으나 문장 의미와 관련된 부분은 의미 층위의 문장 단위에서 다루기로 한다.

오류가 있다. 이러한 오류도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나 그 오류의 유형이 언어의 문법 항목, 기능어와 관련되므로 어순, 문법 범주의 차이와 관련되므로 구조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의미 층위는 그 언어 단위에 따라 텍스트, 문장, 어휘로 구분할 수 있다. 텍스트는 구어 형식인 연설문이 문어 형식인 텍스트로 나타나면서 발생하게 되는 의사소통 요소가 있는데 청중, 상황 맥락을 고려한 언어 표현들이 포함된다. 담화 표지도 이러한 텍스트 단위에서 발생하는데 텍스트의 결속성과 관련이 있다. 문장 단위에서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와 서술어와의 호응 관계, 수식 관계, 문장 성분의 누락과 중복,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거나 모호한 경우를 포함한다.[15] 어휘 단위에서는 문맥에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다의어, 동음이의어의 오류, 고유명 오류, 어휘 누락이 있다. 관습적인 속담, 관용구와 같은 비유 표현의 오류나 연어 관계에 대한 오류도 어휘 단위에서 나타난다. 다음 절에서 세부 오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형태 층위 오류는 표기와 구조로 구분된다. 표기는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오탈자와 관련된 오류이고 구조는 어순, 문법 기능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1) 맞춤법

[ST] I'm more of a writer, director anyway, so forget their stories.[16]
[TT] 어쨌든 난 작가, 감독에 <u>가깝으니까</u> 그들의 이야기는 잊어버려. 2018

[ST] If you're living in a constant state of fear, how much farther behind will you be after months in quarantine and without a job.
[TT]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인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몇 달 동안 격리되어 있고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더 <u>뒤처질까요</u>? 2020

[ST] To address the challenges facing us today, and not just on a grand scale.
[TT] 대규모 확장이 아닌 현재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u>위해섭니다</u>. 2021

맞춤법 오류는 '가깝다'의 활용형이 '가깝으니까'로 잘못 실현되었고 '뒤쳐지다'가 '뒤처지다'로 실현되었다. '위해서입니다'가 줄어든 형태인 '위해섭니다'로 실현된 경우는 맞춤법 오류로 볼 수 있지만 구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 외래어

[ST] It does not work if you disengage from the <u>process</u>.

---

15) 김영일·김완섭(2021)에서는 한글맞춤법 검사기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오류 분석을 표기, 단어, 문장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문장 차원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의미 중첩, 중의성, 지나친 생략, 문맥에 맞지 않는 단어 사용, 불필요한 외래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문제, 피동 남용, 사동 남용, 일관성으로 제시하였다.

16) 예시는 영어 원문을 [ST]: source text, 한국어 번역문을 [TT]: target text으로 제시하며 연도를 기재한다. 이 발표문의 예시는 연구자가 검색 당시 예시를 정리하여 가져온 것으로 검색일에 따라 결과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연설문 자료를 파파고 번역기에 검색한 날짜는 각각 2017년 (2021.6.23.), 2018년(2021.6.24.), 2019년(2021.6.29.), 2020년(2021.7.1.), 2021년(2021.7.2.)임을 밝힌다.

[TT] 프로세스를 해제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2020

[ST] That's why Priscilla and I started the Chan Zuckerberg Initiative and committed our wealth to promoting equal opportunity.
[TT] 그것이 바로 Priscilla와 내가 Chan Juckerberg Initiative를 시작하고 우리의 부를 기회 균등을 촉진하는데 헌신한 이유이다.

[ST] When Priscilla graduated from Harvard she became a teacher, and before she'd do education work with me, she told me I needed to teach a class.
[TT] 프리실라는 하버드를 졸업했을 때 선생님이 되었고, 저와 함께 교육 일을 하기 전에 제게 수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외래어 오류는 원어로 제시할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제시할지 일관되지 않는 경우이다. 인명, 지명, 회사명, 제품명, 전문용어(패션, IT)에서 외래어 표기를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사람 이름을 'Priscilla', '프리실라'로 일관되지 않게 표기하고 있다. 외래어 표기법에 맞추어 표기할지, 원어를 밝혀 표기할지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므로 본 의미 오류 고찰에서는 제외한다.

3) 문장부호

[ST] My advice—be optimistic.
[TT] 내 조언. 낙관적으로 생각해 봐. 2021

[ST] I especially appreciate and resonate with your class motto. The quote from Angela Davis which says: "You have to act as if it's possible to radically transform the world and you have to do that all the time."
[TT] 나는 특히 너의 학급 좌우명에 감사하고 반향을 불러일으킨다. Angela Davis가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며,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2019

문장부호는 영어의 문장부호와 한국어의 문장부호가 달라서 발생하는 오류이다.[17] 한국어로 번역될 때 영어의 문장 단위로 구분되는데 의미상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 부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인용은 전체 번역문의 흐름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번역할 수 있다. 연사(오프라 윈프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해 'Angela David'의 말을 인용하였는데 정확하게 실현되지 않았다.

17) 영어에는 괄호, 인용부호, 하이픈, 리스트 표시, 세미콜론, 콜론 등 단어가 아닌 요소(non-word elements)를 포함한 문장이 있으며, 이들 요소는 문장을 여러 개의 번역 단위(TU: Translation Unit)로 분할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번역 단위는 어휘 분석에서 한국어 생성까지의 전 과정이 수행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 하나의 번역 단위가 된다(김성동, 이석기 2020:157).

4) 오탈자

[ST] No kidding! Walt Disney was fired from one of his first jobs as a newspaper artist because the editor felt he “lacked imagination” and “had no original ideas.”

[TT] 농담 아냐!, 정말이야! 월트 디즈니는 신문 예술가로서의 첫 직업 중 하나에서 해고되었는데 그 이유는 편집자가 그에게 "상력이 부족하고" "원래의 아이디어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2021

오탈자는 영어 원문에는 제대로 되어 있으나 한국어 번역문에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상상력’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상력’으로 제시되었다. 문맥상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원문이 없다면 의미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5) 어순

[ST] So I realize this, when I was in the struggle of my life.

[TT] 그래서 나는 이것을 깨달았어, 내 인생의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2019

어순은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이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인공지능 번역기에서는 원문의 배열대로 번역하고 있다. 영어의 어순대로 한국어 번역문이 실현된 경우로 인간 번역가가 한국어 어순에 맞게 포스트에디팅을 해야 한다.

6) 문법

[ST] I want to hear it: ‘everything is always working out for me’. That’s my mantra, make it yours. Everything is always working out for me, because it is, and it has, and it will continue to be as you forge and discover your own path.

[TT] 나는 그것을 듣고 싶다: '모든 것이 항상 나를 위해 잘 되어간다'. 그게 내 사투리야, 네 것으로 만들어. 모든 것이 항상 저를 위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내고 여러분 자신의 길을 발견하는 것처럼 계속될 것입니다. 2019

[ST] Fortunately, you’ve already proven you are, after getting through what has been an historically difficult year….and graduating!

[TT] 다행히도, 여러분은 역사적으로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졸업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해 보셨습니다! 2021

문법 오류는 영어와 한국어 문법 범주, 체계, 기능이 달라서 발생한다. 한국어의 문법 오류는 대체로 조사와 어미가 담당하는데 문장 종결형 어미가 ‘-다’, ‘-습니다’로 일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18] 예시에서 보면 ‘증명해 보이다’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증명해 보다’로 실현된 오류

18) 장경현(2011)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적극 활용하여 번역하면 국어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고 서사문과 대화문의 문체 차이, 어미를 활용한 양태, 서법상의 의미 차이, 문장의 길이를 늘이거나 문장 구조를 바꾸지 않고도 등가성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며 문장 간의 결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혜영(2019)에서도 종결어미의 선택과 사용 양상을 살피면서 번역문에서 종결어미 선택은 번역과 글쓰기 둘 다 포함되는 문제로 한국어에서 종

이다. 한국어에서는 ‘보이다’가 피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구조 오류는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과 문법 구조가 달라 나타나는 오류로 문법 범주, 문장 종결형, 시제, 일치, 단복수와 관련된 오류가 나타났다. 표기, 구조 유형의 오류는 한국어 형태 및 구문 특성을 반영하여 오류를 수정해 갈 수 있다. 형태 오류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이 아니므로 간략히 제시하고 다음 절에서 본격적으로 의미 오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다.

3.2. 의미 오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번역기에서 졸업연설문을 대상으로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난 의미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의미 오류를 언어 단위를 기준으로 텍스트, 문장, 어휘 층위로 나뉜다. 유형별로 나타나는 오류 항목의 내용과 그 빈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오류 층위	언어 단위	오류 항목	오류 표지	빈도
의미	텍스트	의사소통	CE(Communication Error)	10
		담화 표지	DE(Discourse marker Error)	10
	문장	호응 관계	SE(Sequence Error)	40
		수식 관계	ME(Modifier Error)	32
		문장 성분 오류	SCE(Sentence component Error)	21
		모호성	VE(Vagueness Error)	53
	어휘	불분명한 어휘	UE(Unknown Error)	4
		어휘 의미 선택	LE(Lexical meaning Error)	131
		고유명	PE(Pronoun Error)	8
		어휘 누락	OE(Omission Error)	72
		관용 표현	IE(Idiom Error)	11
		연어 관계	COE(Collocation Error)	22

<표 24> 의미 오류 유형 분류와 출현 빈도

<표 5>는 언어 단위에 따라 오류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2017~2021년 졸업연설문 총 832 문장에서 오류가 몇 번 출현했는가를 제시한 빈도이다. 어휘 의미 선택 오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어휘 누락, 모호성 오류, 호응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번역기가 졸업연설문 텍스트에서는 문맥에 적절한 어휘 의미로 번역하는 데에 오류가 빈번함을 알 수 있다. 인공지능 번역기의 의미 오류는 원문의 자연언어 이해와 번역문의 자연언어 생성 간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원문과 다른 의미의 번역문이 생성되면 의미 해석에 오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단순한 형태 오류보다 내용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오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텍스트 의미 층위

텍스트 단위에서의 오류는 텍스트 장르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설문은 작용적 텍스트이므로 청중(audience), 상황(context), 매체(channel)를 고려하여 나타난다. 연사(speaker)

결어미가 나타내는 용법과 의미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는 언어적 소통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을 하는데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은 텍스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19]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오류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구어(연설)에서 문어(번역연설문)로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오류로 텍스트 결속성과 담화 표지 관련 오류가 나타난다.[20]

① 의사소통 오류

의사소통 오류는 연설문이 실제로 발화되는 상황, 청중, 연사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언어 표현으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의미 오류가 된다. 해당 연설을 듣는 청중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위해 일부 배경 지식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요소가 번역문에 제대로 표상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라 하겠다.

[ST] You know! Howard University, I was riding here and I heard on the radio, somebody called it Wakanda University. But it has many names, the Mecca, the Hilltop. It only takes one hour, one tour of the physical campus to understand why we call it the Hilltop. <u>Every day is leg day here</u>. That's why some of you have cars.

[TT] 있잖아! 하워드 대학교, 여기 타고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누군가 와칸다 대학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것은 메카, 힐탑이라는 많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다. 왜 힐탑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려면 1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 <u>이곳은 하루하루가 다리 걸음이다</u>. 그래서 여러분 중 몇몇은 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학교가 언덕에 있어 학생들이 수시로 오르내려야 하는 상황을 언어 표현(다리 걸음)으로 실현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이다. 졸업연설문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 정보가 없이 '다리 걸음'이라는 표현은 의사소통에서 무엇을 나타내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② 담화 표지

[ST] But my father was <u>like</u>, you better keep the job.
[TT]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넌 그 일을 계속하는게 좋을거라고 생각했지.[21] 2019

[ST] <u>Look</u>, I've been there many times in my life.
[TT] 이봐, 난 내 인생에서 여러 번 가봤어. 2020.

[ST] <u>You know</u>, one of the most curious things about life is the speed with which it passes.

---

19) 실제로 메러비안 법칙에서 제시한 의사소통의 효과를 보면 언어적 요소는 7%, 청각적 요소는 38%, 시각적 요소는 55%라 하였다. 이처럼 청중과 상황에 따른 목소리, 크기, 톤, 억양, 속도, 시선, 표정, 몸짓 언어 등의 비언어 요소는 의사소통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비언어 소통 없이 언어적 표현으로 제시되었을 때 의사소통의 오류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 접속사 'and, but, for' 등은 문장 단위에서 실현되지만 문장 경계를 넘어 텍스트 단위에서도 나타난다. 다만, 텍스트 단위에서 접속사 오류는 따로 언급하지 않고 텍스트 전체 의미 구조와 관련된 담화 표지에 한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21) 띄어쓰기, 표기는 번역기에서 생성한 그대로를 가지고 왔음을 밝힌다.

[TT] 알다시피, 인생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는 삶이 지나가는 속도이다. 2021

담화 표지는 텍스트 결속성을 높이고 앞뒤 문장 간의 응집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 감정, 상태 등을 드러낸다. 의미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2] 연설문이므로 앞의 내용과 연결하거나 주위를 환기할 때 주로 나타난다. 의미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축자적 번역이 필요 없다. 담화 표지를 번역한다면 연사의 의도를 잘 살리고 한국어 번역 문장에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어야 한다.[23]

2) 문장 의미 층위

문장 의미 층위에는 호응 관계, 수식 관계, 문장 성분 오류, 모호성의 오류가 나타난다. 번역문 문장 의미 해석에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살펴보았다.

① 호응 관계(SE)

[ST] One of my favorite stories is when John F Kennedy visited the NASA space center, he saw a janitor carrying a broom and he walked over and asked what he was doing.

[TT]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존 F 케네디가 NASA 우주 센터에 방문했을 때, 그는 빗자루를 들고 있는 관리인을 보았고 그는 그쪽으로 걸어가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2017

[ST] When our parents graduated, purpose reliably came from your job, your church, your community. But today, technology and automation are eliminating many jobs.

[TT] 우리 부모님이 졸업하셨을 때, 목표는 당신의 직장, 교회, 지역사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기술과 자동화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2017

호응 관계 오류는 번역문으로 실현되었을 때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거나 문장이 길어져 장황한 문장이 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복문에서 문장 호응 관계 오류가 발생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OO이다.’와 같이 주어와 술어가 호응해야 한다. ‘그(J.F.케네디)는...보았고, 그(J.F.케네디)는...그(janitor, 관리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의 경우도 J.F.케네디와 관리인을 모두 ‘그’로 번역하여 주어와 술어의 호응이 어그러진다. 다음도 ‘when-절’이 실현되면서 주어가 불분명하다. 연사는 실제 청중을 고려해 ‘your’로 발화했지만 이때 ‘your’는 ‘their’로 해석된다. 문맥에 맞게 ‘우리 부모들이 졸업할 때만 해도 그들(부모)의 목표는 (당신이 속한) 직장, 지역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나왔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② 수식 관계(ME)

---

22) 이러한 표현은 영어 구어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 언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삽입어(filler words)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텍스트에서의 ‘담화 표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23) ‘Look’을 ‘이봐’로 번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연사가 자기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위를 환기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자’ 정도가 적절하다. 한국어에서 ‘이봐’는 듣는 이를 부를 때 쓴 말이다.

[ST] All your actions are creating equal and opposite reactions, which is the third law of motion in physics.
[TT]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물리학의 제3법칙인 동등하고 반대되는 반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9

[ST] Here I am, at 70, and it feels like just yesterday I was 22 years old with big plans and a lifetime to accomplish them.
[TT] 70세인 저는 큰 계획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평생을 가진 22살이 된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집니다. 2021

수식 관계 오류는 원문에서 관계대명사를 동반하거나 전치사구가 나타날 때 번역문에서 수식어로 번역되면서 발생하는 오류를 말한다. 영어의 관계대명사 구문이나 전치사구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에 특정 성분을 수식하기도 하지만 선행문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관계대명사절은 선행하는 명사구 'equal and opposite reactions'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므로 '여러분의 모든 행동은 물리학의 제3 법칙과 같은 작용과 반작용을 만들어 냅니다.' 정도로 번역될 수 있다. 다음 예시에서 'with-전치사구'는 선행 명사구(22 years old)를 수식해야 한다. '여기에 있는 저는 70살인데 큰 계획이 있던 22살이 마치 어제처럼 느껴지며 난 그걸 이루기 위해 평생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정도로 번역되어야 자연스럽다.

③ 문장 성분 오류(SCE)

[ST] Millions of volunteers immunized children around the world against polio.
[TT]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소아마비를 예방접종을 했다. 2017

[ST] We missed all our classes.
[TT] 우리는 수업에 빠졌어요. 2018

문장 성분 오류는 번역문으로 실현되었을 때 한국어 문장에 적절한 문장 성분으로 실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시에서 '소아마비를'는 목적어로 실현되면 어색하다. '빠지다'는 자타동사 모두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나가야 할 모임을 나가지 않다'의 의미로 목적어 '수업을'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부사어로 실현되었다.

④ 모호성(VE)

[ST] You could have been disgruntled and transferred, but you fought to be participants in making this institution the best that it can be.
[TT] 당신은 불만을 품고 전학할 수도 있었지만, 이 기관이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2018

[ST] But if you hold strong with the same faith that carried all of those giants before you toward real measurable progress, you will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So what does that mean for your time?

[TT] 하지만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모든 거인들을 실제 측정 가능한 진보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버티면, 여러분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이다. 그래서 그게 네 시간에 무슨 뜻이야? 2020

문장 단위의 모호성은 대체로 복문에서 발생하며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이 아니어서 의미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오류이다.[24] 이는 문장 길이가 길어지면 장황한 문장이 되는데 접속사, 전치사 연결이 되면서 한국어에 적절하지 않게 번역되어 의미의 모호성을 지니게 된다. 예시에서 '이 기관이 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는 주체가 없어 의미가 불분명하다. 이를 '여러분은 이 기관을 최선을 다하여 만드는 데 참여하고자 싸워 왔습니다.'로 주체를 명시해 줄 수 있다. 다음 예시도 '실제 측정 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간 것과 같은 믿음으로'와 같이 간결하게 제시할 수 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and, but, before'의 접속사와 'toward, with'와 같은 전치사는 한국어에서 어미나 조사로 변환되는데 기계번역이 이를 잘 수행하지 못하여 문장 전체의 의미가 모호해진다.

3) 어휘 의미 층위

어휘 의미 층위에는 불분명한 어휘, 어휘 의미를 선택, 고유명, 어휘 누락, 비유 표현, 연어 관계의 오류들을 살펴보았다.

① 불분명한 어휘(UE)

[ST] These dynamic, rapidly changing times, even with the myriad challenges we're facing, present great opportunity for your generation.

[TT]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는 NAT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에도 불구하고 귀사 세대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불분명한 어휘는 원문에는 없는 단어가 실현되는 오류이다.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 의미 없는 (non-sense) 단어가 발생하므로 명백한 오류가 되며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

② 어휘 의미 선택(LE)

[ST] Purpose is that sense that we are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ourselves, that we are needed, that we have something better ahead to work for. Purpose is what creates true happiness.

[TT] 목적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앞으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무언가의 일부라는 것이다. 목적은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2017

---

24) 문장 의미에서 문장의 의미는 분명하지만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와 문장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 전자를 중의성 후자를 모호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문장 의미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를 '모호성(Vagueness)'이라 칭한다.

[ST] Although we took over the A building for several days and presented our arguments to President Swygert and the administration, the schools were still merged. Thus, the current collection or formation of schools exists.
[TT] 며칠간 A관사를 인수하고 스위거트 대통령과 행정부에 우리의 주장을 제출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합병되었다. 따라서, 현재 학교의 집합이나 형성이 존재한다.[25] 2018

[ST] From that play, I got my first agent. From that agent, I got an on-screen audition.
[TT] 그 연극으로 첫 번째 요원을 얻었습니다. 그 요원한테 화면 오디션을 받았어요. 2018

[ST] “Failure is what’s going to humble you”.
[TT] "실패는 여러분을 비하할 것입니다." 2019

[ST] Walt failed a number of times over the years, however – always the optimist – he never stopped dreaming big and being bold. And I’m proud to say we have continued his legacy.
[TT] 월트는 수년간 여러 번 실패했지만, 언제나 낙관론자였지만 큰 꿈을 꾸고 대담해지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그의 유산을 이어갔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2021

[ST] Improve the world and enjoy the world.
[TT] 세상을 개선하고 즐기세요. 2021

[ST] So, to President Hartzell and everyone here, let me say, ‘Thank you.’
[TT] 그래서, 하첼 대통령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ST] But there will also be lots of good days, lots of great days.
[TT] 하지만 좋은 날도 많을 거고 좋은 날도 많을 거야. 2021

어휘 의미 선택 오류는 어휘의 뜻갈래(sense)가 여러 개 존재하는데 문맥에 적절한 어휘 의미를 선택하지 못해 의미 해석이 부자연스러운 오류에 해당한다. 한국어의 어종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구성되는데 문맥에 따라 고유어를 사용해야 되거나(개선하다 > 나아지게 하다) 원래의 차용된 의미대로 외래어(요원 > 에이전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문맥 정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고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집합, 형성, 유산, 대통령, 비하하다...). ‘good’과 ‘great’을 모두 ‘좋다’로 번역했는데 문맥에서 ‘good’과 ‘great’의 의미를 ‘좋은 날’과 ‘기쁜 날’로 다른 어휘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오류 분석 결과 어휘 의미 선택의 오류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하나의 어휘는 그 어휘가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 쉬우며 어휘가 사용되는 사회문화적 지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26]

25) ‘collection’과 ‘formation’은 문맥에 적절하게 ‘학과의 새로운 형성과 조직이 존재한다.’로 번역될 수 있다.
26) 예를 들어, ‘legacy’를 ‘유산’으로 번역하는 것은 다소 어색한 경우가 많다. 한국어로 ‘유산’은 죽은 사람이 남

③ 고유명(PE)

[ST] During my junior and senior years, I lived in a house off campus at Bryant Street. For those of you… That's right, Bryant Street.

[TT] 2학년과 3학년 때, 저는 브라이언트 스트리트에 있는 캠퍼스 밖 집에서 살았어요. 여러분들을 위해… 맞아, 브라이언트 가

[ST] Coco touched people's hearts everywhere it was released, because it celebrated the diversity of the human experience and the beauty and liveliness of the Mexican culture.

[TT] 코코아는 인간 경험의 다양성과 멕시코 문화의 아름다움과 생동감을 기념했기 때문에 개봉되는 모든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2021

[ST] Ask Danny or anybody who's successful. you go to any one of his restaurants: Shake Shack, love it, Union Square, Gramercy Tavern.

[TT] 대니나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봐 그의 식당 중 아무 곳이나 가보세요 쉐이크 ,, 맘에 들어요 유니온 스퀘어, 그래머시 선술집. 2019

고유명 오류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앞서 그러한 고유명이 무엇을 지시하는지 실세계의 존재물과도 연결되므로 해당 정보를 반영해 주어야 한다. 고유명에 대해서는 그냥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고 관련한 정보를 각주나 설명으로 제시하는 것이 의미 전달에 더욱 효과적이다. 한국어의 주소는 '도로명'을 사용하지만 미국의 주소는 '스트리트(st.)'와 '로드(rd.)' 를 사용한다. 영화 제목(코코)이나 상점 이름(쉑쉑버거)과 같이 원어의 사회문화적 배경지식이 없다면 고유명을 번역한 표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

④ 어휘 누락(OE)

[ST] You waited until the last minute to do your best work and it's a wonder that you made it up the hill at all because you carry the baggage of too much acceptance.

[TT]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는데, 너무 많은 승복의 짐을 짊어지고 언덕을 올라갔다니 놀랍네요. 2018

[ST] The writing failed to search for specificity.

[TT] 특수성을 검색하지 못했습니다. 2018

[ST] "What starts here changes the world." You're already doing it!

[TT]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세상을 바꿉니다." 벌써 하고 있잖아! 2021

겨 놓은 재산으로 해석되는 데 비해 앞 세대가 물려준 유산에 대해서는 '전통'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어휘 누락은 원문에 있는 내용이 번역문에서 제시되지 않고 누락되는 경우이다. 예시에서는 2인칭 주어 'you'가 문장에서 누락되었다.[27] 한국어 구어에서 예측 가능한 2인칭 주어에 대해 '너', '당신'을 생성하면 오히려 어색한 경우도 발생한다.[28] 예시에서는 'you'가 '여러분'으로 나타나야 한다. 'the writing'은 '그 글(대본)에서'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누락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⑤ 관용 표현(IE)

[TT] I was blown away.
[ST] 나는 날아갔다. 2017

[TT] When you hear the words magna cum laude, cum laude, you know that's not you.
[ST] 당신이 마그나 우화, 우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2018

[TT] I want you to be safe and I can't wait to see you take the reins.
[ST] 난 네가 안전하길 바라 그리고 네가 지휘권을 잡는 걸 빨리 봤으면 좋겠어. 2020

관용 표현은 축자적 의미로는 해석이 되지 않고 그 사회문화에서 굳어진 표현으로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인공지능 번역기는 이러한 관용 표현을 새로운 의미로 인식하지 못하여 축자적 의미 그대로를 번역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한국어 번역문의 의미 해석에 오류를 가져온다. 'blow away'는 구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표현으로 '~을 감동시키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magna cum laude, cum laude'는 라틴어로 '우수, 우등'을 가리키는 관용 표현이다. 'take the reins'도 하나의 술어로 '통솔하다, 지휘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⑥ 연어 관계(COE)

[TT] Many people feel disconnected and depressed, and are trying to fill a void.
[ST] 많은 사람들이 단절되고 우울하다고 느끼며, 그 공백을 메우려고 애쓰고 있다. 2017

[TT] Each of you had your own unique difficulties with the hill.
[ST] 여러분 각자는 언덕에 대해 독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8

[ST] That's the first rule of acting. Any role played honestly can be empowering, but I was conflicted because this role seemed to be wrapped up in assumptions about us as Black folk.
[TT] 그게 첫 번째 행동 규칙이에요. 정직하게 연기한 어떤 역할도 힘을 실어줄 수 있지만, 저는 이 역

27) 최정혜(2003)에서는 한영 번역기에서 나타난 주어 복원 문제에 대해서 문형 정보, 단어 정보, 형태소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28) 실제 자료에서 'you'에 대해 '여러분', '당신', '귀하', '독자분', '고민자', '너'와 같이 다양하게 실현되었는데 어휘,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텍스트, 담화 특성을 반영한 화용 차원에서 분석해야 하므로 추후 지면을 달리해 논의하고자 한다.

할이 흑인으로서 우리에 대한 추정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18

[ST] But also by the rumbling of the age old fault lines that our country was built on the lines of race and power that are now once again. So nakedly exposed for all of us to grapple with.
[TT] 그러나 또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지금에 와 있는 인종과 힘의 선 위에 세워졌다는 오래된 단층대들의 우르릉거림에 의해서도 그렇다. 우리 모두가 싸울 수 있도록 발가벗고 드러났지. 2020

[ST] So if you hear people expressing bigoted views or talking down to those people, it is up to you to call them out because we won't solve anything.
[TT] 따라서 사람들이 편협한 견해를 표명하거나 반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2021

[ST] So, at the ripe old age of 23, I decided to quit my job and do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TT] 그래서 저는 23살의 고령에 직장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일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2021

연어 관계 오류는 한국어 단어의 연쇄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 오류를 말한다. 가령, 한국어에서 '독특한'이라는 수식어는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단어(맛, 멋, 음악, 매력, 풍미)와 공기관계를 맺고 부정적인 단어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번역문에서는 '독특한 어려움'으로 실현되어 '독특한'의 의미가 불분명해진다. '23살의 고령에'도 '23살의 꽃다운 나이에'의 연쇄형으로 실현되는데 '23살'이 '고령'과 공기하면 매우 어색해진다.

연어 관계 오류는 문장에서 다른 단어들과의 공기 관계를 고려해서 번역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문맥인지 파악하는 게 관건이 된다. '마음, 심리적 우울'과 관련된 문맥이므로 'fill a void'는 '공허함을 채우다'로, 'rule of acting'은 연기에 관한 내용이므로 '행동 규칙'보다는 '연기의 규칙'으로 번역되어야 한다. 'nakedly...grapple with'도 '노골적으로 ~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다'가 자연스럽다. 'talk down to sb'는 '반말하다'보다는 '깔보는 투로 말하다'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한데 선행하는 'expressing bigoted views'와 연결되어 의미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인공지능 번역기에서 나타난 의미 오류를 언어 단위로 구분하여 텍스트, 문장, 어휘 층위에서 살펴보았다. 한국어로 의미 해석이 자연스럽지 않은 오류는 문장이 길어질수록 문맥과 다른 어휘가 선택되어 나타나면 부적절하다고 이해되었다. 어휘 층위에서는 문맥을 고려하여 어휘의 다의성, 어종을 고려한 의미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장 층위에서는 복문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연결어미, 수식어, 문장 성분의 오류 등에서 한국어다운 문장으로 생성되지 않았다. 텍스트 층위에서는 졸업연설문 담화가 이루어진 상황, 청중, 연사를 고려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공번역기는 이러한 맥락 정보를 제외하고 언어 표현에 근거하여 번역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미 전달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공지능 번역기가 정보 전달 부분은 비교적 잘 번역을 해내고 있으나 졸업연설문과 같은 작용적 텍스트

에서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번역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머지않아 인공지능 번역기는 한국어 담화공동체에서 이해 가능한 사회문화적 지식까지를 포함한 번역이 이루어져 그 효용성이 확대될 것이다.[29)]

4. 나가는 말

본 연구에서는 상용되는 인공지능 번역기 중 네이버 파파고를 활용하여 영한 번역문의 오류 분석을 시도하였다. 기존 오류 분석들은 실용 목적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인공지능 번역기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 측면에서 번역기의 결과물이 자연스러운 한국어 의미 해석에는 어떠한 항목에서 오류가 나타나는지 텍스트, 문장, 어휘 층위에서 고찰하였다. 졸업연설문이라는 상호 작용적 텍스트를 가지고 특성이 의미 오류 분석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텍스트 층위에서는 구어체가 번역문으로 실현되면서 텍스트로는 이해되기 힘든 의사소통의 오류와 담화 표지 오류가 있었다. 문장 층위에서는 영어의 관계대명사, 전치사구, 접속사 등을 포함한 명사구가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발생하는 오류들을 살펴보았다. 어휘 층위에서는 주로 어휘 선택 오류가 많이 나타났는데 사회문화적인 배경 지식을 포함하는 관용 표현 오류와 문맥 정보를 반영하여 적절한 연어 관계로 번역되어야 하는 오류들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인공지능 번역기의 오류 분석 결과는 인간번역가를 위한 측면과 기계 번역기의 성능 개선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전자는 오류 분석의 결과가 인간번역가 역량을 함양하고 포스트에디팅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후자는 인공지능 번역기의 품질 개선의 요인을 찾고 더 나은 성능 평가를 마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용 목적을 상정하여 오류 분석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었고 졸업연설문 텍스트에 한정된 오류 분석 결과라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만 인공지능 번역기의 결과가 한국어 의미 해석에 있어서 어떤 유형에서 어떻게 부자연스럽게 실현되는지 유형별로 살필 수 있었으며 이로써 번역 오류의 언어적 관찰이 면밀하게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인공지능 번역기 의미 오류 고찰이 다양한 목적과 요구에 맞는 연구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9) 김혜영(2012:70-74)에서는 번역은 원문을 도착어로 옮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문의 의미와 형식, 그 기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번역의 결과물인 번역문은 예상 독자가 속한 담화 공동체에서 원문으로부터 독립된 또 하나의 도착어 텍스트로 기능하므로 예상 독자를 포함한 담화 공동체도 주요한 고려 대상이라고 하였다. 원문의 장르 지식을 반영하여 도착어의 담화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장르 지식까지를 반영하여 번역 글쓰기에 반영한다면 번역문의 수용성이 높아진다고 보았다.

참고문헌

김성동·이석기, 2020, 전처리 및 후처리에 의한 언어 차이 해소 능력을 개선한 영한 기계번역 시스템, 언어과학연구 92, 151-179.

김혜영, 2012, 번역 기사문의 다시쓰기 양상 연구, 작문연구 제14집, 67-106.

김혜영, 2019, 영한 번역의 종결어미 사용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7-2, 133-162.

박건영, 2021, 정보성 텍스트의 한영 기계번역 포스트에디팅 가이드라인 제시: 신경망 기계번역(NMT)을 사용한 뉴스 기사문 번역의 사례, 109-137.

박찬준·박기남·문현석·어수경·임희석(2021),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에서 말뭉치 간의 균형성을 고려한 성능 향상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5, 23-29.

서보현·김순영, 2018, 기계번역 결과물의 오류유형 고찰, 번역학연구 19-1, 99-117.

송상헌, 2020, 기계 번역에 대한 몇 가지 오해, 번역언어기술 1, 4-23.

신지선·김은미, 2017,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 연구, 8-5, 91-110.

이건일·이종혁, 2015, 심층학습을 이용한 기계번역 연구동향, 정보과학회지 33-10, 40-47.

이미경, 2019, 기계번역 vs.인간번역, 텍스트 모호성 해소를 위한 전략 고찰: 연설문 번역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687-700.

이상민, 2020,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의 오류분석 및 퀄리티 평가, 외국어교육연구,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연구소, 129-153.

이상빈, 2020, 기계번역에 관한 KCI 연구논문 리뷰: 인문학 저널 논문(2011~202년 초)의 논의내용과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2, 75-104.

이선화·권익호. 2020, 기계번역의 한계와 번역사의 전략: 유엔 총회 한일 정상 연설문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115, 109-128.

이성화·김세현. 2018, 영-한 및 한-영 기계번역 품질향상을 위한 프리에디팅 기법 제안, 번역학연구 19.5, 121-154.

이찬규, 2018, 인공지능 시대, 한국어 교육의 방향과 전망,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자료집, 159-164.

김영일·김완섭(2021), 오류 분석을 통한 한글 맞춤법 검사기의 정확성 검토와 제언, 문화와 융합 43-3(통권79집), 259-284.

장애리, 2017, 국내 기계 통번역의 발전 현황 분석. 번역학연구 18-2, 171-206.

장혜영, 2018, 졸업 연설문에 드러나 스피치의 공감적 요소 분석, 사고와 표현 11-1, 177-214.

최정혜, 2003, 한영번역기에서의 주어 복원 문제에 대하여. 언어과학연구 27, 385-406.

최지연, 2020, 네이버와 구글 기계번역의 오류 유형 고찰: 중고등학교 영어교재를 중심으로,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한승희, 2021, 기계번역 품질에 대한 요인분석, 통번역학연구 25-2, 147-170.

황요한·이제영·신동진(2020), 온라인 기계 번역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 연구(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6-2, 191-210.

Riess, K., 1981, Type, kind and individuality of text: Decision making in translation, Poetics Today, vol.2, no.4, Translation Theory and Intercultural Relations(Summer Autumn), 121-131. Duke University Press.

Nida. E.A., 2002, Contexts in Translating, Benjamins Translation Library, 41.
Nida. E.A.&C.R.Taber, 1982,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Brill Archive, Langue Arts & Disciplines
Vilar.D.et., 2006, Error Analysis of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Output, *Proceedings of the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697-702.

<인공지능 번역기에 나타난 의미 오류 고찰>에 대한 토론문

김혜영(공주교대)

최근 인공지능 번역기의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인공지능 번역기는 번역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으며, 번역 교육 및 언어 교육 현장에서도 인공지능 번역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 번역기의 번역 결과물에 나타난 의미 오류를 고찰한 이 연구는 번역기의 성능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공지능 번역기를 활용하는 번역사의 번역 작업 및 번역 교육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 발표문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은 오류 유형 분류의 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한승희(2021)을 참고하여 오류 유형을 재분류하였다고 하셨는데, 기존 분류 체계와 달리 분류한 이유는 무엇이며, 새로운 분류가 어떤 점에서 더 유용한지 궁금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연설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듯이, 만약 각 연구자들이 공통된 분류 체계를 사용한다면 텍스트 유형별 오류 유형의 특성을 비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의미 오류 유형의 분류 체계는 연설문 텍스트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텍스트 유형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요?

2. 이 연구에서는 의미 오류 유형을 크게 텍스트 층위, 문장 의미 층위, 어휘 의미 층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는데, 문장 의미 층위와 어휘 의미 층위에 해당하는 오류 유형들은 연설문이나 작용적 텍스트뿐 아니라 다른 텍스트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오류일 것입니다.
2-1) 이 연구는 의사소통의 상황 맥락이 의미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설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러한 연구 대상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의사소통 오류를 중심으로 텍스트 층위에서의 의미 오류 분석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 연설문 번역에서 의미 오류 빈도가 가장 높은 유형은 어휘 의미 선택 오류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다른 텍스트 유형에서도 마찬가지의 결과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연설문에서는 그 빈도가 다른 텍스트 유형에 비해 특별히 더 높은 것인지, 만약 빈도상에 큰 차이가 없다면 어휘 의미 선택 오류에서 다른 텍스트 유형과 비교되는 특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발표문에는 "비언어 소통 없이 언어적 표현으로 제시되었을 때 의사소통의 오류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 3.2절의 분석 결과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비언어적 소통이 번역되지 않음으로 해서 나타난 오류를 텍스트 층위, 문장 의미 층위, 어휘 의미 층위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 주면 연설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독창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오류 분석에 오류가 있는 예들이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1) 뒤처지다: “어떤 수준이나 대열에 들지 못하고 뒤로 처지거나 남게 되다.”의 뜻으로, ‘뒤처지다’가 맞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예2) 빠지다: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여하지 아니하다.”의 뜻으로, “동창회에 빠지다.”와 같이 부사어를 취할 수 있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第81次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기획 발표〉

◑ 할리데이의 생애를 통해 본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징

이관규(고려대)

◑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의 활용 양상과 쟁점

신희성(고려대)

◑ 체계기능언어학과 문법 교육

조진수(전남대)

◑ 체계기능언어학과 문법적 은유 -문법적 은유의 지식 구성적 기능을 중심으로-

소지영(경희대)

◑ 초등학생·중학생 텍스트에서 경험적 대기능의 발달 연구 -장르별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정지현·노하늘·정혜현(고려대)

할리데이의 생애를 통해 본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징

이관규(고려대)

1. 머리말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의 학계에 할리데이의 체계기능언어학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언어학 분야에서 그 이론을 소개하는 글들이 나오더니, 2000년대 후반 들어서 국어교육학 차원에서 관련 학위논문과 논문들이 몇 개 나왔다. 2010년대 들어서서는 과학, 사회, 역사, 수학 같은 다른 과목에서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을 사용한 논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언어는 물론이고 문식성 관련 거의 모든 과목에서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을 이용 혹은 응용하는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2000년대 나온 주세형(2005), 박종훈(2007)을 비롯하여 이후에 나온 제민경(2015), 조진수(2018), 신희성(2019), 소지영(2020)은 모두 국어교육학 관련 박사학위논문이며, 다카치 토모나리(2014), 이슬비(2016), 맹강(2018), 정려란(2021)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학 학위논문이다. 또한 맹승호(2008)는 과학과, 전수경(2017)은 수학과와 관련되어 있고, 신범숙(2020)은 한국어교육학 차원에서 역사과를 다룬 것이며, 정지현(2021)은 과학, 수학, 역사과 모두와 관련된 박사논문이다.[1]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이 사용되면서 급기야 이관규 외(2021)의 『체계기능언어학 개관』이라는 개론서가 출판되기도 하였다.[2]

박사학위논문이 이 정도로 나오려면 일반 논문은 훨씬 더 많은 것이 당연하다. 몇 가지만 내용별로 들어보기로 한다. 국어교육학 차원에서 나온 논문들로는 주세형(2009)을 비롯하여 이창수(2010), 박종훈(2015), 조진수(2016), 소지영·성경희·주세형(2018), 이관규(2018), 김서경(2019), 정혜현(2019), 이관규·신희성(2020) 등 그 숫자가 무척 많다. 또한 한국어교육학 차원에서 다룬 것도 최근 등장하고 있는데, 신범숙(2018), 이관규(2019), 진염평·송향근(2019) 등이 그것들이다. 통·번역 차원에서 나온 박미준(2015), 성승은(2016) 같은 논문도 있다. 사회과 관련 내용을 다룬 김지혜·남상준·권정화(2013), 이승연(2016), 과학과를 다룬 이정아·맹승호·김혜리·김찬종(2007), 차현정·김찬종·맹승호(2011), 수학과를 다룬 전수경·조정수(2015) 등 논문들이 있다. 국어학 차원에서 나온 논문들도 있는데, 박철우(2017), 조진수(2018), 정려란(2018)도 체계기능언어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 국어학 분야에서도 정보구조를 다룬 최윤지(2016), 정승철(2018)은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을 일부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SFL 관련 학위논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2) 이관규 외(2021)를 저술하는 데 많은 저서와 국내외 논문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주로 참조한 책들은 Halliday(1985/1994), Eggins(2004), Halliday & Matthiessen(2004/2014), Halliday(2009), Mary Macken-Horarik etc.(2018), Thompson(2014), Bartltt and O'Grady eds.(2018), Banks(2019) 등이다.

왜 이렇게 많은 연구물이 체계기능언어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깊이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주지의 사실이다시피 체계기능언어학은 영국의 M.A.K. Halliday가 주창하였고 호주, 중국, 일본, 홍콩, 캐나다 등지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3] 왜 이 나라들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이 연구되고 있는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촘스키 언어학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천적 응용언어학 성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포함하는 언어 교육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전산언어학 등 계량적 언어학 성격은 왜 띠게 되었는지 등 궁금한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발표자는 할리데이의 생애를 추적하면서 체계기능언어학이 지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4]

2. 할리데이의 생애

2.1. 어린 시절 (1925~1944) (1세-19세)

Michael Alexander Kirkwood Halliday(이하 할리데이)는 1925년 4월 13일에 영국 북부 Yorkshire의 Leeds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Wilfrid Joseph은 영어와 라틴어 교사였고, 어머니는 불어 교사였다.

1세 영국 북부 Yorkshire의 Leeds에서 출생. (1925. 4. 13.)
4세 West Leeds Elementary School (in Leeds) 입학. (1929-1932)
7세 the Abbey School (in Whitby) 전학. (1932-1934)
9세 the Flying Hall School (in Robin Hood Bay) 전학. (1934-1938)
13세 Rugby School 입학. (1938-1941)
16세 육군본부의 외국어집중코스 훈련받음. (1941-1944)

할리데이는 만 4세 때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였고 이후 가정적 이유로 학교 전학을 두

---

3) Jones, Alan(2010)는 2010년 당시 할리데이식 언어학이 이미 세계에 퍼져 있다고 진단하면서 각종 학회들을 소개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매년 모이고 있는 국제체계언어학회(International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 Association, ISFLA), 호주 체계기능언어학회(ASFLA), 유럽체계기능협회(ESFLA), 라틴아메리카 체계기능언어학회(LASFLA), 홍콩대학에는 '할리데이 지능형 응용언어센터(the Halliday Center for the Intelligent Application of Language Studies)가 만들어졌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도 '나이지리아체계기능언어학회'(The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ssociation of Nigeria, SYSFLAN)가 운영되고 있다.

4) 이 발표의 모태가 된 것은 2018년 4월 15일에 할리데이가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1년 뒤인 2019년 4월 27일에 Mick O'Donnell가 "Michael Alexander Kirkwood Halliday: A Personal Biography"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이다. O'Donnell이 작성한 원래의 글은 할리데이 인터뷰, 발표된 몇몇 자서전 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출판물 등의 관련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설명과 논평 등으로 구성된 59쪽이나 되는 방대한 자료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발표자는 이것들을 할리데이의 나이와 경력에 따라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재구조화하면서, 이어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한다.

번 하였다. 1938년, 13세 때 중등과정에 해당하는 명문 Rugby School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였다. 능력제로 월반을 하여서 16세 때 고등학교 마지막 코스를 시작하였다.

이때 전쟁으로 인해서 육군본부에서는 아시아 지역 언어 훈련병을 집중코스로 모집하였는데, 할리데이는 그곳에 지원하여 합격을 하였다. 이것은 학교 졸업 전에 결정되었는데, 그는 고등학교에서 집중하는 고전어가 아닌 현대어를 공부하고 싶어 했다. Rugby School은 당시 다른 학교들처럼 고전어를 강조하는 기숙학교였는데, 할리데이는 현대어 공부를 선호하였으며, 영문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언어학이 눈에 들어와서 블룸필드의 책을 보기도 하였다. 할리데이는 특히 어릴 적부터 중국을 가고 싶어 해서 중국어 20개월 집중코스 훈련을 받았다.[5] 당시 중국어 집중코스 훈련은 대학의 중국어학과에서 담당하였는데, 훈련 코스의 책임을 맡은 Walter Simon 교수(SOAS)에 따르면, 외국어 집중 훈련코스를 20개월 이수한 후에는 훈련병들이 의무적으로 자신들에게 할당된 곳으로 가서 복무를 해야만 했다.

2.2. 전쟁과 중국 유학 시절 (1944~1950) (19세-25세)

2.2.1. 군 복무와 런던대 문학부 등록

할리데이는 1944년, 19세 나이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바로 인도로 가서 군 정보국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중국정보팀에 배치되었으며 주로 중국인들과 함께 중국어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거기에서 그의 중국어 실력은 무척 늘게 되었으며, 1년 반 정도 그 일을 계속하였다.

19세 군 입대 및 인도 복무. (1944-1945)
20세 런던대 SOAS 복귀 및 중국어 강의 시작
런던대 문학부 등록 및 군 복무 마침 (1945-1947)
22세 중국 북경대학과 링난대학에서의 대학원 과정 등록

당시 유럽의 전쟁 상황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전쟁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할 형편이어서, 일본어와 중국어 능통자들이 필요하였다. 이에 군에서는 1차 집중코스 훈련병들 가운데 4명을 뽑아서 다시 영국으로 복귀시켜 외국어 강의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할리데이는 중국어 강의 요원으로 뽑혀서 1945년 5월 8일, 20세 때 영국으로 복귀하였다. 귀국 5일 후 할리데이는 런던대 SOAS에서 중국어 첫 수업을 시작하였다. 수업 내용은 중국어 받아쓰기(dictation)였는데, 대상은 공군장교들이었다. 당시 할리데이는 군 언어훈련 서비스단에 소속되어 있었다. 이 시기 그는 언어학적 이론이 뒷받침되는 언어교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중국어의 성조, 어휘, 문법 체계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군 복무의 일환으로 장교들을 대상으로 중국어를 교수하면서, 할리데이는 런던대학에서 중

5) Davidse, Kristin(2018)에서는 이때 할리데이가 이수한 집중코스는 기간이 18개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다.

국어를 계속 연구하였으며. 문학부에 번외학생(external student) 자격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 번외학사 학위는 3년 이상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커다랗게 두 번의 시험을 보게 된다. 할리데이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2개 고전어 과목을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아닌, 고전 중국어와 고전 일본어로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기타 다른 과목들로는 현대 중국어와 문학 과목들을 수강하였다. 그때 Walter Simon 교수한테서 언어학은 언어를 대상으로 하며 텍스트를 살피면서 이론 수립을 해야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설명을 듣게 된다.

2.2.2. 중국 북경대학과 링난대학 생활과 대학원 과정 등록

1947년 할리데이는 군복무를 마치고 첫 시험도 마쳤다. 그는 중국어를 배우고 가르친 경험으로 해서 언어 연구에 뜻을 품고 중국을 가기로 결심하게 된다. 그는 중국 대학교에서 공부한다는 조건으로 교육부에서 장학금을 받고 비행정(Flying Boat)을 타고 중국으로 향했다.

할리데이는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으로 가서 북경대학 Hu Shih 교수에게로 갔다. 영국 런던대 SOAS의 사이먼 교수가 써준 추천장을 들고 갔는데, 이에 허쉬 교수는 수업 등록을 허락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북경대학에서 영어 강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었다.[6] 1년 후 1948년에 난징에 있는 영국문화원으로 가서 시험을 보았다. 시험 내용은 주로 현대 중국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것으로, BC 1500년부터 현재까지의 중국 문학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할리데이는 1등급 성적(First Class Honours)을 받았다.[7]

영국의 지도교수였던 Eve Edwards는 할리데이를 위해서 대학원생 장학금을 신청해 주었고, 이에 할리데이는 2년간 중국 북경대학에 등록하여 언어 연구 과정을 이수할 수 있었다. 고급 학습 및 연구를 위한 장학금(Scarborough Scholarship)은 2년간의 중국 학업 이후에 영국 런던대학에서 계속 연구한다는 조건이었다.

1949년 11월 중순에 늦은 등록을 하고 Luo Changpei 교수한테서 통시적 언어 연구에 대하여 배웠다. 창베이 교수는 음운론, 사전학, 역사비교언어학 전공이었다. 그러나 할리데이는 공시적 언어학, 특히 현대 중국 방언에서 다양한 문법적 변이를 보이는 양상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다. 이에 Changpei 교수는 광둥(Canton)에 있는 링난(Lingnan) 대학 언어학과의 Wang Li 교수를 추천해 주었다.[8] Wang Li는 당시 광둥의 현대 중국 방언을 조사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할리데이도 지역 방언 조사에 함께하게 되었다. 본래 유럽에서 음성학 훈련을 받았고 특히 예스페르센(Jespersen)의 영향을 많이 받은 Wang Li는 문법론자, 음운론자, 음성학자, 방언학자였다. 그는 할리데이에게 중국 언어학의 전통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할리데이는 왕리 교수가 자신에게 언어학자로서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

6) 허쉬 교수는 미국 콜럼비아 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실용주의 노선을 지지하였다. 중국 5·4운동(1917-1923) 때 진보적 지식인으로 분류됐다. 그는 이후 유엔대사, 북경대학 총장을 역임했으며, 1958년 이후에는 타이완 중앙연구원장을 지냈다.

7) 학부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할리데이는 중국에 머물며, 중국산업협력체(The Chinese Industrial Cooperatives, CIC)에서 6-7개월 일을 하였다.

8) 왕리 교수는 중국언어학의 설립자라고 불리는 학자이다. Lingnan University는 중구 광둥성 Guangzhou에 있는데, 현재 쑨원(Sun Yat-Sen) University로 알려져 있다. Pakir, Anne(2019) 참고.

할리데이는 당시에 유럽언어학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문법과 사회언어학에 관심이 있었다. 넓게는 러시아의 언어 논쟁(마르 이론)은 물론이고 프라그학파의 사회문제에 초점을 둔 접근법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영국의 Firth 교수의 논문과 왕리 교수의 논문들을 보는 것은 물론이다. Lingnan University에 있으면서, 할리데이는 영어와 러시아어를 가르쳤다.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 서적들을 읽곤 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였다. 모택동주의자들(Maoists)에게 오전에는 러시아어를, 오후에는 영어를 가르쳤다.

2.3. 캠브리지 대학 시절 (1950-1958) (25세-33세)

2.3.1. 캠브리지 대학원 입학 및 Firth 지도교수

할리데이는 1950년, 25세에 영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장학금 지원 조건에 따라, 런던대 언어학과 Firth 교수 밑에서 박사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입학을 거부당했다. 당시 SOAS는 영국 외교부의 공무원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인 할리데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때 할리데이는 광둥에서 수집한 지역 방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문법적 변이형에 대해서 박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학생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지 않았으며, 무난히 할리데이의 대학원 과정 입학을 허가했다. 400파운드(￡)가 넘는 장학금 규정에는 특정한 대학에서 연구할 것을 제약하지 않았으며, 이에 1950년 9월에 할리데이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할리데이의 현대 중국어를 다루는 박사논문을 지도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 전공자가 없기 때문이라 했다. 그리하여 할리데이는 박사논문 주제를 '14세기 구어 만다린'(14th Century colloquial Mandarin)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때에 이어서 할리데이는 다시 현대어가 아닌 고전어를 갖고 연구해야 했던 것이다. 할리데이는 지도교수로 당시 중국학과장인 철학자 Gustav Haloun를 지도교수로 배당받았다.

비전공자인 Haloun 교수는 할리데이의 요청에 따라 런던대학의 Firth를 임시 지도교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할로운 교수가 1년 후 죽자 이번엔 역사학자인 Pulleyblank가 공식 지도교수가 되었으며, 이후 캠브리지 대학 위원회의 결정으로 타대학이지만 런던대학의 Firth가 공식 지도교수가 된다. 물론 학위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여하였다.

할리데이는 이때 캠브리지대와 런던대를 기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논문지도를 받게 되는데, 특히 세미나 및 강의에 참여하면서 여러 젊은 학자들을 만나게 된다. Eugen Henderson, Eileen, R.H. Robins, W.S. Allen 등은 모두 Firth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다. 할리데이의 학위논문의 핵심은 중국 문헌 '몽골의 비밀스러운 역사'(Th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에 나타난 언어들이 보이는 문법의 체계와 구조를 Firth 모델에 따라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분석하느냐였다.[9)]

---

9) Robins(1961)에서는 1954년에 제출된 할리데이의 박사학위논문이 주어진 언어 자료를 지도교수 Firth의 언어학적 방법에 따라서 작성된 첫 번째 논문이라고 박수를 쳤다. 그러나 Firth는 자기 지도를 받은 학자가 자신의 복사판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Mick O'Donnell(2019)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 박사논문은 1959년

2.3.2. 캠브리지 대학 전임강사 임용(1953) 및 박사논문 취득(1954)

1952년, 런던대 중국 언어학과에서 공채가 나왔으나, 할리데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채용되지 못했다. SOAS가 대개 그런 성향을 띠었던 것처럼 Firth는 정치적으로 우익의 입장에 있었다. 좌익 학자로 여겨졌던 할리데이는 이후 1953년, 28세에 캠브리지대 중국학과에서 조교수(assistant lecturer)를 뽑을 때 채용이 된다. 그리하여 일주일에 12-14시간 수업을 하면서 학위논문을 작성해야만 했다. 자연스레 Firth 교수를 자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할리데이는 1954년 12월 학위논문을 제출하게 된다. Firth를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자, 논문은 Firth 학파의 계열 성격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인 Firth는 학위논문을 적극 지지해 주었다. 1955년 2월 3일에 구두시험을 통과하여, 드디어 30세에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Firth는 할리데이에게 해당 논문을 권위 있는 철학회(Philological Society) 논총 시리즈에 내어서 출간할 수 있게 격려를 하기도 하였다.[10)]

2.3.3. 언어에 대한 마르크스 이론

할리데이는 캠브리지 지역 공산당 활동에 열심이었다. 그의 관심은 영국-중국 우정협회 조직에 있었다. 정치적 기초작업에 동조하는 이들은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마르크스 언어학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마르크스 언어학은 정치적 맥락을 중요시했는데, 할리데이 자신은 정치적인 것 말고 언어 자체의 특성을 주목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중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온 할리데이는 영국공산당 소속으로 있으면서 마르크스 언어학을 공부했고 소련의 언어학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하였다. 이때 러시아어 전공자인 Jeffrey Ellis를 비롯하여, 개념-기능적 문법을 주장하는 Dennis Berg, 사회언어학을 강조하는 Trevor Hill를 비롯하여, 기능적 변이형을 언급하는 Jean Ure, Robert Davies 같은 학자들과 교류를 하였다. 그들은 당시 정치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주목받지 못했던 언어의 변이형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비표준 방언, 구어, 식민지 언어 등이었다. 이것들은 당시 언어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이형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사용역(register) 이론이다. 사용역 개념은 Reid가 사용했는데 언어의 기능적 변이형을 지칭할 때 유용한 용어였다.[11)]

할리데이는 이후 영국공산당 운동을 탈퇴하게 된다. 그것은 러시아가 헝가리를 침범한 것에

에 다음과 같이 책으로 출간되었다.
Halliday, M.A.K. (1959), *The language of the Chines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Oxford: Blackwell.

10) O'Donnell, Mick(2019)에서는 할리데이에게 영향을 준 학자로 Firth, Changpei, Wang Li, Bernstein 교수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Mark Lowe(2008)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기원을 논하면서 다른 여러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다. 본래 기능적 접근법이라는 차원에서 Firth와 할리데이에게 영향을 준 게 Hjemslev, Trubetskoy 및 프라그학파 학자들이었으며, 또한 철학자인 Whitehead와 Wittgenstein의 책이 할리데이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W.S. Allen, Benjamin Whorf의 영향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11) "… 특정 개인의 언어적 행위는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다.; 언어적으로 동일한 조건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은 다른 조건하에서는 다르게 표현한다. 이는 다른 사회적 상황으로 표시될 수도 있을 것인데, 각각 서로 다른 "사용역"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Reid, 1956: 32)

대해서 영국공산당이 비난 성명을 발표하지도 않고 적절한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했기 때문이었다.

2.3.4. 할리데이의 1957년 논문 발표와 기계번역

학위를 받은 이후 할리데이는 가르치는 일에 몰두를 하게 되며, 1957년에는 첫 번째 언어학적 학술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문법적 분석에서 체계적 기술과 비교의 제 양상'이라는 논문이었다.12) 이 논문은 지도교수인 Firth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논문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어 강의 외에 할리데이는 자동번역 관련 일을 진행하는 CLRU(Cambridge Language Research Unit)에 참여를 하였다. 이것은 대학과는 관계가 없고 영국과 미국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으로, Margaret Masterman과 Arthur Frederick Parker Rhodes 등과 함께하였다. 여기에서 할리데이는 형식적 언어학 통사론의 개념을 가지고 표식을 다는 논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Parker Rhodes와는 1960년대 초반까지 계속 함께 일을 하였다. 그는 할리데이의 문법적 이론에 따른 통사론적 파싱 방법을 개발해 내기도 했다. 결국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것은 프로그램화되고 펀치카드기계를 만드는 시도까지 있게 된다.

할리데이는 기계번역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 세계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를 지닌 사람들은 각자 모국어로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많은 책을 자동 번역해 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무척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시기에 할리데이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학자들에게 중국어를 무료로 가르쳤다. 이들은 전공 영역은 모두 각각이었으나 일부러 시간을 내서 중국어를 배웠다. 이들 중에는 철학자도 있었고 생물학자도 있었고, 수학자 Parker Rhodes도 포함되어 있었다.

2.4. 에딘버그 대학 시절 (1958-1963) (33세-38세)

2.4.1. 에딘버그 대학 임용

50년대 영국에는 대학에 언어학과가 그리 많지 않았다. 에딘버그 대학은 영어과는 있었지만 일반언어학과는 없었는데, 1958년에 드디어 '영어와 일반언어학과'라는 명칭으로 언어학과가 창설되었다. 학과장인 McIntosh는 일반언어학 분야에 전임강사(full lectureship)로 당시 33세였던 할리데이를 청빙했다. 할리데이는 학부에서 언어학개론과 문체론 강의를 담당했고, 응용언어학 대학원에서는 영문법을 가르쳤다. 1960년에 그는 부교수(senior lecturer)와 교수 중간 단계인 Reader로 승진했다.

그곳에서 할리데이는 음성학과의 학과장인 David Abercrombie를 만나는데, 특히 그의 교

12) Halliday, M. A. K. (1957), Some aspects of systematic description and comparision in grammatical analysis,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Special Volume of the Philological Society. Blackwell, pp. 54-67.

수법은 할리데이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할리데이는 John Sinclair, Rodney Huddleston과 같은 우수한 대학원생들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Jeff Ellis 교수가 그 학과에 함께 있었다.

2.4.2. 학교 교사들과 협업

Edinburgh 대학에서 근무하는 동안 할리데이는 이후 교육 언어학에 속하는 여러 연구를 하게 되었다. 당시 대부분 영국의 대학들에서 하던, 즉 교사교육과 대학학문을 확실히 구분하던 방식과는 달리, 에딘버그 대학은 많은 교사들이 학교 교육 현장에 참여하곤 하였다. 학과장인 Angus McIntosh는 학교 교사로 나간 졸업생들을 자주 대학으로 초청했고, 자신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현장경험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실제 교사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주 많이 그리고 빠르게 알 수가 있었다.

에딘버그 언어학자 모임에서는 학교교사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히 언어학의 어떤 아이디어가 학교 언어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는 McIntosh와 Halliday뿐만 아니라 응용언어학부장인 Ian Catford, 음성학과 소속인 Ken Albrow, 할리데이 지도를 받은 John Sinclair 박사와 Peter Stone도 참여하였다. 에딘버그 지역의 많은 중등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룹별로 다른 여러 학교에서 모임을 가졌다. 교사들은 개인의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대개 격주로 토요일 오전에 모임을 가지곤 했다.

할리데이는 그 당시 Glasgow 지역 교사들과 토요일 오전에 모임을 갖고 주로 언어학과 언어교육과 같은 주제로 함께 작업을 하곤 하였다. 당시에는 언어교육(language education)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지만, 그건 분명히 언어학이면서 동시에 영어교육, 언어교육이었던 것이다. 이때 할리데이는 교사들과 처음 접촉을 하였으며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발견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언어학자들한테서 또 언어학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에딘버그 대학에서 실시된 교사 대상 교육들 가운데 어떤 것이 유용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다.

할리데이는 언어교육에 유용한 언어학을 개발하는 데 힘을 썼다. 이론적 성격을 띠었던 그의 '등급과 범주 문법'(Scale and Category Grammar, 1961)이 '체계 기능 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으로 변모를 하게 된 중요한 근거가 바로 교실에 유용한 문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13)]

---

13) '등급과 범주 문법'의 원리는 1961년에 할리데이가 발표한 것이다. 이것은 언어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등급(scale)으로 'rank, delicacy, exponence' 세 가지를 두었고, 이들은 'unit, class, structure, system' 네 가지 범주(category)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rank'는 단위(unit) 간의 위계를 말하는 것이며, 'delicacy'는 범주의 class와 관련된 것이고, 'exponence'는 추상적 개념을 실제적인 말이나 글로 나타내 주는 등급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구조(structure)와 관련된 것이다. 이 '등급과 범주 문법'이 할리데이의 1960년대 초반 이론의 성격을 보여 준다. 이후 할리데이의 이론은 1966년대 중반 '체계적 문법'(systemic grammar), 1970년대의 '체계·기능적 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다가, 그의 대표적인 '기능적 문법 입문'(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1985/1994)에서는 다시 '기능 문법'이라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할리데이의 '기능적'이란 곧 '체계 기능적'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정재훈(1999 참조.

2.4.3. Firth 교수 강의와 제2언어로서 영어 교육

1956년에 에딘버그 대학 내에 응용언어학부가 만들어졌다. 이 학부는 '제2언어로서의 영어 교육 연구와 훈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었다. 이 학부에서는 응용언어학 졸업장을 수여하는 대학원 과정을 1957년에 시작했는데, 학부장을 맡은 Ian Catford는 런던대 SOAS를 은퇴한 Firth를 방문교수 자격으로 초빙하였다. 할리데이는 Firth가 방문교수로 있을 때 에딘버그 대학에서 학기를 시작하였고, 자연스레 Firth의 강의를 몇 개 들을 수 있었다.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대한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는데, 특히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샤일록(Shylock)의 특징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할리데이는 말하고 있다.

이후 할리데이는 그 학부에서 여러 해 이중언어 수업을 맡게 된다. 아르헨티나, 칠레, 가나, 인도, 일본, 파키스탄,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미국, 영국 등에서 온 학생들 20여 명이 수강을 했다. 그들 가운데 우수한 연구자가 많이 배출되는데, Braj Kachu, Rodney Huddleson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파키스탄에서 온 Ruqaiya Hasan은 이후 할리데이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는 본래 인도에서 출생했고, 인도 북부 Allahabad 대학에서 공부했고 파키스탄으로 이민을 가서 Punjob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를 1958년에 받았다. 2년 뒤 영국 교육부 장학생 자격으로 에딘버그 대학의 응용언어학부 박사과정에 들어온 것이었다.

2.4.4. 억양의 연구·교육 및 논문 '문법 이론의 범주'(1961)

할리데이는 David Albercrombie에게 중국어의 억양을 지도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때부터 영어의 억양(Intonation)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다. 특히 교육적 맥락에서 교실에서의 억양 수업이 중요하고, 이것을 교육적으로 연구 및 기술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14]

에딘버그 대학에 있을 때 할리데이는 그의 문법적 구조 아이디어를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Firthian 전통은 음운론에 적용되어 왔으나, 할리데이는 퍼스 모델을 문법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체계적 접근 아이디어는 퍼스의 이론을 중국어 문법을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W.S. Allen의 아바자어 동사 복합체(Abaza Verbal Complex)를 적용하고자 하는 데서 나왔다. 그러나 퍼스의 이론을 음운론에서 문법으로 변용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1960년에 할리데이는 '문법 이론의 범주'(Categories of the Theory of Grammar)라는 논문을 작성하고 퍼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이 논문이 퍼스의 이론을 응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퍼스는 1960년 12월 4일 사망을 하였고 끝내 할리데이의 그 논문에 조언을 해 줄 수가 없었다.[15] 퍼스 교수의 가르침과 학문은 자신에게 크나큰 영향을 주

14) 할리데이가 억양을 강조한 것은 그가 일찍이 중국어를 배웠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로 인해 결국 영어의 억양 연구와 교육에도 큰 업적을 이룬다(Mark Lowe, 2008). 할리데이의 이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대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Halliday, M.A.K. (1967), Intonation and Grammar in British English. The Hague: Mouton;
Halliday, M.A.K. (1970), A Course in Spoken English: intona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5) 문법에 대한 할리데이의 입장이 잘 드러난 것으로 주목되는 첫 번째 논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을 1961년에

었다고 할리데이는 회고하고 있다.

퍼스가 사망한 후 런던학파는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Neo-Firthian이라 불리는 Halliday, R.H. Robins, Bob Dixon, John Sinclair 등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할리데이는 1960년에 프랑스 Bresaçon 대학에서 불어교사를 위한 여름캠프에서 4차례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2.4.5.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논문 “Syntax & the Consumer”(1963) 발표

할리데이는 ‘통사론과 소비자’(Syntax & the Consumer)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1962년에 시작했다. 이는 당시 유일하게 타당한 언어학적 연구라고 하면서 심리언어학적 태도를 지닌 미국 촘스키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할리데이는 1963년 여름 미국 Georgetown 대학에서 열린 ‘언어학과 언어교육 원탁모임’(Round Table Meeting on Linguistic and Language Teaching)’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할리데이는 이론의 가치는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이 측정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촘스키 문법은 모국어 화자가 자기 언어에 대해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신의 ‘등급과 범주 문법’은 그 아는 걸로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그 관심 적용 주제는 제1언어와 제2언어 학습, 교육적 연구, 사회적 및 인류학적 연구에 있었다.

이 논문에 대해 촘스키주의자들에게서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할리데이는 두 이론의 차이점을 굳이 또 말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대신에 자신의 접근법을 더욱 발전시키는 게 낫다고 보았다. 그는 심지어 언어를 모델화하고 기술하는 데에는 꼭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본질적으로 언어, 그리고 언어 체계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며, 어떤 것이든 절대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리데이는 생각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촘스키가 1964년에 한 유명한 강연에서 웃기는 생각이라고 평가절하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할리데이에게 조지타운 대학에서의 모임은 어느 정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때 그는 Sydney Lamb이라는 학자를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의 생각은 일치를 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체계 이론과 성층 이론의 전환 가능성을 주장하면서 수년간 교류를 계속하게 된다. 할리데이는 Lamb과의 교류를 통해서 언어학의 연구 도구로 컴퓨터 사용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고 말한다. 실제로 할리데이에게 있어 램 교수는 기존 기술언어학의 성과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문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또 전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게 해 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16]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한편 Mick O'Donnell(2019)이 쓴 글에서는 할리데이가 스승에게 보여 주려고 있던 원고의 제목이 ‘Categories of the Theory of Syntax’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1961년 논문으로 나온 것에 따라 제목을 제시하였다.

Halliday, M.A.K. 1961. "Categories of the theory of grammar". Word, 17(3), pp. 241-92.

16) Sydney Lamb의 성층 문법은 촘스키의 변형문법의 대안으로 알려져 왔다. 그는 언어를 이해할 때 신인지주의적 및 성층적 접근을 통해서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역사언어학과 전산언어학과 언어 구조 이론 등 폭넓은 연구를 해 왔다. 그의 연구는 내용 중심 메모리 하드를 마이크로 컴퓨터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 설계를 이끌었다. https://en.wikipedia.org/wiki/Sydney_Lamb

2.5. 런던대학 시절 (1963-1970) (38세-45세)

2.5.1. 런던대학의 의사소통연구센터(CRC)와 일반언어학과 학과장

Huge Smith와 Randolph Quirk는 런던대학(University College London, UCL) 안에 '의사소통연구센터'(CRC)를 1953년에 설립하였다. 이곳은 학제간 언어 연구 센터였다. 1963년에 Quirk 교수는 할리데이한테 이 센터의 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할리데이는 이를 수락하였다. CRC의 첫 번째 업무는 연구였지만, 교육도 마찬가지로 시행되었다. Quirk도 가르쳤고 할리데이도 교육을 담당하였다. 그때 제자인 J.C. Wells 교수는 할리데이한테 영문법 수업을 들은 것을 회고하였다. 특히 접근법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예컨대 억양을 통합하여 절 구조를 기술하였다고 한다(Wells, 2002).

1965년에 UCL에 처음으로 일반언어학과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할리데이가 학과장을 맡았다. 그는 학과와 교육과정을 책임지게 되었다. 이때 할리데이는 드디어 정교수(Professor)가 된다. 할리데이에 따르면 자신이 겸직하고 있던 CRC가 주로 학과의 외부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기타 여러 활동을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다('Language in Use').

2.5.2. 두 가지 큰 연구 프로젝트

누필드 프로젝트(The Nuffield Project)

할리데이는 스코틀랜드에서 하던 일, 즉 교사들과 언어 교육 연구를 하는 사업을 런던 지역에서도 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영어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또한 모국어로서의 영어 교육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할리데이는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지휘하게 된다.

그중 하나는 The Nuffied Project로 언어학과 영어 교수 프로그램인데, 1964년부터 시작하여 1970년에 끝난 이 큰 사업에 할리데이는 책임자로서 참여를 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문식성 높이기'(Breakthrough to Literacy) 및 '사용 언어'(Language in Use)라는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 이 사업에서 교사와 언어학자들이 함께 교실에서의 효과적인 모국어 수업 방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1세~18세의 다양한 연령대의 각급학교를 두 번씩 돌면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사고하고 대화하고 때로는 읽기를 하게 하는 등 여러 활동이 이루어졌다.

OSTI 프로그램(The OSTI Programme in the Linguistic Properties of Scientific English)

할리데이가 추진한 또 하나의 큰 프로젝트는 OSTI 프로그램이라 하여 과학적 영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밝히는 일이었다. 영국 정부가 지원한 이 큰 사업은 할리데이가 전체 연구의 책임자를 맡았지만, 그의 제자인 Rodney Huddleston을 필두로 해서 통사론자인 Richard

Hudson과 컴퓨터 전문가인 Eugene Winter가 맡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체계 기능 문법의 광범위한 발전에 이바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Huddleston은 영어 절의 아주 정확한 문법을 개발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체크를 위해서 정확한 체계 네트워크와 구체적 규칙을 사용하였다.[17)]

이때 OSTI 프로그램으로 또 하나 사업이 있었는데, 허들슨은 시스템 네트워크 전문가인 A. Henrici와 함께 일을 했다. Henrici는 시스템 네트워크가 어떻게 문장 생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다. 또 한 사람 아주 상세한 영어 문법을 개발한 Dick Hudson도 이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때 할리데이는 이론적 모델 개발과 영어에의 적용에 대해서 팀 전체보다는 주로 허들슨과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18)]

2.5.3. 촘스키 언어학 열풍 및 Bernstein과의 사회학 연구 그룹

1960년대 중반 촘스키 언어학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다. OST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을 때 할리데이는 제자들과 정기적으로 촘스키의 'Aspect of the Theory of Syntax'(1965)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곤 했다고 허들슨은 회고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 영국에까지 촘스키 열풍이 불었지만, 할리데이는 언어 능력(Competence)만을 강조하는 촘스키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할리데이는 그건 잘못된 방향이고,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실제 적절한 것들이 언어학에 수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

에딘버그 대학에 있을 때 할리데이는 교실에서의 교육 실패를 다룬 Basil Bernstein(1924-2000)의 초기 논문들을 읽곤 했는데, 깊은 감명을 받고 Bernstein을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학문적 협력은 물론 개인적 친밀도도 높였다. Bernstein은 런던교육대학에 사회학 연구소를 만들고 교육 붕괴의 사회학적 요인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언어적 요인도 추가하였다. 당시에 런던대학에 있던 할리데이의 학과에서는 세미나 시리즈를 갖기 시작했는데, 이때 두 기관이 깊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1964년에 에딘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Hasan이 1967년에 Bernstein 그룹의 연구원이 되어 아이들 글 뭉치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두 그룹의 유대감은 무척 강하였다.

Bernstein의 그룹에서는 번스타인의 사회이론과 함께 할리데이 문법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Ruquaiya 말고도 그 그룹에는 Geoffrey Turner와 Bernie Mohan도 있었다. Turner의 사

---

17) 이 당시 허들슨은 할리데이의 체계기능문법의 신봉자였으며 SFL 안에서의 절 복합체 관련 책을 쓰기도 하였다. 나중에 1980년대 허들슨은 체계기능언어학의 절 복합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18) 이때 작성된 논문들은 주로 Halliday & Martin(1981)의 '*Readings in Systemic Linguistics*'에 실려 있다.

19) Lowe, Mark(2008)에서는 할리데이가 촘스키를 언급할 때 항상 분명하고도 용의주도하게 촘스키 이론과의 차이를 힌트 차원에서만 말했다고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rk Lowe(2008)는 둘의 이론 차이는 명명백백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촘스키는 언어가 선천적이라 했으나 할리데이는 학습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촘스키는 인간이 뇌에 문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했으나 할리데이는 문법은 기능을 반영할 뿐이고 경험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였다. 촘스키는 보편 문법을 믿었지만 할리데이는 믿지 않았다. 촘스키는 언어는 경험과는 무관하다고 하였으나 할리데이는 언어란 다른 사람과의 경험과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통해서 발달된다고 하였다. 촘스키 이론은 데카르트식으로, 마음은 사물과 구분된다고 하였으나, 할리데이 이론은 다원식으로, 언어와 마음은 같은 법칙을 준수한다고 했다. 촘스키 이론은 형이상학적이지만 할리데이 이론은 과학적이라고 구분했다.

회망 연구는 체계 언어학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Bernstein의 영향을 받은 할리데이는 언어학은 사회적 행동의 형태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다. Bernstein은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이 컸으며, Class, Codes, Control 관련 일련의 시리즈 책을 냈는데, 이것들은 해당 분야의 고전적인 책들이 되었다. 그는 1991년에 은퇴 후 여러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기도 하였다.[20)]

2.5.4. Jim Martin과 Richard ("Dick") Hudson

할리데이 제자 가운데 캐나다 출신의 Jim Martin이 주목된다. 그는 호주 시드니 대학 언어학과 교수인데, 그의 연구 분야는 체계 이론, 기능 문법, 담화 의미론, 사용역, 장르, 복합양식성, 비판적 담화 분석 등이다. 또한 교육 언어학과 사회기호론 연구도 하고 있는 그는 영어와 타갈로그어(Tagalog)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틴은 자기가 캐나다에서 학부학생일 때 할리데이의 논문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특히 할리데이가 언어가 지닌 사회적 통찰력에 매료되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언어학은 사회적 행동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하는 할리데이의 사상을 주목했다고 한다.

Richard ("Dick") Hudson도 할리데이 학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자이다. 1963년에 SOAS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할리데이의 OSTI 프로젝트(1964-67)에 함께했다. 그때 허드슨은 상세한 체계적 영어 문법을 개발해 내었으며, 이후 the Nuffield 프로젝트(1967-70)에도 참여를 했다. 허드슨은 프로젝트 경험을 되살려 표준 SFG 형식주의를 도출하였으며, 1976년에 '딸 의존 문법'(Daughter Dependency Grammar) 연구물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는 의존 아이디어를 다른 방식의 체계적 형식주의로 변환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문법, 즉 '단어 문법'(Word Grammar)를 개발하게 된다.[21)]

2.5.5. Sydney Lamb, Michael Gregory, Jeff Ellis

1966년, 41세에 할리데이는 미국 예일 대학 Sydney Lamb 교수를 만났다. 제자였던 Ruqaiya Hasan이 당시 근처 버클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이후 예일 대학으로 가서 Lamb 교수 아래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그즈음 할리데이는 제자 Hasan과 오클란드에서 결혼을 하였다.

앞서 2.4.5.에서도 살핀바, 할리데이는 Lamb 교수를 1963년에 처음 만나서 그들이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할리데이의 체계 이론과 Lamb의 성층 이론

---

20) Bernstein, B. (ed.) (1973), Class, Codes and Control, *Volume 2: applied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21) '단어 문법'은 Richard (= Dick) Hudson이 1980년대 초반부터 개발하여 온 언어 구조 이론으로 지금도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단어 문법은 할리데이의 체계기능문법과 허드신 자신의 '딸 의존 문법'(Daughter-Dependency Grammar)에서 유래된 것이다. 후자는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 문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허드슨의 '단어 문법'은 변형 문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받아들이면서도 기능 자유 구절 구조와 변형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론을 추구하고 있다. (https://dickhudson.com/word-grammar/)

(stratificational theory)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뜻했다. 이는 곧 컴퓨터가 언어학 연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램은 문법을 명확히 하여 컴퓨터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고 할리데이는 회고하고 있다. 그것도 기존의 기술언어학의 업적들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유지한 채로 말이다.

Michael Gregory는 1963년에 영국 Leeds 대학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캐나다 토론토 Glendon 대학에서 영어과 교수로서 여러 체계기능언어학자들을 길러냈다. 1964년에는 Spencer와 공동으로 사용역(register, 이후 style이라고 불림.) 분야의 저서를 내기도 했다.

Jeff Ellis는 1950년에 영국 Nottingham에 있었고 이미 박사학위를 받은 상태였다. 그의 전공은 슬라브어이고, 할리데이와 함께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잉글랜드 북동부에 있는 Hull에 있는 독일어과에서 교수직을 수행했다.

2.6. 방랑의 시절 (1970-1975) (45-50세)

할리데이는 1970년 말까지 영국 런던대(UCL) 학과장으로 직에 있었다. 1971년에 일반언어학과는 음성학과와 통합하여, 새로운 학과, 즉 '음성학 및 언어학' 학과로 되었다. 할리데이는 UCL의 일반언어학과의 처음이자 마지막 학과장이었던 셈이다. 1970년, 촘스키주의자들과 영국 대학들의 유럽 기능주의자들 사이의 싸움이라는 큰 짐이 할리데이에게 주어졌다. 사실 할리데이는 언어 연구와 동떨어진 계속된 싸움에서 지쳐 있었다.

2.6.1 캐나다,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석좌교수직 불발

할리데이는 캐나다의 UBC 석좌교수직을 제안받았다. 이 자리는 좀 편안하겠다고 생각한 할리데이는 런던대(UCL)에 사표를 냈다. 그러나 나중에 캐나다 정부는 그가 공산당과 연계되어 있다고 파악하고는 영주권을 허락하지 않았다. 단지 할리데이가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만 허락했다. 그것도 토론토에 한해 Richard Handscombe이 동행한다는 조건으로였다. 만약 할리데이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그 직책을 맡았다면 그는 호주 시드니로 가지 않았을 테고, 그리하면 체계기능언어학의 역사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나갔을 것이다. 최소한 지리적인 면에서라도 말이다.

할리데이는 다시 UCL로 복귀할 수 있을까 문의했으나 이미 학과 통합이 단행되어서 그건 불가능했다. 할리데이는 그로부터 5년간 특별한 직이 없는 가운데, 단지 몇몇 곳에서 방문학자의 생활을 해야 했다. 주로 미국에서 있었고 아프리카와 영국에서도 있었다. 이 기간에 할리데이는 사회 기호학 개념을 연구했다. 그때 통사론에 집중하는 미국의 구조주의자들로부터 많은 압력이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할리데이는 언어의 사회적인 측면에 훨씬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다.[22)]

---

22) 인터뷰 글인 Kress etc. (1992)에서 할리데이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이유로 직업을 박탈당하는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문화원은 그 당시 나를 어느 곳으로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음에도 말이다."

2.6.2. 미국, Brown 대학 및 케냐, Nairobi 대학 방문교수 (1970-1972)

1970년, 할리데이는 미국 Rhode Island의 Providence에 있는 Brown 대학에 방문교수직을 얻게 된다. 아내 Ruquaiya와 18개월 된 아들 Neil도 함께 갔다. 1970년 9월 14일에 런던을 떠나게 된다.

1972년 초, 그들은 Providence를 떠나게 된다. 할리데이가 케냐 Nairobi 대학에서 방문교수직을 얻게 된 것이다. 아내 Ruquaiya는 파트타임직을 구하게 되는데, 이는 아들 Neil을 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 대학에서 문체론 관련 토론식 수업을 진행했다.

2.6.3. 미국, Stanford 대학 및 일리노이 주립대 연구직(fellowship) (1972-74)

Nairobi 대학 방문학자 기간이 다한 후, 할리데이는 2년간 미국에 머무르게 된다. 1972-1973 학기에, 그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Stanford 대학 행동과학연구소에서 연구직을 수행하게 된다. Ruquaiya Hasan은 샌프란시스코 UC Berkeley에서 방문교수직을 갖게 된다.

1973-1974 학기 때, 할리데이는 Chicago Circle의 일리노이주립대에서 언어학과 연구직을 수행한다. 아내인 Hasan은 Urbana의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방문학자직을 얻게 된다.

2.6.4. 영국, University of Essex 교수(임시직) (1974-75)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할리데이는 부친의 집 근처에서 일을 하고자 했다. 그래서 영국 Essex 대학의 언어학과 학과장이었던 Michael O'Toole에게 얘기했고, 일정한 직을 배당받기로 했다. 그해 부친이 사망했다. 그 학과에는 Peter Wexler도 있었는데, 학과장의 오랜 동료였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른 멤버들은 모두 강력한 형식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할리데이의 기능적 접근법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제자인 Jim Martin에 의하면, 그 당시 분위기가 무척 스트레스가 있었고 유쾌하지 못했다고 한다.

Jim Martin은 그때 처음으로 할리데이를 만났다. 마틴은 본래 캐나다 Glendon College에서 학부를 다녔고 석사학위 이후 할리데이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박사학위 지도교수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캐나다 정부 장학생이었던 마틴은 수락을 받고 바로 Essex 대학에 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매주 박사논문 지도를 받았다. 마틴의 박사논문 주제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토리텔링 발달이었다.

그러나 할리데이는 1년만 그곳에 있었고, 호주 시드니 대학에서 신설 예정인 언어학과 학과

Kress, Gunther, Ruquiya Hasan and James R. Martin (1992), Interview ---M. A. K. Halliday May 1986, *Social Semiotics* 2-1, pp. 176-195.

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리하기로 결심했다. 맨처음에 마틴은 할리데이를 따라가는 걸 주저주저했다. 거리가 너무 멀고 박사과정 대학원생으로서 토론토로 왔다갔다 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지도교수를 따라서 호주 Sydney로 갔으며, 거기서 강사직을 얻었다. 그는 박사논문을 완성하여 1978년에 Essex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2.7. 호주 시절 및 은퇴 (1975-1987) (50-62세)

2.7.1. 호주 Sydney 대학 석좌교수 (1975-1987) (50-62세)

1975년, 50세에 할리데이는 호주 시드니 대학의 석좌교수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1987년, 62세 은퇴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할리데이는 단지 체계기능학자들로만 학과를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다. 처음 두 사람을 체계기능주의자가 아닌 사회언어학자인 Barbara Horvath와 호주 원주민 언어 전공자인 Michael Walsh를 임명했다. 이어서 곧 제자인 Jim Martin을 임명했다. 마틴은 캐나다 출신의 젊고 유능한 언어학자로 이미 Gregory로부터 '등급과 범주 문법' 및 neo-Firthian 언어학에 훈련을 받은 상태였다.

2.7.2. 호주, 언어 발달 프로젝트 및 언어 교육 네트워크 참여

할리데이는 대형 모국어 연구 프로그램인 '언어 발달 프로젝트'(Language Development Project)에 관여를 하고 있었다. 1970년대 후반, 호주 Canberra의 커리큘럼 개발 센터는 언어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는데, 이때 할리데이를 핵심 자문자로 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모국어 교육 프로젝트였다.

할리데이는 1987년에 호주의 '언어 교육 네트워크'(Language in Education network)에서 활발히 참여하였다. 이것은 언어학자와 교육가들이 함께하는 유동적인 네트워크로, 호주 전역에 걸쳐서 언어 교육 관련 회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이것은 1979년에 Fran Christie가 안을 내고 Halliday가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이었다.

1986년에 할리데이는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문법을 주제로 과정을 열었는데, 이것은 기호학 연구소에서 주최한 것이었다. Christian Matthiessen은 처음 이 과정에 참여를 하였다. 이 시기에 할리데이와 Christian은 경험적 의미론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세미나 과정들 중간중간에 그들은 투자자인 Bill Mann에게 소위 'Bloomington Lattice'(블루밍턴 격자)라고 불리는 안을 제공해 주었다. 이것은 웹 온톨로지(ontology) 차원에서 언어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특성들이 문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후 로봇과 자연언어 프로세스 과정에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이었다.[23)]

23) 투자자인 Bill Mann이 할리데이에게 요청한 것은 자연 언어를 인공 언어화하는 Penman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이었다. Penman 시스템은 텍스트 생성과 관련한 것으로, 지식 습득 모듈, 텍스트 계획 모듈, 문장 생성 모

2.7.3. 은퇴

1987년, 62세에 은퇴를 한 할리데이는 싱가포르, 영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방문학자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15일, 93세의 나이로 호주에서 운명을 다하였다.

할리데이는 그의 생애에 약 200여 편의 논문과 30여 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의 주요 논문들은 다음과 같이 시리즈로 묶여서 출판되었다. 시리즈의 제목만 봐도 그의 학문 여정이 어떠했었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1권(2002): 문법에 대하여
2권(2002): 텍스트와 담화의 언어학적 연구
3권(2003): 언어와 언어학에 대하여
4권(2003): 아동기의 언어
5권(2004): 과학의 언어
6권(2005): 전산학 및 계량적 연구
7권(2005): 영어 연구
8권(2005): 중국어 연구
9권(2007): 언어와 교육
10권(2007): 언어와 사회
11권(2018): 21세기의 할리데이

3.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징

지금까지 할리데이의 생애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체계기능언어학이 지니는 몇 가지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체계기능언어학이라는 모델이 지니는 특징을 주목되는 것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첫째, 체계기능언어학은 철저하게 기능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형식주의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변형생성문법과는 완전히 대립되는 성격이다. 본래 유럽은 퍼스식(Firthian)의 기능주의가 학문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1960년대 중반에 촘스키식(Chomskyian) 형식주의가 유럽을 강타하였다. 할리데이는 촘스키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언어 능력(Competence)을 강조하는 사조를 알고 있었으나, 단호히 촘스키 이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언어학은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실제 적절한 것들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Bernstein의 사회이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언어학은 사회적 행동의 형태 이상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 촘스키 문법은 모국어 화자가 자기 언어에 대해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체계기능문법에서는 그 아는 걸로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 데서

듈, 평가 및 계획 변화 모듈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문장 생성 모듈이 바로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William C. Mann(1983) 참조.

도 할리데이의 관심 적용 주제가 아동의 언어 발달, 제1언어와 제2언어의 교수학습, 교육적 연구, 사회적 및 인류학적 연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체계적'(Systemic)이라는 말과 '기능적'(Functional)이라는 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계적'이라는 말은 모든 언어 표현이 일정한 체계를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기능적'이라는 말은 해당 언어 표현은 각각 일정한 의미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뜻한다. 즉 모든 언어 표현은 각각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특정한 언어 표현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일정한 의미 기능을 뜻한다는 것이다. 할리데이는 통시적 가치보다는 공시적 가치를 우선시했고, 언어가 지니는 계열 관계를 중요시했다.

셋째, 모든 언어 표현은 가치가 있다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생각은 당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언어적 변이형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언어학에서도 비표준 방언, 구어, 식민지 언어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결국 상황적 맥락을 강조하는 '사용역'(register)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각 지역의 방언들을 인정하면서 해당 언어가 지니고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 즉 장르(genre)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할리데이는 언어를 사회기호학(social semiotics) 차원으로 보면서, 언어가 지닌 의미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연구 태도를 지닌다.

넷째, 이러한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징은 할리데이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구체화된다. 할리데이는 에딘버그 대학에 근무하면서 교육 언어학 관련 여러 사업을 하게 된다. 특히 언어학자들과 현장 교사들이 함께한 세미나와 여러 작업은 응용언어학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언어학과 언어 교육이라는 것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원하는 언어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리하여 할리데이는 실제 언어 교육에 유용한 언어학을 개발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할리데이 초창기의 '등급과 범주 문법'이 '체계 기능 문법'으로 변모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교실에 유용한 문법을 제공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다섯째,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언어 교육을 중시한다. 모국어 교육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할리데이는 16세부터 중국어 집중코스 교육을 받았으며 18세 군복무 때도 중국정보국에 소속되어서 항상 중국인들과 중국 관련 정보를 접했다. SOAS에서도 공군장교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22세 중국에 가서도 중국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북경대와 링난대에서 영어 교육을 하기도 했으며, 에딘버그 대학에서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수업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제 외국어 교육을 실천하면서 교수법 등 여러 노하우를 구축하게 된다. 물론 에딘버그 대학과 런던대학에서 근무할 때 수행했던 학교 교사들과의 여러 프로젝트는 모국어 교육에서 언어학이 기여할 방법들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체계기능언어학은 모국어 교육과 외국어 교육에서 언어학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섯째, 할리데이의 체계기능언어학은 응용학문으로서 지금의 컴퓨터언어학의 성격을 띠기도 하였다. 그가 책임을 맡은 1967년의 OSTI 프로그램 사업은 과학적 영어의 언어학적 특성을 밝히는 일이었는데, 할리데이의 제자인 허드슨은 영어 절의 정확하고 미세한 문법을 개발

하였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체크를 위해서 정확한 체크 네트워크와 구체적인 규칙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프로젝트에서 컴퓨터 전문가 헨리치는 시스템 네트워크가 문장을 생성하는 방안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1966년에 미국에서 시드니 램 교수를 만나서는 체계 이론과 성층이론이 호환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문법이 명확히 전산화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할리데이의 저서 가운데 전산언어학이라는 책이 있는 게 우연이 아닌 것이다.[24)]

지금까지 할리데이의 생애를 통해서 체계기능언어학의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보았다. 그 다음으로는 할리데이 개인적 생애를 통해서 드러난 특이한 사항을 살피도록 한다.

첫째, 왜 체계기능언어학이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미주 지역에서는 꽃피지 못했을까 하는 궁금 사항이다. 할리데이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그가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한다. 자본주의의 본산인 미주 지역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지닌 할리데이가 활동하기에는 제약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1970년 할리데이가 캐나다 UBC 석좌교수 자리에 제안을 받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결국 캐나다 정부에 의해서 영주권이 허락되지 않았던 데서 결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그 전에도 1950년 영국 런던대 언어학과 Firth 교수 밑에서 박사논문을 위해 과정에 지원했을 때도 공산당원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안 되었던 것을 상기해 볼 수 있다.

둘째, 이는 결국 현재 영국과 호주가 체계기능언어학의 본산으로 되게 된 결과로 이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할리데이와 관련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관련 연구가 활발하다. 중국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회'와 '영한담화분석연구회' 두 개나 학회가 있는데, '적용언어학' 혹은 '系統功能言語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북경대에는 따로 '할리데이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에서도 '日本機能言語學會'가 설립되어 있고 학회지까지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이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등 할리데이가 은퇴 이후에 방문학자로 활동한 것을 미루어볼 때 그것들에서도 체계기능언어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할리데이의 생애를 통해 볼 때, 그에게 큰 영향을 준 학자는 영국의 Firth, 중국의 Wang Li가 유력하며, 그 외 Bernstein, Sydney Lamb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서 할리데이의 사상을 이어받은 학자들로는 Hasan, Martin, Michael Gregory, Matthiessen, Hudson 등을 들 수 있다.[25)]

넷째, 할리데이가 공산당원이었다고 하면 마르크스 이론도 학습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련의 언어학, 즉 마르 이론도 공부하였을 터인데, 언어의 상층 구조를 인정하는 소련의 언어학 전통이 할리데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더욱 궁금해진다. 정치적 맥락을 중시하는

---

24) 일곱째, 할리데이의 업적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 많이 다루지 못한 것이 텍스트 분석과 관련된 것이다. 텍스트와 상황 맥락, 문화 맥락, 사회 구조를 연계하여 이론화하는 할리데이의 담화 의미 관련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주고 영향을 끼쳤다. 특히 문체론, 문학적 문체론, 사용역 분석, 담화 분석, 비평적 담화 분석, 다모드 분석, 문식성 연구, 특수 목적 언어 연구들이다. 특히 비평적 담화 분석 연구는 본래 체계능언어학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그 적용 영역이 더욱 넓어진 상태이기도 하다(Davidse, 2018 참고).

25) Alan Jones(2010)에서는 2010년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할리데이 제자들로 Ruqaiya Hasan을 비롯하여 Jim Martin(시드니 대학 언어학과 학과장), Christian Mathessen(Macqureie 대학 언어학과 학과장), David Butt(Macquarie 대학 사회생활언어센터장), Geoff Williams(캐나다 UBC), Eric Steiner(독일 Saarland 대학)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련언어학이 분명 할리데이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맺음말

모든 언어 표현은 일정한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는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 언어 표현들 가운데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체계기능언어학의 기본 전제이다. 따라서 체계기능언어학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황 맥락을 중시하면서 화자는 자신의 관념을 청자와의 관계 속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관념적 대기능, 대인적 대기능, 텍스트적 대기능을 표현하고 파악하는 데 힘을 쏟는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체계기능언어학이 할리데이가 살아온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본 점이 바로 이 발표에서 주목한 것이다. 특별히 체계기능언어학이 촘스키 언어학의 거센 물결에 대항하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성격을 띠는 체계기능언어학은 모국어와 외국어 교육에서 유용한 모델로서 발전해 온 역사까지 살펴본 셈이다.

이제 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던 할리데이의 생애를 다시 나이와 연도에 따라서 표로 제시함으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한다.

◎ 할리데이의 생애 연표 (1925.4.13.~2014.4.15.)

시기	나이	연도	내용	기간
1. 어릴 적 학창 시절 (1-18세)	1	1925	영국 북부 Yorkshire의 Leeds에서 출생	
	4	1929	West Leeds Elementary School (in Leeds) 입학	
	7	1932	the Abbey School (in Whitby) 전학	
	9	1934	the Flying Hall School (in Robin Hood Bay) 전학.	
	13	1938	Rugby School 입학	
	16	1941	육군본부의 외국어집중코스 훈련받음	20개월
2. 전쟁과 중국 유학 시절 (18-25세)	19	1944	군 입대 및 인도 내 중국정보국 복무	
	21	1946	런던대 SOAS 복귀 및 중국어 강의 시작 런던대 문학부 등록 및 군 복무 마침.	
	22	1947	중국 북경대학과 링난대학에서의 대학원 과정 등록 및 영어 강의	2년
	24	1949	중국, 중국산업협력체(CIC) 근무	6~7개월
3. 캠브리지 대학 시절 (25-33세)	25	1950	영국 캠브리지대 대학원 입학	
	28	1953	캠브리지대 전임강사 채용 및 박사학위 취득(54)	5년
	30	1955	캠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 받음. (The language of the Chines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32	1957	첫 논문 발표: 'Some Aspects of Systemic Description and Comparison in Grammatical Analysis'	
4. 에딘버그 대학 시절	33	1958	영국 에딘버그 대학 '영어와 일반언어학과' full lectureship 채용 및 이중언어 수업	5년

(33-38세)	36	1961	Firth 모델을 문법에 적용한 논문 발표: 'Categories of the Theory of Grammar'	
	38	1963	-미국 Georgetown 대학에서 열린 '언어학과 언어교육 원탁 모임'에서 총스키 언어학에 입장 논문('Syntax and the Consumer') 발표. -예일 대학 Sydney Lamb 교수 만남: 체계 이론과 성층 이론의 전환 가능성. 언어학의 컴퓨터 사용 가능성 확인.	
5. 런던 대학 시절 (38-45세)	38	1963	런던대학 의사소통연구센터(CRC)장 부임	7년
	39	1964	-The Nuffield Project: 언어학과 영어 교육 프로그램 [교사와 언어학자들 협업] (1964-1970) -OSTI 프로그램: 과학적 영어의 언어학적 특성 밝히는 프로그램 개발	6년
	40	1965	-런던대 일반언어학과 창과 및 학과장 취임. -학과에서 세미나 시리즈 시작: 사회학자 Bernstein 팀과의 교류.	
	41	1966	-미국 예일 대학 Sydney Lamb 교수 만남: 전산언어학 -Ruquaiya Hasan과 결혼.	
6. 방랑의 시절 (45세-50세)	45	1970	미국, 브라운 대학 방문교수	
	47	1972	캐냐, 나이로비 대학 방문교수	
	47	1972	미국 스탠포드 대학 연구원	
	48	1973	미국 일리노이 대학 언어학과 교수(임시직)	
	49	1974	영국 Essex 대학 교수(임시직)	
7. 호주 시절 및 은퇴	50	1975	호주 Sydney 대학 석좌교수	12년
	61	1986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일상생활에서의 문법을 주제로 코스를 엶	
	62	1987	호주 언어 교육 네트워크 운영 및 은퇴	
	63	1988	싱가포르, 영국, 일본, 홍콩 등지에서 방문학자	
	92	2018	사망	

참고 문헌

김서경(2019), 국어 교과서 텍스트의 대인관계적 기능 분석, **한국어문교육 26**,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55-188.

김지혜·남상준·권정화(2013), 초등 사회 교과서 '지리·환경' 영역 텍스트 분석: Halliday의 사용역(Register)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87-101.

맹강(2018),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 연구: '개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맹승호(2008), 수업 담화 장르에 기반한 광물과 암석 단원 과학 수업의 양태 변화: 담화 리지스터와 언어 코드적 접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미준(2015), '참여(engagement)' 표지의 영한 번역 연구: <월스트리트 저널>의 오피니언 번역 사례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9(2),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183-202.

박종훈(2007), 설명 화법의 언어 형식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승은(2016), 글과 그림의 서사: 체계기능언어학으로 본 '확장' 그림책 번역, **번역학연구 17(2)**, 한국번역학회, 55-80.

소지영(2020), 학문 문식성 신장을 위한 기능적 메타언어 관점의 문법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소지영·성경희·주세형(2018), 중학교급 학습자 서술형 답안의 언어적 특성 연구, **국어교육 161**, 한국어교육학회, 159-187.

신범숙(2020), 한국어(KSL) 학습자의 학업 문식성 향상을 위한 교과 언어 교육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신희성(2019),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에 대한 문법교육적 연구 -언어하기 관점을 바탕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이관규(2018),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성과 텍스트 평가, **문법교육 34**, 한국문법교육학회, 195-222.

이관규(2019), 체계기능언어학의 한국어교육학적 적용 방안, **한국어교육 30(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45-162.

이관규·김서경·노하늘·성수진·신희성·유상미·이현주·정려란·정지현·정혜현(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

이관규·신희성(2020), 체계기능언어학적 텍스트 분석을 위한 동성 체계에 대한 기초 연구 -과정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87**, 한국어학회. 91-130.

이슬비(2016), 한국어 학술 텍스트의 필자 태도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연(2016), 사회과 텍스트 분석을 위한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의 이용: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4)**, 173-224.

이정아·맹승호·김혜리·김찬종(2007),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초등 과학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7(3)**, 242-252.

이창수(2010), 제인 오스틴의 Pride and Prejudice 작품의 등장인물 성격에 대한 체계언어학적 분석연구, **언어와 언어학 47**, 167-189.

전수경(2017), 수학적 대상의 측면에서 고등학교 수학 교수실행의 구조 분석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고찰,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수경·조정수(2015), 고등학교 수학교과서의 설명텍스트와 교사 설명담화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비교 분석:‘이차함수와 이차방정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수학교육학연구』 25(4), 대한수학교육학회, 525-547
전영철(2013), 한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국어학 68**, 국어학회, 99-133.
정려란(2018), 국어 문법적 은유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접근, **한국어문교육 26**,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97-126.
정려란(2021), 체계기능언어학 기반 한국어 문법적 연어의 사용 양상과 의미 기능 연구 -학술텍스트를 주심으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정승철(2018), 한국어 정보구조의 보편성과 화제 구문의 특수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재훈(1999), 체계, 기능 언어 이론의 이해, **언어정보 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19-257.
정지현(2021), 내용교과 담화 읽기에서의 학습자 언어 인식 연구 -체계기능언어학의 문법적 은유 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혜현(2019), 통일 관련 역대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동성(transitivity) 체계 선택과 인식 분석, **한국어문교육 27**,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23-153.
제민경(2015), 장르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조진수(2016), ‘타동성'의 문법 교육적 위상 정립을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74**. 국어국문학회, 71-97.
조진수(2018), 문법 문식성 관점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조진수(2021), 문법 문식성과 문법교육, 사회평론.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세형(2006), 문법 교육론과 국어학적 지식의 지형 확장, 역락.
주세형(2009), 할리데이 언어 이론의 국어교육학적 의미, **국어교육 130**, 한국어교육학회, 173-204.
진염평·송향근(2019), 한국어 담화 텍스트의 서법 은유 고찰: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5*,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55-84.
진염평·진염(2020), 태도평가 관점에서 본 남북한 정치 사설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 한국어문교육 31,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43-177.
차현정·김찬종·맹승호(2011), 장르와 레지스터 분석에서 나타난 중학생의 지구과학 주제 글쓰기의 언어적 특징, **한국지구과학회지 31(1)**, 84-98.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Banks, David (2019),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English: A Simple Introduction,* Abingdon: Routledge.
Bartltt, Tom and O’Grady, Gerard (eds.) (2018), *The Routledge Handbook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Bernstein, B. (ed.) (1973), Class, Codes and Control, *Volume 2: applied studies towards a sociology of languag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Davidse, Kristin (2018), A tribute to M.A.K. Halliday (1925-2018), *Functions of Language* 25(2), John Benjamins Publishing, pp. 205-228.
Halliday, M.A.K. & Matthiessen, C.M. (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Halliday, M.A.K. & Matthiessen, C.M. (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4th),*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Halliday, M.A.K. (1957) Some aspects of systematic description and compariϭson in grammatical analysis,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Special Volume of the Philological Society, Blackwell, pp. 54-67.

Halliday, M.A.K. (1959), *The language of the Chinese 'Secret History of the Mongols',* Oxford: Blackwell. [Ph.D. Thesis of Cambridge University, 1955]

Halliday, M.A.K. (1961), Categories of the theory of grammar, *Word* 17(3), pp. 241-92.

Halliday, M.A.K. (1985),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Halliday, M.A.K. (199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2nd),* London: Edward Arnold.

Halliday, M.A.K. (2002),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1: On Grammar,*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2),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2: Linguistic Studies of Text and Discourse,*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2),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3: On Language and Linguistics,*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4),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4: The Language of Early Childhood,*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4),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5: The Language of Science,*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5),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6: Computational and Quantative Studies,*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5),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7: Studies in English Language,*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7),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10: Language and Society,*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7),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8: Studies in Chinese Language*.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7),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9: Language and Education,*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8),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11: Halliday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Halliday, M.A.K. (2009), *The Essential Halliday,* edited by Jonathan J. Webster, New York and London: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Jones, Alan (2010), Michael Halliday: An appreciation by Alan Jones, *International House Journal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28.

(https://ihjournal.com/michael-halliday-an-appreciation/print/)

Kress, Gunther, Ruquaiya Hasan and James R. Martin (1992), Interview --- M.A.K. Halliday May 1986, *Social Semiotics* 2(1), pp. 176-195.

Lowe, Mark (2008), Michael Halliday at 80: A Tribute, *International House Journal of education and development* 24. (https://ihjournal.com/michael-halliday-at-80-a-tribute/print/)

Mary Macken-Horarik, Krstina Love, Carmel Sandiford and Len Unsworth (2018), *Functional grammatics: re-conceptualizing knowledge about language and image for school English*,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O'Donnell, Mick (2019), *Michael Alexander Kirkwood Hallida: A biography,* Unpublished manuscript. (http://www.isfla.org/Systemics/History/HallidayLifePart1-2-vOct08.pdf)

Pakir, Anne (2019), Professor Michael Alexander Kirkwood (M.A.K.) Halliday, 1925-2018, founding father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sian Englishes* 21(3), Routledge, pp. 324-328.

Reid, T.B.W. (1956), Linguistics, Structuralism and Philology, *Archivum Linguisticum: A Review of Comparative Philology and General Linguistics* 8, pp. 28-37.

Steiner, Erich (2018), Obituary: A tribute to M.A.K. Halliday, *Lingua* 216, pp. 1-9.

Suzanne, Eggins (2004),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2nd)*, New York and London: continuum.

Thompson, Geoff (2014),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2nd)*.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Wells, J.C. (2002), J. C. Wells, *Linguistics in Britain: Personal Histories*, edited by Keith Brown and Vivien Law.

William C. Mann(1983), An Overview of the Penman Text Generation System, AAAI-83 Proceedings, 261-265.

<할리데이의 생애를 통해 본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징>에 대한 토론문

유혜원(단국대)

이 연구는 할리데이의 중요한 이력을 통해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징을 자세히 고찰하여, 체계기능언어학에 대해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기능언어학의 성립에는 언어교육과 관련된 실천적 국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컴퓨터로의 언어 구현, 사회이론과 언어학이 결합된 사회언어학적 연구 등이 체계기능언어학의 성립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기능언어학에 대해 토론자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의문에 대해 질문드림으로써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성립과 발전에 언어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체계기능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은 매우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언어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언어 연구에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접근은 언어를 도구적 관점으로만 한정하여, 인간과 언어에 대한 본질적 탐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체계기능언어학의 방법론으로 연구를 진행하다 보면 타동성 분석과 같은 분석은 전통문법을 비롯한 언어 연구 방법론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성분분석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체계기능언어학이 세 가지 층위를 한번에 분석하여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만의 고유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전체 언어학사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발표문에서 성층이론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체계기능언어학이 발딛고 있는 언어학적 유산이 무엇인지 언어학사의 관점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할리데이의 생애와 더불어 체계기능언어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체계기능언어학이 교육에서 유용할 수 있는 이유는 언어 평가에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구성에도 이러한 미세한 분류 체계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 언어의 다면적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여러 가지 특성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텍스트가 함의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분석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론자가 개인적으로 체계기능언어학의 방법론을 토대로 텍스트를 분석할 때 결국 평가나 이데올로기 분석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언어연구 방법론을 따르기보다 연구자의 개인적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언어교육에서 언어평가는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인데 체계기능언어학이 이러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선생님의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체계기능언어학의 실용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의 한 갈래로 언어학을 이해한다면 이 이론이 지나치게 표면적이거나 도구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위의 질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의 발표와 답변을 통해 저의 오해가 이해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의 활용 양상과 쟁점

신희성(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 서론

체계기능언어학은 형식주의 언어학과 대비되는 기능주의 언어학의 한 사조로 언어와 관련해 언어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의미의 계열적 관계를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언어의 주요한 의미기능을 경험에 대한 표상(관념적 기능), 언어 사용자 간의 관계 및 역할 정위(定位)(대인적 기능), 텍스트의 조직(텍스트적 기능)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봄으로써 실현된 텍스트를 다면적으로 분석해 보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또 체계기능언어학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상황적이거나 사회문화적인 맥락까지지도 종합하여 언어 현상을 보다 깊이 있게 통찰하고자 한다. 체계기능언어학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은 우리가 텍스트에 대해 가지는 인상을 보다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게끔 돕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해당 이론을 텍스트 분석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실제 국내외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은 언어교육 분야뿐 아니라 다른 교과교육학이나 번역학, 문예 비평, 비판적 담화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1] 이들은 체계기능언어학을 텍스트 분석의 도구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실현된 텍스트의 이면에 있는 다른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점에서 언어 현상 규명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언어학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국어학 외에 타 학문 분야에서 오히려 체계기능언어학 관련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이 언어학 이외 분야에서 활발히 주목받고 있는 시의에 맞춰 국내 여러 분야에서 누적되어 온 체계기능언어학적 텍스트 분석의 성과를 종합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언어 현상 규명이 아닌 다른 목적성을 지니는 학문들에서 왜 체계기능언어학에 매력을 느끼는지 그 가치를 살펴보고 그러한 가치가 실제 성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어학의 입장에서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을 보다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본다.[2]

---

1) 체계기능언어학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의 성과에 대한 정리는 Bloor&Bloor(2004), Martin(2005), Schleppegrell(2012), Bloor&Bloor(2017), He(2019)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 중 Martin(2005)과 Bloor&Bloor(2017)은 특히 비판적 담화 분석(CDA)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내에서도 체계기능언어학은 개별 학문 분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들 연구처럼 그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경우는 아직 없다.

2) Halliday(2011; He, 2019: 33에서 재인용)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같은 것을 칭하는 용어라고 보았다. 텍스트가 언어적인 과정에서 담화를 바라본 것이라면, 담화는 사회문화적인 과정에서 텍스트를 바라본 것이다(Halliday, 2008; He, 2019: 33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언어학 이외 분야의 분석을 살핀다는 점에서 담화 분석이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는 체계기능언어학자이며, 궁극적으로는 다른 분야에서의 분석 역시 언어 현상에 대한 규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글 전체에서는 텍스트 분석으로 통일하여 보기로 한

2. 텍스트 분석에 있어 SFL의 이론적 전제

체계기능언어학은 그 자체로 언어 현상을 밝히는 이론언어학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응용언어학이기도 하다. 체계기능언어학의 주창자인 Halliday는 언어 현상을 규명하여 언어 체계(문법)를 세우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텍스트에 대해 유의미하고 유용한 진술을 만들어 내는 데에 일조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Halliday는 단순히 텍스트의 속성을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텍스트를 평가하는 데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텍스트 분석이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다.[3] 이때 텍스트 평가란 텍스트의 목적과 관련하여 실제 구현된 텍스트가 그러한 목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텍스트 분석은 자연스레 맥락과의 연결로 이어진다(혹은 맥락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체계기능언어학의 유용성 혹은 실용성은 단순히 선언으로 그치지 않고 이미 상당한 양의 성과를 축적해 왔다. 2장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실제 성과를 살피기에 앞서 그러한 성과가 가능할 수 있었던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적 전제(혹은 특징)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Eggins(2004/2021: 25)나 Smirnova&Mortelmans(2010/2015: 63)에서는 아래 4가지로 체계기능언어학의 주요 전제를 요약하고 있다.

(1)
ㄱ. 언어사용은 기능적이다. 언어의 의미와 언어 형식의 규칙성은 언어의 기능적 사용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ㄴ. 언어의 기능은 의미의 생성이다. 의미는 언어사용의 주요 기능적 측면들을 포함한다.
ㄷ. 언어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언어 외적인 사용맥락에 의해 정해진다. 동시에 언어적 수단은 맥락의 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맥락과 언어는 상호 의존적이다.
ㄹ. 언어 사용은 다양한 가능성 중에서 선택을 하는 기호학적 과정에 기초하며, 체계적으로 조직된 수단으로서의 언어는 사용자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Smirnova&Mortelmans. 2010/2015: 63)

이는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의 주요한 전제로 접근법이자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체계기능언어학'이라는 이름에 붙은 '체계'와 '기능'에 대한 환언이기도 하다.[4] (1ㄱ~ㄷ)이 '기능' 혹은 '의미'와 관련된다. 언어 사용이 기능적이라는 것은 곧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곧 의미를 생성하는 일이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다. 다만, 인용하는 경우나 비판적 담화 분석을 칭할 때에는 담화 분석이라는 용어를 함께 쓰기도 한다. He(2019)과 같은 연구에서는 "Systemic-Functional Discourse/Text Analysis"라고 병기한 후, "SFDA"라는 약어를 쓰기도 한다.

3) Eggins(2004; 2021: 714-716)에서는 해석(interprtation)과 설명(explanation) 그리고 이해(understanding)와 평가(evaluation)의 두 용어쌍을 들면서 체계기능언어학의 텍스트 분석이 작가가 텍스트를 통해 만들어 낸 의미를 읽어 내는 것보다 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며, 후자의 과정에서 전자가 성취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4) '체계'와 '기능'을 '계열'과 '의미'로 치환할 수 있음에 대해 특히 전자와 관련한 논의는 신희성(2020: 77-79)을 참고할 수 있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이 의미 생성이 경험을 공유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메타적인 목적을 지니는 것으로 본다. 언어 사용의 기능성은 다시 언어 해석에 있어 맥락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언어 사용자의 의도와 그 의도가 어떤 배경하에 있는지를 살펴야 텍스트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1ㄱ~ㄷ)은 체계기능언어학을 형식주의 언어학에 대별되는 기능주의 언어학에 자리하게 한다. 그렇다고 체계기능언어학이 형식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언어 형식이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 체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체계기능언어학이 언어의 형식과 의미를 탐구하는 접근법을 계열적이게끔 만드는데 (1ㄹ)이 이와 관련되는 진술이다.

Schleppegrell(2012)은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을 개괄한 연구인데 아래 내용과 같이 체계기능언어학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성으로 들었던 ㉠의미(기능) 중심성과 이에 기반한 ㉡맥락 강조, ㉢의미기능 3분화, ㉣선택의 강조가 담화 분석의 '수단, 도구, 방식'이 되어 줌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5)]

(2)[6)]

ㄱ. SFL은 언어에서 의미를 탐구하고 언어 사용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함으로써 ㉡-1 사회적 삶 속에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means)**을 제공한다.
(Schleppegrell, 2012: 21)

ㄴ. SFL 문법에 기술된 언어 체계들은 언어의 의미 영역에 대한 ㉢-1포괄적(종합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의미들을 실현하는 언어적 선택을 분석하는 일은 ㉡-2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와 그것이 사회적 삶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말해 준다.
(p.22)

ㄷ. ㉠-1언어적인 실현에 대한 세심한 주의에 기반한 의미-중심 담화 분석을 위한 **도구(tool)**가 SFL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분석가가 텍스트 구조의 요소를 인식하고, 텍스트에서 참여자를 식별 및 추적하고, 과정의 종류를 탐색하고, 개입된 태도와 판단을 살펴보고, 텍스트가 절에서 절로 이동하는 방식의 차이점을 탐색함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식은 ㉢-2텍스트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미를 추적하는 **방법(ways)**을 제공합니다. 화자/필자가 하는 선택에 대한 세심한 초점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맥락과 언어가 그러한 맥락을 해석하는 데 기여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p.26)

ㄹ. SFL의 **도구**는 ㉣-1사회적 행위자가 의미를 예시화하는 언어 시스템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 SFL은 ㉢-3언어를 포괄적으로 탐색하고 담화 자료를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 SFL 분석은 양적 연구뿐 아니라 질적 연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p.29)

(2)의 내용 중 (1)에서 다루지 않은 것은 의미기능의 3분화이다. 1장에서 언급했듯 언어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본 것은 다른 접근법 차원의 이론적 전제들을 구체화해 주고 관련 논의들은 실제 텍스트 분석에서 지침이 되어 준다. 예를 들어, (1ㄱ)에서 "언어사용은 기능적이다."라는 절은 관념적 기능 차원에서 '언어사용'이라는 속성 보유자(carrier)와 '기능적'이라

5) 이관규 외(2021)에서는 '계열적 접근의 지향, 어휘문법의 통합, 사례화, 계층화, 대기능'을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적 전제로 기술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6) 이하 이 발표문에 쓰인 예시문들의 모든 밑줄과 굵게 표시는 발표자가 한 것이다.

는 속성(attribute)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우리는 언어를 기능적으로 사용한다’와 같은 절에 대비되어 어떤 사태보다는 특정 개체의 특징을 표상하는 식으로 기능한다. 또 대인적 기능 차원에서 해당 절은 평서형의 서법을 선택하고 별도의 양태 표현을 덧붙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학술 서적에 쓰인 절이라는 맥락에서 해당 선택이 단언적인 진술을 통해 객관적인 어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을 소개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므로 이론적 전제에 대한 기술은 소략하게만 기술하고 뒤이어 3장에서 이러한 이론적 전제들이 텍스트 분석 연구들에서 어떤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살피도록 한다.

3.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SFL의 가치와 성과

3장의 기술에 앞서 본 연구에서 검토 대상이 되는 논문들을 보이면 아래 <표 1>과 같다. 해당 목록은 논문 검색이 가능한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체계, 기능, 언어학, 문법, 텍스트, 담화, 분석’을 키워드로 하여 여러 조합을 검색하여 나온 연구물들 중 실제 한 편 이상의 텍스트를 SFL을 활용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 것들을 추린 것이다. 활용 분야 차원에서는 특히 사회과와 과학과에서 교과교육학 차원으로 활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분석 기능과 관련해서는 관념적 기능이 가장 활발히 다뤄지고 있었다.[7)][8)]

<표 1> SFL을 활용한 한국어 텍스트 분석 연구

번호	저자	연도	제목	분야	분석 기능
A1	이정아.맹승호.김혜리.김찬종	2007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초등 과학 교과서 텍스트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	교과교육학(과학)	종합
A2	박종훈	2008	텍스트의 기능적 분석과 그 국어교육적 의미	교과교육학(국어)	관념적
A3	이정아.맹승호.김찬종	2008	과학수업담화의 새로운 독법 교수학적 담화분석	교과교육학(과학)	텍스트적
A4	최미향.전영석	2010	초등과학영재 특성 도출을 위한 탐구활동에서의 담화분석	교과교육학(과학)	텍스트적
A5	김지혜.남상준.권정화	2013	초등 사회 교과서 지리,환경 영역 텍스트 분석	교과교육학(사회)	종합
A6	이창수	2013	국내 신문기사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관한 비평담화분석연구	비판적 담화 분석	관념적
A7	최정순.설규주	2014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진술 방식 및 구조 분석	교과교육학(사회)	종합

7) 이는 향후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평가 이론을(appraisal theory) 활용하거나 장르 혹은 사용역에 초점을 맞춘 경우 제목, 초록, 주제어 등에서 앞서 언급한 체계기능언어학 관련 용어를 쓰지 않아 검색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이들로 분석 대상을 한정한 것은 이들 대상 연구물에서 보이는 SFL에 대한 인식이나 관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 연구물들이 체계기능언어학을 키워드 삼아 최소한의 기술을 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향후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과정, 혹은 후속 연구에서 추가적인 소논문 나아가 학위논문까지도 검토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8) <표 1>에 정리된 연구물들은 본 연구에서 선행 연구보다는 분석 대상으로 위치하기 때문에 저자명과 연도로 인용 표시하지 않고 번호로 발췌 표시하도록 한다. 특히 4장에서는 텍스트 분석의 오류도 점검하게 되는데 이때 본 연구의 초점은 이 연구물들을 비판하는 것이기보다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유용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쟁점을 추출하는 것에 맞춰진다.

A8	박종훈	2015	정보 전달 표현 교육 내용의 보완 모색	교과교육학(국어)	대인적
A9	이승연.차조일.설규주	2015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글로벌 시민성 분석	교과교육학(사회)	텍스트적
A10	김병건	2016	신문의 사설·칼럼에 나타난 '진보'에 대한 비판적 담화 분석	비판적 담화 분석	대인적
A11	김호정	2016	예보(豫報) 담화의 문법교육용 텍스트화 방향 연구	한국어교육	대인적
A12	이승연	2016	사회과 텍스트 분석을 위한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의 이용	교과교육학(사회)	종합
A13	이해영	2017	동사성 체계를 이용한 역사교과서 서술방식 분석	교과교육학(역사)	관념적
A14	조은혜.신동일	2017	'중국인 유학생'에 관한 미디어 담론분석	비판적 담화 분석	종합
A15	강서희	2018	동사성 분석을 통한 청소년 주체의 성장 양상 연구	문예 비평	경험적
A16	김원.최상호.김동중	2018	담론적 관점(discursive approach)에서 중1 수학 교과서의 그래프 정의 분석	교과교육학(수학)	관념적/대인적
A17	소지영	2018	문법적 은유로서 서술성 명사의 텍스트 응집 기능에 대한 연구	교과교육학(국어)	관념적/결속성
A18	소지영.주세형	2018	초등학교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언어적 특성 연구	언어 발달	관념적
A19	신범숙	2018	KSL 학습자의 학업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교과 언어 교육 내용 연구	한국어교육	관념적
A20	이관규	2018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성과 텍스트 평가	교과교육학(국어)	종합
A21	김서경	2019	국어 교과서 텍스트의 대인관계적 기능 분석	교육언어학	대인적
A22	정혜현	2019	통일 관련 역대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동성(transitivity) 체계 선택과 인식 분석	비판적 담화 분석	관념적
A23	김영현	2020	초등 사회교과서 '민주화의 역사' 텍스트의 동사성 분석	교과교육학(역사)	관념적
A24	김한종.이해영	2020	언어학적 접근으로 본 초, 중,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서술방식 비교	교과교육학(역사)	관념적
A25	박진희.주세형	2020	'건의하는 글'에 나타난 필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방식 연구	교과교육학(국어)	대인적
A26	신희성	2020	고등학생의 고쳐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문법적 선택의 유형 및 메타인지 양상 연구	교과교육학(국어)	종합
A27	주세형.정혜현.노하늘	2020	초등학교 4, 5학년 학습자의 경험적 대기능 발달 연구	언어 발달	관념적
A28	이관규.정혜현.노하늘.신희성	2021	경험적 대기능의 장르별 실현 양상 비교 연구	언어 발달	관념적
A29	이해영	2021	평가어(appraisal system)를 활용한 초등 사회과 교과서 서술 분석	교과교육학(역사)	대인적
A30	홍석영	2021	과학사 교과서의 주관적 텍스트에 대한 분석	교과교육학(과학)	대인적

3.1.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SFL의 가치

체계기능언어학 활용 연구들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을 규정하고 있거나 연구 목적과 체계기능언어학을 연결하여 기술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먼저 체계기능언어학을 텍스트 분석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연구들은 체계기능언어학을 도입하지 않았을 때에 대비하여 '객관성, 신뢰성, 과학적 엄밀성' 등과 같은 가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3)

ㄱ. 지금까지 성인 주체 및 다른 청소년 주체들이 청소년 주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자의 이론적 기반 아래 질적으로 탐구되었다. 이런 질적 탐구는 관련 지식이 풍부한 문학 비평가의 통찰에 의존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한된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를 **객관성**을 답보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 Halliday의 체계 기능 언어학의 여러 개념 중 주체가 구현되는 양상을 볼 수 있는 '동사성(transivity)'에 주목한다.

(A15: 231)

ㄴ. 본 연구는 초등 사회교과서 '민주화의 역사' 텍스트에 담겨있는 맥락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과학적 엄밀성**에 기반한 체계기능언어학의 동사성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

체계기능언어학에서 동사성을 통해 구체화 되는 관념적 메타기능은 서술된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곳에 담겨있는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는 도구로, 초등 사회 교과서에 녹아있는 민주주의와 민주화 역사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는 **정밀한 관점**을 제공한다.

(A23: 49, 53)

ㄷ. 특히 여러 방법 중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에 의거한 분석 방법은 텍스트에서 사용된 단어의 문법적 의미론적 분석 방법을 제공 CDA에 **과학적 엄밀성**을 더해주는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다.

…

SFL은 … 다른 분석에 비하여 언어의 쓰임에 대한 비교적 **상세한 분석 방법** 제공하는 기법이기도 하다

(A12: 175, 180)

(3ㄱ)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이 '질적 탐구', '(전문가의) 통찰', '제한된 관점(주관성)'에 대비되는 객관적 연구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체계기능언어학은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특히 관념적 기능을 활용하는 연구들의 경우 전체 텍스트에서 개별 과정들에 대해 특정 유형을 라벨링(labelling)하고 그 결과를 계량하여 경향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체계기능언어학이란 도구의 활용을 객관성 확보로 치환하고 있었다.[9] 이러한 인식은 (3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3ㄷ) 역시 체계기능언어학을 과학적 엄밀성을 더해 주는 도구로 파악하는 동시에 다른 언어학에 대비되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이점을 상세한 분석 방법의 제공으로 보고 있다. 상세한 분석 방법의 제공은 활용의 용이성을 더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과학적 엄밀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재현성(再現性)의 문제와도 연결 지을 수 있다. 이는 4장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또한 앞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적 전제로 맥락과 언어가 상호의존적임을 언급했었는데 이는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 연구물들에서 활용 분야를 막론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특징이

9) 반대로 아래와 같이 체계기능언어학의 활용을 "양적 분석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첫째는 국내 신문 기사의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분석함에 있어 보도의 양적 분석에서 벗어나 텍스트-언어학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기사 내용을 미시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A6: 314)

었다. 다음 (4)에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다.

(4)

ㄱ.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은 언어 그 자체나 상황 맥락뿐만 아니라 담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이 그 언어에 끼친 영향을 이해하려 한다.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언어를 분석하는 것은 언어의 표면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에 작동하는 사회적 힘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다. 텍스트 이면의 사회적 힘을 밝혀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체계 기능 언어학의 체계는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다.

(A15: 232-233)

ㄴ. 체계기능언어학은 단순한 언어학이 아니다. 언어로써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A21: 155)

ㄷ. 즉 교과서에 제시된 민주화의 역사에 대한 서술에는 그 당시 시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성격 그리고 실천과 태도에 대한 사회적 맥락이 녹아있다. 이를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면 교과서가 학습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역사에 대한 맥락을 오롯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 체계기능언어학…에 주목하였다.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은 언어의 맥락과 기능 그리고 형식 사이의 관계를 체계화하고 이들의 상호작용을 토대로 언어에 반영된 사회적 맥락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언어와 사회적 맥락은 상호적 관계와 층으로 긴밀히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언어학은 한 문화를 구성하는 ‘의미의 네트워크’가 담화체계 안에서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바로 사회화의 한 형식이면서 사회 문화를 나타내는 기호가 된다…. 이에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언어구조나 언어구성이 사회목적과 맥락에 맞게 조직된다고 믿으며 …

(A23: 50-51)

ㄹ. 즉, SFL은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등 일상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어휘 문법이 정해진 문법 단어와는 다르다는 것에 착안 사람들이 실제 사용하는 어휘 및 문법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언어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언어 연구의 한 분파이다.

인간의 실제 언어활동을 이해하려면 그 언어를 포함한 텍스트가 생성된 맥락과 그 텍스트가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SFL에는 텍스트뿐 아니라 텍스트가 생성되고 사용되는 곳의 문화적 맥락과 상황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A12: 180)

사실 언어학 이론의 차원에서 봤을 때 체계기능언어학에서 맥락을 중요시하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일조한다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10] 반면, 텍스트 분석 도구로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하는 연구물들은 (4ㄱ)의 기술처럼 “텍스트 이면의 사회적 힘을 밝혀내는” ‘유용성’을 주요한 가치로 꼽으면서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은 텍스트 분석 시 맥락까지 함께 다룸으로써 언어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표라면 이를 활용하는 연구물들은 반대로 텍스트(실현된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거기에 녹아든 맥락, 곧 ‘인간의 삶’(4ㄴ)과 ‘사회 문화’(4ㄷ)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11] (4ㄹ)은 텍스트 분석에서 맥

10) Eggins(2004/2021: 224-225)에서는 ‘You use it, you wash it’이라는 불확실한 텍스트가 상황 맥락으로 인해 의미의 불확실성(indeterminacy)을 해소하게 되는 과정을 간략히 잘 보여 주고 있다.

11) 물론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활용(응용)은 체계기능언어학의 궁극적 목표이기도 하다.

락의 중요성을 연구의 실제성과 연결시켜 그 가치를 찾고 있다.[12)]

맥락은 다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요소로 구성될 수 있는데 체계기능언어학 활용 연구들은 그중에서도 필자(저자) 요소에 주목한다. 저자가 처한 상황, 혹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저자가 어떤 의도나 목적성을 지니고 그에 맞는 선택으로 텍스트를 실현했다고 보는 것이다. 아래 (5)는 체계기능언어학을 도구로 활용하는 이유로 맥락을 초점화한 기술들이 다시 맥락을 '선택'과 연결 짓고 있는 내용들이다. (5ㄱ, ㄴ, ㄷ)은 맥락이나 이데올로기가 언어 선택을 제약하고 차이를 만들어 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5)

ㄱ.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유형의 의미는 진공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요인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언어 형식을 선택하되, 그 선택은 주어진 맥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A2: 432)

ㄴ. 기사가 겉으로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구를 묘사의 대상으로 삼느냐, 어떤 행위를 묘사하느냐, 묘사할 때 어떤 단어나 표현을 사용하느냐 등 언어적 선택(또는 배제)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달라지며 그런 차이의 배경에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사 자체를 언어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텍스트분석이나 담화분석과 같은 언어학적 이론이 적용되어야 가능하다….

(A6: 314)

ㄷ. 특정한 지칭어가 텍스트 내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선택에 모종의 이데올로기가 전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 이데올로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맥락에서 그러한 지칭어의 선택이 두드러지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데, …

(A25: 195)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선택'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위 (5)가 '선택'과 '맥락' 키워드가 연결된 기술이었다면 아래 (6ㄱ)은 '선택'과 '의미' 혹은 '기능'이 연결된 기술들이다.

(6)

ㄱ. 교과서 저자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관점이나 평가를 교과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저자가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배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거 인물은 사라지기도 하고 특정한 어떤 행위는 중요해지며 시간이 고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저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언어 문법과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문법을 선택하여 교과서를 서술하므로 학생들이 문법 장치(grammar resources)를 파악하면 저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런 문법 장치를 파악하기 위해 언어학적 접근방식으로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을 활용하기도 한다.

…

12) 아래도 유사한 인식이 나타난 경우이다.

"국어교육학에서 체계기능언어학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체계기능언어학이 '사용'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체계기능언어학은 일상으로부터 괴리된, 학문적 분석의 대상으로 언어를 간주하지 않는다. 텍스트가 담지하고 있는 의미를 언어적 체계와 기능으로 설명해 내며, 동시에 언어 사용자로 하여금 체계와 기능에 기반하여 텍스트의 생성을 가능하게 한다."

(A21: 155-156)

저자는 일련의 언어 체계 속에서 텍스트를 서술하는 데 가장 적절한 언어 표현, 곧 어휘 문법을 선택한다. 요컨대, 언어는 다양한 층을 갖는 복합적인 기호 체계인데 이때 의미는 가장 상위층에 속하고 언어와 언어외부의 맥락 사이에서 접점 역할을 한다. 의미는 맥락과 어휘문법 사이의 접점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는 어휘문법적 장치가 실제 텍스트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신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A24: 234)

ㄴ. 그러나 역사교과서 서술은 다분히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담론이나 저자의 의도 등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기존 역사교과서 서술양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볼 때, 역사교과서는 저자의 의도를 감춰진 모습으로 녹여내어 역사해석의 성격과 중요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 실제로 발생한 것에 대한 지시대상 아래의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역사가의 설명은 감춘다. 서술된 것이 곧 과거라는 객관성의 환상을 유도하면서 역사가는 자신이 말하고 있음을 제어하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 서술은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거나 얼버무리고 수동형, 피동형, 주어가 없는 문장 등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기까지 한다.

…

이 글은 …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을 통해 교과서 서술의 의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A13: 218)

ㄷ. 행위자가 일반적으로 역사 텍스트에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보는 것은 교과서 저자가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즉 사건에 접근하는 저자의 관점이나 선입견을 보여준다.

(A24: 237)

ㄹ. 한편, 체계기능언어학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면, 건의하는 글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은 독자와의 관계 인식이 필자로 하여금 특정한 어휘문법적 선택을 유도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A25: 194-195)

ㅁ. 의미의 생성에는 선택이 작용한다. 의미는 선택의 체계(system) 속에서 화자 혹은 필자(추후 화자로 총칭)가 배제한 선택항과 대조됨으로써 부각된다. 선택과 배제의 간극은 화자가 의미하고자 한 것(실제적 언어)과 의미할 수 있었던 것(잠재적 언어)을 극명하게 하며, 선택의 체계에서 비롯된 결과로 구조(structure)를 형성한다.

(A21: 157)

앞서 (5)에 비해 위 (6)의 경우가 조금 더 저자에 대한 초점화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의 기술들은 저자의 선택이 맥락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약되거나 선택에 맥락이 반영되었다고 본 반면, (6)은 저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서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선택을 이끈 저자의 주관성이나 입장, 관점 따위를 밝히고자 한다. (6ㄱ)의 기술에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으며, 이 같은 인식은 특히 역사교육 관련 연구물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때, (6ㄴ, ㄷ)이 보이는 것처럼 저자의 의도는 대체로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감춰'졌으며, '왜곡'된 것이나 '선입견'과 같이 다소 부정적인 것, 혹은 밝혀내야 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한편, 선택을 만들어 내는 저자 요인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존재하지 않는데 (6ㄹ)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독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선택을 유도한다고 보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13]. 마지막으로 (6ㅁ)의 기술처럼 의미 생성(혹은 텍스트의

13)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해 저자의 의도나 목적뿐 아니라 독자의 이해까지도 함께 분석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문 편이다.

실현) 과정에서 무언가가 선택되는 것은 반대로 다른 무언가가 배제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체계기능언어학적인 관점에서 텍스트 분석, 나아가 해석은 이처럼 실현된 것 말고 그 실현 이면에 자리한 잠재태들까지 함께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부분임에도 이는 국어교육 관련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 다른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적 전제인 의미기능 중심주의에 대해서는 국어교육 관련 연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인식이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고 소략했다. 이는 교과교육 등의 분야에서 이전에 형식 중심적인 텍스트 분석이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아래 (7ㄱ, ㄴ)은 국어교육 분야 연구물들이고 (7ㄷ, ㄹ)은 형식주의와 대별하지는 않더라도 의미기능 중심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역사교육 분야 연구물들이다.

(7)

ㄱ.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음운에서 담화에 이르는 각 층위의 언어형식들이 언어 사용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를 기술하여 텍스트를 설명한다. 물론 각 층위의 언어 형식들의 기능에 대한 분석은 국부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각 언어 형식들이 어떻게 유기적 관련성을 맺으며 텍스트의 목적에 기여하는가를 밝힌다.
이러한 분석은 왜 필요한가? 그것은 국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 중 언어 변인 중심 접근의 이론을 강화함으로써 국어교육 이론과 실천의 내적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이다.

(A2: 427-428)

ㄴ. 서술성 명사에 대한 본고의 확장적 관점은 서술성 명사의 형태.통사적 정보 외에 의미적 정보까지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표면적 응집 장치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정보 구조를 반영하는 서술성 명사에 주목하여 텍스트를 읽게 되면 글의 구조 및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A17: 277)

ㄷ. 체계기능언어학은 언어, 권력, 이데올로기의 관계에서 텍스트를 설명하고 해석한다.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체계기능언어학은 저자와 독자가 의미를 교환할 때 사람들의 선택과 수행된 언어의 기능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A13: 218)

ㄹ. SFL의 분석은 언어 자체보다는 언어가 하는 기능에 치중하여 분석한다.

(A12: 181)

지금까지 살핀 체계기능언어학의 가치들은 과학적으로, 맥락 의존적으로, 계열적으로, 의미기능 중심적으로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하는 일종의 접근법이나 방향성의 문제였다면, 보다 구체적인 가치는 개별 기능들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8)

ㄱ. 문학 작품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체계 기능 언어학의 요소는 동사성 체계가 있다. 동사성 체계에 따른 분석은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여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권력 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같은 사건도 저자에 따라 다르게 묘사될 수 있다. 동사성은 어떤 관점과 상황에서 주체가 구현되었는가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사성 분석은 관점의 확인이 중요한 신문 텍스트, 혹은 교과서 텍스트 등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A15: 236)

ㄴ. 또한 동사성은 동일한 사건이라도 서로 보는 것이 다르면 그에 따라 텍스트에 포함되는 요소가 다르고 포함되는 요소들의 강조되는 부분이 달라지면서 다양한 표현방식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민주화의 역사라는 같은 사건이 교육과정에 따라 변화하는 표현방식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제공할 수 있다.

(A23: 52)

ㄷ. 변이성이란 인간의 경험이 언어의 문법적인 체계 속에 반영된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글에서 나타내고 있는 변이성을 분석하면 역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의 경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A5: 92)

ㄹ. 본고에서는 교과서 텍스트의 화자와 청자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살피고, 교과서 텍스트에서 선택항으로서의 '화자'에 대해 논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교과서의 대인관계적 기능을 분석하고 교과서의 장르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A21: 156)

ㅁ. '건의하는 글'이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필자와 독자가 맺는 관계에 주목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언어가 수행하는 메타기능 중 '대인관계적 기능(interpersonal function)'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필자와 독자의 관계는 '제안자-결정권자'라는 실세계의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하는 글의 텍스트 분석은 이러한 힘의 관계가 작용하는 방식을 고찰하는 것이 핵심을 이룬다.

(A25: 194)

ㅂ. Halliday의 사용역 개념은 텍스트가 가진 일부의 특성만을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텍스트를 세 요소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텍스트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합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 분석 방식이다.

(A5: 88)

(8ㄱ~ㄷ)은 관념적 기능의 핵심적인 어휘문법인 동성 체계가 언어가 표상하는 '사건, 경험'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 (8ㄹ~ㅁ)은 문어, 구어에 상관 없이 발신자와 수신자에 상응하는 텍스트를 생산하고 또 수용하는 언어 사용자들에 초점을 맞출 때 대인적 기능 분석이 활용됨을 보여 준다. (8ㅂ)은 의미기능을 세 요소로 나누는 것이 언어를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고 본다. 전체적으로 텍스트적 기능에 대한 주목도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이상에서 체계기능언어학 활용 연구물들의 가치 인식을 살펴보았다. Schleppegrell(2012: 29)은 체계기능언어학의 담화 분석이 기여하는 맥락이 다양하다는 사실 자체로도 체계기능언어학이 서로 다른 학문과 환경에 놓인 분석가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 자체로 체계기능언어학의 유연성과 유용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Bloor&Bloor(2004: 213) 역시 개별 가설들의 참과 이론의 타당성이 어떻게 검증될 수 있는지, 또 언어와 언어 사용에 관심을 가지지만 언어학자가 아닌 이들(교사, 작가, 정치가, 번역가, 문예 비평가, 치료사 등)에게 이론이 어떤 유용성을 지니는지 질문하면서 이에 대한 답으로 언어에 대한 기능적 접근은 사회적 상호작용 내에서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Halliday 역시 이론을 수단(means)으로 봤으며, 언어의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쓰기 기술을 향상하고 통역사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보다 실천적인 과업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3.2절에서는 다양한 활용 자체가 유용성을 입증한다는 관점하에 체계기능언어학의 성과를 일부 살피기로 한다.[14)]

3.2. SFL을 활용한 한국어 텍스트 분석 연구들의 성과

3.2절에서는 SFL을 활용한 한국어 텍스트 분석 연구들의 성과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특히 사회 및 역사 교과에서의 활용 및 관념적 기능에 대한 분석이다.[15] 역사 교과서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비판적 담화 분석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텍스트에 내재된 저자들의 의도를 밝히고자 했다.

예를 들어, A23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교과서마다 민주화의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연구이다. 아래 (9)는 2007 개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역사 교과서들이 6월 민주항쟁을 서술하면서 '노태우'를 주체(발화자)로 삼은 내용들이다. (A23: 61)은 '노태우'가 지속적으로 전언적 절의 주체(발화자)로 기술됨으로써 "자칫 민주화 주체가 민주화를 이루거나 달성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참여자에 의해 6월 민주항쟁의 성과가 인정받고 발표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9)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하였다. / 노태우 여당 대표는 학생과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대통령 직선제 등의 내용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다. / 결국 당시 여당 대표는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
> (A23: 60-61)

역시 역사교육 연구인 A13(229-230)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와 동아시아 교과서가 동일한 역사적 사건인 임진왜란을 기술하는 방식을 살폈다. 특히 과정 유형을 중심으로 물질적 과정의 하위 범주인 행동적 과정과 발생적 과정의 비중을 비교하면서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조선을 주체로 한 행동적 과정이 많고 동아시아 교과서에서는 명을 주체로 한 행동적 과정이 많았던 점을 포착했다. 이에 대해 A13은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국난극복에 초점을 맞춰 기술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내재해 있음을 짚었다.

또 A2(441)는 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인데 대통령 담화문에서 심리적 과정의 주체로 '대통령'이 주로 선택되고 행위적 과정의 주체로 '국민 여러분'이 선택되는 양상을 통해 "대통령은 주로 생각하거나 느끼고, 국민은 행동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

14) 사실 언어 분석은 그 자체로 유의미하며 가치가 있다. 체계기능언어학 기반 텍스트 분석의 누적은 "과학자들이 우주의 본성, 생물의 비밀, 인체의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 수백 년 동안 추구해 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문법학자 및 언어학자들은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구성되고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방식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Bloor&Bloor, 2004: 212). 체계기능언어학의 1차적 가치는 언어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본 연구에서 살피고자 하는 언어학 외 분야에서의 체계기능언어학 '활용'과 밀접하면서 또 구별되기도 한다.

15) 관념적 기능, 그중에서도 경험적 기능은 대부분의 체계기능언어학 개론서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Martin(2005: 276)에서는 담화에서의 불평등과 권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 관념적인 의미가 중심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한국어 텍스트 분석 연구물들 중에서도 관념적 기능만을 분석한 경우가 많았으며, CDA의 기조와 밀접한 역사 교과에서 더욱 그러했다.

(10)
ㄱ.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우리 주부님들은 마음이 더 바쁘시지요?
ㄱ′. 이것저것 할 일이 많은 우리 주부님들은 더 바쁘다고 느끼시지요?

(A2: 442)

A2는 이러한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원텍스트인 위 (10ㄴ)을 (10ㄴ′)으로 대체해 볼 수 있음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같이 실현된 텍스트에 대한 잠재항을 논하는 경우는 국어 교육 분야 연구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이었다. 이는 Bloor&Bloor(2005)에서 체계기능언어학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의 유용성 중 하나로 꼽았던 좋은 텍스트(valued text)에 대한 판별과도 연결된다. 역사교육이나 비판적 담화 분석 관련 연구들은 그 목적이 실현된 텍스트 자체에 대한 분석과 해석 나아가 비판에 있다면 국어교육 연구들은 학습자들이 더 좋은 글을 쓰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났을 수 있다.

국어 교육의 이러한 접근은 과학 교육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과학 교육에서는 비판적 담화 분석의 관점보다는 교육언어학적인 관점의 접근이 두드러졌다.[1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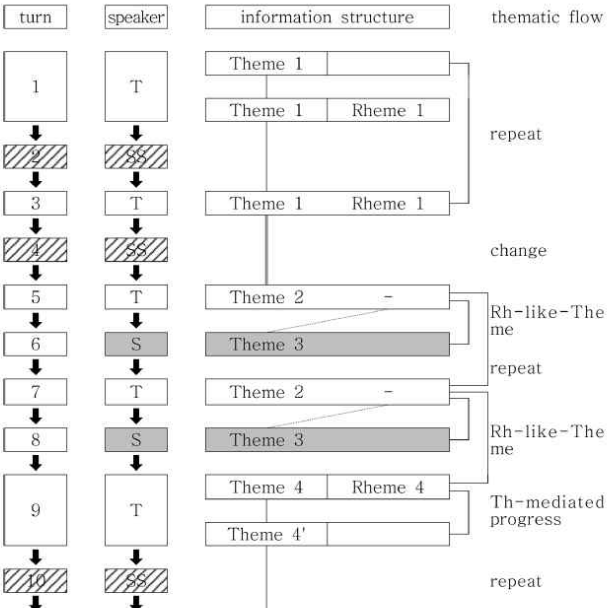
<A교사의 수업담화 사례>

1 t: **관측소에서 만들어지는 것들. 아까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2 SS: 대답 없음
3 t: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했지? 우리가?
4 SS: 대답 없음
5 t: **관측한?**
6 s: **자료**
7 t: **관측?**
8 s: **자료**
9 t: **요소**라고 했죠. **기상관측요소.**
10SS: 대답 없음
11t: **이런 기상관측요소들을** 어떻게 한다고?
12s: **수집**
13t: **모아. 모아갖고. 누가?**
14SS: 대답 없음
15t: **그담에 누가?**
16SS: 대답 없음
17t: **어. 이 슈퍼컴퓨터가……. 이 슈퍼컴퓨터의** 그……. **일기예보를 하기위해서** 그…….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몇%라고 했어요? (학생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약? 97%**라고 했어요.
18s: **죄다 틀려요.**
19t: **그런데, 97%면** 잘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거예요?

볼드체: Theme

(A3: 842)

16) 역사 교육에서도 교육언어학적인 관점의 분석이 있었다. A24(241-24)에서는 대몽항쟁을 다룬 텍스트들이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21개의 절 중 물질적 과정 19개, 관계적 과정이 2개이고 중학교에서는 41개 절 중 물질적 과정이 28개, 관계적 과정이 9개, 정신적 과정과 전언적 과정이 각 2개로 과정 유형의 다초등학교에 비해 과정 유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포착했다. A24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과정 유형의 다양성을 통해 계열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그림 1] A3(842)에서 보인 (10)에 대한 주제 구조 도식화

(11)

<B교사의 수업담화 사례>

1 t: **사막은** 어떤 곳을 사막이라한다 그랬어.
2 ss: **강수량, 비가**…….
3 t: **일 년**에 **비가 내리는 양이** 200mm보다 작은 지역을 사막이다라고 내가 이야기했지? 그러면은
4 s: **남극도.**
5 t: 그래. **남극도** 사막이라고 이야기했어. **1년에 비가 내리는 양이** 200mm가
6 s: **안돼.**
7 t: **안된다! 그러니까 남극도** 사막이지. **다시 말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비가 안 내리는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
8 ss: **사막.**
9 t: **사막이라고** 한다고. **너희들은 사막하면** 모래만 떠올리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사막 중에서 모래사막은** 20%밖에 안돼. **나머지 80%는** 뭐야?
10s: **돌.**
11t: **돌로** 이루어져있어.
12s: **돌덩이.**
13t: **돌덩이가** 굴러다니는데. **마찬가지** (돌을 들어 올리며) **얘가** 그렇단 얘기야. **현무암 중에서 구멍이 뚫린 현무암은** 30% 밖에 안돼. **그럼 나머지 70%는?**
14s: **구멍이** 없다?
15t: **구멍이** 없다. **근데 너희들이 나중에 커서 현무암하면** 뭘 떠올리겠어?
16ss: **구멍.**
17t: **구멍**부터 떠올린다구. **구멍이 안 뚫린 현무암이** 훨씬 더?
18s: **많다.**
19t: **많다라는** 사실.

볼드체: Theme

(A3: 843-844)

예컨대, A3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과학 수업 담화 사례인 (10)의 주제 구조를 분석한 후 주제 선택권에 초점을 맞춘 해석을 보였다. 특히 주제와 주제가 연계되지 않고 같은 주제가 반복되거나 선행 주제와 관련 없이 주제가 변화하는 점, 주제 변화가 주로 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개선 사항으로 보았다. 또 (11)을 대조하여 보다 나은 수업담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A3(846)의 연구자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혹은 ‘수업담화의 진행이 매끄럽다’와 같은 수업의 모습에 대한 피상적인 진술에 담겨진 본래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끔 하였다. 즉 보다 보편적이고 경험적인 수준에서 과학수업의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각을 마련”한 것으로 해당 연구의 의의를 자평하기도 했다.

A16은 수학교육 연구물인데 대인적 기능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마다 어떤 서법을 가지고 학

생들의 활동 참여 유도를 이끌어 내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 청유형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질문형이 학생들이 사고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두 가지를 함께 쓴 B 교과서를 보다 나은 교과서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저자의 의도나 관점 같은 것들을 규명하기보다 교육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보다 좋은 언어적 선택이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교육언어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12)

교과서	텍스트		서법	동사성
A	[A-T2]	순서쌍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아래의 좌표평면위에 나타내시오.	명령형	물질 프로세스
B	[B-T2]	물을 넣기 시작한 지 1분, 2분, 3분, 4분, 5분 후의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자.	청유형	관계 프로세스
	[B-T5]	x, y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질문형	
C	[C-T2]	순서쌍(시간, 싹의 키)을 좌표로 하는 점을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나타내어 보자.	청유형	물질 프로세스
	[C-T3]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점을 차례대로 선분으로 연결해 보자.	청유형	

(A16: 419)

언어 발달 측면에서는 A27과 A28이 특기할 만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A27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의 텍스트에 대한 동성 체계 분석을 비교하면서 동일한 속성적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녀는 현명하다'와 같이 속성이 실현되지 않은 패턴보다 '작업대는 모든 야생에 기초이다'와 같이 속성이 실현된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이 쓰이는 현상을 통해 '속성' 참여자에 대한 인식이 발달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17] 또 A28은 초등학교 5학년 텍스트를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세 장르로 나누고 동일한 전언적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설명하는 글에서는 발화 내용(verbirage)을 명사화해서 쓰는 참여자 패턴이 더 많이 쓰이고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서는 발언을 투사해서 표현하는 참여자 패턴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하였다. 이에 대해 A28(220)은 전자는 중립성을 후자는 목소리의 중층성으로 인한 생동감을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이상으로 <표 1>의 연구물들이 체계기능언어학을 도구로 활용해 텍스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 교과서 집필자가 역사를 기술하는 방식, 과학 교사가 학생과 담화를 주고받는 방식 등 언어에 터해 이루어지는 사회문화적인 현상들을 해석해 낸 결과를 일부 살펴봤다. 좋은 이론은 실재로부터 나와 그 실재를 충실히 반영하고 또 다른 실재를 살피는 눈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처럼 다양한 맥락에서 쓰이는 언어들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체계기능언어학은 좋은 이론이라 평할 수 있다. 또 체계기능언어학자들은 이 같은 성과들을 종합하여 다시 언어 현상에 대한 진술이 풍부해지는 방향으로 환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7) 해당 연구에서는 '현명하다'를 과정으로만 보고 속성 참여자는 어휘문법상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는데 '현명하다'를 과정과 속성의 결합으로 분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체계기능언어학이 범언어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그 기본 틀이 영어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체계기능언어학 도구(tool)의 한국어에 대한 최적화(optimization)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4. SFL 활용 한국어 텍스트 분석의 과제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 한국어 텍스트 분석의 과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론의 정확한 적용 문제이다. 이론 자체의 정합성 역시 따져봐야 할 문제이겠으나 본 연구는 응용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신뢰도 제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들을 다뤄 보고자 한다. 뒤에서 다시 기술하겠으나 체계기능언어학은 불확정성(indeterminacy)을 본질로 삼는 언어학 이론이다. 따라서 분석 역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차원으로 포용될 수 없는 개념의 곡해 혹은 오분석도 존재한다.

(13)

ㄱ. 관계적 프로세스는 대상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사악한 인물이다'처럼 두 대상 간의 대응 관계를 표현하거나 '그는 족보를 가지고 있다'처럼 대상의 소유 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3년이 지나 세상이 조용해졌다'와 같이 시간, 장소, 방법, 이유 등과 같은 상황적 의미를 구현하기도 한다.

(A24: 236)

ㄱ′. 주요세력인 고려 백성들, 노비와 천민들과 같은 행위자는 '지켜냈다', '힘을 합쳤다', '물리쳤다'와 같은 프로세스와 연결되었다. 고려 백성은 지켜낸 행위자로 노비와 천민들은 물리친 행위자로 서술되면서도 두 행위자 모두 힘을 합쳤다는 관계적 프로세스로 연결되었다. … 한편, 삼별초는 '반대하다', '계속하다', '항쟁하다', '진압되다'의 구두적, 관계적, 물질적(생성), 물질적(실행) 프로세스와 연결되었다.

관계적 프로세스는 초등학교와 유사하게 대몽항쟁 상황을 서술할 때 연결되었다. 13세기 동북아시아 정세의 변화가 나타났다거나 몽골의 침입이 여러 차례 계속 이어졌거나 40여년 간 몽골과 전쟁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는 등 대몽항쟁 전후 상황을 서술할 때 이 프로세스를 사용하였다.

…

몽골은 '공격하다', '침략하다'의 물질적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침략적인 성격을 강조했고, 고려는 '연합하다', '수교하다'의 관계적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몽골과 외교를 강조한다.

(A24: 242)

A24는 물질적(실행/생성), 정신적, 관계적, 구두적 4가지의 과정 유형을 설정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이때 관계적 과정은 Halliday의 6가지 유형 중 'relational process'에 해당하는 것이다. (13ㄱ)의 기술은 이를 잘 보여 준다. 하지만 (13ㄱ′)에 보이는 실제 분석에서 관계적 과정으로 도출해 낸 동사들은 관계적 과정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예컨대, '힘을 합치다, 계속하다, 막을 내리다, 연합하다, 수교하다'와 같은 것들이 관계적 과정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relational process'에 대한 번역어인 '관계적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이해 중에 발생한 오개념이라 볼 수 있다. 관계적 과정은 경험을 물질 세계나 정신 세계 둘 중의 어느 것으로 분류할 수 없고 절에서 두 참여자가 속성이나 정체성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로 이때 관계는 메타언어적인 것이다. 즉, 의미상 관계의 형성인 것이다. 혹은 '관계'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접근했을 때,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표준국어대사전>)라는 뜻에서 '관련을 맺다'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이 있다'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런데 (13ㄱ′)의 사례에서는 '힘을 합치다, 연합하다, 수교하다'처럼 실세계에서 참여자들이 관계를 '맺는' 행위들을 관계적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 관계적 과정은 문법적으로 토큰(token)과 값(value)을 참여자로 가지게 되는데 '철수는 학생이다'와 같은 문장에서 '철수'가 식별되는 것으로서 토큰, '학생'이 식별하는 것으로서 값에 해당한다. 그런데 (13ㄱ′)에서 관계적 절로 분석한 '백성들이 힘을 합쳤다'에서는 토큰과 값을 분석해 낼 수 없다. 몽골을 주어로 했을 때 '공격하다, 침략하다'와 같은 동사가 쓰이고 고려가 주어일 때 '연합하다, 수교하다'와 같은 동사가 쓰였다는 사실에서 이들 두 부류를 의미적으로 나누는 것은 해당 연구에서 유의미한 진술이겠으나 적어도 그 결과에 도착하는 과정으로서 텍스트 분석에 오류가 있음은 분명하다.

과정 유형의 용어 및 개념에 대한 곡해는 전언적(verbal)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4)

ㄱ. 2015 개정에서는 '4월 19일 전국은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정부는 마산 사건을 책임져라." 등의 구호로 가득했다.'와 같이 구두적 프로세스로 표현했다. (A23: 57)

ㄴ. 조선이 반발하자 명에서는 국왕을 교체하거나 조선을 직할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면서 협상을 강행하였다.

	명에서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면서	국왕을 교체하거나 조선을 직할 통치해야 한다는	구두적

(A13: 227)

(14ㄱ)에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 절의 과정은 '가득하다'이며, A23의 연구자는 이를 전언적 과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전언적 과정은 발화자(sayer)와 수신자(receiver), 발화 내용(verbiage)을 참여자로 가지며, 발화 내용 대신 발언(locution)의 투사(projection)를 통해 절이 쓰이기도 한다. 학교문법에서 흔히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언이 투사된 전언적 절에 해당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4ㄱ)은 전언적 절이 아니라 관계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 (14ㄱ)은 전체 절에서 인용절이 있다는 것에 기반해 해당 절을 전언적 과정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절이 전달하고 있는 경험을 머릿속에 그려 본다면 연구자의 이 같은 분석이 아주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체계기능언어학은 동일한 경험이라도 "4월 19일 전국에서 시민들이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라고 외쳤다."라고 표현하는 대신 "4월 19일 전국은 "3·15 선거는 불법 선거이다."라는 구호로 가득했다."라고 표현하는 '선택'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표상된 언어가 아닌 언어가 담고 있는 경험으로 과정 유형을 판단한다면 이 같은 텍스트 분석의 취지가 무화될 수도 있다. (14ㄴ) 역시 유사한 사례로 "명이 국왕을 교체하거나 조선을 직할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라는 표현 대신 "명에서는 국왕을 교체하거나 조선을 직할 통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면서"라고 표

현한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과정 유형을 오판하는 사례들은 1차적으로는 과정 유형의 개념에 대한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동성 체계가 과정뿐 아니라 참여자까지 함께 살폈을 때 온전해지는 것임에도 주로 과정 유형만 초점화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동일하게 '어렵다'가 과정으로 쓰인 절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어렵다'와 '이번 시험 문제는 어렵다'는 각각 감지자(나) 및 현상(그 사람), 보유자(이번 시험 문제) 및 속성(어렵다)이 참여자가 되는 정신적(감정적) 절과 관계적(속성적) 절로 서로 다르게 분석된다.[18] 또한 참여자 유형에 대한 분석의 생략은 자칫 다양한 의미의 절들을 적게는 4가지 많게는 9가지 유형 정도로만 분류함으로써 언어 현상의 다기함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을 단순화해서 활용하는 자체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흔히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일반인용과 전문가용이 따로 있기도 하듯 아주 정치한 분석이 아니라 간단한 라벨링만으로 텍스트 이면의 맥락이나 사회 현상을 고찰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A13의 경우 참여자까지 분석하고 있긴 하지만 모든 과정 유형의 참여자를 물리적 과정 참여자에 해당하는 행위 주체자(actor)와 목표(goal)라는 두 가지 범주로만 분류하고 있어 역시나 참여자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인물이 주체로 참여하는지 객체로 참여하는지 여부만 판별하고 싶다면 이러한 분석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어 둘 수 있는 것이다. 혹은 이는 대규모의 양적 연구 수행의 가능성 차원에서도 고민할 문제이다. Matthiessen(2014: 188-195)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적 담화 분석이 포괄적인 분석과 부분적인 분석의 대립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분석하는지 여부가 분석 가능한 텍스트의 양과 관계를 맺는 점과 자동화된 분석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연구 목적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모듈을 개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과정 유형 설정을 소략한 상위 범주로 하거나 보다 상세한 하위 범주까지도 설정하는지 등의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19]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에 대한 이해와 별개로 한국어의 언어적 특징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언어의 분절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인한 오분석도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로 체계기능언어학적으로 과정이라 통칭할 수 있는 동사, 형용사, 명사+서술격 조사의 구성에 부가적인 요소들이 빈번히 결합한다. 아래 (15)는 이러한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오분석이 발생하는 경우들이다.

(15)

ㄱ. … '최씨정권의 불만이 높아졌다'에서 명사화된 추상적 행위자와 관계적 프로세스인 '높아졌다'가 연결되었다. 추상적 행위자로 불만을 가진 역사행위자는 알 수 없지만 저자가 최씨정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알 수 있다.

(A24: 243)

18) 여기서는 '현명하다'를 과정인 동시에 속성인 것으로 본다.

19) 과정 유형의 상세화는 기존 국어학에서의 용언 범주화 연구들의 성과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천기석(1983), 한재영(1996), 최경봉·도원영(2005), 이숙의(2013) / 유현경(1996), 김정남(2001) 등이 참고될 수 있다. 아래에서 지적할 양태 목록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체계기능언어학에 기반한 한국어 양태 표현은 관련해서는 신희성(2019ㄱ)이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일부 목록화해 두기도 했다.

ㄴ.	해를 통해 물자를 보급하려던 왜군의 침략을 좌절시켰다.	(수군은)	좌절시켰다.	물자를 보급하려던 왜의 침략을	황해를 통해	정신적

(A13: 224)

(15ㄱ)에서는 “최씨정권의 불만이 높아졌다”에서 ‘높아지다’를 관계적 과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높아지다’에서도 ‘높다’만 분리해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씨정권의 불만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관계적 절로 분석할 수 있겠으나 ‘-어지다’가 결합함으로써 상태 변화의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에 작용적(전개적) 과정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15ㄴ) 역시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좌절시키다’는 어근 ‘좌절’에 ‘-시키다’가 결합한 상태인데 ‘좌절’에만 초점을 맞춰 해당 절을 정신적 절로 분석하고 있다. 영어의 경우 정신적 과정을 ‘like’ 유형과 ‘please’ 으로 나누고 ‘the gift / pleased / mary’를 각각 현상, 과정, 감지자로 분석하기도 한다 (Halliday&Matthiessen, 2014: 248, 257). 물론 (15ㄴ)의 예문은 이러한 관점으로 보더라도 “왜의 침략”을 감지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역시나 부적절한 분석이다.[20]

근본적으로 경험의 구조는 어휘적인 본동사(main lexical verb)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과정의 평정은 시제나 극성, 양태 같은 문법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는 문법화의 과정에 있는 우언적 구성들도 많이 존재해 이러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나라도 도움 되게 실천할 것이다”나 “또한 부회장이 된 덕분인지 나는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다.”와 같은 절에서 과정은 ‘이다’나 ‘같다’가 아닌 ‘실천하다’와 ‘성숙하다’로 각각 분석되어야 한다. “나도 나중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싶고 다음에 또 오고 싶었다.”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고 싶다’는 과정 유형 평정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앞서 살핀 ‘-어지다’처럼 참여자 구성을 바꾸는 보조 용언의 경우에는 함께 과정으로 분석해야 한다. 또 이창수(2012: 260)는 일본어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적 연구인 Teruya(2006)을 참고하여 ‘서 있다, 앉아 있다’와 같이 상적인 의미를 더하는 보조 용언의 결합을 묶어서 존재적 과정으로 보기도 했다. 이같은 복잡성은 국어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 참조 문헌이 없이는 분명한 판단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

그 외에 대인적 기능과 관련해서도 오분석을 찾아볼 수 있다.

(16)

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다. 물과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은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쓰레기의 양을 줄이고 기후 변화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식물의 서식처 보호운동을 후원하는 활동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이다.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행을 할 때에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관찰하고 이해하며 즐기는 환경친화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u>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모인다면 우리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u>.

20) ‘좌절’의 사전적 의미에는 정신적 세계의 경험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나 기운이 꺾임”(<표준국어대사전>)뿐 아니라 물질적 세계의 “어떠한 계획이나 일 따위가 도중에 실패로 돌아감”(<표준국어대사전>) 경험에 대한 것도 있다는 점도 참조할 수 있다.

(A5: 94)

ㄱ′. 평어로 서술되어 있으며, 확정적 표현으로 진술되어 있다.

(A5: 94)

ㄴ. 지구본은 지구의 모습을 본뜬 모델이다. 지구본에서는 남극과 북극을 찾아보라. 북극은 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다.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곳이다. 지구본에서는 적도를 찾아보라. 적도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선이다. 적도는 남극과 북극의 가운데에 있다. 적도 위쪽은 북반구이고, 아래쪽은 남반구이다.

세계지도는 세계를 편평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 지도에서는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다. 세계는 7개의 대륙을 가지고 있다. 대륙은 아주 큰 덩어리의 땅이다. 지도에서 각 대륙의 이름을 찾아보자. 세계는 4개의 대양을 가지고 있다. 대양은 아주 큰 바다이다. 지도에서 대양의 이름을 찾아보자.

(A5: 98)

ㄴ′. 위 텍스트의 서법(Mood)을 살펴보면 16문장 중에서 4문장이 ~하자 는 청유형이고, 나머지 문장은 평서문으로 다른 텍스트에 비해 청유형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양태부사가 쓰이지 않아 대부분이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진술되어 있다.

(A5: 98)

(16ㄱ′)은 (16ㄱ)에 대한 양태를 분석한 부분인데 연구자는 '-ㄹ 것이다'라는 양태 표현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연구에서 (16ㄴ′)은 (16ㄴ)을 분석한 것인데 명령문을 청유문과 구분하지 못하고 둘을 묶어서 청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도 국어학자가 아닌 경우 어휘적 의미에 대한 인식보다 문법적 의미에 대한 인식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양태 표현과 관련해서는 언어 목록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텍스트 분석가들의 오분석뿐 아니라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의 본질적인 불확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앞서 여러 연구들이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을 높게 평가하는 데에는 '객관성, 과학적 엄밀성' 같은 가치가 작용함을 살폈다. 과학적 엄밀성과 관련해 주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재현성이다. 텍스트 분석과 관련해 재현성에 대해 논하자면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신뢰도는 동일 절에 대해 여러 명의 텍스트 분석가가 같은 분석 결과를 도출해 내는 데에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의미는 본질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가지며 유연하고 경계를 넘나든다. 동성 체계와 관련해 체계기능언어학의 불확정성 문제는 Halliday & Matthiessen(1999), O'donnell et al.(2008), Fawcett(2009), Tucker(2014), Gwilliams & Fontaine(2015), 이관규·신희성(2020) 등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특히 O'donnell et al.(2008), Gwilliams & Fontaine(2015), 이관규·신희성(2020)에서는 체계기능언어학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절의 과정 유형 평정을 실시했으나 상당수의 절에서 낮은 일치도가 발생하는 현상을 보고하기도 했다.

이관규·신희성(2020)에서 일치도가 낮게 보고된 일부 사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

ㄱ. 대기실은 무지 더웠습니다. (C=81.3, 속성5, 감각3)

(이관규·신희성, 2020: 119)

ㄴ. 토니는 수락하며 어벤져스 멤버가 된다. (C=60.9; 행동3, 작용3, 속성1, 식별1)

(이관규·신희성, 2020: 120)

(#ㄱ)은 앞서 ‘어렵다’에 대해 기술한 것과 유사한 사례로 단어 자체가 다양한 과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우이다. 8명의 전문가 중 5명이 이를 속성적 과정으로 3명이 감각적 과정으로 평정했다. (#ㄴ) 역시 동일한 단어임에도 맥락에 따라 다른 경험을 표상하는 경우이다. ‘되다’는 “물이 얼음이 되다”에서처럼 ‘다른 것으로 바뀌거나 변하’는(<표준>) 경우가 있는가 하면 (#ㄴ)에서처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는(<표준>) 경험의 표상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의지의 ‘-겠-’과 결합이 자연스럽고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참조될 수 있다. 이 경우 일치도는 더 낮아서 3명의 전문가가 행동적 과정, 3명이 작용적, 각 1명씩 속성적 과정과 식별적 과정으로 분류했다.

Gwilliams & Fontaine(2015:9)는 불확정성과 관련해 기존의 이론 연구들이 과정 유형의 전형적 예시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운 분석을 회피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일정 부분 타당하기도 하지만 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들은 실제 분석의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연구들의 누적 이전에는 논점화가 어려웠던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다양한 준거 마련과 사례 제시로 최대한 일치도를 높이는 방향성을 취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무결하게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체계기능언어학의 이론이 본질적으로 모호하고 유연하다는 것을 이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는 텍스트 분석가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론의 활성화 및 확산 차원에서 번역어 문제도 짚을 필요가 있다. 사용역 이론에서 다루는 ‘field, tenor, mode’는 각각 ‘담화 영역/영역/장/내용/필드’, ‘담화 경향/관계/주체/테너’, ‘담화 방법/양식/모드’로 다양하게 쓰인다.[21] 언어의 의미기능에 대한 세 가지 분류인 ‘ideational, interpersonal, textual’ 역시 각각 ‘관념적/표상적/개념적’, ‘상호작용적/상호적/대인관계적/대인적’, ‘구성적/텍스트적’ 등으로 여러 대역어가 병존한다. 체계기능언어학은 다른 언어학 이론들에 비해 번역서나 개론서 수준의 국문 이론서가 오랫동안 부재했었는데 다양한 번역어의 병존은 그 결과이기도 하다.

이때 달리 쓰이는 번역어 중 이론 체계에 정합하지 경우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동성 체계에서 과정과 함께 주요 구성 요소인 ‘participant’ 흔히 ‘참여자’로 번역되는데 ‘행위자’(A24)나 ‘참여 주체자’(A13)로 번역된 경우도 있다. 이때 ‘participant’는 ‘goal’이나 ‘beneficiary’ 같은 비행위자 혹은 객체적 요소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들 번역어는 적절하지 않다.[22]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하는 연구들이 모두 같은 번역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보다 응집성 있게 이루어지고 개념에 대한 곡해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통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1995년 발행된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의 『국어학의 번역 술어 연구』와 같은 연구 보고서도 참고가 된다.

21) 이때 ‘필드, 테너, 모드’는 별다른 번역 없이 원어를 한글로 표기했을 뿐인데 이들 외에도 ‘process’도 그냥 ‘프로세스’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혹은 ‘textual’에 대해 ‘텍스트적’과 같은 혼성적 쓰임도 있다.
22) 또 ‘행위자’의 경우 다수 연구에서 ‘participant’ 중 하나인 ‘actor’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5. 결론

이상으로 체계기능언어학을 활용한 텍스트 분석의 가치와 성과 그리고 연구의 확산 및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몇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분석의 사례들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물들에 대해 너무 지나친 언어학적 잣대를 들이밀기보다는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우선 국어학, 체계기능언어학 차원에서는 응용 연구뿐 아니라 이론 연구 차원에서 한국어에 맞는 조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23] 또한 실제 분석 지침과 분석 사례를 보일 일종의 텍스트 분석 매뉴얼로서 저서들이 필요하다. 영어권에서는 Halliday&Matthiessen(2014)이나 Eggins(2004) 같은 이론으로서의 개론서 외에도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맞춘 저서들이 지속적으로 발행되고 있다(Martin&Rose, 2003; Young et al, 2004; Bloor&Bloor, 2005; 2013 등).

분석의 어려움은 결국 실제 분석의 과정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체계기능언어학자와 텍스트 분석가로서 타 학문 전공자들 간의 협업도 중요하다.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언어 분석의 역량은 체계기능언어학자가 분석 대상으로서 텍스트가 터하고 있는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타 학문 전공자들이 담당해 줄 수 있다.[24] 이 과정에서 텍스트 분석은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언어 현상에 대한 설명도 함께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과나 과학과의 언어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문학의 언어는 또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등의 퍼즐을 맞추는 조각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다.

---

23) 국어교육 분야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있어 왔으며(주세형, 2005; 2007; 박종훈, 2007; 제민경, 2015; 조진수, 2018; 신희성, 2019ㄱ; 소지영, 2020; 정지현, 2021 등) 국어학에서도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창수, 2012; 신희성, 2019ㄴ; 이관규·신희성, 2020; 한정한, 2021; 이연주, 2021 등). 또 개론서로서 이관규 외(2021)이 출간됐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체계기능언어학 개론서 중 하나인 Eggins(2004)의 번역서(김서형 외 옮김, 2021)가 출간된 것 역시 고무적인 일이다.

24) 주세형·김형석(2014), 소지영 외(2018), 이관희·장혜원(2021), 이관희 외(2021) 등이 있다.

참고 문헌

박종훈(2007).「설명 화법의 언어 형식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지영(2020).「학문 문식성 신장을 위한 기능적 메타언어 관점의 문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지영·성경희·주세형. (2018). 중학교급 학습자 서술형 답안의 언어적 특성 연구-사회과 학업성취도평가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61, 159-187.
신희성(2019ㄱ).「텍스트의 대인적 기능에 대한 문법교육적 연구: 언어하기 관점을 바탕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희성(2020). 고등학생의 고쳐쓰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휘문법적 선택의 유형 및 메타인지 양상 연구. 국어교육연구, 73, 71-116.
이관규·김서경·노하늘·성수진·신희성·유상미·이현주·정려란·정지현·정혜현(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이관규·신희성(2020). 체계기능언어학적 텍스트 분석을 위한 동성 체계 기초 연구: 과정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87, 91-130.
이관희·장혜원(2021). '명사화'에 기반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문장제의 계열성 분석: '비와 비율' 단원을 대상으로. 수학교육학연구, 31(1), 17-34.
이관희·맹승호·장혜원(2021). 수학 및 과학의 사례에 근거한 국어 문법 기반초등 교과 통합 교육의 방향 탐색. 한국초등교육, 32, 101-111.
이연주(2021). 물질적 과정 유형(Material Process Type)과 '-는 중이다' - 체계기능언어학(SFL)의 관점. 동양학, 84, 1-38.
이창수(2012). 비평담화분석을 위한 동사성 분석의 의미론적 모델 연구. 언어와언어학, 56, 253-282.
제민경(2015).「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진수(2018).「문법 문식성 관점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지현(2021).「내용교과 담화 읽기에서의 학습자 언어 인식 연구 : 체계기능언어학의 문법적 은유 구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세형(2005).「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세형(2007). "텍스트 속 문장 쓰기와 문법".「한국초등국어교육」(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34. 409-443.
주세형·김형석. (2014). 전공 글쓰기 교육과정 연구를 위한 쟁점 검토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언어학 연구, 31, 251-283.
한정한. (2021). 체계기능언어학 기반 국어 소형절의 유형과 특징. Journal of korean Culture, 53, 95-128.
Bloor, T., & Bloor, M. (2004). The Functional Analysis of English.
Bloor, M., & Bloor, T. (2013). The practice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 introduction. Routledge.
Bloor, M., & Bloor, T. (2017).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pp. 151-164. Routledge.
Eggins, S. (2004).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c Black. 김서형·

유혜원·이동혁·이유진·정연주 옮김(2021), 『체계 기능 언어학의 이해』, 역락.
Fawcett, R. (2009). Seven problems to beware of when analyzing Processes and Participant Roles in texts. From Will to Well: Studies in Linguistics, Offered to Anne-Marie Simon-Vandenbergen, ed. S Slembrouck, M Taverniers, and M van Herreweghe, 209-24.
Gwilliams, L., & Fontaine, L. (2015). Indeterminacy in process type classification. Functional Linguistics, 2(1), 8.
Halliday, M. A. K. (2011). Text, discourse and information: a systemic-functional overview. Journal of Peking University (Philosophy & Social Sciences), 1.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1999). Construing experience through meaning: A language-based approach to cognition. A&C Black.
Halliday, M. A. K., Matthiessen, C. M., Halliday, M., & Matthiessen, C. (201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He, H. Past Achievements and Future Possiblities of Systemic-Functional Discourse/Text Analysis: In Memory of MAK Halliday.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s 7 (1). pp. 32-41.
Matthiessen, M. C. M. I. (2014). Appliable discourse analysis. In Developing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theory and application. pp. 138-208. Equinox Pub. Ltd.
Martin, J. R. (2005). 12 Close reading: functional linguistics as a tool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Researching language in schools and communities: Functional linguistic perspectives, 275.
Martin, J. R., & Rose, D. (2003). Working with discourse: Meaning beyond the clause. Bloomsbury Publishing.
O'Donnell, M. et al. (2008). A survey of process type classification over difficult cases. In FROM: CARYS JONES AND EIJA VENTOLA (EDS)[IN PRESS] NEW DEVELOPMENTS IN THE STUDY OF IDEATIONAL MEANING: FROM LANGUAGE TO MULTIMODALITY. LONDON: CONTINUUM PUBLISHERS. CHAPTER 3.
Schleppegrell, M. J. (2012).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In The Routledg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pp. 47-60. Routledge.
Smirnova, E., & Mortelmans, T. (2010). Funktionale Grammatik. de Gruyter. 최지영 옮김(2015), 『기능문법의 개념과 이론』, 한국문화사.
Thompson, G. (2014).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2nd)*.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Tucker, G. (2014). Process types and their classification. Caught in the Middle-Language Use and translation. A Festschrift for Erich Steiner on the Occasion of his 60th Birthday, ed. K Kunz, E Teich, S Hansen-Schirra, S. Neumann, and P. Daut. pp. 401-416.
Young, L., & Harrison, C. (Eds.). (2004).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Studies in social change. A&C Black.

<텍스트 분석 도구로서 체계기능언어학의 활용 양상과 쟁점>에 대한 토론문

제민경(춘천교대)

1. 언어가 가진 두 측면으로서 기능과 형식에 대한 서로 다른 초점화는 문법교육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며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런 면에서 Halliday를 중심으로 한 '체계기능언어학(이하 SFL)'은 그 명명부터 참으로 모순적이지만, 그 모순성으로부터 형식과 의미의 새로운 공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닙니다. 언어 주체는 의미로부터 형식을 선택하지만 또 그 선택된 형식 없이는 의미를 읽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SFL의 관점을 특정한 텍스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Halliday를 비롯한 SFL이 체계와 의미의 연계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선행되지 않은 분석은 여타의 기능주의 언어학이나 의미론, 비판적 담화 분석과 SFL의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발표자께서는 발표문에서 "체계기능언어학 이론을 단순화해서 활용하는 자체가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섬세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흔히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일반인용과 전문가용이 따로 있기도 하듯 아주 정치한 분석이 아니라 간단한 라벨링만으로 텍스트 이면의 맥락이나 사회 현상을 고찰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이라는 기술을 통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데, 본 토론자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다시금 "그렇다면 굳이 SFL일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3. 발표문에서 제시하고 계신 연구들 중에서는 의미론이나 정보구조이론에서 더 확장적인 연구 성과를 보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분류적 접근은 의미론 분야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텍스트 구조의 분석 또한 정보구조이론이나 수사구조이론에서 보다 상세화된 분석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연구와 SFL의 접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동사 분류와 관련하여, 토론자는 동사를 'process'로 보고 이 'process'를 의미와 형식의 관계에서 '선택항'으로 체계화하는 SFL의 관점이 중요하며 이것이 분석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여쭙습니다.

4. 이런 면에서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SFL을 키워드로 삼고 있는 여러 주제의 연구를 대상으로 삼는 것보다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SFL로 분석한 연구와 SFL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분석한 연구를 비교하는 것이 SFL의 관점을 보다 초점화하는 방향이 아닐까 합니다.

5. 특정 이론에 따른 텍스트 분석은 관점에 따른 해석으로 이어질 때 해당 이론의 접근 방식

을 의미화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자칫 '분석 도구'라는 명명은 SFL의 철학적 가치를 너무 환원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SFL을 '분석 도구'를 활용한다는 말에는 무엇이 함의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신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Halliday는 인간 경험의 발현으로서 언어에 집중하고, 언어를 통해 인간의 발달과 생애에 접근하는 교육학자이자 사회학자이며 언어학자입니다. 이런 면에서 Halliday를 중심으로 한 SFL은 국어교육학은 물론 언어학과 사회학에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생각하며, SFL의 확장적 적용 가능성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에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확장적 적용이 이론의 관점에 터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체계와 기능에 대한 본질적 고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발표가 앞으로 SFL의 가능성을 연구로 실제화하는 데 의미 있는 비계가 되길 기대합니다.

체계기능언어학과 문법 교육

조진수(전남대)

<목차>

1. 서론
2. 체계기능언어학의 계보와 확장
3. 원소의 하나, 혹은 벼리의 역할
4. 구조주의 언어학적 지식의 체계기능 언어학적 표상은 가능한가, 혹은 필요한가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 '○○언어학과 문법 교육'은 상당히 포괄적인 제목이다. 이러한 제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대가 존재한다. (예) ○○언어학의 교육적 중요성, 교육적 가치, 교육 내용화의 방향 등

◦ '○○언어학과 문법 교육'과 같은 제목의 글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는 해당 언어학에 대한 문법교육적 연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체계기능언어학의 경우 교육적 가치와 교육 방향에 대한 거시적 논의(e.g. 주세형, 2005, 2014; 제민경, 2015)가 이미 이루어졌고, 언어 형식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 논의도 문법교육학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연구사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발표에서는 '○○언어학과 문법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다룰 수 있는 내용 중 다음과 같은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발표의 초점: 체계기능언어학은 기존에 존재하는 문법 교육의 언어학적 기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문법 교육에 도입되어야 하는가?

◦ 발표의 초점을 이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언어학과 문법 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예상 질문) "문법 교육이 특정 언어학 하나만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즉, 특정한 언어학의 도입이 문법 교육 내부에 존재하는 기존 언어학적 기반을 완전히 대

체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인지 언어학이 문법 교육에 도입된다고 하여 인지 언어학을 제외한 다른 모든 언어학적 전통이 인지 언어학으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언어학의 교육적 중요성이 인정받더라도, ○○언어학이 문법교육에 존재하는 기존 언어학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기저 이론 중 하나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법교육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체계기능언어학이라는 이론 자체가 어떠한 언어학적 이론들과 관련되는지 살펴보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런 후에야 체계기능언어학이 현재 문법 교육에 존재하는 기반 언어학 이론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문법 교육을 변화시킬 것인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체계기능언어학의 계보와 확장

◦ 체계기능언어학의 언어학적 계보는 체계기능언어학의 발전사를 다룬 Davies(2014), Martin(2014)에 잘 나타나 있고, 그 이후의 발전은 2014년부터 발간된 학술지 ‘기능 언어학(Functional Linguistics)’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이에 더하여 체계기능언어학을 기반으로 한 단행본들과 다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최근 체계기능언어학을 개관한 이관규 외(2021)의 논의 속에서도 체계기능언어학의 개요뿐 아니라 언어학적 계보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체계기능언어학이 다른 언어학 또는 학문 분야와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는지에 초점을 두고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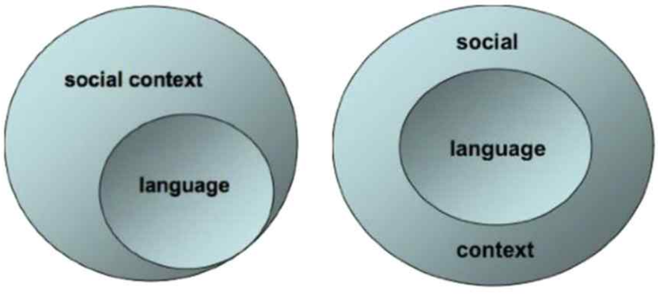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체계기능언어학을 성립시키고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할리데이(Halliday)이다. Martin(2014)에 따르면 체계기능언어학의 계보학은 할리데이의 스승 중 한 명인 퍼스(Firth)로 거슬러 올라가며, 나아가 언어학과 기호학을 연구한 옐름슬레우(Hjelmslev)와 소쉬르(Saussure)까지 연결된다.

◦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틀을 잡은 소쉬르와 기능주의 언어학 계열의 체계기능언어학의 접점은 어디일까? 이 질문은 체계기능언어학이 기존의 언어학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문법 교육에 도입되어야 할지를 탐색하는 발표자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발표자는 ‘계열관계’를 핵심 연결 고리로 본다. ‘계열관계’는 소쉬르가 공시적 언어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결합관계’와 함께 도입한 구조주의 언어학의 핵심적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이러한 계열관계를 수용하여 ‘선택항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소쉬르의 개념을 활용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잠재태’라는 개념을 이론적 차원에서 도입하여 계열관계를 잠재태로 이해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구조주의 언어학과 변별되는 가치를 지닌다. 체계기능언어학은 사용(use)이라는 관점에서 계열관계를 바라보고 있어 계열관계에 놓인 언어 형식들을 잠재태로 규정

(Halliday & Matthiessen, 2004:22)한다는 점이 이론적 수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 퍼스(Firth)의 경우 특히 맥락에 대한 논의가 체계기능언어학의 맥락 개념 구축에 중대한 기여를 했는데(Martin, 2014:11), 동시에 그가 논의한 연어 개념, 분포주의 가설 등은 신 퍼스식(neo-Firthian) 코퍼스 언어학으로 이어지며 코퍼스언어학에도 영향을 끼쳤다 (McEnery & Hardie, 2012, 최재웅 역, 2018:209-230). 더하여 발표자는 최근의 단어 임베딩 기법과 이러한 기법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벡터 의미론 역시 퍼스의 분포주의 가설과 관련된다고 본다. 물론, 이는 체계기능언어학의 내용 자체는 아니지만 맥락과 의미에 주목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발표자는 분포주의에 기반한 체계기능언어학과 벡터 의미론 간의 학제적 연구가 앞으로 체계기능언어학의 발전 방향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다.

◦ 이러한 예상은 체계기능언어학이 맥락과 언어의 관계에 대하여 다른 언어학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데에 바탕을 두고 있다.



Supervenient (left) and circumvenient (right)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context.

※ 언어와 맥락을 수반적(隨伴的, supervenient) 관계로 보는 왼쪽 그림이 SFL의 관점임.

[그림 1] 사회적 맥락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관점(Martin, 2014:12)

◦ 위의 마틴(Martin, 2014)의 도식은 체계기능언어학에서 맥락 그 자체가 언어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틴은 이러한 발상은 맥락을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다른 이론과 체계기능언어학이 변별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한다. 발표자가 보기에 이러한 관점은 인접 단어들과의 동시 출현 자체를 수치화하여 의미로 보는 벡터 의미론의 관점과도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물론 체계기능언어학의 맥락 개념과 벡터 의미론의 맥락 개념은 다르다.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한 것은 두 입장 모두 맥락 자체가 언어의 의미가 된다고 보았다는 데 있다.[1]

◦ 체계기능언어학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구조 이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

1) 체계기능언어학의 맥락 개념은 마틴(Martin, 2014:6, 11)이 지적하고 있듯이 퍼스(Firth, 1957a, 1957b)에서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Firth(1957b)는 인류학자인 말리놉스키(Malinowski)의 인류학적 연구 중 언어학적 탐색에 대한 논평으로, 말리놉스키가 언어의 의미를 '상황 맥락' 차원에서 접근한 것에 주목한 연구이고, Firth(1957a)는 이러한 의미관을 포함하여 그의 언어학 개요를 설명한 글이다. 후자에서는 의미를 '맥락 속에서의 기능(function in context)'으로 규정하고 있어 체계기능언어학의 의미관과 맥락 개념의 초기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Firth(1957a:9)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아직 상황 맥락의 체계가 언어학적으로 구축되지는 않았다.

(e.g. Halliday & Matthiessen, 2004, 3장)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계기능언어학의 '의미 층위/담화 의미 층위'에서 사용하는 참여자(participant), 환경(circumstance)과 같은 개념들(e.g. Halliday & Matthiessen, 2004, 5장)은 의미역 이론에서 제안된 개념과 관련되는 지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체계기능언어학은 교실 담화 분석(Rose, 2014, 2018)에 적용되기도 하고, 최근에는 교육사회학과도 결합되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 번스타인의 코드 이론과의 협업, 메이튼(Maton)을 중심으로 한 적정 코드 이론(LCT)은 체계기능언어학의 확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2].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체계기능언어학은 언어학 내부에서의 연계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언어학 이론이라 할 수 있다. 문법교육에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작업에서도 체계기능언어학의 연계성과 확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원소의 하나, 혹은 벼리의 역할

◦ 2장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체계기능언어학은 언어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많은 언어학 이론과 연계성이 높고 학제적 연구 가능성도 높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체계기능언어학이 문법 교육에서 다른 언어학 이론과 맺을 수 있는 관계로 다음의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언어학 이론 각각에는 언어에 대한 독특하고 가치 있는 안목이 담겨 있다. 학습자에게 각 언어학 이론이 제공하는 고유한 안목을 바탕으로 언어를 이해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문법 교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교육에 기여하는 언어학 이론을 하나의 집합으로 간주할 때, 체계기능언어학도 언어에 대해 독특하고 가치 있는 안목을 제공할 수 있는 언어학 이론의 하나로 해당 집합의 원소가 된다. 물론 그 집합에는 구조주의 언어학, 코퍼스 언어학 등 다양한 언어학 이론들도 원소로 존재한다[3].

② 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체계기능언어학은 다른 언어학 이론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다.(물론 모든 언어학 이론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문법 교육 내용을 설계할 때 체계기능언어학을 '벼리'로 삼는 방법이 있다.

◦ 좀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겠으나, 이 발표문에서는 위의 두 방식이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②에 관한 논의는 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①과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2) 최근 이루어진 적정 코드 이론(LCT)에 대한 문법교육적 논의는 소지영(2020) 참조.
3) 단, 각 원소 간의 교육적 가치는 다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 타당하다.

◦특히, ②와 관련해서는 ‘벼리’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 비유는 ‘벼리’가 그물을 조정할 수 있는 줄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벼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대상의 각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축의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체계기능언어학을 이러한 축으로 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계기능언어학이 다른 언어학 이론들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계기능언어학을 문법 교육에서 활용할 때, 그 자체만 독립적으로 다룰 수도 있지만 다른 언어학 이론들의 성과와 연계하여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후자는 결국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다른 언어학의 성과를 재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문제와 관련된다.

4. 구조주의 언어학적 지식의 체계기능 언어학적 표상은 가능한가, 혹은 필요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육의 국면에서 구조주의 언어학적 지식을 항상 체계기능언어학적으로 표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장의 ①에서 언급한 대로 구조주의 언어학적 지식을 비롯한 각 언어학 이론들은 학습자에게 저마다 고유한 언어학적 안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구조주의 언어학적 지식은 체계기능언어학적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고도 그 자체로 고유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서는 이러한 3장의 ①의 관점을 인정한 가운데, 3장 ②에서 제기한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3장 ②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구조주의 언어학과 체계기능언어학은 이론적 관점 자체가 다르고, 이에 따라 주목하는 언어 단위도 다르고 언어 단위를 다루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주의 언어학적 지식의 일부가 체계기능언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그러한 검토 과정을 통해 3장 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연구가 추가로 필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 사례 분석 1 - 중세국어 시상 체계

◦국어 시상체계의 변화를 통시적으로 살핀 최동주(2015)의 연구 결과를 사례로 들어 살펴보자. 최동주(2015:17-18)에서는 구조주의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되 담화, 화용적 측면도 고려하는 연구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해당 연구에서 도출된 지식이 체계기능적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은 ‘구조주의 언어학적 지식의 체계기능 언어학적 표상’을 다루는 본 절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 분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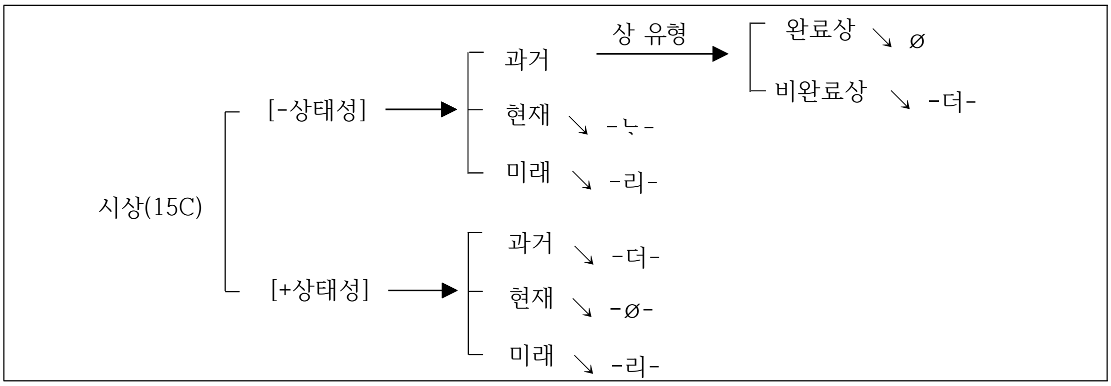
◦최동주(2015)에서 규명한 15세기 국어의 시상체계 다음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15세기 국어의 시상체계(최동주, 2015: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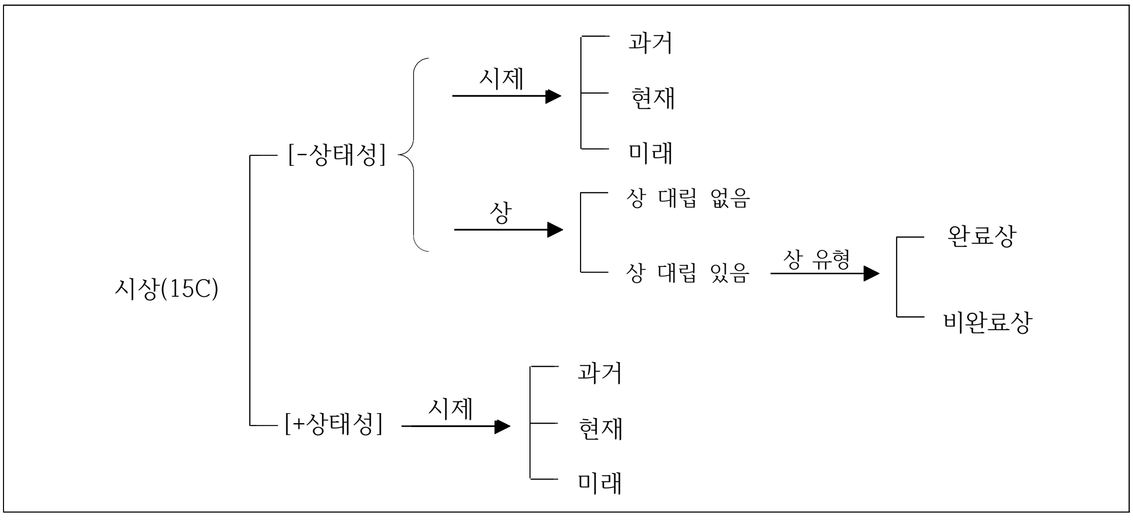
구분		과거	현재	미래
[-상태성]	완료상	ø	ᄂᆞ	리
	비완료상	더		
[+상태성]		더	ø	리

◦ [표 1]을 체계기능언어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택항 체계를 사용해야 한다. 선택항 체계의 구조와 의미는 Eggins(2004:13-20)에 상세히 다루고 있고, Halliday & Matthiessen(2004)에도 많은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 [표 1]을 선택항 체계로 표현하는 것도 몇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림 2]는 시제 체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상 체계가 분화되는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시제(여기서는 [-상태성]의 과거)에서만 상 구분이 언어 형식으로 실현된다는 특징이 선택항 체계 내에서도 잘 드러나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그림 3]은 시제 차원의 선택항들과 상 차원의 선택항들을 각각 제시하면서 두 차원의 선택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보는 방식이다.



[그림 2] 15세기 국어의 시상체계(최동주, 2015:127)를 체계기능언어학의 선택항 체계로 표현(1)



[그림 3] 15세기 국어의 시상체계(최동주, 2015:127)를 체계기능언어학의 선택항 체계로 표현(2)

◦ 위의 두 가지 방식의 표현이 모두 가능하다. 여기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그림 2]를 기준으로 논의한다. [그림 2]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두 가지 물음에 대해 살펴보자.

◦ 첫째는 [그림 2]를 의미기능을 중심에 둔 선택항 체계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선택항 체계의 각 항목은 특정 상황에 사용될 수 있는 잠재적인 의미 자원으로 언어 주체에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 제시된 언어 형식들이 선택 관계에 놓이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었-'을 쓸 자리에 '-겠-'을 선택하는 화자는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구조주의 언어학의 "계열관계 중심의 체계항은 언어 주체의 언어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제민경(2015:70)의 논의와도 관련된다. 본 발표문에서도 선택항 체계를 평가할 때 언어 주체의 언어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매우 타당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그림 2]가 체계기능언어학의 선택항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 이를 위해 우선 [그림 2]에서 특히 [-상태성] 과거의 완료상(ø)과 비완료상(-더-)이 실제로 동일한 상황에서 언어 주체에 의해 선택 관계에 놓일 수 있는지 살펴보자.

(1) 가. 이 如來 六年 苦行ᄒᆞ더신 짜히니이다 이에셔 長者ㅣ ᄯᆞ리 여래ᄭᅴ 졋 粥 ᄣᅮ어 <u>받ᄌᆞᄫᆞ니이다</u>(釋譜詳節 24:36a)

나. 버근 法王이시니 轉法을 조차 <u>ᄒᆞ더시니이다</u>(釋譜詳節 24:3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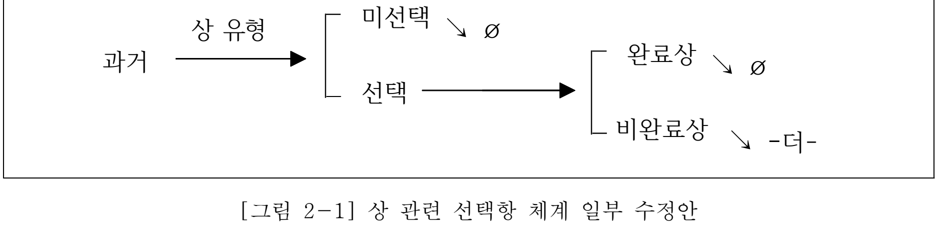
(예문은 최동주(2015:113)에서 재인용)

◦ 최동주(2015:113-114)에 따르면 (1가)는 "우파국다존자가 阿育王에게 世尊의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으로 "과거의 상황을 그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며 이는 이어지는 이야기인 (1나)에서 '-더-'가 사용된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1가)에는 '-더-'가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최동주(2015:114)에서는 "15세기 국어에서 'ø : -더-'의 출현 여부는 상황 자체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됨을 지적한다[4].

◦ 이런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그림 2] [-상태성] 과거의 완료상(ø)과 비완료상(-더-)에 관한 부분은 체계기능언어학적 관점에서도 선택항 체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5]. 15세기 국어

4) 물론 이는 담화, 화용적 방법론까지 적용된 것이지만 해당 연구가 전체적으로 구조주의 언어학적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하다.

5) (1가)와 같은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선택항 체계에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상 관련 선택항 체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2-1] 상 관련 선택항 체계 일부 수정안

위와 같이 수정하면, (1가)와 같이 실제로는 비완료상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ø'가 사용된 것에 대해 선택항 체계 내에서 완료상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상 유형이 미선택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의 경우 시제와 상이 상호 관련되어 언어 형식이 선택되므로, 상 선택항 체계를 체계기능언어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시제 관련 내용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본 발표문에서는 잠정적으로 [그림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6)

◦두 번째 물음은 [그림 2]에서 지식의 표현 방식은 달라졌으나 구조주의 언어학의 연구 결과라는 본질 자체에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표기 방식은 특정한 관점을 전제하며, 위와 같은 표기 방식은 언어 현상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의 독특한 이해를 전제한다고 답할 수 있다. 선택항 체계 내에서 한 항목이 선택되어 사용되면, 사용된 항목은 '실현태'가 되고 선택되지 않은 항목들은 '잠재태'가 되며, 선택된 언어 형식의 의미는 잠재태로서의 선택항 체계 전체를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한 관점의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상태성] 과거의 완료상(ø)과 비완료상(-더-)의 경우 [표 1]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경우 실제 사태의 상적 상황에 따라 'ø' 또는 '-더-'의 선택이 확정되는 것처럼 오해될 가능성이 있음에 비해, [그림 2]의 경우 체계기능언어학적 관점이 전제되었음을 고려하면 'ø'와 '-더-'의 사용이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 주체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준다. 물론, 최동주(2015:114)에서와 같이 설명을 통해 [표 1]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제시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방식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림 2]와 같은 표현 방식이 갖는 장점도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좀 더 나아가면 이는 맥락과 언어의 관계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을 설명하는 사례로서도 가치가 있다.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체계기능언어학은 맥락을 언어와 별개로서 언어의 주변을 둘러싼 대상으로 보지 않고, 기호학적 과정을 거쳐 맥락 그 자체가 언어의 의미가 된다고 본다. 여기에 언어 주체가 선택항 체계 내에서 언어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까지 더하여 생각해 보면, 언어 주체의 언어 형식 선택에 의해 맥락이 재구성되며 그에 따라 의미가 구성된다고까지 볼 수 있다. 체계기능언어학적 관점을 적용하면 (1나)의 경우 잠재적 선택항 체계로 존재하는 과거 완료상의 'ø'와 과거 비완료상의 '-더-' 중 언어 주체에 의해 '-더-'가 선택되어 해당 맥락이 과거 비완료상으로 재구성되어 의미화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1가)에 적용하면 (1가)는 실제 사태는 과거 비완료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주체에 의해 '-더-'가 선택되지 않아 과거 비완료상으로서의 의미가 전경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맥락이 재구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이 체계기능언어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최동주(2015:114)에서도 유표성의 관점에서 "무표/유표의 대립에서 무표항이 유표항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체계기능언어학적 개념들을 활용하여 체계기능언어학적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음을 보인 것이다.

6) [그림 2]의 시상 체계 중 시제 선택항 체계가 그 자체로 체계기능언어학의 선택항 체계로 성립할 수 있는지는 차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체계기능언어학 선택항 체계의 성립 조건을 좀 더 느슨하게 하여, 동일 사태에 대해 모든 항목이 서로 선택적 관계에 놓이지 않더라도, 해당 항목들이 언어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언어 자원으로서 하나의 범주를 이루면 선택항 체계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4.2. 사례 분석 2 - 학교 문법의 문장 확대

◦ 이 절에서는 절 복합 체계에 대한 체계기능언어학의 성과가 문장 확대에 관한 학교 문법의 내용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문법 교육에 도입될 수 있을지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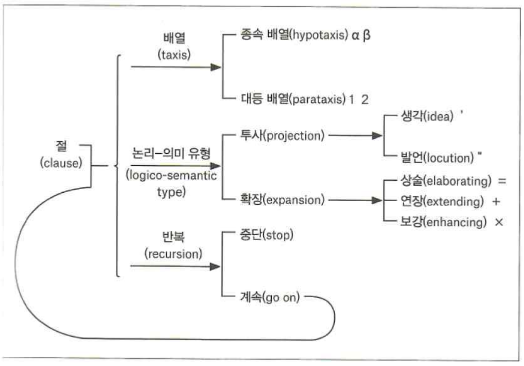
◦ 학교 문법에서 문장 확대를 다루는 방식과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절 복합 체계를 다루는 방식은 차이점이 매우 커서, 학교 문법의 문장 확대 지식을 체계기능언어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학교 문법에서의 문장 확대는 형태·통사 중심의 분류 체계인데 비해, 체계기능언어학에서의 절 복합 체계는 의미기능 중심의 체계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체계기능언어학의 절 복합 체계에 대한 연구 성과를 문법 교육에 도입할 때 기존 학교 문법의 내용과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 다음의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식 1] 3장 ①의 방식

: 학교 문법에서의 문장 확대 내용과 체계기능언어학의 절 복합 체계 연구 성과를 각각 별도로 제시하고, 각 방식의 특징을 상호 비교하며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도식([그림 4], [그림 5])에 담긴 언어학적 관점 차이를 이해하도록 한다. 물론, 체계기능언어학의 절 복합 체계 연구 성과가 문법교육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충분히 누적되어야 하고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4] 학교 문법의 문장 확대(민현식 외, 2019: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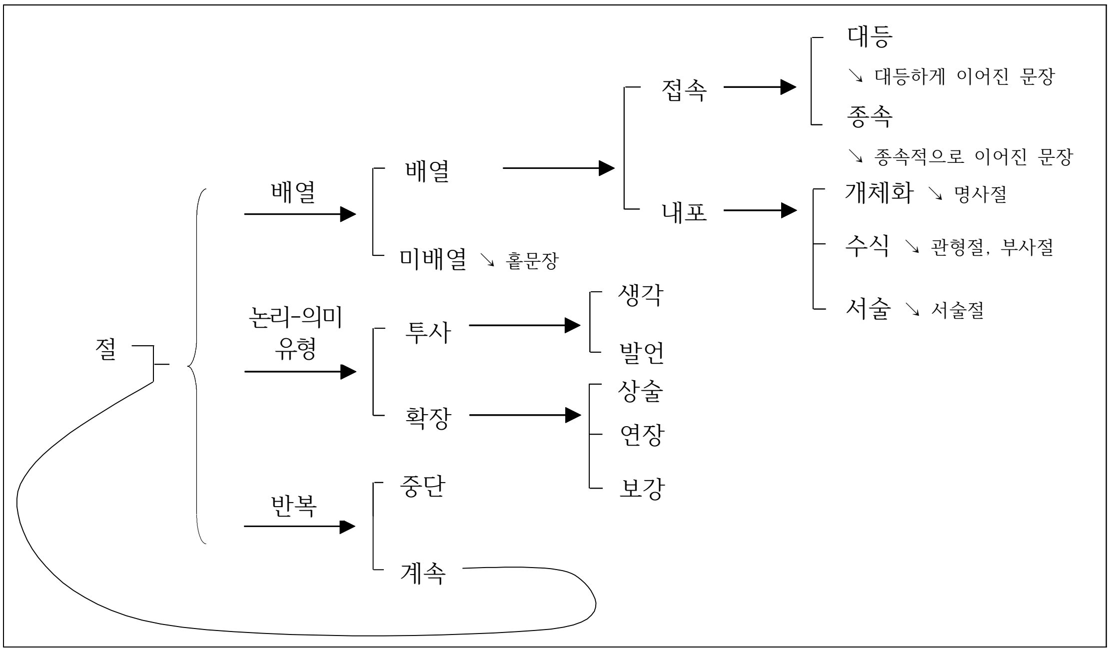


[그림 5] 체계기능언어학의 절 복합 선택항 체계 (Halliday&Matthiessen, 2014:438, 이관규 외, 2021:163에서 재인용)

[방식 2] 3장 ②에 가까운 방식

: 학교 문법의 문장 확대 내용은 형태·통사 중심의 체계이고, 체계기능언어학의 절 복합 체계는 의미 기능 중심의 체계이기 때문에 전자를 후자의 관점에서 표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문법의 문장 확대 내용은 한국어 문장 구조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절 복합 체계를 수립할 때 참고해야 한다. 체계기능언어학의 선택항 체계가 의미 기능 중심이기는 하지만, 기호 '↘'를 사용하여 실현된 언어 형식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잠정적이지만 학교 문법의 문장 확대 내용을 참고하여 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절 복합 선택항 체계를 구성해 본 것이다.



[그림 6] 학교 문법의 문장 확대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한 체계기능언어학의 절 복합 체계(안)

◦ [그림 6]은 학교 문법의 문장 확대 내용을 체계기능언어학적 관점에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체계기능언어학에서 이미 제안했던 절 복합 체계를 한국어의 문장 구조 교육 내용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이다. 물론, 발표문에서 제안하는 잠정적 안이므로 차후 많은 논쟁을 거쳐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그림 6]을 작성할 때 무엇보다 체계기능언어학의 선택항 체계가 형태·통사 중심이 아니라 의미기능 중심으로 표현된다는 점에 유의했다. 따라서 [그림 6]에 제시된 '대등', '종속'은 통사적 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의미기능 차원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기존에 체계기능언어학에서 배열의 하위 유형으로 '종속 배열', '대등 배열' 두 가지를 제시한 것과 달리, 위 도식에서는 '접속'과 '내포'를 구분한 후 '접속'에 '대등'과 '종속'을 넣고, '내포'에 '개체화', '수식', '서술'의 세 항을 새로 만들어 넣었다. 학교 문법에서 사용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은 의미기능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실현 형태가 어떤 의미기능을 실현하는지 고려하여 명사절에 대응되는 의미기능으로 '개체화'를, 관형절, 부사절에 대응되는 의미기능으로 '수식'을, 서술절에 대응되는 의미기능으로 '서술'을 설정하였다. 단, 여기서 '수식', '서술'이 의미기능으로 성립하는지의 문제는 차후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 발표문에서는 '수식'과 '서술'이 통사적 의미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배열'이라는 진입 조건하에서라면 '수식'과 '서술'도 의미기능의 명칭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은 '↘' 기호를 사용하여 실현되는 언어 형태로 제

시하였다.

◦ 인용절의 경우 위 선택항 체계에서 ‘투사’와 관련되는데 이관규 외(2021:179)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체계기능언어학의 투사는 생각을 인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용절을 투사의 실현 형태로 제시하기가 어려웠다[7]. ‘인용절’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림 6]에서 ‘투사’ 개념으로 인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선택항 체계는 위와 같이 설정하였다.

◦ [그림 6]과 관련해서는 차후 다음의 두 문제에 대한 탐구가 이어져야 한다. 첫째는 [그림 6]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논쟁이다. 문장의 확대 과정(체계기능언어학의 관점에서 보면 절 복합체 형성 과정)을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어떻게 기술할지의 문제가 일차적인 탐구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는 타당한 선택항 체계가 수립될 경우 해당 선택항 체계가 표현 효과, 장르, 맥락 등과 어떤 관련을 맺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체계기능언어학의 선택항 체계가 교육적으로 유의미하려면 현재 문법교육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표현 효과, 장르, 맥락과의 연결 고리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규명이 충분히 타당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교육 내용으로 구현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 지금까지 “체계기능언어학이 문법교육에 이미 존재하는 언어학적 기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문법교육에 도입되어야 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여, 기존 문법 지식을 체계기능언어학적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체계기능언어학의 선택항 체계 구축 시 기존 문법 지식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한 바와 같이 각 언어학적 전통은 그 자체로 언어에 대한 가치 있는 안목을 담고 있으므로, 체계기능언어학적 표현 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 모두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하에서, 본 발표문의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 본 발표문에서는 주로 문법교육 내용에 이미 존재하는 언어학적 기반을 중심으로 체계기능언어학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체계기능언어학은 벡터 의미론과 같이 아직 문법교육의 내용이 되지 않은 언어학 이론과도 연계될 가능성을 지닌다. 예컨대, 컴퓨터 언어학에 기반한 벡터 의미론의 연구가 진전된다면, 작성 과정 중인 문장의 일부만으로도 문장의 남은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선택항이 존재하는지 화자/필자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구성되는 선택항은 대규모 말뭉치의 문맥 정보가 벡터화되어 선택 가능한 항목을 확률적 정보와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될 것이다. 체계기능언어학이 새로운 최신의 언어학 이론들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연계되어야 할지 역시 미래 문법교육을 위해 필요한 논의일 것이다. 이 주제는 차후 별도의 자리에서 다루기로 한다.

---

7) 생각이 간접적으로 투사된 예로 “그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를 들 수 있다(이관규 외, 2021:179).

참고 문헌

소지영(2020), 학문 문식성 신장을 위한 기능적 메타언어 관점의 문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관규·김서경·노하늘·성수진·신희성·유상미·이현주·정려란·정지현·정혜현(2021), 체계기능언어학 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주세형(2005), 통합적 문법 교육 내용 설계의 원리와 실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주세형(2014), 통합적 문법 교육의 전제와 학문론적 의의, 국어교육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7-86.

제민경(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동주(2015), 국어 시상체계의 통시적 변화, 태학사.

Davies, E. C.(2014). A retrospective view of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with notes from a parallel perspective. Functional Linguist 1, https://doi.org/10.1186/2196-419X-1-4.

Eggins, S.(2004). An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2nd Edition), continuum.

Firth, J. R.(1957a). A Synopsis of Linguistic Theory, 1930-1955. In Studies in Linguistic Analysis (Special volume of the Philological Society), 1-31. London: Blackwell [reprinted in F R Palmer 1968 [Ed.] Selected Papers of J. R. Firth, 1952-1959. London: Longman. 168-205].

Firth, J. R.(1957b). Ethnographic analysis and language with reference to Malinowski's views. In Man and Culture: an evaluation of the work of Bronislaw Malinowski, ed. RW Firth, 93-118.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reprinted in F R Palmer 1968 [Ed.] Selected Papers of J. R. Firth, 1952-1959. London: Longman. 137-167].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 ed.), Hodder Education.

Halliday, M. A. K. & Matthiessen, C. M.(2014). Halliday's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4rd ed.), Routledge.

Martin, J. R.(2014). Evolving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beyond the clause. Functional Linguist 1, https://doi.org/10.1186/2196-419X-1-3

Rose, D.(2014). Analysing pedagogic discourse: an approach from genre and register. Functional Linguist. 1, 11, https://doi.org/10.1186/s40554-014-0011-4.

Rose, D.(2018). Pedagogic register analysis: mapping choices in teaching and learning. Functional Linguist. 5, 3. https://doi.org/10.1186/s40554-018-0053-0

McEnery, T. & Hardie, A.(2012). Corpus Linguistics: Method, Theory and Practice, 최재웅 역(2018), 코퍼스 언어학: 방법.이론.실제,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체계기능언어학과 문법 교육>에 대한 토론문

김윤신(인천대)

이 연구는 체계기능언어학을 문법 교육의 이론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문법 교육을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 문법 교육이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여 더욱 체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작업은 실제로 우리 문법 교육의 바탕이 되는 국어학의 이론적 연구 성과와 언어학 이론의 발전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필요하므로 매우 어렵다. 각각의 언어학 이론은 서로 다른 전제를 가지고 동일한 언어 현상을 다르게 바라보아서 그 간극을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구조주의 언어학적 바탕에서 확립된 문법 교육에 다른 언어학 이론의 기반을 도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에서 언어 현상을 바라보아야만 실제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래야만 현재 문법 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발표자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토론자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과 논평을 통해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첫째, 다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발표문에는 체계기능언어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언어학 이론이 문법 교육에 왜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토론자도 이론언어학자로서 문법 교육을 가르치는 입장으로는 이론의 도입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근거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문법 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이론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약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근거의 제시를 위해서 먼저 문법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해야 할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국어 문법을 배워야 하는가 그리고 문법 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국어학적인 내용인지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문법 교육에 대한 논의는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다.

둘째, 체계기능언어학과 구조주의 언어학 등의 접점이 있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토론자가 아는 바로는 언어학은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시작하여 그 바탕에서 구조주의가 출현하여 발달하였고 또 그 구조주의의 바탕에서 생성 문법이 나타나 최근까지 언어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사실 언어학의 이론적 발전은 정체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 이론들을 검증하는 실험 언어학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이론도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발표자가 언급하는 벡터 언어학 등과 같은 최근의 경향도 이러한 실험 언어학적 경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만 언어학 이론의 발전에서 관찰할 수 있는 큰 흐름은 언어학의 연구 대상이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문헌에 남아 있는 역사적 언어 자료를 대

상으로 하다가 기호로서의 언어로 연구 대상이 변화하였고 그 이후 언어 사용자와 맥락을 고려한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은 어떠한 언어 이론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심지어 형식 의미론적 연구에서도 화자를 포함한 맥락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 전에 시도된 상황 의미론 등이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언어학 이론들이 접점이 존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로부터 단순히 서로를 잘 결합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떠한 부분에서는 평행선과 같은 전제를 갖기 때문에 동일하게 파악하는 언어 현상도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론적 연관성과 확장 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다시 살펴보기를 바란다.

셋째, 최근 체계기능언어학적 연구에서 언급되는 '잠재태'와 '실현태'에 대한 언급은 프랑스 언어학자 기욤(Guillaume)의 심리역학이론(Psycho-mechanics)에서 주장한 '잠재'와 '실현'의 개념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이는 또한 랑그와 파롤,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 등과도 비교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을 비교해 보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의미 있는 접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4.1.의 사례 분석1에서 최동주(2015)에 제시된 중세 국어 시상 체계를 체계기능언어학적 입장에서 체계를 잡아보고자 하였는데 [그림2]와 [그림3] 모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최동주(2015)에서는 시제와 상을 서로 다른 층위에서 바라보고 이 둘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체계기능언어학의 입장에서는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 현상 자체에 바로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두 층위의 분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시제는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고 상은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의 내부 구조에 대한 것이므로 연관되어 있을 수는 있으나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차원의 것으로 분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식의 동일성이 이 층위의 분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그림2]나 각주5)에 제시한 방식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또한 이 시제와 상의 선택항이 동시에 선택되는지는 현재의 연구 수준으로는 검증할 수 없으므로 언급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에 대한 어떠한 가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종의 시뮬레이션에 불과할 것이다.

다섯째, 4.2.의 사례 분석2에 대해서도 역시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층위의 구별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된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의미 기능이 중심이 되므로 문장의 형식 차원의 논의인 현재의 문법 교육에서 제시하는 문장의 확장에 대한 내용은 형식 위주이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체계기능언어학의 방법론으로 다루고자 한다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듯하다. [그림6]에 제시한 내용은 형식과 의미의 층위가 비교적 잘 구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후 설명한 바와 같이 체계기능언어학의 배열이 적절하지 않아 수정하고 있다. 이론적 연구에서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교육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가져오는 것은 더욱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식이 자칫 원래 이론의 개념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라리 형식적 층위, 즉 형태 통사적 층위에서는 현재의 구조주의적인 방식을 적용하고 그 이후 그 문장들의 의미기능적인 측면은 체계기능언어학적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토론자의 제안이다. 물론 이러한 방안도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실 체계기능언어학에 대해서는 대학원에서 잠시 Halliday의 문헌을 약간 접한 것이 모두이기 때문에 발표자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언급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은 발표자의 양해를 구한다. 그러나 토론자의 의견은 다른 이론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연구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충분하고 치열한 토론은 우리 언어학계와 문법 교육에 매우 필요한 것이라는 토론자의 의도를 밝히며 토론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체계기능언어학과 문법적 은유

-문법적 은유의 지식 구성적 기능을 중심으로-

소지영(경희대)

< 차 례 >

Ⅰ. 논의의 전제: 지식 구성 도구로서 언어
Ⅱ. 문법적 은유의 지식 구성적 기능
Ⅲ. 문법적 은유의 교육적 필요성과 의의
Ⅳ. 이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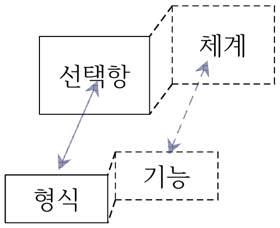
Ⅰ. 논의의 전제: 지식 구성 도구로서 언어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한 기능 문법으로부터 발전한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에서는 언어가 그 자체로 인간의 경험을 이론화(theorizing)하는 도구이자, 언어 사용자의 지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척도(Halliday, 1993 ; Halliday & Martin, 1993 ; Halliday, 2004)로 간주된다. 이는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언어와 지식 간의 관계, 더 엄밀하게는 언어를 통한 지식 구성(knowledge construction)을 활발하게 다루는 데 바탕이 된다. 체계 기능 언어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언어를 통한 지식 구성을 다룬 주요 연구들로는 Halliday(2004), Schleppegrell(2004), Christie & Martin(2008), Martin(2013), Moore & Schleppegrell(2014), de Oliveira & Schleppegrell(2015)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Halliday(2004)에서는 언어 능력을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자 인간 자신과 세계를 이론화하는 능력으로 규정하면서, 언어를 통해 생활 사태적 경험을 '지식'의 형태로 변환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 요소 및 언어 형태의 의미와 기능을 다루고 있어 언어가 지식을 구성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언어가 경험을 이론화한다는 것의 의미는 인간 개체와 환경 사이의 복잡한 상호 관계를 언어로 모델링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지하는 실제 세계는 명확하게 경계 지어지거나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핵심적인 범주들을 이용하여 일련의 현상들을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개념 및 의미 범주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언어이다(Moriarty, 1997: xxi ; Halliday, 2004:188). 즉, 언어에 의해 인간의 경험이 '의미'로 변환되고, 이 의미화 과정에서 특정 언어의 문법 체계에 맞게 어휘나 문장 구조가 선택되어 실현된다. 그리고 바로 그 언어적 산출물을 통해 인간은 무언가를 알고 이해하는 지식 구성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결국 체계 기능 언어학적 관점에서 '지식 구성'이란 언어를 통해 세계와 경험을 일차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을 뜻하고, 더 나아가 언어가 ‘지식 구성의 도구’라는 것은 언어가 다양한 맥락의 상이한 지식 체계나 그로 인해 형성된 고유의 사고 양식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핵심적인 도구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 기능 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와 지식의 문제를 이와 같이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언어’에만이 아니라 언어적 구성의 대상인 ‘지식’에도 함께 주목하게 된다. 어떤 지식이냐에 따라 언어를 통한 구성 방식과 구성의 결과가 달리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언어적 구성의 대상인 지식은 언어 사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정한 지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와는 다른 지식의 체계를 갖춘 사람과는 차별되는 언어 사용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점에서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지영(2020)에서는 체계 기능 언어학적 관점 아래 언어 사용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의 영역을 ‘잠재태’, 지식의 체계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언어의 영역을 ‘실현태’로 구분하고 그 상호성을 논의함으로써 지식과 언어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이때의 ‘지식’은 단순히 어떤 명제나 규범, 규칙이나 원리, 이론이나 사상 등 앎의 이지적 특징(이돈희, 1999:42)만이 아니라 체계와 구조로서 존재하면서 그러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사물과 현상을 판단·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자, 새로운 생각과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존재(허경철 외, 2001:244)하는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잠재태와 실현태의 관계
(소지영, 2020:48에서 재구성)

‘잠재태’는 언어화 과정에 관여하는 ‘체계로서 언어’로, 특정한 언어화 양상을 촉발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관찰 가능한 형태로 나타난 것을 ‘실현태’, 즉 ‘텍스트로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그림 1]에서 하단/전면의 ‘형식-기능’ 층위는 텍스트로서 언어(실현태)에 해당하고, 상단/후면의 ‘선택항-체계’ 층위는 체계로서 언어(잠재태)에 해당한다. 실현태와 잠재태의 관계는 양방향적이다. 우선 잠재태에서 실현태로 향하는 관계의 경우, 동일한 현상이나 사태를 두고도 언어 사용자가 어떤 ‘체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현상이나 사태를 의미화한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 또 실현태로부터 잠재태로 향하는 관계의 경우, 이미 실현된 언어 구성체를 근거로 하여 언어로 실현되기 이전에 언어 사용자의 머릿속에 어떤 ‘체계’가 있었는지, 그 체계는 어떤 ‘선택항’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밝히는 것(주세형, 2014:73)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는 언어화 이전의 잠재적인 의미 체계와 구체적인 언어 형식으로 실현된 텍스트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잠재태를 실현태로 변환하는 과정과 실현태를

통해 잠재태를 역추적·재구성하는 과정 모두에 관여하게 된다(소지영, 2020:44-45). 즉, 언어란 결과물로서 '실현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잠재태 층위와 실현태 층위를 매개하며 특정 의미를 생성해 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가 지식 구성의 '결과'가 아닌 지식 구성의 '도구'라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잠재태와 실현태 사이에서 언어의 역할이 이러하다면, 단순히 잠재태에 해당하는 지식의 체계나 구조가 언어를 통해 표현·소통된다는 사실 또는 결과물로서 실현태에만 주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어떤 지식 체계가 어떤 언어로 구성되는지, 그 과정에서 선택되는 언어 형식과 기능은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의 이유와 언어적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폭넓고도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독특한 의미화 방식을 보이는 언어적 실현태인 '문법적 은유'를 중심으로 언어를 통한 지식 구성의 방식 및 양상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법적 은유의 교육적 필요성과 의의,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문법적 은유의 지식 구성적 기능

1. 문법적 은유의 개념

문법적 은유(grammatical metaphor)는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 강조하는 메타기능(metafunction) 중 경험적(experiential) 기능과[1] 관련된다. 어떤 사태 또는 인간의 내·외적 경험을 표상하는 경험적 기능은 '과정(process)', '참여자(participant)', '환경(circumstance)' 요소를 포괄하는 '동성(transitivity)' 체계를 통해 실현된다. 경험적 의미를 언어로 표현할 때, 어떤 행위나 동작, 상태, 속성 등은 그에 부합하는 동사·형용사적 의미, 즉 '과정'으로 표현되고, 그러한 '과정'에 개입·관여하는 행위 주체 및 대상은 그에 부합하는 명사적 의미, 즉 '참여자'로 표현되며, 이들을 둘러싼 시간, 장소, 이유, 목적, 수단 등과 같은 맥락적 정보는 그에 부합하는 '환경'으로 표현된다.

사람이 힘을 세게 가할수록 유리는 잘 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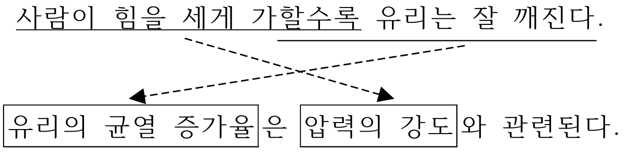
위의 문장은 문장으로 표현된 사태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 및 대상이 '사람(힘)', '유리'와 같은 명사적 의미로 실현되었고,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과정적 의미가 '가하다', '깨지다'와 같은

1) 체계 기능 언어학의 메타기능은 대개 '관념적(ideational), 대인적(interpersonal), 텍스트적(textual) 기능'으로 삼분된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문법적 은유는 크게 '관념적 기능'과 관련되는 '관념적 은유'와 '대인적 기능'과 관련되는 '대인적 은유'로 나뉘기도 한다. 이 중 '관념적 기능'은 다시 '경험적(experimental) 기능'과 '논리적(logical) 기능'으로 세분되는데, 전자가 사태의 구성과 관련된다면 후자는 논리의 구성과 관련된다. 즉, 경험적 기능이 절(clause) 단위로 실현되는 사태에 관한 것인 데에 비해, 논리적 기능은 절 단위 이상에서 그러한 사태들 간의 (논리) 관계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여타의 기능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본고에서 주목한 문법적 은유의 경우, 부합적인 표현과 비부합적인 표현 간 문법적 변이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관념적 기능' 중에서도 '경험적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

동사로 실현되어 경험 세계의 의미와 언어적 표현이 상응하는 ‘부합적(congruent)’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합적 실현은 언어화의 대상인 사태나 사건을 관습적이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개념화하고 구조화한다. 그런데 같은 의미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도 있다.

유리의 균열 증가율은 압력의 강도와 관련된다.

위 문장은 앞의 문장과 의미적으로 상통한다. 다만 앞 문장에서 ‘동사’로 실현된 과정적 의미가 이 문장에서는 모두 ‘명사(구)’로 실현되었다. 즉, ‘(힘을) 세게 가하다’가 ‘압력의 강도’로, ‘유리는 잘 깨진다’가 ‘유리의 균열 증가율’로 실현되었다.[2)]



이처럼 경험 세계의 의미는 과정적인데 그 실현태가 그에 부합하는 과정적 의미가 아닌 명사적 표현일 경우, 이를 ‘비부합적(incongruent)’ 실현이라고 하며, 이렇게 일반적이고 부합적인 표현 영역에서 비일반적이고 비부합적인 표현 영역으로 이동한 것, 즉 의미 범주 간 전이가 일어난 것을 ‘문법적 은유’라고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Halliday가 제시한 문법적 은유는 은유에 관한 전통적인 관점과 다른 방향을 취한다. Halliday에게서 문법적 은유는 하나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변이들의 문제이다. 즉, 문법적 은유는 ‘동일한 의미에 대한 다른 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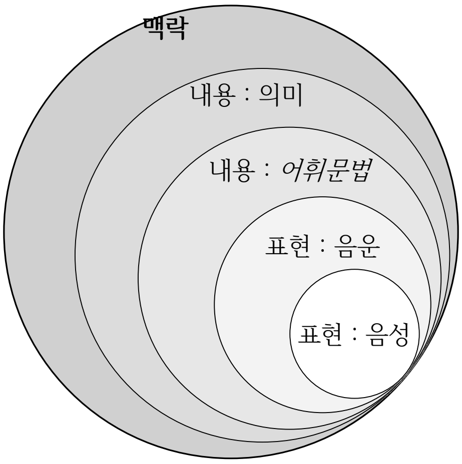
<표 1> 은유적 변이에 관한 두 가지 관점(Taverniers, 2003:8)

전통적 관점: 아래로부터의 관점	**새로운 관점: 위로부터의 관점**
어휘적 은유에 초점	문법적 은유에 초점
한 표현의 *의미적* 변이로서 은유	한 의미의 *표현적* 변이로서 은유
한 *어휘소*의 의미들 간 비교	한 의미의 표현으로서 다양한 문법적 *구성들* 간 비교
(실현된 결과는 본질적으로 어휘적 은유의 역할을 하지만, 그 개념이 은유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는 적용되지 않음)	동일한 의미의 *실현들* 간 일치의 특징

위의 <표 1>로도 확인할 수 있듯, 문법적 은유와 관련하여 Halliday가 취하는 관점은 은유

2) 물론 이러한 변환은 ‘세게 → 강도’, ‘깨진다 → 균열’, ‘유리는 깨진다 → 유리의 균열’, ‘(~ㄹ수록) 잘 깨진다 → 균열 증가율’ 등 수차례의 변환을 단계적으로 거친 결과이다. 여기에서는 문법적 은유의 개념과 실현 과정을 가시적으로 보이기 위해 ‘전형적으로 부합적인 표현’과 ‘전형적으로 비부합적인 표현’이 대조되도록 제시하였다.

의 대상이 '의미'가 아닌 '표현'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에 의해 문법적 은유는 같은 의미에 대하여 '다른 표현 방식'이 선택될 수 있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전술한 것처럼 잠재태를 실현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개념 및 의미의 범주를 제공하는 것이 언어라고 할 때, 그 성격은 크게 '어휘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으로 나뉜다. 체계 기능 언어학에서는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언어 기호 체계가 '계층화'되어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의미와 표현 사이에 존재하는 '어휘문법'이라는 중간 계층을 거쳐 계층 사이를 가로지르며 의미가 생성된다(Halliday, 2004:54)는 입장을 취한다. 문법적 은유는 이 어휘문법이라는 연속체 내에서 두 의미 계층 사이를 재조정한다는 점에서 '어휘문법적 변이로서의 은유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휘문법 층위의 이러한 특성은 문법적 은유가 '어휘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을 구별하지 않고 품사 간(동사·형용사 → 명사), 언어 구조 간(절 → 구, 복합절 → 단일절) 전이를 포괄하며 실현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그림 2] 언어의 계층성(Halliday & Matthiessen, 2014:26)

이러한 어휘문법적 변이의 가장 대표적인 실현태는 명사화(nominalization)이다. 명사화가 문법적 은유의 한 현상인 동시에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어휘가 다른 어휘로 대체되는 차원이 아니라 한 문법 범주(동사, 형용사)가 다른 문법 범주(명사)로 변환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이다. 결국 문법적 은유가 일종의 '표현 방식'이라면 명사화는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태'라고 할 수 있다(소지영·주세형, 2017:131-132). 따라서 텍스트 분석 시 문법적 은유의 특성이나 그 사용 양상 등을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형태적으로 '명사화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지영(2016)의 논의를 따라 명사화의 형식적 개념과 범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문법적 은유의 실현태로서 명사화의 형식적 개념 및 범주

구문 형성 차원	명사형 어미 결합형 (‘-음, -기’) 의존 명사 결합 구문 (‘것’) 속격 조사 연결 구문 (‘의’) 명사 병치 구문 (‘NP1+NP2’)
	↕
문장 구성 차원	문장에서 서술어의 논항으로 기능

이처럼 문법적 은유는 실현 형태가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의미를 실현한다는 점, 지식의 특수성에 따라 실현 양상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어떤 지식이 왜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의미화되었는지’, 즉 ‘어떤 지식이 언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피기에 적절하다.

2. 문법적 은유의 지식 구성적 기능 실현 사례

언어가 어떠한 지식 체계나 그로 인해 형성된 고유의 사고 양식을 이해·표현하는 데 사용되면서 지식 구성의 도구로 기능한다는 전제 아래, 문법적 은유는 앞서 살펴본 독특한 언어적 실현 방식뿐만 아니라 실현의 결과와 그러한 언어 실현이 나타나는 분야, 그리고 언어 실현과 사고를 연결 지어 살펴볼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언어 표현을 명사적으로 바꾼 것이 단순히 표현 형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유 방식의 차원으로까지 연결(조진수, 2018:299)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문법적 은유를 중심으로 ‘어떤’ 지식이 ‘왜 그렇게’ 표현되는지, 그 결과 어떤 의미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여 문법적 은유의 지식 구성적 기능을 살펴본다.

<u>**<사례 1>**</u>

아래의 사례는 사회과 학업성취도평가 서답형 문항에 대하여 문법적 은유의 형태로 작성된 학습자의 답안으로, 문법적 은유가 잠재태로서 사고를 언어화하여 나타내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 문항에서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 변화 가운데 중국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명”과 “후금”이라는 단어가 모두 포함되도록 서술하여야 하며, 모범 답안은 “명이 쇠퇴하고, 후금이 성장하였다.”이다. (이하의 사례는 사회과 학업성취도평가 서술형 답안을 분석한 소지영·성경희·주세형(2018)의 논의 참고)

명과 후금의 권력 싸움

답안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명과 후금의 권력 싸움’은 ‘명과 후금이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싸움을 하였다.’ 정도의 의미가 압축된 것으로, 이 중 ‘권력 싸움’이 ‘권력이 싸웠다’로 단순 대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복잡한 ‘명’과 ‘후금’ 사이의 정쟁 사태를 압축하여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사화 표현은 참여자와 과정이 모두 포함된 온전한 문장 단위로 존재하는 학습자 사고의 잠재태를 실현태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장 단위의

의미가 명사화되는 과정에서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소거되고 ‘명’과 ‘후금’이 갈등 관계에 있다는 개략적인 사실만이 남게 되었다.

① (명과 후금이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싸움을 하였다.) (학습자 사고의 잠재태)

(명사화) ↳ ② **명과 후금의 권력 싸움** (학습자 사고의 실현태)

↳ ③ 명과 후금의 권력 싸움에서 후금이 승리했다.

[그림 3] 학습자의 명사화 과정과 답안 보완 방안

위 [그림 3]은 ‘명과 후금의 권력 싸움(②)’이라는 학습자 답안의 명사화 과정을 재구하여 나타낸 것이다. ①은 학습자가 작성한 명사화 표현인 ② 이전의 절 구성을 의미상 추측하여 재구한 것이고, ③은 학습자의 답안이 모범 답안의 의미와 가까워지기 위해 ②에 추가로 기술되어야 하는 내용을 덧붙인 것이다. 역사의 언어에서 사용되는 명사화 표현의 특징 중 하나는 명사화를 통해 사태를 참여자로 변환함으로써 논리적 연결 관계가 절 내에서 실현되도록 한다(Halliday & Martin, 1993:267)는 것이다. 학습자 답안인 ‘명과 후금의 권력 싸움’이라는 명사화 표현은 ‘명과 후금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움을 하였다’는 사건의 논리적 관계를 압축하여 명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사고(잠재태)를 텍스트(실현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이 생략되면서 불완전한 문법적 은유의 사용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불완전한 사용 양상을 통해 오히려 문법적 은유의 지식 구성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문법적 은유를 사용하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은 단순히 잠재태를 실현태로 변환하는 수준이나 동사적 의미를 명사적 의미로, 절을 구로 변환하는 차원이 아니라, 명사구 자체를 구성 요소로 삼아 더 큰 단위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구성하는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문법적 은유가 대개 명사화 형태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온전한 의미를 전달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기인하기도 한다.

<사례 2>

문법적 은유는 그 대표적인 실현태가 명사화라는 점에서 명사화로써 얻을 수 있는 표현 효과가 수반된다. 특히 문법적 은유가 텍스트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텍스트의 핵심 명제를 드러내거나 재구성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명사화 사례들은 대상화 및 개념화, 범주화 및 체계화와 같은 명사화의 핵심적인 의미 기능이 지식 구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준다. (이하의 사례는 학업성취도결과 관련 학술 텍스트를 분석한 소지영(2016)의 논의 참고)

[2-ㄱ] 학생들의 읽기성취도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수준의 요인 중에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은 학교 수준의 요인과 관련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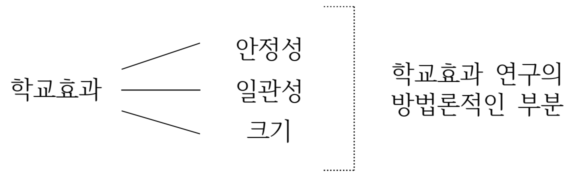
[2-ㄴ] 우리나라의 과학적 소양 성취가 국제순위 7-1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두 문장에 사용된 명사화 표현들은 공통적으로 주요 명제 내용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텍스트 내에서 언급된 적 없는 새로운 개념을 명사화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은 대상화 및 개념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동일한 텍스트 내에 의미 범주를 변환할 표현이 선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법적 은유는 비가시적인 잠재태, 즉 필자의 사고를 실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대상화 및 개념화가 두드러지는 문법적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핵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2-ㄷ] 이처럼 성찰 및 평가 부분에서 남녀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 여러 차원에서 그 원인을 탐색하여, 남학생의 성찰 및 평가 양상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2-ㄹ] 1990년대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효과의 안정성, 학교효과의 일관성, 학교효과의 크기 비교 등과 같은 학교효과 연구의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문법적 은유를 통해 명제 내용이 재구성되거나(2-ㄷ), 의미 분류 체계가 형성되는(2-ㄹ)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글의 응집성은 주로 접속 표지나 결속 표지 등 문법적 장치로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재배치하는 것으로도 글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 [2-ㄷ]에 사용된 문법적 은유는 선행 내용을 재구성하여 대상화함으로써 앞뒤 내용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하고, 해당 표현을 통해 이해 및 해석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한다. 한편 [2-ㄹ]에 사용된 문법적 은유 표현들은 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나 개체에 대한 단순 명명이 아니라,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과정이나 관계를 개체화하여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이처럼 문법적 은유를 사용하여 명사적 표현(noun-like)을 통해 가상적 개체(virtual entity)를 구성(조진수, 2018:297-298)함으로써 의미적 차원의 분류 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 [2-ㄹ]에서 문법적 은유를 통해 형성된 의미 분류 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문법적 은유를 통한 의미 분류 체계 형성 예

어떤 언어 표현을 명사적 의미로 나타내게 되면 일정한 의미 분류 체계가 형성되어 어떤 것이 범주 안에 포함되고, 어떤 것이 범주 밖에 존재하는지 정해지게 된다(Halliday, 2004:64).

위에서 문법적 은유를 통해 형성된 의미 분류 체계는 해당 텍스트 내에서 혹은 어떤 학문 분야나 영역에서 특정 지식의 구조와 지식 체계를 드러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u><사례 3></u>

문법적 은유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잠재태인지 실현태인지에 관계없이) 어떤 언어 표현이 압축된(packing) 것이므로 압축되기 이전(unpacking) 상태의 언어 표현을 함께 확인하여 문법적 은유 표현을 통해 어떤 의미 기능이 실현되고 어떤 언어적 효과가 생기는지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문법적 은유로 변환되기 이전의 언어 표현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 문법적 은유는 비가시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미 언어적으로 실현된 의미를 범주를 달리하여 나타낸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사례들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지만 형태는 다른 두 언어 표현을 비교하여 문법적 은유로써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의 사례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비교 분석한 소지영·주세형(2018)의 논의 참고)

[3-ㄱ]

초(63쪽): 별기군은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구식 군인은 **월급으로 받던 쌀을 1년 넘게 받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구식 군인에게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월급으로 지급하자** 분노한 구식 군인이 난을 일으켰다.

중(17쪽): 1882년 구식 군인들은 정부가 별기군에 비해 <u>낮은 대우를 하는 것</u>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3-ㄴ]

초(69쪽): **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 전기와 교통 시설을 확충하였다. 또 공장과 회사를 설립하고, **근대식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다**.

중(29쪽): <u>산업과 교육 진흥</u>에도 힘썼다. 섬유, 운수, 광업, 금융, 철도 등의 분야에서 근대적 기업을 세우고, 상공학교와 광무학교 등도 세웠다.

임오군란에 관한 설명에 해당하는 [3-ㄱ] 중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당시 구식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어떠했는지를 '절'로 상세히 밝혀 길게 기술하고 있는 데 비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일련의 관련 사건들을 일반화·추상화하여 간단히 '낮은 대우를 하는 것'이라는 문법적 은유 표현으로 제시하였다. [3-ㄴ]에서도 초등학교 교과서의 절 구성-'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와 '근대식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였다'-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산업과 교육 진흥'이라는 명사구로 실현되었다. 이와 같은 문법적 은유의 사용은 자연스럽게 언어 표현의 통사적 단순성을 높이지만 오히려 형태론적 복잡성(전태현, 2002:87)이나 의미 밀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대체적으로 절 구성을 선호하는 반면 학문 분과 체계에 따라 교과목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시작하는 중학교급부터는 학문 언어(academic language)에 보다 가까운 명사화 구성이나 압축된 언어 형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법적 은유의 사용이 학습자의

언어 발달 및 학습 발달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등학교급의 교과서에는 해당 교과의 핵심 지식을 구성하는 도구로 문법적 은유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양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이하의 사례는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 사용된 문법적 은유를 분석한 소지영·주세형(2017)의 논의 참고)

① 사람의 유전체에는 3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다.

② **불과 23개의 염색체에 이렇게 많은 수의 유전자가 들어 있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이처럼 **같은 염색체에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을 연관되었다 하고, 연관되어 있는 유전자를 연관군이라고 한다.

[그림 5]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의 명사화 용례

위 사례에서는 짧은 텍스트 내에서 명사화 구문이 연달아 두 번 나타난다. 문장 ②에서의 '것' 구문은 문장 ①이 나타내는 바를 명사적 의미로 변환한 것이고, 문장 ③에서의 '것' 구문 역시 문장 ②에서 절 형태로 제시된 내용(밑줄 친 부분)을 명사적으로 변환한 것이다. 이처럼 텍스트의 논리적 흐름을 따라 앞 내용을 대상화하는 동시에 일차적으로 명사화된 표현을 다시 더 큰 절에 포함시켜 의미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문법적 은유를 사용할 경우, 뒷부분에 제시되는 핵심적인 지식으로 설명 내용이 수렴되도록 하여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는 기능을 수반하기도 한다.

<사례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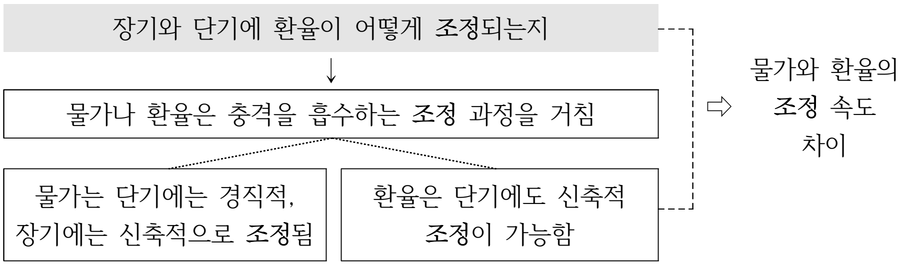
문법적 은유의 본질적인 개념이 동사적 의미 범주를 명사적 의미 범주로 변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도 문법적 은유를 통한 지식 구성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이하의 사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비문학 지문에서 서술성 명사의 특성을 분석한 소지영(2018)의 논의 참고)

①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② 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③ 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④ 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위의 사례는 서술성 명사 '조정(: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함)'이 상이한 문장 구조를 형성하며 모든 문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인접한 문장들 간의 의미가 연결되고 있다. 문

장 ①에서 '조정'이 포함된 동사적 의미-'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이어지는 문장 ②에서 '조정 과정'으로 압축되어 문장 ①에서 제기된 조정의 방법에 대한 정보를 명사적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이때 '어떻게 조정되다'의 의미가 '조정 과정'이라는 명사구로 변환되었으며, 전자와 후자가 결국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되 의미 범주의 성격만 각각 동사적인 것에서 명사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문법적 은유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또 명사구 '조정 과정'은 보다 큰 언어 단위의 일부로 참여하여 동사적 의미-'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를 나타내는데, 이는 뒤이어지는 문장들에서 물가의 조정(문장 ③, '물가는 (…)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과 환율의 조정(문장 ④,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으로 세분된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서술성 명사 '조정'에 의해 문장 간 의미가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네 문장에 걸쳐 구체화된 정보 구조는 문장 ⑤에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로 압축되어 개념화된다. 이와 같은 의미 구성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문법적 은유로서 서술성 명사의 용례

문장 ⑤의 명사구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는 그 자체로 다시 새로운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 해당 지문에서 학습자가 포착해야 하는 핵심적인 의미가 바로 이 문장 ⑤라는 점에서 결국 학습자는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의미적으로 상호 긴밀한 앞선 문장들의 의미 관계까지 체계적으로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 요컨대 이 문단의 핵심 내용-어떻게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하는지-은 문법적 은유로서 서술성 명사 '조정'에 의해 형성되고 연결되는 각 문장의 정보 구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문법적 은유는 분명 '명사화'를 대표적인 실현태로 하여 텍스트에 나타나지만, 이것이 '문법적 은유가 곧 명사화'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문법적 은유의 개념적 특성과 의미 기능을 기준으로 한다면 위의 사례처럼 국어의 서술성 명사와 같은 언어 현상도 문법적 은유의 범주 내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3] 전술한 것처럼 문법적 은유는 일종의 추상적인 언어 현상이므로 그러한 언어 현상에 해당하는 실현태는 형태뿐만 아니라 의미 기능적으로도 탐색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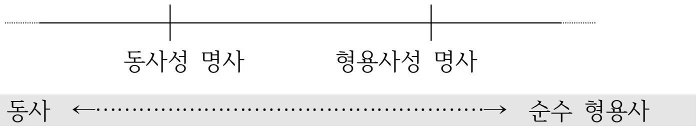
3) 서술성 명사는 형태적 측면에서 일반적인 명사의 사용과 구별이 어렵다는 한계로 그동안 문법적 은유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기 어려웠다. 실제로 체계 기능 언어학에 터하여 명사화의 의미 기능을 본격적으로 다룬 바 있는 소지영(2016)에서도 형태·통사적으로는 명사이면서 의미·기능적으로는 동사 및 형용사 범주에 속하는 서술성 명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속체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있는 것이다. 문법적 은유를 통해 한 언어 체계의 의미 표현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Martin & Rose, 2003:104)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Ⅲ. 문법적 은유의 교육적 필요성과 의의

언어가 지식 구성의 힘을 지니는 의미 생성 기제라면, 문법적 은유는 그러한 의미 생성 기제를 강력하게 실현하는 도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문법적 은유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왜 문법적 은유를 사용하는가’와 ‘문법적 은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이다. ‘왜’와 ‘어떻게’의 문제는 다층적이면서도 총체적이다. ‘왜’에는 언어 사용자의 의도나 목적,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차원의 특성, 특정한 언어 표현을 통해 얻어지는 표현 효과 등이 포함되고, ‘어떻게’에는 문법적 은유의 실현을 위해 사용된 문법 요소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적 은유의 형태 및 의미 기능, 문법적 은유의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 구성, 텍스트 전체의 정보 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문법적 은유에 대한 이와 같은 다양한 과제들이 언어 교육의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문법적 은유가 교육적 측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그에 따른 의의는 무엇일지 살펴보고자 한다.

문법적 은유의 개념적 특성과 지식 구성적 기능이 언어 교육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니기 위해서는 문법적 은유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맥락을 초점화할 필요가 있다. 즉, 학문 영역이나 교과별 지식 체계를 고려하여 어떤 지식을 문법적 은유로 실현할 때 효과가 두드러지는지, 또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어느 수준 정도에서 압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문법적 은유의 사용 범위 및 영역과 관련된 기준으로 횡적 기준을, 학습자의 발달 수준과 관련된 기준으로 종적 기준을 설정하여 각각에서 문법적 은유가 어떤 교육적 의의를 지니는지, 이것이 국어교육 혹은 문법교육에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그림] 명사화 구성 요소의 범주적 특성(소지영, 2016 참고)

위의 도식에서 서술성 명사에 해당하는 ‘동사성 명사’, ‘형용사성 명사’가 명사화와 관련하여 ‘형태·통사적으로 명사인 것’을 다룰 것인지, ‘의미적으로 명사인 것’을 다룰 것인지의 문제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명사화 구문과 그 의미 기능을 살피기 위해 의미적으로 명사인 것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은 소지영(2016)의 관점으로는 서술성 명사의 사용이 형태적 측면에서 개별적인 명사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과 구별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술성 명사를 명사화의 양상으로 포괄하지 못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 현상으로서 명사화가 형태나 의미 중 하나의 기준으로 일관되게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조건이 앞서 명사화를 통해 문법적 은유를 드러내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지하듯 명사화는 동사적 범주와 명사적 범주 모두에 속하여 형태·통사적 특성이나 의미적 특성 중 하나의 기준만으로 그 본질이 온전하게 설명되기 어렵다. 문법적 은유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적 특성과 동사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 따라서 언어화 기제나 그 과정 역시 복합적인 언어적 실현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횡적 기준: 학문 영역별 및 교과별 차이

문법적 은유는 학문 영역이나 개별 교과 고유의 특성에 해당하는 지식 체계 및 지식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는 문법적 은유가 상이한 지식 체계 및 지식의 구조를 차별화하여 드러내는 데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문법적 은유는 그간 다수의 연구에서 과학 분야의 특징적인 언어 현상으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주지하듯 과학 언어는 가상의 개념을 포함한 '사물들'의 세계에 대한 해석을 중요한 과제로 삼는데, 문법적 은유가 이에 사용되면서 세계를 관찰하고, 경험하고, 측정하고, 판단이 가능한 대상으로 유지(소지영, 2016:48)시키며 과학적 논의를 발전시킨다.

그런데 이것이 문법적 은유가 특정 학문 분야의 전유물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문법적 은유의 빈번한 사용이 곧 과학 언어의 특징'이라는 것보다는 문법적 은유의 어떤 의미 기능과 표현 효과가 과학 분야의 지식 체계를 드러내는 데 유효하게 작용하는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문법적 은유는 비단 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여타 학문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지식 구성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사실상 과학 분야를 비롯해 모든 분야가 해당 학문이 언어화된 방식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과학만이 특징적인 '과학의 언어'를 갖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이 '역사의 언어'에서도 개념적으로는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무형의 역사적 사건을 문법적 은유를 통해 특정 관점이나 시각을 개입하여 하나의 대상으로 분절해 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의 사례는 소지영(2020)에서 발췌)

[1-ㄱ] 이것은 사족과 농민의 관계가 일방적인 지배와 착취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지배 엘리트의 촌락 거주**, 이것은 조선 사회만의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1-ㄴ] **당의 기미지배**는 이민족을 대상으로 내지와 같은 부주현을 설치하면서도 중앙에서 임명된 화인 관리가 그 행정장관으로 파견되는 것이 아니라 토착수령들에게 도독, 자사, 현령 등의 관직을 수여하여 종래의 지배 구조를 용인하는 간접적인 지배 방식이었다.

위의 문장들에서 사용된 문법적 은유 표현은 문장의 참여자로 설정되어, 여러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일련의 흐름 중에서 '무엇'을 초점화하는지 보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과학 언어의 특징을 밝히는 데 다소 치중되어 있던 문법적 은유 관련 연구의 흐름이 다른 학문 분야나 교과들(사회 및 역사 영역의 김한종, 2000 ; 김지혜 외, 2013 ; 이승연, 2016 ; 이해영, 2016, 수학 영역의 조진수, 2018 ; 이관희·장혜원, 2021 참고)로 이어져 폭넓은 분석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개별 교과에서 수행하는 언어 분석은 그 방법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이 필연적으로 자생적이기 어렵다. 예컨대 '역사의 언어'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타당한 언어적 방법과 틀을 역사 영역에서 완전하게 마련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물론 언어 교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특정 학문 영역이나 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타당한 언어적 분석 방법과 틀을 제공하려고 해도 해당 영역의 지식 체계나 지식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피상적인 언어적 기준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게 된다.[4)]

그럼에도 국어 교과의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언어 자원은 분명 국어 교과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학문 영역이나 교과들과 협업과 협의가 필수적이겠지만, 중심적인 역할은 언어 교과인 국어과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이때 언어의 지식 구성적 기능과 그러한 기능을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로서 문법적 은유를 국어 교과의 도구적 본질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인자로 삼을 수 있다. 문법적 은유를 통해 여러 학문 영역이나 교과별 지식을 언어와 연결 지어 다룸으로써 언어의 지식 구성적 기능 및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적 본질을 적극적으로 전면화하고, 그에 따라 이미 본격적인 학교 교육 이전에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대부분 완성되는 모어 화자 학습자에게 왜 여전히 국어교육이 필요한지, 국어교육을 통해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 교과인 국어 교과가 학문 영역이나 교과별 특성을 언어적으로, 특히 문법적 은유와 같은 특정 언어 형식으로 타당하게 설명해 내고 그 결과를 언어 자원으로 정련하여 제공해 준다면, 문법 지식의 수행성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것은 물론 학습자들이 습득하는 문법 지식을 유목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영역에서 문법적 은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해당 영역의 본질적 특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것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언어적 교육 내용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지 끊임없는 탐색과 연구, 실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고 축적되면서, 문법적 은유와 같은 강력한 지식 구성의 도구가 국어 교과에서 타 영역 및 교과에 제공해 주는 언어 자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자연적으로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적 특성이 강화되게 된다. 교육적 맥락에서 언어가 학습의 도구라는 점은 일반적인 사실로 공유되어 왔으나 그 의미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어 언어의 어떤 측면을 도구적 측면으로 강조해야 하는지, 국어 교과의 도구적 역할은 어떤 목표와 실행 방식에 의해 구체화될 수 있는지는 제시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사실상 언어가 지식 구성의 도구라는 것의 의미나 언어를 도구이자 매개로 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때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언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 온 데에서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식의 본질이 여러 과목에 걸쳐 다양하고도 핵심적인 관심사가 되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 Martin(2013)에서도 다른 교과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이 언어 교육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결국 이러한 언어 능력이 어느 교과,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되어야 하는지(Martin, 2013:24)를 면밀히 탐색했다는 점에서 참조가 된다. 이 연구에서 주된 언어적 자원으로 논의한 것이 전문성 및 추상성을 나타내는 언어와 문법적 은유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논의는 언어의 지식 구성적 역할을 언어 교과의 경계를 넘어서는 범위로까지 확장하여 보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본다면 다양한 맥락에서 생성되고 공유되는 지식을 구성하는 도구로서 문법적 은유는 '타 교과에서 학습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고차원적인 언어 능력'(심영택, 1999:298)과 깊은 관련을 지니게 된다. 이처럼 도구이자 매개가 되어 지식을 구성하는 언어 자원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재료나 방법이 되

4) 이런 점에서 국어 교과에서 제공하는 언어가 '범교과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또한 비판적으로 재고할 여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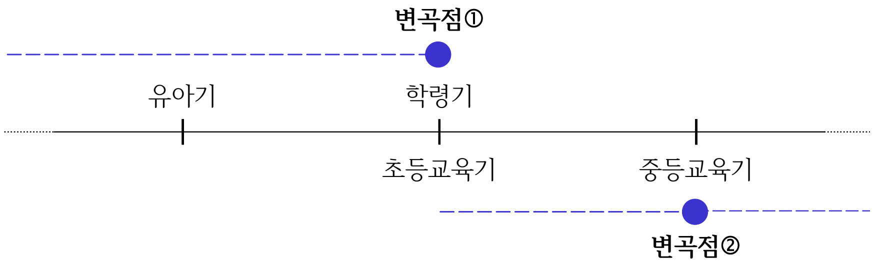
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언어 자원이 그 자체로 지식을 구성하는 힘, 즉 학습의 편의를 위해 낱낱의 개별 지식으로 분절된 지식의 구조를 다시 나름의 체계를 갖추도록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루는 힘을 지니게 된다.

2. 종적 기준: 학습자의 언어 발달 수준

문법적 은유는 그 자체로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언어의 특징 중 하나라는 점에서 어느 수준에서 어떤 문법적 은유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핌으로써 기초 수준 이후의 학습자 발달 수준을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다. 학습자가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의 언어 발달은 단일 학교급에만 한정되지 않고 초등학교급부터 중등학교급, 그 이후의 고등 교육 수준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문제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이 주로 학령기 이전의 아동기에 국한되어서만 다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중등학교급의 언어 교육에서 참고할 수 있는 학습자 발달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초등학교급과 달리 교과목이 학문 분과 체계에 따라 분화되기 시작하는 중등학교급에서는 학습자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던 언어와는 다른 '교육의 언어'를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학령기 이후 학습자들이 문법이라는 의미 자원으로 세계나 경험을 얼마나 정교하게 개념화하는가, 맥락에 따라 언어적 변이형을 얼마나 적절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가 등으로 넓혀 볼 경우 오히려 학령기 이후의 언어 발달은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그런데 주지하듯 전 학령기에 걸친 발달 연구나 중등학교 학습자의 발달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현재의 아동 발달 이론에 기초가 되는 Vygotsky(1986/2011)에 따르면 나이가 어린 아동들조차도 언어 및 언어의 운용 원리에 대해 사고할 수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을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Vygotsky의 논의는 언어 유형으로는 말하기(speech), 시기상으로는 아동기에 한정되어 있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학습자의 언어 발달 전체에 적용하여 유의미한 시사를 얻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내의 경우, 언어적 측면에서 아동의 발달 과정을 다룬 김봉순(2000)이나 학교급 간 교육내용의 연계성을 다룬 박수자(2015) 등에서 학습자의 발달 양상이 직간접적으로 논의되었으나 이러한 연구 흐름이 지속되거나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격적인 학교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학령기)부터 학교 교육의 최종 단계(고등 교육기)에 이르기까지 학습의 순서나 단계별 강조점 등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일련의 학습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교육 단계에서 완성되는 학습의 수준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발달적 계열성과 교과 간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마련된 전체적인 교육적 상(象)이 필요한데, 그간에는 교육의 처음과 끝을 모두 아울러 보는 관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소지영·성경희·주세형, 2018:81). 이에 학령기 이전의 발달이 급진적이고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학령기 이후의 발달은 비교적 완만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어 반박할 수 있겠으나, 학령기 이후 학습자의 언어 발달이 초등 수준에서 중등 수준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 차례 큰 변곡점을 지남(아래의 [그림 7] 참고)을 고려한다면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림 7] 아동 언어 발달의 두 변곡점(소지영, 2020:53)

본격적인 교육의 단계 이전의 언어 사용–구어 혹은 절 위주의 사용–은 그러한 언어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세계를 유동적이고 일시적이며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을 다루는 언어는 과정이나 현상을 개체로 추상화하여 표현하는 명사 체계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세계를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경계가 뚜렷한 것으로 해석한다. 문법적 은유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문법적 은유는 중등 단계 이후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학문적 언어–보다 추상적이고 개념화, 대상화된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언어–를 관찰하는 데 좋은 이론적 틀로, 학습자의 언어가 학문적 언어에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판단 근거(소지영·성경희·주세형, 2018:23)가 된다. 학문 언어의 특성이 짙은 문법적 은유를 통해 학습자의 언어 발달을 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발달 과정에 있는 학습자의 언어를 학문 언어와 비교하여 비전문적이고 비학문적인 미숙한 수준으로 이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습자 언어 내에서도 발달의 정도가 얼마든지 세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사례들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하의 사례는 소지영(2020)에서 발췌, 문법적 은유 표현에 밑줄 표시)

[1-ㄱ] 일반적으로 급성 염증 질환은 다양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혈관 확장 및 내피 부착인자의 발현으로 통증, 발열, 부종 등의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염증 부위로 비만세포나 호중구 등의 백혈구가 주화성을 띠면서 모이는 특징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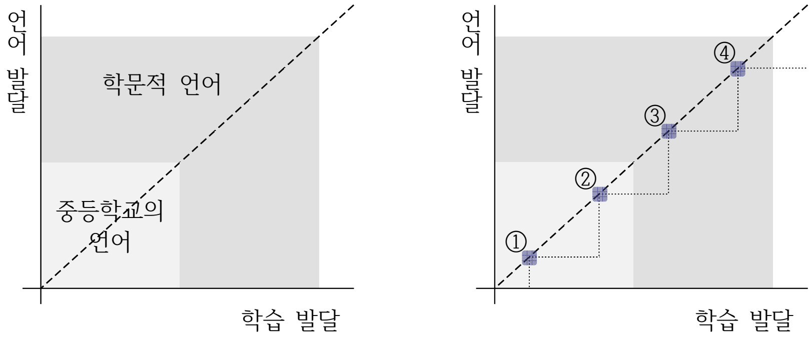
[1-ㄴ] 요즘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때문에 심각하다. 예전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밖에 나가지 마라, 마스크를 꼭 착용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하지만 예전에는 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안 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별 생각 없이 나갔다. 근데 요즘 미세먼지는 예전과 다르게 엄청 심하고 마스크를 안 끼고 다니면 목이 아프고 가래가 계속 나온다. 또 눈도 많이 따갑다.

[1-ㄷ]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제대로 필터가 구비된 청소기를 사용하고, 가스레인지 대신 화력을 사용하지 않는 인덕션을 이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1-ㄱ]은 생물학 분야 학술 논문, [1-ㄴ]은 중학교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의 일부, [1-ㄷ]은 대학교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의 일부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언어 사용이 두드러지는 학

술 논문에서는 문법적 은유 표현을 통해 전문적인 의미화가 이루어지며, 해당 학문 영역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분류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드러낸다. 그에 비해 중학교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는 모든 문장이 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상적이고 기초적인 언어 사용 양상에 해당한다. 소위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언어적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한편 대학생 학습자가 작성한 텍스트는 학술 논문에서와 같은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더라도 중학교 학습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던 문법적 은유 표현이 나타난다. 단적인 몇 가지 사례이기는 하나, 이처럼 문법적 은유를 중심으로 언어화되는 지식의 수준이나 언어화 방식 면에서 학습자들 간 숙련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 양상이 단순하지만은 않다. 학습자의 발달이 이전 단계에서 이후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발달이 반드시 일정한 방향으로, 직선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발달의 과정을 언어 교육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발달의 폭은 크지 않아도 학습하는 지식의 수준과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언어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는 특정 지점을 관찰할 수 있다(아래 [그림 8] 참고).



[그림 8] 학습 발달의 연속성(소지영, 2020:72)

문법적 은유는 바로 이러한 특정 지점들을 관찰할 수 있는 주요소가 된다. 문법적 은유는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언어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따라 실현 가능한 문법적 은유의 유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창수, 2010:215-216). 일반적으로 아동의 문식 발달은 문법적 일반화(grammatical generalization), 문법적 추상화(grammatical abstraction), 문법적 은유(grammatical metaphor) 단계 순으로 이루어지는데(Christie, 2002),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일상적인 언어 사용과 상식 차원의 정보만을 이해하다가, 학령기에 접어들어 교육의 언어를 접하면서 일정 훈련을 거쳐 문법적 추상화 단계로 나아가며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긴다. 따라서 문법적 은유 표현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의미의 추상화는 문식 발달의 초기 두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습자들은 이후 중등학교급에서 학문 언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문법적 은유의 구성을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요컨대 절을 명사화해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린 아동에게는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을 통해 습득된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언어 발달 및 언어 습득 수준이나

그에 따른 지식 구성 양상을 살피는 데에도 문법적 은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언어 발달 수준을 교육적·학문적 지식을 다루는 고차원의 언어 발달 수준으로 어떻게 끌어올릴지, 목표가 되는 언어 발달 수준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과 특성은 무엇인지, 출발점이 되는 현재 학습자의 언어 발달 수준과 실정은 어떠한지 등을 문법적 은유를 통해 설명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준별 기준으로 삼을 만한 문법적 은유의 구체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충분한 자료와 실증 사례들로 실제 학습자들의 양상을 확인하여 귀납적으로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수준별로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구별 지어 주는 언어적 특징으로서 문법적 은유의 사용 양상이 도출되어야 하고, 그러한 문법적 은유의 사용 양상이 각 발달 단계를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언어 교육에 새로운 학습자 발달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즉, 지식과 언어, 학습 발달과 언어 발달의 관계를 함께 살필 수 있는 문법적 은유를 통해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언어 자원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Ⅳ. 이후 전망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법적 은유 연구의 방향과 전망을 제안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 문법적 은유 연구가 보다 확장적으로, 그러나 문법적 은유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초점화되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문법적 은유의 대표적인 실현태가 명사화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문법적 은유의 의미 기능이 명사화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문법적 은유는 전술한 것처럼 언어 사용자의 의도나 목적,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차원의 특성, 특정한 언어 형식을 통해 얻어지는 표현 효과, 문법적 은유의 실현을 위해 사용된 문법 요소와 그에 따라 달라지는 문법적 은유의 형태 및 의미 기능, 문법적 은유의 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문장 구성, 텍스트 전체의 정보 구조 등과 관련되는 언어 현상이다. 따라서 단순히 문법적 은유를 '명사화'와 동치시키거나 '개념화'만을 두드러지는 의미 기능으로 다루는 데서 나아가 문법적 은유가 수행하는 다양한 의미 기능과 의미 구성 측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 문법적 은유를 한국어 문법 연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법적 은유는 영어를 시작점이자 중심점으로 하는 체계 기능 언어학의 핵심 개념인 만큼, 한국어의 사정에 들어맞지 않거나 한국어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기도 하다. 이를 이론의 불완전함이나 불친절함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문법적 은유를 일종의 현상이자 개념으로 수용하여 개별 언어 연구의 특성과 사정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명사적 의미 범주로 변환하는 것이 문법적 은유의 본질이라면, 한국

어의 관형절 수식 구문을 과연 문법적 은유의 하나로 볼 수 있을지, 나아가 언어 사용자의 명사적 인식을 드러내는 명사화의 범위 및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아 문법적 은유 연구로 다룰 것인지의 문제도 한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는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될 수 있다.

- 언어 연구에서 언어 외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 왔던 지식의 문제를 학문 영역별 또는 교과별 지식 체계로 초점화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법적 은유가 지식을 구성하는 강력한 도구일 수 있는 것은 영역별 고유의 특성을 차별화하여 드러내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때, 예를 들어, 어떤 학문 영역의 본질적 특성이 문법적 은유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 문법적 은유가 어떤 학문 영역이나 교과의 본질적 특성을 드러내는 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가 양방향적으로 탐색되어야 하며, 그 논리가 일관적이고 추후에는 원리로 정련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적 관점과 함께 내용(지식)적 관점이 반드시 함께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학문 영역 및 교과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문법적 은유가 지식을 구성하는 도구임을 입증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타 교과에서 언어에 주목하는 방식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학습자의 발달 수준별로 문법적 은유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실증하는 귀납적 연구가 한동안 축적될 필요가 있다. 중등학교급 이후 학습자의 발달 문제를 언어적으로 체계화한 통일된 이론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다양하고 폭넓은 학습자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발달 양상이 점차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때 학습 발달과 관련하여 국어 교과에서의 학습 발달 수준이 타 교과의 학습 발달 수준과 일치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문법적 은유가 다양한 맥락의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한 도구로서 학교 교육 전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예를 들어 타 교과에서는 학습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펼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같은 학년(군)의 국어 교과에서 그러한 언어 능력을 다루어 주지 않는 경우 교과 간 발달 수준이 불일치하게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국어교육의 관점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며 각 교과에서의 발달 수준을 판정할 수 있는 범교과적인 기준, 교과 특정적인 기준에 대한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어 교과와 타 교과와의 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언어가 지식을 구성하는 도구라는 점이나 문법적 은유와 같은 구체적인 요소가 지식 구성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이유는 어떤 학문 영역이나 교과의 내용(지식)을 잘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국어과의 교육 내용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법적 은유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차차 국어교육 및 문법교육의 교육 내용으로 정련되어, 학습자와 다른 교과의 학습에 중요한 언어적 자원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문법적 은유의 지식 구성적 기능이 진정한 의미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용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분석 체계 및 틀을 언어 교과이자 도구 교과인 국어 교과에서 마련해야 한다.

타 교과에서 언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활용하는지는 국어 교과에서 얼마나 효용성 있고 강력한 언어적 도구를 제공하는가와 관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국어 교과에서 제공할 지식 구성의 도구로서 언어는 타 교과의 언어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언어의 형식과 의미를 포괄하는 지식관으로서, 실현태인 텍스트와 잠재태인 사고 체계를 매개하는 중간 항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김봉순(2000), 학습자의 텍스트구조에 대한 인지도 발달 연구 : 초, 중, 고 11개 학년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102, 한국어교육학회, 27-85.

김지혜·남상준·권정화(2013), 초등 사회 교과서 '지리·환경' 영역 텍스트 분석 : Halliday의 사용역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1(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87-101.

김한종(2000), 역사의 표현형식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교육 76, 역사교육연구회, 137-169.

박수자(2015), 초·중학교 국어 학습 내용의 연계성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59,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71-300.

소지영(2016), 명사화 의미 기능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소지영(2018), 문법적 은유로서 서술성 명사의 텍스트 응집 기능에 대한 연구, 새국어교육 115, 한국국어교육학회, 277-307.

소지영(2020), 학문 문식성 신장을 위한 기능적 메타언어 관점의 문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지영·성경희·주세형(2018), 중학교급 학습자 서술형 답안의 언어적 특성 연구 : 사회과 학업성취도 평가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61, 한국어교육학회, 159-187.

소지영·주세형(2017), 과학 교과서의 '문법적 은유'를 중심으로 본 국어과의 도구 교과적 본질 탐색, 국어교육연구 3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119-158.

소지영·주세형(2018), 초등학교·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언어적 특성 연구 : 국어과의 도구 교과적 본질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연구 6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77-108.

이관희·장혜원(2021), '명사화'에 기반한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문장제의 계열성 분석 : '비와 비율' 단원을 대상으로, 수학교육학연구 31(1), 대한수학교육학회, 17-34.

이돈희(1999),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교육의 새로운 위상, 지식기반사회와 교육, 교육부 정책 과제 보고서.

이동혁(2013), 의미 교육 내용의 개선 방안, 어문논집 56, 중앙어문학회, pp. 459-484.

이승연(2016), 사회과 텍스트 분석을 위한 비판적 담화 분석 방법의 이용 : 체계기능언어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173-224.

이창수(2010), 한영번역 수업에서의 문법적 은유 교육의 필요성, 통역과 번역 12(2), 한국통역번역학회, 207-233.

이해영(2016), 텍스트구조표지를 활용한 초등사회교과서 서술 분석;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역사영역)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6),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7-50.

전태현(2002), 기사문의 문법적 은유에 관한 연구, 외국어교육연구 1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71-102.

조진수(2018), 문법적 은유를 활용한 수학 문장제 텍스트의 이해 과정 연구, 텍스트언어학 4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79-306.

주세형(2014), 통합적 문법 교육의 전제와 학문론적 의의, 국어교육연구 3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7-86.

허경철·조덕주·소경희(2001), 지식 생성 교육을 위한 지식의 성격 분석, 교육과정연구 19(1), 한국교육과정학회, 231-250.

Christie, F. (2002), The Development of abstraction in adolescence in subject English,

45-66, In Schleppegrell, M. J. & Colombi, C. (ed.), *Develping Advanced Literacy in First and Second Languages : Meaning with Power*, NY : Routledge.

Christie, F., & Martin, J. R. (2008), *Language, knowledge and pedagogy : functional linguistic and sociological perspectives*, London ; New York : Continuum.

de Oliveira, L. C., & Schleppegrell, M. J. (2015), *Focus on Grammar and Meaning*, Oxford University Press, 민현식·신범숙·이지연·임수진·소지영 역(2018), 의미 중심의 문법 교육, 역락.

Halliday, M. A. K. (1993), Towards a language-based theory of learning, *Linguistics and Education* 5, 93-116.

Halliday, M. A. K. (2004), *The Language of Science*, New York : Continuum.

Halliday, M. A. K., & Martin, J. R. (1993), *Writing Science : Literacy and Discursive Power*, Bristol/London : The Falmer Press.

Martin, J. R. (2013), Embedded literacy : Knowledge as meaning, *Linguistics and Education* 24, 23-37.

Martin, J. R., & Rose, D. (2003), *Working with Discourse : Meaning beyond the Clause*, London : Continuum.

Moore, J., & Schleppegrell, M. J. (2014), Using a functional linguistics metalanguage to support academic language development in the English Language Arts, *Linguistics and Education* 26, 92-105.

Moriarty, M. F. (1997), *Writing Science Through Critical Thinking*, Sudbury, Mass. : Jones & Bartlett Publishers, 정희모·김성수·이재성 역(2008), 비판적 사고와 과학 글쓰기, 연세대학교 출판부.

Schleppegrell, M. J. (2004), *The Language of Schooling : A functional Linguistics Perspective*,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Taverniers, M. (2003), Grammatical metaphor in SFL : A historiography of the introduction and initial study of the concept, In A. M. Simon-Vandenbergen, M. Taverniers, & L. J. Ravelli(Eds.), *Grammatical Metaphor: Views from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msterdam : John Benjamins, pp. 5-33.

Vygotsky, L. S. (1986), *Thought and Language*, Cambridge, Mass. : MIT Press, 윤초희 역(2011), 사고와 언어, 교육과학사.

<체계기능언어학과 문법적 은유>에 대한 토론문

박종관(공주교대)

문법적 은유에 대한 연구는 문법 교육과 기능 교육의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언어생활을 교육 현장에서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체계 기능 언어학의 논의를 뒤따라가며 공부하는 처지인지라,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1. 문법적 은유를 사용하는 수준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문법적 은유는 명사화 표현을 주(主)로 삼는다는 점, 명사화 표현은 일상 언어에서도 손쉽게 구현된다는 점에서 문법적 은유는 일상 언어에서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는 언어 표현 방식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호오(好惡)를 표현할 때, "학원 가기 싫다."처럼 학원을 가는 행위를 명사화함으로써 표현하는 것도 문법적 은유라면, 이러한 실현태는 학습의 난도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박하게 보자면, 결국 문법적 은유의 특정 실현태의 학습 난도를 좌우하는 것은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 잠재태가 될 것 같습니다. 문법적 은유라는 언어 현상이 존재함과 별개로 문법적 은유의 실현태에 대한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교육의 국면에서 중요할 것인데, 문법적 은유의 이해 또는 사용 수준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주목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텍스트 이해 측면에서 문법적 은유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문법적 은유가 언어로 구축된 지식을 이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언어적 자원이라면, 문법적 은유로써 획득한 지식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연구자께서는 문법적 은유라는 개념이 국어를 분석하는 데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실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 자료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문법적 은유라는 개념의 효용성을 인정할 때, 독해로써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지식의 수준은 달리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지식이 풍부할수록 독서 활동이 수월해짐은 주지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스키마 이론은 독서를 통한 지식의 획득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문법적 은유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표문 12쪽에서는 "특정 학문 영역이나 교과에서 필요로 하는 타당한 언어적 분석 방법과 틀을 제공하려고 해도 해당 영역의 지식 체계나 지식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피상적인 언어적 기준만을 제공하는 데 그치게 된다."라고 하여, 언어적 분석에 대해 '피상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 활동의 국면에서 문장들이 문법적 은유를 통해서 맺고 있는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은 곧 지식의 개념 '구조'를 획득하는 것과 유사한 행위가 아닐지요. 텍스트의 사실적, 추론적 이해에 문법적 은유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언어적 분석은 매우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상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비판적 이해의 국면에서 해당 기술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해당 영역의 전문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문법적 은유는 텍스트가 표상하고 있는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텍스트에 표상된 내용이 요컨대 '정설(定說)'과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의 언어적 분석을 피상적이라고 보신 것인지요? 텍스트 이해 측면에서 문법적 은유의 기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신지, 언어 분석의 피상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문법적 은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우문에 대해 현답을 주실 거라 기대하며 이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생·중학생 텍스트에서 경험적 대기능의 발달 연구
-장르별 실현 양상을 중심으로-

정지현·노하늘·정혜현(고려대)

Ⅰ. 서론

학령기 학습자들은 학교라는 교육적 상황 맥락 속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의사소통의 다양한 부면을 경험하게 된다. 가까운 주변 사람들과 일상적 의미를 주고받던 학령기 이전의 의사소통은, 특정 대상에 대한 응축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습득하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거나 다른 이의 논리적 주장을 파악하고, 특정한 경험에 대해 묘사하고 감상하는 등의 목적 지향적인 의사소통으로 확장되게 된다. 학령이 높아지고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목적성에 대한 의식이 뚜렷해지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추상적인 경험으로까지 표상하는 바가 확장되어 갈 것이다(Halliday, 1977). 이러한 의사소통의 변화 속에서 학습자들의 언어는 그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표상해 내게 되는지 그 발달의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국내의 언어 발달은 주로 학령기 이전의 언어 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이필영.김정선, 2008; 배희숙, 2021). 물론 학령기 이후의 언어 발달이 학령기 이전과 비교하여 완만한 양상을 보이지만, 학령기 이후 학습자들의 언어를 관찰하는 교사와 언어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이들의 언어 또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어 발달 연구에서는 '문어 능력'과 '의미론' '화용론' 측면에서의 발달이 부각된다고 보고한다(Owens, 2016; 배희숙, 2021). 학령기 학습자의 언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 치료 분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졌다(김민정.김정미, 2011; 김자성.김정미, 2011; 김정미, 2011; 김정미, 2015; 김화수.민은진.장희정, 2016; 민은진.김화수, 2016; 배희숙, 2016; 신문자.이희란, 2017; 안은주.김정미, 2010; 전유경.김화수, 2016). 이외에도 초등학생의 어휘를 이해와 표현의 측면에서 연구한 흐름이 존재한다(강충열, 1999; 이인섭, 1986; 이필영.김정선, 2008). 최근에는 국어교육학계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교과 담화에 대한 정보 습득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연구(소지영.성경희.주세형(2018), 소지영, 2020; 신범숙, 2018; 정지현, 2021) 주장하는 글에서의 대인관계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연구(신희성, 2019) 등에서 학습자 언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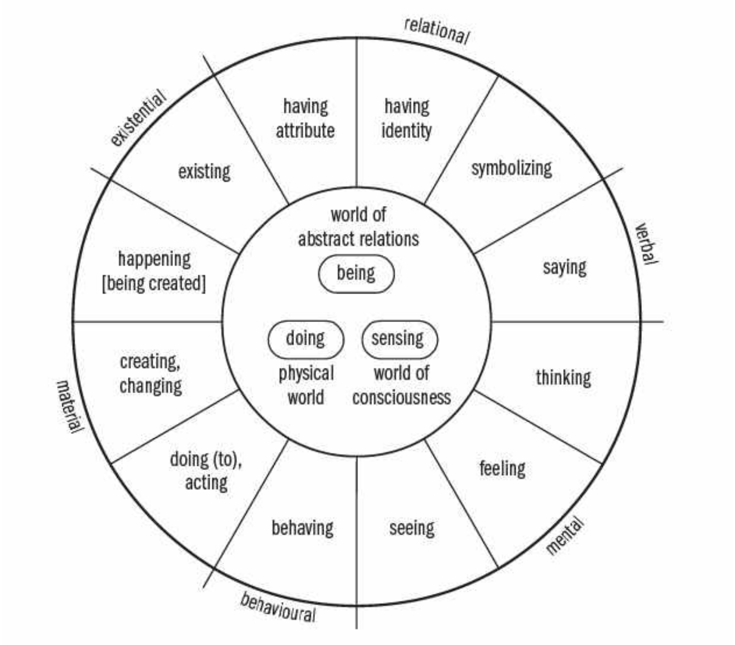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의 '발달'의 관점은 체계기능언어학의 발달의 관점을 따르게 된다. 할리데이는 인간의 언어는 전생에 걸쳐 발달해 나가는데, 각각의 시기에는 고유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이때의 발달이 미숙에서 성숙으로의 발달이 아닌 일종의 변이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주세형, 2009). 본고에서는 이러한 체계적 이동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때의 방향성은 언어 자원을 자신이 의미하고자 하는 바에 따라 취하거나 버리는 '선택'의 발달로

기술될 것이다(주세형.정혜현.노하늘, 2020).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라는 상황 맥락의 이동 속에서의 변화된 수행은 새로운 언어적 요소를 획득하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기존의 체계와 만나면서 학습자들의 언어 체계를 재배열시킨다. 특히 경험 세계의 확장은 경험적 대기능의 실현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경험적 대기능 측면에서의 언어 발달 양상을 살피고 있다는 점에서 주세형.정혜현.노하늘(2020)과 이관규.정혜현.노하늘.신희성(2021)과 연속선상에 있는 연구로서, 이전의 연구들이 '초등 학습자'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중등 학습자'까지 조사의 대상을 연장하여 학교급 간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의의를 가진다.

Ⅱ. 이론적 배경

체계기능언어학은 '기능(function)'이 이론의 중심에 위치하며 언어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기술하는 이론인데, 이에 있어 '대기능(metafunction)' 개념을 사용하여 선택의 체계에 기반하여 기능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을 이론화하고 있다(이관규, 2018:204; 이관규 외, 2021: 22). 대기능은 경험적 대기능, 대인적 대기능, 텍스트적 대기능으로 나뉜다. 경험적 대기능은,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의미를 만들어내는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언어를 바라보았을 때, 경험이 의미로 전환되게 하는 기제로서 작동을 한다(Halliday & Matthiensen, 2014:30). 언어의 경험적 대기능은 과정(process)이라는 어휘 문법 요소로 표상된다. 인간의 경험을 표상한 과정은 경험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질 수 있다(Bank, 2019; Butt et al., 2012; Eggins, 2004; Halliday & Matthiensen, 2014; Thompson, 2013,). 이 경험의 유형은 [그림 1]과 같이 원형으로 표상되는데, 이는 물질의 세계에서의 행위하기, 의식의 세계에서의 감지하기, 추상적 관계의 세계에서의 존재하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 사이의 모호한(fuzzy)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 불확정적인 유형들의 집합임을 나타낸다.[1]

1)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어의 과정 유형에 분류에 대해서는 박종훈(2007), 제민경(2015), 이관규. 신희성(2020) 등의 여러 논의들이 존재한다.



[그림 1] 과정 유형(Halliday & Matthiesen, 2014:216)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학령 전기에 이르는 1세~7세의 시기에는 아동은 먹고, 자고, 입는 물질적인 경험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이러한 경험은 언어로 표상된다. 학령기의 아동은 '학교' 라는 새로운 맥락을 마주하게 된다. 경험의 부면 또한 이전의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특성에서 추상적이고 비물질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학령기 학습자는 '세상사 지식'을 확장해 가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은 세상사 지식의 확장은 의미를 표현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Owens, 2016). 또한 이 시기에 아이들은 특정한 맥락에 대한 특정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해당 맥락을 만나면서 해당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의 변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면서 '사용역'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언어 사용이 발달하게 된다(Owens, 2016). 오경아.남경완.김수진(2014)에서는 학령 전기의 과정 유형 발달을, 주세형.정혜현.노하늘(2020)에서는 학령기인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의 과정 유형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오경아.남경완.김수진(2014)는 학령 전기 아동의 발화에 나타난 동사의 발달을 조사한 연구이다. Halliday(2004)의 '물질적 과정(material process),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 관계적 과정(relational process), 존재적 과정(existential process) 행위적 과정(behavioral process), 발화적 과정(verbal process)'의 과정 유형 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2세, 3세, 4세, 5세의 사용 빈도와 유형 빈도의 발달을 보고한다.

[표 1] 학령 전기 아동의 과정 유형별 발달(오경아. 남경완. 김수진, 2014)

	토큰 빈도의 차이	해석
물질적	2세 < 3. 4. 5세	3세에 증가, 그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음
행위적	2세 < 5세	연령 간 변화가 크지 않음.
정신적	2세<3. 4세<5세	연령별 차이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줌
발화적	2세 < 5세	연령 간 변화가 크지 않음.
관계적	2세< 3. 4. 5세	3세에 증가, 그 이후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음
존재적	2세 < 5세	연령 간 변화가 크지 않음.

2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의 자발화에 나타난 과정의 토큰 빈도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물질적, 관계정 과정은 2세에서 3세 사이에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정신적 과정은 2세 집단과 3.4세 집단, 5세 집단 간 빈도의 차이를 보이며 연령별 차이를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행위적, 발화적, 존재적 과정은 2세와 5세 간에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오경아. 남경완.김수진(2014)의 자료를 통해서 학령 전기 과정 유형의 사용에 있어서는 주요 과정에 해당하는 물질적, 정신적, 관계적 과정의 발달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주세형.정혜현.노하늘(2020)에서는 Halliday & Matthiesen(2014)의 6가지 과정 유형을 한국어에 맞게 9개의 과정 유형으로 수정한 이관규.신희성(2020)의 연구를 따라 ‘행동적 과정’, ‘작용적 과정’, ‘발화적 과정’, ‘인지적 과정’, ‘지각적 과정’, ‘감정적 과정’, ‘속성적 과정’, 식별적 과정‘, ’존재적 과정‘으로 둔다.

[표 2] 학령기 아동의 과정 유형별 발달(주세형. 정혜현. 노하늘, 2020)

	토큰 빈도	**참여자 구성 빈도의 차이**	**예시**
행동적	차이 있음	행동자+범위 -행동자+범위[2]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다’*
작용적	차이 있음	작용자	*‘상처에서 피가 솟았다’*
발화적	차이 없음		
인지적	차이 없음		
지각적	차이 없음		
감정적	차이 없음		
속성적	차이 있음	-속성보유자+속성	*‘모든 야생에 기초이다’*
식별적	차이 있음		
존재적	차이 없음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의 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비하여 ‘행동적 과정’, ‘작용적 과정’,

2) ‘-’ 표시는 행동자를 가지고 있지만 생략된 구문인 ‘(그는) 피아노를 연주했다’와 같은 결과에서의 행동자를 표상하는 것이다.

속성적 과정', 식별적 과정', 존재적 과정'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사용 빈도를 보임을 밝혔다. 또한, 해당 과정 유형의 참여자 구성 빈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행동자-범위-행동적 과정]에서 '범위' 참여자가 실현된 '행동자+범위, -행동자+범위' 구성과 [작용자-작용적 과정]에서 '+작용자' 구성, [속성보유자-속성-속성적 과정]에서 '-속성 보유자+속성' 구성이 초등 4학년과 5학년에서 집단 간 사용 빈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해 주세형.정혜현.노하늘(2020:131-132)에서는 사건에 대한 인식에서 '범위' 참여자에 대한 인식, '작용자'에 해당하는 간접 주체에 대한 인식, '속성' 참여자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경험의 확장을 언어의 확장으로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언어의 경험적 기능의 부면의 발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결의 연속적 흐름을 찾아나가는 것이 선행 연구에 이어지는 본고의 초점이다.

Ⅲ. 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이전 선행 연구에서 조사된 바 있던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에 더해 중학교급의 '중학교 2학년 학습자'를 발달의 조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국내 학령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어휘 연구인 강충열(1999), 이필영.김정선(2008) 등에서는 학령기 이후에도 이해와 표현의 측면에서 어휘의 양적 증가가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3학년에서 4학년으로 가는 시기에 두드러지는 발달이 이루어지며 이후 6학년까지는 완만한 증가가 일어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초등과 중등의 학교급 간 발달 양상에 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는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 중 '구체적 조작기'에 Chall(1996)의 읽기 발달 단계 중 초기 학습 독해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학습자들은 논리적인 사고를 시작하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직접적인 경험에 국한하여 사고를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제한적이기는 하나 자기중심적 읽기에서 벗어나 외부 세계의 지식에 대한 읽기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시기이다. 중학교 2학년 학습자는 Piaget의 인지 발달 단계 중 '형식적 조작기'에, Chall(1996)의 읽기 발달 단계 중 후기 학습 독해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학습자들은 직접 경험이나 구체적 대상이 없더라도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이다. 초등 고학년 집단과 중등 집단은 자기중심적 의사소통에서 벗어나서 외부 세계에서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며 이 이러한 지식 구성과 표현에 있어서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일상성에서 전문성으로 변환해 나가는 시기라는 특성을 가지게 된다.[3)]

3) 정완호. 김영신. 권용주(1998)에서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과 관련된 주요인인 '성숙', '물리적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 평형화' 중 하나인 성숙을 '신경적 성숙'이라고 보는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정보 처리 유형, 억제 기능, 설계 기능, 연령, 뇌기능 분화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이 논리적 사고력 형성을 예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성숙이 단순히 연령의 증가라는 의미 이상의 두뇌의 발달과 뇌의 정보 처리 기능의 발달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표 3] Piaget 의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0~2세	2~6세	6~12세	12세 이후

[표 4] Chall(1996)의 읽기 발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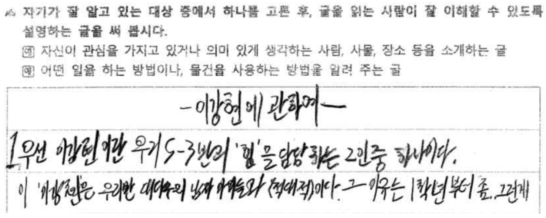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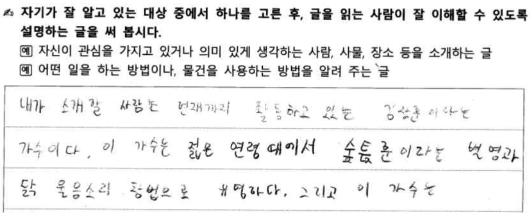
해독단계	강화단계	학습독해단계1	학습독해단계2	다관점 독해
1~2학년	2~3학년	4~6학년	7~9학년	고등학생

본 연구에서는 2019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과 2020년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글을 수집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정서를 표현하는 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였으며4), 초등학생은 30분, 중학생은 40분 동안 분량의 제한 없이 한 편의 글을 완성하였다. 학생 동의서와 학부모 승낙서를 받지 못한 경우, 무성의하게 글을 작성한 경우, 성별 등을 적지 않아 결측(缺測)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결과, 총 253명이 작성한 글이 수집되었다.

[표 5] 연구 참여 대상자 특성

구분		초5 집단	중2 집단	합계
성별	남	59	65	124
	여	61	68	129
	합계	120	133	253
장르	설명	42	49	91
	주장	36	44	80
	정서	42	40	82
	합계	120	133	253

[표 6] 조사 대상 학습자의 설명. 주장. 정서 글 샘플

설명하는 글	
초등	중등
	

4) 학습자들이 초· 중·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접하게 되는 장르 유형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글쓰기 과제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의미는 이관규·정혜현·노하늘·신희성(2021: 197-198) 참고.

<table>
<tr><th colspan="2">주장하는 글</th></tr>
<tr><th>초등</th><th>중등</th></tr>
<tr><td>✍ 학교나 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 가지 고른 후, 글을 읽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 봅시다.
예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가 잘 나타난 논설문
예 학교 안팎의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안하는 건의문
학교에 핸드폰을 가지고 오면 안된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학교에 가져오면 수업시간에 집중이 안되고</td><td>✍ 학교나 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한 가지 고른 후, 글을 읽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글을 써 봅시다.
예 의견 차이가 있는 문제에 대한 주장과 근거가 잘 나타난 논설문
예 학교 안팎의 생활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안하는 건의문
최근 온라인 게임에서 팀에게 욕과 패드립을 하는 악성유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서로 알수 있는 것은
닉네임 정도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들으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욕설과</td></tr>
<tr><th colspan="2">정서를 표현하는 글</th></tr>
<tr><th>초등</th><th>중등</th></tr>
<tr><td>✍ 최근에 자신이 겪은 일 중에서 하나를 고른 후,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경험을 나누는 글을 써 봅시다.
예 인상 깊은 일을 쓴 일기,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생활문
예 일생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의미 있는 체험이 잘 드러나는 감상문, 수필
현장체험학습(민속촌)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으로 민속촌을 간다고 해서 기분이 좋고 신이
났다. 지금까지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는 선생님과 같이 다녔는데 이번</td><td>✍ 최근에 자신이 겪은 일 중에서 하나를 고른 후,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경험을 나누는 글을 써 봅시다.
예 인상 깊은 일을 쓴 일기,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생활문
예 일생생활이나 학교생활에서의 의미 있는 체험이 잘 드러나는 감상문, 수필
우리 반은 자리를 자주 바꾼다 그래서 좋을 때도 있지만 좋지 않을 때도
있다 좋을 때는 자리가 별로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
리를 빨리 바꾸신다 좋지 않을 때는 옆자리에 친한 친구들이 많</td></tr>
</table>

본고는 경험적 의미의 실현에서 핵심 요소로 기능하는 과정(process)에 주목하였으며, 이관규·신희성(2020)에 따라 '작용적', '행동적', '발화적', '인지적', '지각적', '감정적', '속성적', '식별적', '존재적' 과정으로 과정 유형을 분류하였다.

[표 7] 과정 유형(이관규. 신희성, 2020; 주세형. 정혜현. 노하늘, 2020)

과정 유형		표현 내용	예시
물질적 과정	작용적 과정	유·무정 명사의 작용	상처에서 피가 솟았다
	행동적 과정	유정 명사의 행동	뱀이 개구리를 먹었다
정신적 과정	발화적 과정	인간의 발화	그가 '불이야'라고 소리쳤다.
	인지적 과정	인간의 인지	그는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있다
	지각적 과정	유정 명사의 감각적 지각	그가 탕수육 냄새를 맡았다
	감정적 과정	인간의 감정	그는 늘 기쁘다
관계적 과정	속성적 과정	개체의 속성	동생은 언제나 건강하다
	식별적 과정	개체의 정체성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산이다
물질적 과정	존재적 과정	개체의 존재	오늘 시간표에는 체육시간이 있다

과정 유형을 분류하기에 앞서 수집된 글을 절 단위로 나누어 전산화한 뒤, 하나의 절에서 하나의 과정을 추출하였다. 체계기능언어학에서는 어휘문법의 최상위 층에 해당하는 절을 하나의 사태를 표상하는 단위로 보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이다. 학교 문법의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상응되는 대등 배열(parataxis)로 복합된 절 복합체와 종속 배열(hypotaxis)로 복합된 절 복합체는 선행절과 후행절로 각각 나누었으며, 학교 문법의 '안긴 문장'에 해당되는 것은 위계 하향(down-ranked)된 것으로 보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체계기능언어학에서 '투사(projection)'된 절을 별도로 분석한다는 점을 고려해 투사된 절도 별도로 분리하여 과정을 추출하였다. 기본적으로 본용언만을 추출하여 과정을 평정하였으며, '-게 되다', '-어 주다', '-어 지다', '-어 하다' 등 논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해서 '본용언+보조 용언' 전체를 과정으로 평정하였다[5].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글에서 나타나는 경험적 의미의 실현 양상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장르를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집단을 나누어 과정 유형의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두 집단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SPSS 25.0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실시하였다[6].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경험적 의미 실현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AntConc(3.5.9)의 Word List와 Keyword List 기능을 이용하여 빈도와 핵심어를 별도로 분석하였다[7].

Ⅳ. 연구 결과

결과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은 총 2,517개의 절을 생성하였으며, 중학교 2학년은 총 3,825개의 절을 생성하였다. 이에 따라 산출된 과정 유형의 빈도를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8]. [표 8]에 따르면 9가지 과정 유형에서 대체로 중학교 2학년의 토큰 빈도(Token frequency)와 타입 빈도(Type frequency)가 높았다.[9]

5) 과정 유형 평정의 자세한 방법과 절차는 이관규·정혜현·노하늘·신희성(2021: 199-201) 참고.
6)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기에 앞서 변수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변수 값을 루트로 변환하였다. 빈도의 범위를 '최솟값 0 ~ 최댓값 41'에서 '최솟값 0 ~ 최댓값 6.4'로 좁혀 정규분포 기준을 충족시켰다.
7) 핵심어(Keyword) 분석이란 참조 코퍼스와의 비교를 통해 특정 코퍼스의 변별적인 어휘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특정 코퍼스에서 보다 두드러지는 어휘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본고에서는 단순히 고빈도어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초등학생이 쓴 글과 중학생이 쓴 글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각각의 글에서 두드러지는 과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핵심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작성한 주장하는 글과 중학생이 작성한 주장하는 글에서 '생각하다'가 고빈도어로 나온다 할지라도 비슷한 비율로 출현한다면 핵심어가 될 가능성이 낮다.
8) 'Token frequency'는 어형의 개별적 출현을 뜻하며, 'Type frequency'은 구별되는 어형을 뜻한다. 다시 말해 토큰은 전체 사용 빈도를, 타입은 유형 빈도를 의미한다. TTR(type-token ratio)은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휘의 다양도를 나타낸다.
9) 식별적 과정에서만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타입 빈도가 동일했다. 다만 '식별적 과정'과 '존재적 과정'은 타입 빈도를 점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과정 유형이다.

[표 8] 과정 유형별 과정(process) 빈도 비교

과정 유형	초5			중2		
	Token	Type	TTR	Token	Types	TTR
행동적	1,147	317	0.276	1,498	398	0.266
작용적	296	138	0.466	453	176	0.389
발화적	74	15	0.203	124	23	0.185
인지적	83	10	0.120	219	34	0.155
지각적	49	9	0.184	110	18	0.164
감정적	141	52	0.369	298	94	0.315
속성적	459	79	0.172	818	131	0.160
식별적	110	4	0.036	74	4	0.054
존재적	158	3	0.019	231	4	0.017
전체	2,517	581	0.230	3,825	758	0.198

[표 9] 학교급에 따른 과정 유형 평균 비교 결과(전체)

과정유형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행동적*	초5	120	2.83	1.25	−1.882	0.061
	중2	133	3.12	1.23		
작용적*	초5	120	1.32	0.86	−2.377*	0.018
	중2	133	1.59	0.94		
발화적	초5	120	0.47	0.63	−1.327	0.186
	중2	133	0.58	0.77		
인지적	초5	120	0.51	0.66	−4.976***	<.001
	중2	133	0.98	0.83		
지각적	초5	120	0.33	0.55	−3.210**	0.002
	중2	133	0.58	0.70		
감정적	초5	120	0.72	0.81	−3.542***	<.001
	중2	133	1.13	0.99		
속성적*	초5	120	1.77	0.83	−3.861***	<.001
	중2	133	2.24	1.08		
식별적*	초5	120	0.62	0.73	2.330*	0.021
	중2	133	0.42	0.62		
존재적	초5	120	0.83	0.79	−2.056*	0.041
	중2	133	1.04	0.81		

$p < 0.05^{*}$, $p < 0.01^{**}$, $p < 0.001^{***}$

[표 9]는 과정 유형의 토큰 빈도가 초등5 집단과 중등2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이다. 과정 유형 중 '작용적, 인지적, 지각적, 감정적, 속성적, 식별적, 존재적' 과정의 경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 '식별적 과정'은 초등에서 중등으로 가며 토큰 빈도가 감소하였고 나머지 유형은 증가하였다. 별표(*) 표시한 '행동적, 작용적, 속성적, 식별적' 과정은 주세형.정혜현.노하늘(2020)에서 초등 4학년과 5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유형이다. 초등 4학년에서 5학년으로의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초등 5학년에서 중등 2학년으로의 변화에서는 전반적인 과정 유형의 사용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인지적 과정 유형의 경우 아래의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설명, 주장, 정서 모든 장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10] 학교급에 따른 과정 유형 평균 비교 결과(장르별)

장르	과정 유형								
설명	행동적	작용적	발화적	인지적	지각적	감정적	속성적	식별적	존재적
주장	행동적	작용적	발화적	인지적	지각적	감정적	속성적	식별적	존재적
정서	행동적	작용적	발화적	인지적	지각적	감정적	속성적	식별적	존재적

배경 표시는 초등 집단과 중등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유형

(1) 장르별 인지적 과정 유형의 사용

ㄱ.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를 알고 있습니까? [중2 - 설명]

ㄴ. 이렇게 피아노의 재료 및 형태와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차이점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2 - 설명]

ㄷ. 나는 등교할 때 체육복 등교가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2 - 주장]

ㄹ. 아직 시험이 끝났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다. [중2 - 정서]

(1ㄱㄴ)은 중2 집단의 설명하는 글에서 사용된 '알다', (1ㄷ)은 주장하는 글에서 사용된 '생각하다' (1ㄹ)은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서 사용된 '잊다'이다. (1ㄱㄴ)과 (1ㄷ)은 '설명하기'와 '주장하기'라는 장르가 펼치고 있는 주된 사고의 기능에 대하여 인지한 바를 '인지적 과정'으로 포착하여 표현한 것이다. 인지적 과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이 아닌, 인간의 의식 중 특히 사고와 관련된 '인지'에 대한 경험을 표상하는 유형이다(Halliday & Matthiessen, 2014:245-246, 이관규.신희성, 2020).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비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장르에 대한 경험이 반복되며, 자신의 내적인 사고를 유형화하여 특정한 하나의 경험으로 의식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하는 양상이 이전보다 보편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유경.김화수(2016)에서는 '생각하다', '알다', '평가하다', '믿다' 등의 동사를 메타인지 동사라고 보고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가 쓴 글에서 이러한 메타인지 동사의 산출빈도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세 집단 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특히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갈 때 급증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는 본고의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표 11]은 인지적 과정 유형의 장르별 빈도 및 키워드 분석 결과이다. 설명, 주장, 정서 세 장르 모두에서 인지적 과정의 타입에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TTR은 설명(0.333→0.425), 주장(0.139→0.124), 정서(0.250→0.256)로 증가 폭이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설명에서 '느껴지다, 알아보다', 정서에서 '외우다, 이해하다' 등의 저빈도어의 유입 등으로 두드러지는 양상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빈도 상에서는 설명에서 '알다(11회), 모르다(5회), 생각하다(5회)' 등으로 고빈도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 11] 인지적 과정 유형의 장르별 빈도 및 키워드 분석

장르	초등학생				중학생			
	토큰	타입	TTR	Keyword(LL)[10]	토큰	타입	TTR	Keyword(LL)
설명	15	5	0.333	알다(+3.12), 8회 …	40	17	0.425	느껴지다(+1.30), 2회 들다[01](+1.30), 2회 알아보다(+1.30), 2회 이해하다[02](+1.30), 2회 …
주장	36	5	0.139	생각하다(+2.62), 30회 …	89	11	0.124	알다(+0.87), 6회 …
정서	32	8	0.250	생각하다(+4.59), 14회 궁금하다(+4.31), 3회 …	90	23	0.256	외우다(+4.41), 7회 들다[01](+2.48), 4회 이해하다[02](+2.48), 4회 …

[표 1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각적 과정'은 설명과 주장에서, '감정적 과정'은 주장과 정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2ㄱㄴㄷㄹ)에서의 예에서 사용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Halliday&Matthien(2014)의 '정신적 과정(Mental Process)'에 해당하는 유

10) AntConc에서 Keyword List는 빈도가 아닌 핵심도(keyness)를 기준으로 핵심어를 추출한다. 핵심도가 높을수록 분석 대상이 되는 코퍼스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에서 괄호 안에 표시한 숫자가 산출된 핵심도이다. 핵심도 산출 과정과 통계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남길임·이수진(2012: 101) 참고.

형들의 전반적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는 구체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전환하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의 발달 과정과 연관 지어 분석해 볼 여지가 있다. 구체적 경험인 외부 세계의 물질적 경험에서 보다 추상적 경험인 내부 세계의 정신적 경험에 집중하는 경향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장르별 지각적. 감정적 과정 유형의 사용

ㄱ.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꼭 학교 정수기 옆에 종이컵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중2 - 주장 - 감정]

ㄴ. 그래서 나는 너무 아쉽고 [중2 - 정서 - 감정]

ㄷ .수진이는 평소에는 다가가기 힘든 사람처럼 보여도[중2 - 설명 - 지각]

ㄹ. 주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2 - 주장 - 지각]

1. 설명하는 글

설명하는 글에 사용된 과정 유형은 [표 12]에서와 같이, 토큰 빈도의 평균순으로 보면 초등 집단에서는 '행동적>속성적>작용적>존재적>식별적>감정적>발화적>인지적>지각적'으로나타났고, 중등 집단에서는'행동적>속성적>작용적>존재적>발화적>인지적>감정적>지각적>식별적'으로 나타났다. 설명하는 글에서 학교급별로 과정 유형의 토큰 빈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발화적 과정, 인지적 과정, 지각적 과정, 속성적 과정, 식별적 과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식별적 과정의 경우는 초등 집단보다 중등 집단에서 토큰 빈도의 평균이 감소하였다.

[표 12] 학교급에 따른 과정 유형 평균 비교 결과(설명)

구분	과정 유형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p*
설명	행동적	초	42	2.58	0.95	-1.889	0.062
		중	49	3.02-	1.21		
	작용적	초	42	1.30	0.78	-0.868	0.388
		중	49	1.45-	0.89		
	발화적	초	42	0.48	0.55	-2.129*	0.036
		중	49	0.78-	0.78		
	인지적	초	42	0.25	0.53	-2.876**	0.005
		중	49	0.61	0.67		
	지각적	초	42	0.20	0.42	-2.293*	0.024
		중	49	0.47	0.67		
	감정적	초	42	0.50	0.78	-0.600	0.550
		중	49	0.59	0.73		
	속성적	초	42	2.01	0.83	-3.832***	<.001
		중	49	2.80-	1.08		
	식별적	초	42	0.81	0.80	2.525*	0.013
		중	49	0.43	0.65		
	존재적	초	42	1.10	0.89	-0.857	0.394
		중	49	1.25-	0.83		

$p < 0.05^{*}$, $p < 0.01^{**}$, $p < 0.001^{***}$

‘발화적 과정’은 조사 대상 ‘설명/주장/정서’의 세 장르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 집단에서 중등 집단으로 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식별적 과정’은 조사 대상 ‘설명/주장/정서’의 세 장르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 집단에서 중등 집단으로 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발화적 과정의 증가는 글쓰기 행위가 ‘소개’ 또는 ‘설명’과 같은 행위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하는 학생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설명하기’라는 추상적 장르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별적 과정이 감소하는 양상은, 다음 초등 집단의 글인 ㉮와 같이 설명의 대상을 식별적 과정의 ‘-이다’로 도입하고 이에 대한 묘사 부분이 길어지는 유형의 양상이 중등 집단에서는 ‘설명하다’ 등의 과정 유형이 사용되는 등의 양상으로 인해 변화하는 구조와 관련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 내가 요즘 관심 있고 의미 있게 사람은 방탄소년단<u>이다</u>. 방탄 소년단은 ‘빅히트’라는 소속사에 속해 <u>있다</u>. 2013년 6월 13일에 데뷔를 <u>했고</u> 데뷔곡은 ‘No more dream’<u>이다</u>. 팬들의 이름은 ‘아미(ARMY)’<u>이고</u> 공식 응원봉은 ‘아미밤’<u>이다</u>. 그리고 방탄 멤버들이 만든 캐릭터 이름은 ‘BT21’이라는 이름<u>이다</u>.
> 방탄소년단은 가사의 의미와 팬들과의 소통 등로 점점 인기가 <u>많아졌다</u>. ……
> [설명-초등A-37]

> ㉯ 게임이란 사람이 재미를 느끼게 하는 행동이나 놀이로 흔히 오락이라고 <u>불린다</u>. 게임에는 여러 종류가 <u>있는데</u> 이 중에서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u>설명할 것이다</u>. 우선 최초의 비디오 게임은 무엇<u>일까</u>? 바로 1960년대 소련 컴퓨터로 만들어진 스페이스가 최초의 비디오 게임<u>이지만</u> 그렇게 인기를 <u>끌진 못했다</u>.
> 그렇게 1972년 아타리에서는 퐁이라는 테니스 형식의 게임이 <u>출시하게 되는데</u> 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를 <u>끌게 되고</u> 한순간에 마타리를 세계적인 기업이 <u>된다</u>. ……
> [설명-중등A-4]

Knapp & Watkins(2005/주세형.김은성.남가영 역, 2007:123-133)에서는 설명하기의 구조를 ‘묘사-설명적 연쇄-(평가/해석)’으로 보고 있는데 초등 집단에서는 ‘무엇이’에 대한 답이 되는 단순 나열적 묘사에 글의 구조가 치중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중등 집단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해소되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현재로서는 식별적 과정의 토큰 빈도의 감소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기 위하여서는 설명하기의 구조에 대한 분석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설명하는 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과정 유형 중 ‘발화적 과정’과 ‘속성적 과정’의 토큰 빈도, 타입 빈도, 어휘 다양도, 핵심어를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1)12)]

11) 식별적 과정은 대부분 ‘이다’라는 단일 유형이 대다수의 토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어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아래의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12) 이전에 상술한 ‘인지적 과정’에 대해서는 기술에서 제외하였다. ‘지각적 과정’은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보이다, 듣다’ 등의 일반적인 지각 경험과 관련된 동사 중심이었기에 기술에서 제외하였다.

[표 13] 학교급별 과정 유형 빈도 및 핵심어 비교(설명)

과정 유형	초등학생				중학생			
	토큰	타입	TTR	Keyword(LL)[13]	토큰	타입	TTR	Keyword(LL)
발화적	22	7	0.318	소개하다[01](+7.53)* 반박하다[01](+2.64) 얘기하다(+2.64) …	59	8	0.136	설명하다(+4.10) …
속성적	198	39	0.197	이다[03](+7.47) 갖다(+7.04) 멋있다(+7.04) 안녕하다(+7.04) …	439	84	0.191	잘하다(+9.80) 다르다(+5.25) 다양하다(+3.74) …

$p < 0.05^{*}$, $p < 0.01^{**}$, $p < 0.001^{***}$, $p < 0.0001^{****}$

초등학생이 작성한 설명하는 글에서 발화적 과정의 핵심어는 ‘소개하다01(10회), 반박하다01(1회), 얘기하다(1회)’ 등이다. 이 중 ‘소개하다01’은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초등학생의 글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이 작성한 글에서는 ‘설명하다(21회)’ 등의 발화적 과정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 ‘소개하다’와 ‘설명하다’는 다음 [가][나]와 같이 설명하는 글의 도입부에서 설명의 대상에 대하여 발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가] 나는 오늘 파우치를 <u>소개할 것이다</u>. 파우치는 핸드크림, 립밤, 머리끈, 거울 등등 자신에 중요한 물건이나 화장품을 넣고 다닐 때 주로 쓰이고 있다. 파우치는 여러 종류가 있다. 정리하기 쉽게 칸이 나뉘어져 있는 파우치, 천으로 된 파우치, 내용물이 보이는 파우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파우치 등등 여러 책, 여러 종류가 있다. 크기도 작은 크기, 큰 크기, 중간 크기로 여러 가지 크기가 있다.
>
> 에코백, 책가방 같은 가방에도 잘 들어가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다. 파우치를 중요한 물건, 화장품 등을 넣고 다니지 않고 학용품을 넣고 다니는 필통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파우치는 남자, 여자 누구나 사용하고 편리하게 사용해서 생일 선물로 주는 친구들이 많다. 학교에도 파우치를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고 필통으로 쓰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
> 이처럼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파우치는 정말 대단한 거 같다!!
>
> [설명-초등A-23]

> [나] 오늘은 피아노에 대해서 <u>설명하겠습니다</u>. 간단하게 피아노를 만드는 주재료 및 형태와 그 종류로 나눠 설명합니다.
>
> 우선 피아노는 나무가 주재료로 이루어진 악기입니다. 피아노의 전체적인 외형과 건반이 주로 나무이며, 페달은 금속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주로 나무로 만들어지는 건 그랜드 피아노이며, 전자 피아노는 플라스틱 등 가볍고 싼

13) AntConc에서 Keyword List는 빈도가 아닌 핵심도(keyness)를 기준으로 핵심어를 추출한다. 핵심도가 높을수록 분석 대상이 되는 코퍼스의 특성을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표에서 괄호 안에 표시한 숫자가 산출된 핵심도이다. 핵심도 산출 과정과 통계식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남길임·이수진(2012: 101) 참고.

재료들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요즘 작곡가들은 그랜드 피아노보다는 전자피아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또한 전자 피아노는 음색이 다양해 폭 넓은 음악을 더욱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랜드 피아노와 전자 피아노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그랜드 피아노의 장점은 소리가 더 깊고 풍부하며, 연습할 때 손힘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음색이 한 가지이며, 매우 무겁고 비쌉니다. 또한 망가졌을 때 전문가를 불러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자 피아노의 장점은 음색이 다양하고 건반이 가볍습니다. 단, 건반의 무게는 회사의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값이 그랜드 피아노에 비해 매우 싸며 소리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건반을 눌렀을 때 소리의 울림이 적으며, 고장이 났을 때 고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아노의 재료 및 형태와 종류를 알아보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차이점을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중등B-17]

초등학생이 작성한 설명하는 글에서 속성적 과정의 핵심어는 '이다03(107회), 갖다(3회), 멋있다(3회), 안녕하다(3회)'이며, 중학생이 작성한 글의 경우 '잘하다(13회), 다르다(7회), 다양하다(5회)' 등의 과정이 핵심어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와 중학교 2학년 학습자의 글에서 속성적 과정은 (2ㄱㄴ)과 같이 설명하는 대상의 속성에 대하여 표상하는 기능을 한다.

(3) 설명하는 글에서 속성적 과정 유형의 사용
ㄱ. 야구는 두팀이 대결하는 스포츠이다. [초5 - 설명 - 속성]
ㄴ. 화재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소화기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중2 - 설명 - 속성]

2. 주장하는 글

주장하는 글에서 학교급별로 과정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행동적 과정, 인지적 과정, 지각적 과정, 감정적 과정, 속성적 과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작용적 과정, 발화적 과정, 식별적 과정, 존재적 과정'의 4가지 유형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 집단에서는 과정 유형의 빈도가 '행동적>작용적>속성적>존재적>인지적>식별적>감정적>발화적>지각적' 순서로 중등 집단에서는 '행동적>속성적>작용적>인지적>존재적>지각적>감정적>식별적>발화적'로 나타났다.

[표 14] 학교급에 따른 과정 유형 평균 비교 결과(주장)

구분	과정 유형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p*
주장	행동적	초	36	2.31	1.02	-2.355*	0.021
		중	44	2.85	1.03		
	작용적	초	36	1.43	0.84	-1.030	0.306
		중	44	1.66	1.09		
	발화적	초	36	0.33	0.59	-0.316	0.753
		중	44	0.38	0.68		
	인지적	초	36	0.76	0.66	-2.395*	0.019
		중	44	1.17	0.82		
	지각적	초	36	0.22	0.42	-2.387*	0.020
		중	44	0.53	0.71		
	감정적	초	36	0.44	0.63	-3.251**	0.002
		중	44	0.94	0.73		
	속성적	초	36	1.37	0.71	-3.517***	<.001
		중	44	2.05	0.97		
	식별적	초	36	0.50	0.68	-0.042	0.966
		중	44	0.50	0.66		
	존재적	초	36	0.82	0.71	-1.251	0.215
		중	44	1.04	0.80		

p < 0.05*, p < 0.01**, p < 0.001***

행동적 과정은 조사 대상 '설명/주장/정서'의 세 장르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 집단에서 중등 집단으로 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 집단과 중등 집단 모두에서 '복도에서 뛰어 다니면 안 된다', '학교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 등 행동적 과정과 관련된 현상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다. 글쓰기 분량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로 작성된 글에서 초등보다 중등 집단에서 글의 양이 증가하며 행위에 대한 기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 요즘 4학년 친구들이 복도에서 많이 <u>뛰고 있다</u>. 그래서 요즘 많이 사고가 날 뻔했다. 그러므로 나는 복도에서 뛰지 않으면 좋겠다. 근거는 복도에서 뛰면 모퉁이에서 나오는 친구와 <u>부딪힐 수 있다</u>. 속도가 빠르면 주위를 잘 살필 수 없고 그러면 반에서 나오는 친구와 부딪힐 확률이 높고 부딪히면 크게 <u>다칠 수 있다</u>. 이와 같은 이유로 난 복도에서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
> [주장-초등A-7]

> ㉯ 요즈음 아파트 주민들과의 다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층간소음, 흡연, 음식물 쓰레기 악취, 소음 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이웃 간의 배려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문제들 중에서도 흡연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
> 첫 번째, 실내흡연을 <u>하지 맙시다</u>. 많은 흡연자들이 화장실, 베란다, 혹은 땅에서 담배를 <u>피는데</u> 그러면 다른 층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u>줄 수 있습니다</u>.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담배 냄새가 <u>내려오기도 하고</u> 베란다에서 피면 다른 층에서 창문을 열 수 없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저는 1층에 사는데 위층에서 자꾸

화장실에서 흡연을 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흡연은 자제하고 밖에서 흡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걸어다니면서 또는 놀이터에서 흡연을 하지 맙시다. 걸어다니면서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데 담배냄새가 나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도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든지 없든지 놀이터는 흡연 장소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있으면 더더욱 안되는 것이고 없더라도 시설에 담배연기, 냄새가 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놀이터에서는 흡연을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담배꽁초를 제대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땅바닥을 조금만 둘러보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태도 좋지 않고 치우는 분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담배꽁초를 제대로 버려야 합니다.

[주장-중등A-20]

㉮의 초등학생의 주장하는 글에서는 '복도에서 뛰지 맙시다'라는 견해를 전개하며 '뛰다', '부딪히다', '다치다' 등의 행동적 과정을 사용하여 사태를 기술하였다. ㉯의 중학생의 주장하는 글에서는 '아파트 내의 유해행위를 하지 맙시다'라는 견해를 전개하며 '(흡연을) 하다', '피다', '내려오다', '버리다' 등의 행동적 과정을 사용하여 사태를 기술하였다.

주장하는 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과정 유형의 토큰 빈도, 타입 빈도, 어휘 다양도, 핵심어를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4]

[표 15] 학교급별 과정 유형 빈도 및 핵심어 비교(주장)

과정 유형	초등학생				중학생			
	토큰	타입	TTR	Keyword(LL)	토큰	타입	TTR	Keyword(LL)
행동적	229	99	0.432	뛰다^{02}(+40.83)**** 앉다(+16.45)** 끄다^{01}(+10.24) 놀다^{01}+(+10.24) 공부하다(+8.18) 떼다^{01}(+8.18) 피우다(+8.18) …	404	166	0.411	입다(+6.33) 닫다^{01}(+5.42) 마시다(+5.42) 없애다(+5.42) 주다(+5.42) …
지각적	8	3	0.375	경청하다^{01}(+3.42) 보다(+3.06) …	34	9	0.265	춥다(+3.80) 아프다(+1.32) …
감정적	21	7	0.333	싫다(+5.65) 지치다^{01}(+2.78) 짜증나다(+2.78) 불편하다^{01}(+2.36) …	62	20	0.323	무섭다(+1.79) 바라다(+1.79) 느끼다^{02}(+1.18) 아프다(+1.18) …
속성적	85	31	0.365	되다^{01}(+10.45)* …	226	56	0.248	이다^{03}(+9.24) …

$p < 0.05^{*}$, $p < 0.01^{**}$, $p < 0.001^{***}$, $p < 0.0001^{****}$

14) 위에서 기술한 인지적 과정은 제외하였다.

초등학생이 작성한 주장하는 글 중 행동적 과정의 핵심어는 '뛰다02(23회), 앉다(8회), 끄다01(15회), 놀다01(5회), 공부하다(4회), 떼다01(4회), 피우다(4회)' 등이다. 특히 '뛰다02'와 '앉다'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초등학생의 글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작성한 주장하는 글에서는 '입다(7회), 닫다01(6회), 마시다(6회), 없애다(6회), 주다(6회)' 등의 행동적 과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각적 과정의 경우 초등학생은 '경청하다01(1회), 보다(6회)' 등이 핵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춥다(8회), 아프다(3회)' 등이 핵심도가 높게 나왔다. 초등학생이 작성한 주장하는 글에서 감정적 과정의 핵심어는 '싫다(2회), 지치다01(1회), 짜증나다(1회), 불편하다01(2회)'이며, 중학생이 작성한 글의 경우 '무섭다(3회), 바라다(3회), 느끼다02(2회), 아프다(2회)' 등의 과정이 핵심어로 나타났다. 주장하는 글에 나타난 속성적 과정 중에서 초등학생이 두드러지게 사용한 과정은 '되다01(22회)'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이다03(72회)'를 두드러지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 정서를 표현하는 글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서 학교급별로 과정 유형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작용적 과정, 인지적 과정, 감정적 과정'의 3가지 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행동적 과정, 발화적 과정, 지각적 과정, 속성적 과정, 식별적 과정, 존재적 과정'의 6가지 유형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등 집단에서는 과정 유형의 빈도가 '행동적>속성적>작용적>감정적>존재적>발화적>인지적=지각적>식별적' 순서로 중등 집단에서는 '행동적>감정적>속성적>작용적>인지적>존재적>지각적>발화적>식별적'으로 나타났다.

[표 16] 학교급에 따른 과정 유형 평균 비교 결과(정서)

구분	과정 유형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p*
정서	행동적	초	42	3.52	1.41	-0.099	0.921
		중	40	3.55	1.38		
	작용적	초	42	1.24	0.96	-2.215*	0.030
		중	40	1.68	0.82		
	발화적	초	42	0.57	0.74	-0.025	0.980
		중	40	0.57	0.80		
	인지적	초	42	0.55	0.68	-3.919***	<.001
		중	40	1.23	0.87		
	지각적	초	42	0.55	0.69	-1.533	0.129
		중	40	0.78	0.71		
	감정적	초	42	1.18	0.80	-4.118***	<.001
		중	40	1.98	0.96		
	속성적	초	42	1.88	0.82	0.676	0.501
		중	40	1.76	0.87		
	식별적	초	42	0.54	0.68	1.581	0.118
		중	40	0.32	0.55		
	존재적	초	42	0.58	0.68	-1.330	0.187
		중	40	0.79	0.74		

p < 0.05*, p < 0.01**, p < 0.001***

작용적 과정은 조사 대상 '설명/주장/정서'의 세 장르 중에서 유일하게 초등 집단에서 중등 집단으로 가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초등 집단은 다음 ㉮와 같이 주로 본인의 행동이 정서를 기술하는 대상이 되는 경험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다면, 중등 집단은 여기에 더해 ㉯와 같이 '시험 성적의 변화'라는 '대상의 작용'에 대한 경험까지 확장되고 있다.

㉮ 나는 저번주 토요일에 홍대를 갔다왔다. 가는 도중에 길을 잃어서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었다. 홍대에 도착을 해서 먼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인형도 구경하고 먹을 것도 구경했다. 돌아다니다가 할 게 없어서 인행 파는 데로 가서 인형을 2개 샀다. 그 다음 카페에 가서 초코우유를 마셨는데 너무 달아서 별로였다. 그래도 그나마 맛나게 먹고 편의점에 들러서 매운거를 먹었다. 좀 더 돌아다니다가 잠옷도 1개 구입했다. 그러다가 발이 너무 아파서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웠다. 그래도 참고 집에 잘 도착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정서-초등B-24]

㉯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에 기말고시 시험을 봤다. 월요일에 국어 과학 역사 시험을 봤다. 이번에 시험보는 과목들 중에 공부를 많이 했던 과목들이여서 떨렸다. 시험을 보는데 과학이랑 역사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서 공부했던게 생각이 안났다. 시험을 다 끝내고 점심시간에 채점을 한번 해봤는데 역사랑 과학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다. 1학기때보다 더 낮게 나오고 공부 한 것에 비해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많이 아쉬웠다. 그래도 국어는 1학기 때보다 더 잘 나와서 기분이 좋

았다. 화요일에는 영어, 수학 시험을 보는 날이었다. 영어, 수학은 내가 자신이 없어서 많이 떨리지는 않았다. 영어랑 수학은 그냥 배웠던 것들만 풀었다. 그래서 점수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 날도 시험 끝나고 채점을 했었다. 채점을 했는데 영어 점수가 잘 나왔다. 영어는 공부도 많이 안하고 못 푼 문제도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좋았다. 그리고 수학은 점수가 낮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만족했다. 공부를 많이 한 것 치고는 점수가 잘 안 나온 과목이 있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잘 나온 과목이 있어서 만족했다. 다음 시험 볼 때는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시험 성적을 올리고 싶다.

[정서-중등A-9]

㉮의 글에서는 홍대에 다녀온 행동적 경험을 기술하며 '구경하다', '사다', '마시다' 등의 행동적 과정을 사용하였고 ㉯의 글에서는 시험 성적이 나온 작용적 경험을 기술하며 '나오다'라는 작용적 과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과정 유형의 토큰 빈도, 타입 빈도, 어휘 다양도, 핵심어를 학교급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학교급별 과정 유형 빈도 및 핵심어 비교(정서)

과정 유형	초등학생				중학생			
	토큰	타입	TTR	Keyword(LL)	토큰	타입	TTR	Keyword(LL)
작용적	102	51	0.500	시작하다01(+8.74) 들다01(+3.64) …	139	53	0.381	오르다(+14.85)** 나오다(+10.03) 떨어지다(+5.58) …
감정적	85	40	0.471	재미있다(+13.15)* …	193	78	0.404	귀찮다(+6.70) 떨리다01(+5.94) …

$p < 0.05^{*}$, $p < 0.01^{**}$, $p < 0.001^{***}$, $p < 0.0001^{****}$

초등학생이 작성한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서는 '시작하다01(5회), 들다01(6회)' 등의 작용적 과정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었다. 반면 중학생은 '오르다(13회), 나오다(17회), 떨어지다(5회)' 등을 두드러지게 사용하였다. 특히 '오르다'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 과정의 경우 초등학생은 '재미있다(16회)'의 핵심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은 '귀찮다(9회), 떨리다01(8회)' 등의 과정이 핵심어로 드러났다.

(4)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서 감정적 과정 유형의 사용
ㄱ. 탁구가 더 재미있었다. [초5 - 정서 - 감정]
ㄴ. 둘째날, 셋째날에는 시험보는 게 너무 귀찮고 [중2 - 정서 - 감정]
ㄷ. 수학마저 망칠까봐 너무 떨렸다. [중2 - 정서 - 감정]

(4ㄱ)은 초등학생의 글에서 나타난 '탁구'라는 행위 경험에 대한 '재미있다'라는 감정적 과정

이다. (4ㄴ)은 시험이라는 사건과 관련된 '귀찮다'라는 감정적 과정이다. (4ㄷ)은 수학 시험이라는 사건과 관련된 '떨리다'라는 감정적 과정이다. 정서를 표현하는 글에서는 과정 유형의 빈도순에 있어서도 중학교 학습자의 글에서 '행동적 과정'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차지할 만큼 정서를 표상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 과정에 대한 비중이 높다.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의 발달에서 특정 경험에 대하여 기술할 때 감정적 과정의 토큰 빈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Ⅴ. 결론

본고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의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분석하여 경험적 대기능의 실현 양상을 과정 유형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오경아.남경완.김수진(2014)의 학령 전기 아동의 과정 유형 발달, 주세형.정혜현.노하늘(2020)의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에서의 과정 유형 발달에 있어 '초등학교'와 '중학교'라는 학교급 간 과정 유형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이러한 연구에 후속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급 간의 과정 유형 발달 연구를 통하여 학령기 초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학령기 이후의 언어 발달의 전체적 양상이 포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의 비교에 있어서도 조사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여 결과의 일반화를 확인하는 일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언어 발달 연구를 통하여 실제 학습자가 경험을 표상하는 언어에 대하여 이론화한다면, 이를 교육 내용화 하는 작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강충열(1999), 「초등학교 1-6 학년 아동의 기초 어휘 이해 발달 상황」, 『한국심리학회지』 12(2), 1-10쪽.
김민정.김정미(2011), 「설명담화와 경험담화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명사발달 특성」. 『언어치료연구』 20(4), 1-21쪽.
김자성.김정미(2011), 「설명과 경험이야기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구문발달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6(4), 540-558쪽.
김정미(2011), 「학령기 아동의 담화쓰기에 나타난 명사 발달」, 『특수교육』 10(1), 329-341쪽.
김정미(2015), 「학령기 일반아동의 설명담화 쓰기자료에 나타난 문어적 특성」, 『언어치료연구』 24(3), 29-38쪽.
김화수.민은진.장희정(2016), 「학령기 아동의 쓰기에 대한 국내외 문헌 고찰」, 『언어치료연구』 25(2), 1-20쪽.
남길임·이수진(2012), 「핵심어 분석의 절차와 쟁점: 국어국문학 분야 학술논문 핵심어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2, 한국텍스트언어학회, 89-121쪽.
민은진.김화수(2016), 「학령기 아동의 일기문에 나타난 용언의 의미범주 발달」, 『언어치료연구』 25(3), 27-41쪽.
박종훈(2007), 『설명 화법의 언어 형식화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배희숙(2021), 『(2판) 언어 발달』, 학지사.
소지영(2020), 『학문 문식성 신장을 위한 기능적 메타언어 관점의 문법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지영.성경희.주세형(2018), 「중학교급 학습자 서술형 답안의 언어적 특성 연구-사회과 학업성취도평가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61, 159-187쪽.
신범숙(2018), 『한국어(KSL) 학습자의 학업 문식성 향상을 위한 교과 언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신문자.이희란(2017), 「한 초등학생의 1-4 학년 일기 쓰기에 나타난 문해적 어휘 발달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 627-644쪽.
신희성(2019),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에 대한 문법교육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안은주.김정미(2010), 「초등학교 2, 4, 6 학년 아동의 설명담화 쓰기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15(3), 321-336쪽.
이관규(2018), 「체계기능언어학의 특성과 텍스트 평가」, 『문법교육』 34, 195-222쪽.
이관규·신희성(2020), 「체계기능 언어학적 텍스트 분석을 위한 동성 체계 기초 연구: 과정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87, 91-130쪽.
이관규.김서경.노하늘.성수진.신희성.유상미.이현주.정려란.정지현.정혜현(2021), 『체계기능언어학개관』. 사회평론아카데미.
이관규·정혜현·노하늘·신희성(2021), 「경험적 대기능의 장르별 실현 양상 비교 연구: 초등학교 5학년 학습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6(1), 185-229쪽.
이인섭(1986), 『아동의 언어 발달』, 개문사.
이필영.김정선(2008), 「초등학생의 표현 어휘 능력 연구」, 『청람어문교육』 38, 219-237쪽.
전유경.김화수(2016), 「내러티브 쓰기에 나타난 청소년의 어휘 산출과 구문 복잡성. 언어치료연구」 25(1), 111-121쪽.

정완호.김영신.권용주(1998), 「중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발달에 미치는 신경심리학적 요인의 분석」,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8(1), 106-125쪽.
정지현(2021), 『내용교과 담화 읽기에서의 학습자 언어 인식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제민경(2015), 『장르 문법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Banks, D. (2019). A systemic functional grammar of English: A simple introduction. Routledge.
Butt, D., Fahey, R., Feez, S., Spinks, S., & Yallop, C. (2012). Using functional grammar: An explorer's guide(3rd). Palgrave Macmilan.
Chall, J. S. (1996). Stages of reading development. Fort Worth: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Eggins, S. (2004).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A&c Black.
Halliday, M. A. (1977). Some thoughts on language in the middle school years. English in Australia, (42), 3-16.
Halliday, M. A. K., Matthiessen, C. M., Halliday, M., & Matthiessen, C. (201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Owens Jr, R. E. (2016). Language Development: An Introduction| Edition: 9. Instructor.
Thompson, G. (2013).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Routledge.

<초등학생·중학생 텍스트에서 경험적 대기능의 발달 연구>에 대한 토론문

이관희(서울교대)

일련의 공동 연구를 통해 관련 연구를 누적적으로 수행해 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수집, 자료 처리, 통계 작업, 결과에 대한 해석 등의 연구 과정 각각에서 적지 않은 품과 고민이 많으셨을 터인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분야의 문외한이면서도 우호적 독자의 입장에서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들었던 의문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실험 설계 및 연구 방법 관련
- 초5와 중2 모두에서 소재 또는 주제를 학습자가 자유 선택하는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컨대, 주장하는 글에 대해 '복도에서 뛰지 말자'는 주제가 선택된다면 당연히 '뛰다, 달리다, 다치다, 넘어지다, 부딪치다' 등의 행동적 과정의 서술어들이 고빈도로 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학습자의 글 편수가 대단히 많아지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겠지만 현재와 같은 정도에서는 이러한 영향력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t-검증의 비교 대상을 초5/중2의 글에 나타난 ○○적 과정 서술어로 삼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여쭙습니다. 두 집단의 글들은 분량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전체 출현 서술어의 수도 다를 것인데, 전체 서술어 내에서의 비중으로 비교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2. 연구 결과의 해석 관련
- 특정 유형의 서술어가 더 많이 출현한다고 해서 이를 특정한 사고 유형이 발달하는 것으로 손쉽게 치환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먹다'가 고빈도로 등장하는 글과 저빈도이지만 '취식, 섭취, 소화'가 등장하는 글을 비교한다고 할 때 현재의 기준으로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행동적 과정의 사고가 발달했다고 해석될 것인데, 이러한 해석에 쉽게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사고 혹은 언어적 발달에 관여되는 요인은 그만큼 복잡다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관련하여, 예문 중에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꼭 학교 정수기 옆에 종이컵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중2-주장-감정]' 정도가 있었고, 이를 위시하여 정서 표현의 글에서 감정적 과정의 술어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물질적 경험에서 정신적 경험으로 이행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도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치할 필요가 있다' 정도와 비교하면 인용된 예문을 두고 '좋다'가 쓰였다고 하여 이를 '정신적 경험'의 문제로 연결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 이 문제는, 보다 궁극적으로 이 발표에서처럼 서술어의 출현 빈도를 기준으로 특정 과정 유형의 발달을 따지는 일이 타당한가로 이어집니다. 그보다는 연구 설계 및 계량화의 어려움은 있더라도 '그가 불이야라고 소리쳤다.'라는 발화적 과정의 언어 표현만 쓰던 학습자가 '들려 온 것은 그의 불이야라는 소리였다.' 정도의 식별적 과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정도의 방향성이 요구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과정 유형의 서술어를 살피는 과정에서 단순히 출현 빈도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선택항을 감안한 분석 또는 해석이 요구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체계기능언어학의 '체계적 이동'을 정합적으로 담아내는 접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3. 연구 결과의 확산 관련

-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연구 결과를 통해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의 교육 내용화를 꾀하고 계시는지를 여쭙습니다. 단편적으로, 'A 장르에서 특정 과정 서술어가 B 장르에 비해 많이 쓰이더라' 또는 'A 장르의 특정 과정 서술어가 초5보다 중2에서 통계적으로 많이 쓰이더라' 정도의 현상적 정보가 현재의 문법교육 나아가 국어교육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